

천주교 정체파악 시리즈 (3)

천주교에도 희망이 있는가?

- 거짓 천주교와 세계교회협의회(WCC)간
연합운동의 전말(顛末) -

김진원 지음

도서출판 경건

천주교 정체파악 시리즈 (3)

천주교에도 희망이 있는가?

-거짓 천주교와 세계교회협의회(WCC)간
연합운동의 전말(顛末)-

지은이 소개

김 진 원

칼빈신학교(칼빈대학 전신) 2학년 수료
한남신학교 졸업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교육원 졸업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계속교육원 수료
(전) 선거, 학암, 치상, 오류, 성수, 여울,
이백, 융합교회, 전주노회 전도목사 시무.
(현) 전주노회 공로목사

천주교에도 희망이 있는가?

지은이/ 김진원

발행일/ 2014년 7월 25일

발행처/ 도서출판 경건

발행인/ 한인수

등록/ 1995년 9월 6일 제22-912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55-5

서초월드로오피스텔 1910호

우편번호/ 137-072

전화·팩스/ 02) 3472-3952, 063)236-3020

이메일/ 77jwg33@hanmail.net

값 12,000원

ISBN 978-89-86558-69-2 03230

본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창작물이므로

무단복제와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추천사

오늘날 로마천주교의 실제적인 위협은 대단히 큰 문제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사실적인 문제 제기는 너무나 희박하고 무지한 실정이라 안타깝다.

그러나 참된 인간의 올바른 지성과 양심으로 들여다봐도 로마천주교는 인류와 사회에 결코 정당한 유익을 줄 수 없는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로마천주교가 이제는 참된 기독교회에 큰 대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한국교회가 교회연합운동의 중요한 활동으로 로마천주교와도 깊은 연합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천주교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본서는 그런 문제를 다룬 책으로 이제까지 한국에서 출간된 천주교에 대한 다양한 비판 서적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천주교라는 종교의 토대부터 그것으로부터 드러난 다양한 종교적 현상까지 본서는 명확하게 잘 정리해 놓았다.

그러므로 모든 개신교 목회자들과 신학도들과 일반 신도들은 본서를 필독하되 정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가르치는 것과 함께 거짓 종교의 실체를 잘 알고 경고하는 것도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사회는 로마천주교가 얼마나 큰 위협을 몰고 오는 종교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본서가 중요하다.

저자이신 김진원 목사님께서 오랜 수고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천주교의 뿌리부터 그 사악한 열매까지 다 드러낸 본서는 모든 이들

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이다. 이제 이 책으로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는다. 또한 종교 개혁자들의 교회개혁의 불을 크게 밝히려 여겨진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 요한 계시록 18장 10절 -

선민개혁장로교회,
밴드 오브 퓨리탄스 대표
오인용 목사

목 차

추천사	4
서언	8

제 7 장 천주교를 왜 마귀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라 하는가? 16

1. 천주교라는 무대 연극의 배역을 떠난 신부 18 / 2. 천주교만이 정통적인 참 교회라는 거짓말 19 / 3. 천주교를 왜 거짓(가짜)교회라 하는가? 29 / 4. 왜 천주교를 위조와 위장교회라고 하는가? 69 / 5. 천주교가 기만종교라는 양심적인 지적 97 / 6. 교황은 거짓선지자인가 적그리스도인가 거짓그리스도인가? 108 / 7. 천주교가 혼합종교라는 말이 사실인가?(종교다원주의의 주도자) 132 / 8. 천주교의 불변절(不變節)설과 불멸설은 믿어도 될까? 150 / 9. 교황과 천주교의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 152 / 제 7 장의 결론 165

제 8 장 천주교와의 연합(일치)운동은 배도와 파멸의 길이다 166

1. 기독교(개신교)내의 연합운동 167 / 2. 천주교의 연합운동 169 / 3. 천주교와 세계교회협의회(WCC)와의 관계발전 191 / 4. 진정한 교회연합에 대한 성경의 교훈 199 / 5. 천주교가 기독교를 자매교회라고 한 것에 대한 해명 205 / 6. 천주교와 기독교 세계교회협의(WCC) 신앙직제위원회와의 호의적이고 긴밀한 연합운동 207 / 7. 천주교가 WCC신앙직제위원회의 리마문서(세례, 성만찬, 직무)를 높이 호평하는 이유들 211 / 8. 천주교 일치운동의 최종 목적과 성만찬의 중요성 237 / 9. 한국천주교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협력과 교황 방한242 / 10. 천주교와 기독교 연합운동의 발전현황 253 / 11. 천주교와의 일치(연합)운동은 배도(背敎)의 길이다. 275 / 12.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반대한 미사제사(천주교의 성찬식)를 받아들이는 것은 종교개혁을 다시 무산(霧散)시키는 배도행위이다. 292 / 13. 천주교와의 일치운동은 멸망의 길이다. 312

나가는 말

323

존 밀턴의 애도 시

331

서 언

필자는 원래 천주교에 대하여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일생을 독신으로 온전히 헌신하여 봉사하는 신부들과 수도사들과 수녀들에 대해서는 같은 인간으로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아 왔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들의 정숙하고 단정한 모습과 천주교의 단일체제로서의 일사불란함과 엄숙한 미사광경 등은 인간적인 감동을 주었다.

그런데 우연히 천주교의 역사와 교리를 연구하면서 이러한 천주교에 대한 아름다운 인상과 호감이 불행하게도 깨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산산 조각이 나고 말았다. 진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필자는 고의로 천주교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 우연히 천주교에 대한 책 몇 권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천주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별 관심 없이 지내 왔지만 이제는 모르는 척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천주교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연구하기 시작 하였다. 몇 년 동안 느리게 연구하며 글을 쓰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천주교에 대하여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비 성경적인 어처구니없는 교리들과 역사적인 탈선들과 비기독교적인 의식과 행태들을 볼 때에 도저히 잠잠할 수가 없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눅 19: 40)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의 돌이 되어 소리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골

리앗 앞에 물맷돌을 던진 심정으로(삼상 17: 41-54) 펜을 들어 보았다.

필자는 감히 이런 글을 쓰면서 통탄(痛歎)과 애석(哀惜)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만약 천주교의 중요한 교리가 성서와 일치하고 지엽적인 문제들만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기쁘게 연합해서 힘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고 서로 협력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천주교는 매우 안타깝게도 16세기의 종교개혁 시에라도 신앙 양심이 조금만 살아있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켰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종교 개혁의 와중에서 개최한 트렌트 공의회는 정통 기독교와 완전히 담을 쌓고 다시 건널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고 말았다. 기독교를 완전히 변종시키고 기독교와 결별하고 말았다.

도리어 그들은 끝내 추호도 회개가 없었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개혁자들과 그들과 합세하는 양심적인 무수한 신앙인들을 온갖 방법으로 탄압하고 무참하게 살육하는 것을 즐겨 자행(恣行)하였다. 그리고 5백여 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그들의 그릇된 교리들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추가 되었고 악화되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며 일반 사제들이나 수사나 수녀들과 평신도들은 오히려 피해자요 억울한 희생양들이니 더욱 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따름이다. 그러므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가련한 희생양들을 교권을 쥔 잘못된 지배자들의 손에서 해방(구원)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드린다.

그러나 천주교가 기독교에서 완전히 전락 하였으면서도 정통 기독교 행세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천주교만이 참 기독교이고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혹 세무민(惑世誣民)하고 있으니 늦었지만 돌들이라도 소리쳐서 그 거짓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에서 완전히 변종된 천주교에 대하여 양심 있는 다소의 비판서들이 나왔으나 좀 더 자세한 글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부득이 주님만 의지하여 붓을 들어 보았다. 못다한 복음사명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미력을 기울여 본 것이다.

본서에서는 먼저 천주교의 거짓된 정체를 가능한대로 들춰내어서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았다. 부디 독자 여러분이 천주교의 허황한 정체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바란다. 그리하여 그 허상에 속지 않고 그 참 정체를 세상에 알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천주교에 대해 굳이 비판할 필요가 있는가?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본서를 쓰면서 필자에게 말씀하신 몇 분의 충언은 본인이 애당초부터 생각했던 바와 같이 매우 뼈아픈 것이었다. 현재 한국 기독교회만 보더라도 그 타락의 도가 실로 심각한데 어떻게 천주교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내 코도 석자인데 어떻게 남 간섭을 하겠느냐는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깊이 동감하면서도 천주교가 역사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정통 기독교에서 완전히 이탈 하였으면서도 태연하게 자기들만이 정통 기독교이며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

다는 기만 때문에 도저히 침묵 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필을 들게 되었다. 무엇보다 통탄할 일은 천주교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한 해아릴 수 없는 살상행위들과 이단 척결의 미명으로 어느 종교나 어느 집단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공산당 다음가는) 살육을 자행했다는 엄연한 기록들을 보면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면서도 일치운동이니 에큐메니칼 운동이니 하면서 정통적이고 복음적인 기독교를 통째로 삼켜서 제2의 암흑세계(중세)를 만들려는 저들의 간계(奸計)를 볼 때에 더욱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본서의 기록목적

본서는 천주교의 교리들을 일일이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릇된 중요 교리들의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측면에서 폭로하여 알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혀드린다.

천주교의 교리들과 의식들의 정체는 허상(虛像)이다. 신기루와 같은 허상들을 걷어내고 남는 정체는 거짓(기만)과 무(無)뿐이다. 이러한 헛된 사상누각과 공중누각을 믿고 추종하는 교도들의 실망과 불행은 어떻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천주교의 정체가 거짓(가짜)교회라는 말은 천주교의 대명사와 같이 보인다.

본서는 1장에서 8장까지에서 거짓 교회로서의 천주교의 거짓된 여러 가지 정체의 측면들을 기술하였다.

<시리즈 ❶>에서는 제1장 거짓 연옥, 제2장 거짓 성 화상(우상), 제3장 거짓 성찬(미사), 제4장 거짓 구원, 그리고 <부록>으로 마리아의 충

격적인 종말 사계시(마리아와 프리메이슨의 최후 결전)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시리즈 ②>에서는 제5장에서 성령을 떠난 천주교의 다른 영의 역사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피고, 제6장에서도 거짓 마리아에 대하여 좀 더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시리즈 ③>에서는 제7장에서 거짓교회인 천주교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살펴보았고, 제8장에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연합운동 문제를 좀 더 철저하게 추적하여 보았다. 이것도 거짓 연합(야합)운동이다. 이상과 같은 천주교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좀 더 직선적이며 간략하게 다루어 보았다. 그리고 거짓교회의 불행한 종말에 대해서도 예측하여 보았다. 원래 한권으로 썼는데 예상외로 분량이 많아져서 부득이 세 권으로 출판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오늘날은 세계적으로 천주교만이 정통 기독교 인양 미화되고 선전되는 경향이 날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국만 보아도 사회의 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이 정통 기독교 사냥에 총동원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6세기와 같이 21세기에도 천주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기독교의 사활(死活)이 달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21세기에도 여전히 천주교를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수십 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줄 안다. 그러나 정면으로 천주교의 완곡(婉曲)하고 위장된 교리들을 일일이 들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들의 크게 잘못된 교리들을 측면에서 핵심을 꼬집어 내어서

실제적으로 간략하게 밝히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본서에서는 먼저 천주교의 정체가 정통 기독교가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양한 측면의 실제적인 문제를 들어가면서 폭로하여 알리려고 하였다. 그리고 일찍이 거의 시도된 적이 없는 천주교의 불행한 최후에 대해서 가능한대로 기술하여 보았다. 이 사실은 성경의 예언과 천주교 내부의 예언들과 현재 천주교내외의 국제정치 상황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기독교 내부의 탈선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분들의 질책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본인은 우선 시급한 이 외부의 공격에 대하여 방어하지 않을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필을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도를 삼가 부탁드립니다.

본서가 빛을 보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다.

먼저 이 적은 글이 나오기까지 제일 부족한 종중의 종을 일평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아버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이 글은 결코 성취될 수 없었다고 진실로 고백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곁에서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살펴주신 전주노회와 전북노회의 모든 선후배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리며, 주사랑 목양회의 목사님 내외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많은 지도와 조언과 격려와 도움을 주신 한인수 교수님, 유태주 교수님, 그리고 송화섭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원고의 타이핑과 교정을 위하여 분주한 시간을 쪼개어 많이 수고해 주신

우리교회의 여러 자매들과 형제에게 심심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말없이 일생을 희생해준 아내와 물심으로 협력해 준 사랑하는 딸 아들과 사위 며느리 손자들에게 진정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무엇보다 졸고의 출판을 흔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모로 수고하여 주신 <도서출판 경건>의 한인수 목사님과 직원에게 더욱 큰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주후 2014년 7월

김 진 원 목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8)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
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
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벧전 1:24-25)



세상은 참으로 위험한 곳이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방관하는 자들 때문에 더욱 위험한 곳이다.
- 아인 슈타인 -

선한 사람들이 침묵을 지킬 때 악은 만연한다.
- 매튜 헨리 -

제 7 장

천주교를 왜 마귀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라 하는가?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된 가짜교회인 천주교:
천주교가 가짜교회임을 보여주는 이야기들)

영국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존스는 천주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선 ‘하나의 체제’란 관점에서 살펴볼 때, 본인으로서로는 로마 가톨릭주의로 알려진 이 체제가 말로, ‘마귀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단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체제는 크리스천의 믿음과 성경의 가르침에서 심하게 이탈(離脫)된 종교단체이므로, 본인은 주저없이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과 더불어, 이 체제를 ‘배교집단(背敎集團)’이라 단언하는 바입니다.1)

로이드 존스는 영국 일류 의사출신으로 소명을 받고 설교자가 되어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30년간 목회한 존경받는 목회자였고 깊이 있는 조직 신학자였으며 학생운동가요 부흥의 역사와 청교도 역사의 대가인 영적 거인이었다. 그는 많은 책을 썼지만 천주교에 대한 것은 쓰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의 긴 설교에서 천주교에 대하여 아주 압축하여서 철저하고 바르게 잘 비판하며 경고하고 있다. 20세기 인류의 지성인인 로이드 존스가 왜 천주교를 ‘마귀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주저 없이 단언 했을까? 그의 설교를 읽어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서를 읽어보아도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최근 천주교는 한국의 모든 지상과 TV와 드라마, 심지어 영화에서 까지 거의 유일한 기독교인 것처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통 기독교는 성탄절에 겨우 코빼기나 보이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아예 저질의 몸쓸 사이비 기독교와 같은 악역이나 간간히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광경을 보면 천주교가 국교나 된 것처럼 현재 한국

1) 마틴 로이드 존스, 『로마 카톨릭 사상 평가』, 편집실 옮김, (강원도 : 안티 오크, 2000, 6쇄 발행), p. 17.

의 지상과 방종국들을 독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아직까진 그래도 기독교가 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그것도 상당히 민주화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는 한국 언론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이러한 현상(現象)은 아무리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비신사적이며 비열(卑劣)한 행동이라고 그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흑암천지의 중세기에서나 볼 수 있는 비겁한 조작극 같아서 그저 씁쓸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중세 천주교 위조시대의 전통이 21세기 최첨단과학과 선진 민주주의 시대의 한국에 “매체선교”라는 미명하에 재현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疑懼)심이 들 정도이다. 물론 이러한 비신사적인 행동들은 누구에게나 다 뻔히 속이 들여다보이는 잘못된 행동이며 오히려 양식 있는 국민들의 반감을 사서 더 역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이러한 때 일수록 너무 늦은 감이 있으나 천주교라는 종교가 과연 그렇게 대단한 기독교 유일의 종파인가 하는 문제를 더욱 깊이 따져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필자는 천주교라는 마치 기독교의 주류처럼 선전되고 있는 종파에 대하여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야한다는 긴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미력이나마 필을 들여보았다.

1. 천주교라는 무대 연극의 배역을 떠난 신부

다음은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신부가 고백한 실화이다.

아일랜드 출신의 빈센트 오쇼네시 신부(1953년 사제 서품)가 어느 날 이본이라는 수녀에게 “수녀님, 제가 수행하는 사제직을 어떻게 생

각하세요?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수녀의 대답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신부님은 사제의 ‘배역(配役)’을 잘 수행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성은 나를 사제의 배역을 맡은 인물로 바라보았고 그 말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인생의 무대에서 사제의 연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나는 하루 속히 무대를 떠나고 싶었다.²⁾ 이 신부는 얼마 안가서 천주교의 무대에서 내려왔다. 죽은 종교에서 떠나 살아 있는 신앙으로 나아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2. 천주교만이 정통적인 참 교회라는 거짓말

천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를 통해서 과거에 갈라져 나간 기독교회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자매교회’니 ‘갈라져 나간 형제’니 하면서 그 동안의 모든 담을 헐고 넓은 가슴으로 다 포용하는 듯 하였다. 그러면서 일치운동이라는 표어(標語)를 내 걸고 모든 기독교회들과의 일치를 위한 대화와 기도회, 연합 모임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2007. 6. 29) 갑자기 “교회에 대한 교리의 일부 측면에 관한 몇 가지 물음에 대한 답변 해설”이라는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서³⁾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가 발표되자 그동안 천주교와의 일치운동에 앞섰던 교파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그들은 천주교가 자신들에 대하여 완전 개방하고 천주교의 유일성 등을 포기하고 진실로 사랑으로

2) 리처드 베넷 · 마틴 버킹엄,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이상길 옮김, (서울 : 아가페 출판사, 2002), pp. 366-367.

3) 장익 발행,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2007. 36호』,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 p. 227.

연합하자는 줄로 착각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 이 문서는 결코 그게 아니올시다 였다.

이 문서에 대한 반발은 예상보다 아주 작고 가볍게 끝난 것 같다. 이 문서의 주장은 밀의(3)에 간략하게 기술하겠지만 천주교가 다른 기독교회들과 일치운동을 하는 목적이 자신들의 과오들과 고집을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 문서는 자기들만이 유일한 참 교회요 기타 기독교회들은 참 교회가 아니라고 췌기를 박아서 연합운동의 주도권을 잡고 이 운동에서 기선(機先)을 잡으려는 분명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천주교만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참 교회라는 주장

천주교는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교회만이 사도의 계승을 받아 이어온 정통적인 유일한 교회라고 고집하고 있다. 천주교가 유일한 사도 계승의 교회라는 주장은 마 16장 16절의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이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한마디로 헬라어 원어만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너는 베드로(Petros, 즉 하나의 돌맹이)라. 내가 (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반석(Petra(바위) 곧 그리스도)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그저 말장난으로 하나의 돌맹이에 불과한 베드로(Petros)에게 이 반석(Petra)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겠는가? 결코 아니다. 내가 이 베드로(Petros)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반석(Petra)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분명하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철퇴(鐵槌)를 맞고도 그들의 외교집은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릇된 모든 수단까지 동원하여서 실세회복에 진력하기를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주교만이 유일한 참 교회라는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이며 ...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설립되고 조직된 사회로서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이 다스리고 있는 가톨릭교회 안에 존재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816항)

사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라신 교회가 실제로 가톨릭 교회 안에 계속 존재하기(substitut in) 때문에, 실체의 이러한 지속성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함축한다.⁴⁾

하나의 유일한 역사적 주체 안에 ‘존재하는’ 교회는 단 하나뿐이다.⁵⁾

천주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상과 같이 자기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가톨릭교회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며 ‘하나의 유일한 역사적 주체로서 존재하는 단 하나뿐인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천여 년 기독교의 역사를 훑어보면 그들의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특히 처음 3백년간의 초기 기독교회의 역사와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전 유럽과 나아가

4) 장익 발행,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2007. 36호』,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 p. 231.

5) 같은 책. p. 232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개혁신교회의 생동적 복음의 생명력 있는 역사를 살펴보면 이는 더욱 명확하다. 비록 개혁신교회의 과다한 교파 분립이 그들의 공격의 포인트가 되고는 있지만 생명력은 계속하여 뻗어나간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도 긍정적인 면으로 정직하게 평가하여야 할 줄 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유일한 역사적 주체로서의 단 하나의 교회라는 주장은 인위적 조직체로 경직되고 의식(儀式)화한 생명 없는 죽은 종교에 대한 헛된 자화자찬(自畫自讚)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2) 천주교 밖에도 교회의 요소가 있다는 립 서비스(lip service)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에서는 위의 주장을 약간 바꾼 듯한 문헌을 내 놓은 바 있다. 그것은 천주교 울타리 밖의 교회(동방정교회)나 교회공동체(개혁신교회)들 안에도 교회의 요소가 있고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들이 있다고 다소 긍정적으로 말을 한 것이다.

그 조직(천주교) 밖에서도 성화와 진리의 많은 요소가 발견되지만, 그 요소들은 그리스도 교회(천주교)의 고유한 선물로서 보편적 일치를 재촉하고 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현장 8항)

그러므로 이 갈라진 교회들과 공동체들이 비록 결함은 있겠지만 구원의 신비 안에서 결코 무의미 하거나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교회들과 공동체들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 하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수단의 힘이 가톨릭교회에 맡겨진 충만한 은총과 진리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일치교령 3항)

천주교는 종교개혁 이후 오랜 냉전을 중단(?)하고 돌연히 유일한 정통 천주교 이외에 동방 정교회나 개혁신교회들도 천주교와 동일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구원도 다소 있을 것 같이 서술한 파격적인 문헌들을 내 놓았다. 그러나 이는 모든 기독교회들이 천주교로 돌아와서 합쳐져야 완전해진다는 것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 현혹하는 제스처인 것을 알 수 있다.

(3) 「개혁신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철면피한 억설

한편 천주교는 2007년 6월 29일에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서 “교회에 대한 교리의 일부측면에 관한 몇 가지 물음에 대한 답변과 해설”을 내 놓았다. 이것은 그동안 천주교가 개혁신교회들을 자기들과 동일하게 대우하며 일치운동을 하고 있다고 믿고 속아온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많은 개혁신교회들은 천주교가 개혁신교회들을 동일한 형제자격으로 대등하게 보고 일치운동에 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문서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준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섯 번째 물음은 종교 개혁에서 생겨난 교회 공동체들에게 ‘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이 문서는 ‘사도 계승과 유효한 성찬 거행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들 안에는 이러한 상처가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 공의회와 공의회 이후의 가르침에서 밝힌 대로 ‘교회 공동체들’이다. …그들에게 가톨릭 교회의 근본 요소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들을 ‘교회’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란 힘들다.⁶⁾

위의 말은 개혁신교회는 천주교와 같은 사도계승이 안 되었고, 천주교와 같은 그리스도의 실체의 몸으로 변화되는 성찬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개혁신교회는 가톨릭교회의 이와 같은 근본 요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명칭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주교는 자기들만이 유일하고 참된 기독교회이고 개혁신교회는 교회라는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개혁신교회에도 교회의 요소와 성화와 진리의 요소들이 있다는 등등의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서에 기술된 것처럼 그들의 핵심주장은 변하지 않았다.

(4) 개혁신교회는 천주교로 돌아와서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되어야 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간교한 거짓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05년 4월 20일 교회에 보내는 첫 메시지에서 가톨릭 교회의 우선적 과제 중 하나인 일치대화는 가톨릭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요 10, 16)가 되게 하는 것이라⁷⁾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저들의 표현은 동방정교회나 개혁신교회는 궁극적으로 유일한 참 교회인 천주교로 돌아와야만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교

6) 같은 책. p. 234

7) 같은 책. p. 235

황의 이러한 주장은 머지않아 산산이 무너지고 말 천주교의 아성(牙城)을 고수하기 위한 몸부림이며 기독교의 흡수 통합에 자신감을 나타내는 제스처라고 생각된다.

1) 일치운동이 천주교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

이 말은 천주교만이 사도와 교황을 계승한 정통교회이며, 따라서 천주교만이 계승된 사제직을 통한 세례와 성찬과 기타 성사들의 유효한 구원의 수단을 가졌다는 등등의 근본태도를 확고히 하며 일치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역사적, 교리적으로 정통기독교에서 이탈한 천주교의 본질적 교리체계 하에서 일치운동을 해야 한다는 억지스런 주장인 것이다. 즉 천주교의 교리수용을 전제로 한 일치운동인 셈이다.

2) 일치운동의 목적은 자칭 참 교회의 교황(한 목자)과 천주교(한 목장)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란 말

이 말은 천주교만이 참 교회(목장)이며 교황만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참 목자이니 천주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참 교회가 될 수 없으며 참 목자도 없다는 것으로서 천주교에 들어와야만 완전한 교회와 교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甘言利說)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그들의 간교한 꾀임에 말려들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의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하느님의 모든 백성은 천주교에 완전히 합체(合體)되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천명(闡明)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

다. ‘구원의 보편적 수단인, 그리스도의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수단이 온갖 충만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앞장을 서는 한 사도단에 신약의 모든 보화를 맡기셨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지상에 세우시려는 것이었으며, 어느 모로든 이미 하느님 백성에 소속된 모든 이는 그 몸에 완전히 합체되어야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816항)

위와 같은 주장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다음에서 왜 그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억설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분야로 설명하려고 한다.

(5) 천주교는 결코 참 교회가 될 수 없다

천주교는 자기교회만이 참 교회라고 강변(強辯)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결코 참 교회가 될 수 없다. 그 중요한 이유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참 교회에서 떠나버린 지 너무 오래되었다.

천주교는 4세기부터 급속히 변질되기 시작하여서 계속하여 가속도(加速度)로 변질되다가 나중에는 심하게 변종(變種)되고 말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하고 교황은 그 대리자라고하며 사도들의 적통(嫡統)계승교회라고 강변(強辯)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그들의 최고의 변종은 16세기의 트렌트공의회에서 지엄(至嚴)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권위를 박탈하고 자신들(교회: 교황)이 그 위에 군림하여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적 정경인 구약정경에다 인간 문

학서인 외경들을 추가 삽입한 것이다. 또한 인간의 잡다한 전통들을 정경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의하여 공포한 것이다. 더 나아가 온갖 인위적이며 거짓된 마리아 교리들을 제정한 것과 연옥교리나 성화상(우상)교리와 칠성사교리 등등 여러 가지 잡다한 인위적이며 비성경적이며 반성경적인 교리들을 제정하여 가르친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그들은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적 정통 기독교에 근거한 성경적 교리에서 멀리 떠나 버린지 너무 오래되었다. 즉,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사도적이고 성경적인 기독교로 돌아오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정통적이며 비성경적인 교회를 강화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철저하게 위장하여 일치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정통기독교회를 다시 삼키기 위하여 총 공격전을 단행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주님과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각성하여 기도하며 경계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키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힘써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2) 참 교회로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가고 말았다.

천주교는 인본적이며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며 비성경적인 체제와 의식과 교리들이 너무 확고하게 뿌리 박혀서 요지부동(搖之不動)한 종교로 경화(硬化)되고 말았다. 4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탈기독교화된 이러한 혼합종교로의 변종은 16세기의 트론티 공의회에서 완전히 확고부동하게 강화되었고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더 발전되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렇게 완고하게 변종된 천주교를 철저하게 위장하고 미화하는 회칠(painting)작업을 이중 삼중으로 하였으며, 그 후에는 일치운동이라는 미명아래에 기만적으로 다른 기독교의 흡

수 통합작업을 감행(敢行)하고 있다.

완전히 변종하다 못하여서 위장(僞裝) 까지 하고 자신의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덤비고 있는 천주교에는 도저히 개정(改正)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정상적이 되어 자체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천주교는 참 교회로 돌아오기에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도 참 기독교의 간판을 앞세우고 참 기독교회를 말살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 개탄(慨歎)하고 애석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상으로만 간단히 살펴보아도 천주교가 결코 참 교회가 아니며 오히려 온전히 변질되고 변종된 이종(異種)의 기독교 집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는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 없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다.

3) 이단들의 공통적인 주장“자기들(교회나 집단)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단들은 모두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실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물몬교, 구원파, 기타 등등) 그러나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구원은 어느 교파나 집단(공동체)에만 제한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요 1: 12, 3:15, 16, 36, 5:24, 6:47, 11:25, 20:31, 행16:31 기타). 그런데 천주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교회에 입교해 교리교육을 받고 믿음을 표현하며 자신들의 의식(성사)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천주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가톨릭교회 교리서 846-848항.)고 강경하게 주장하며 마치 자신들만이 구원의 전매특허를 받은 것처럼 장담(壯

談)하고 있다(소위 그들의 터무니없이 조작된 사도 계승설을 앞세워서). 이는 모든 이단들의 주장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천주교는 도저히 참 교회가 아니며 이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3. 천주교를 왜 거짓(가짜)교회라 하는가?

여기에서는 천주교가 결코 참 기독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짓교회라는 사실에 대하여 밝히려 한다. 이는 특히 종교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1) 마틴 루터의 주장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는 거짓 로마교회의 이름 아래서 현재 통치하게 될 것을 마태복음 24장 24~26절에서 예언하셨다’고 말하였다.⁸⁾ 그리고 「로마 교황권에 관하여」 [라이프찌히에 사는 가장 유명한 로마주의자를 반박함(1520)]이라는 논문에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지 않은 천주교회와 교황권의 비성경적이며 거짓됨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루터는 이 외에도 이 여러 글에서 천주교의 거짓됨과 그릇됨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1) 교황주의자들(천주교)은 교회가 아니다.

8) 지원용 편저, 『루터 선집(選集) 제8권』, (서울 : 컨콜디아사. 1985), p. 66.

우리는 교황주의자들에게 그들이 교회라는 것을 승인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교회 이름으로 명령하거나 또는 금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일곱 살 먹은 아이도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신자들이요, 양떼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내가 하나의 거룩한 기독교 교회를 믿나이다'라고 기도한다. 교회의 거룩함은 그들이 고안하여 성서보다 높이는 그들 자신의 중백의(中白衣), 삭발, 장백의(長白衣), 또는 여타 의식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신앙으로 이루어진다.⁹⁾

루터는 천주교가 기독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의 금령이나 명령을 무시한다고 했다. 그리고 참 교회의 거룩함은 그들이 고안해낸 복장과 치장과 의식(儀式)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신앙으로 이뤄진다고 확언하고 있다. 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신앙 위에 세워지므로 이러한 루터의 주장은 그의 전 종교개혁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이며 오늘날까지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참 교회가 아니고 그 반대로 거짓교회라는 강한 주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 말씀이 없는 곳에 교회가 없다.

루터는 진정한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① 말씀은 교회의 시금석이며 교회는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교회 자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람이 만든 조직체의 운영 능력에 의해 좌우되지도 않는다. 교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9) 『루터 선집(選集) 제8권』, 지원용 편저, (컨콜디아사. 1985) pp. 427-428.

②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 드러난다.·· 참된 기독교, 진실한 교회는 그 머리를 땅에 두지 않는다. 땅 위에 있는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그것이 설령 주교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오직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통치자이시다.

③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거룩함의 근거는 죄인을 의롭다고 만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sola gratia*). 성령의 사역은 사람을 통해, 말씀의 선포를 통해 수행된다. 말씀은 성령의 손 안에 있으며 말씀은 말씀에 대한 유일한 절대적 권위이다(*sola scriptura*). 말씀은 지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며 어떤 권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성령에 의한 거룩한 말씀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는 참된 사도적 교회가 된다.¹⁰⁾

루터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석(바위)이시며(마 16:18) 그분의 말씀은 오직 교회의 생명이라고 했다. 그런데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박탈하고 그 말씀 위에 군림하여 외경과 전통을 말씀에 혼합시켜서 성경을 그들에게 종속된 도구로 만들고 말았다(트렌트 공의회에서). 그리하여 교회의 생명은 사라졌고 참 교회에서 떠난 거짓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루터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인 그리스도 대신에 교황을 교회의 머리로 하므로 참된 교회에서 벗어난 거짓교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황은 보이는 교회의 머리라는 천주교의 주장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라는 그들의 교리에 어긋난 거짓말이다. 참된 교회는 그 머리를 땅에 두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머리이며

10) 한국조직신학학회 엮음, 『교회론』, (서울 : 한국기독교서회, 2009), pp. 101-105.

통치자로 모신다는 루터의 주장이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 천주교는 간교하게 교회의 머리를 이원화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취(詐取)하여서 교회를 거짓된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또 루터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며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만 거룩하다. ‘성령의 사역은 사람을 통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수행되며, 성령에 의해 선포된 거룩한 말씀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는 참된 사도적 교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참 교회의 표식(標識)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교훈하고 실천하는 그것에 신실하게 돌아가는 것이다.’¹¹⁾는 말과 같이 이 참 교회의 표식이 없는 천주교는 거짓교회가 된다는 주장이다.

2) 교황주의에 대한 투쟁의 이유

내가 교황과 다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황은 자기가 교회의 머리임을 자처하여 그의 세력과 권위 하에 있으려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상의 교회에 보이는(corporal) 머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교황이 단지 복음만을 순수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복음 대신 인간의 발명품과 거짓말을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면 나는 교황에게 만족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권세와 규칙과 권위를 그리스도 교회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갖다 놓았다.¹²⁾

11) L. 벨코프 저, 『기독교신학개론』, 신복윤 역,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1963), p. 246.

12) 휴 T. 커어 저, 『루터신학개요』, 김영한 편역,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p. 192.

루터는 너무나 무모하게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교황과 그 추종 세력인 천주교에 대항하여 선전포고와 도전을 하였다. 이는 실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무모하기 짝이 없이 보이는 행위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루터의 이러한 도전은 확고부동한 진리의 신앙 위에서 출발한 것이었으므로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히 단행할 수 있었다. 그것은 교황의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결코 아니고 ‘인간의 발명품과 거짓말들(거짓교리들)’을 끌어들인 거짓된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교황이 ‘자기의 권세와 규칙과 권위를 그리스도 교회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갖다 놓았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서 적그리스도화한 거짓 기독교인 교황과 천주교에 대항하여 용감하게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교회와 전 세계의 주인이라고 선언한 악마의 사도인 교황

하지만 교황은 이런 신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로 인해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신권에 의하여 기독교 교회의 머리가 되려는 그의 염원의 결과이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와 대등하게 그리고 그리스도보다 위에 위치시켜야만 하였고 자신을 머리라 주장하고 그런 다음은 교회, 마침내는 전 세계의 주인이라고 선언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지상의 신이라 주장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을 발할 수 있기까지 한 것처럼 행세 하였다.

끝으로 교황이 하나님께 대립하여 미사, 연옥, 수도원 생활, 인간 행위들(이러한 것들은 교황권의 본질이다)에 관한 자신의 거짓말들을 더욱 많이 말하고 자신에게 속한 이러한 가증한 것들을 모든 것들보다 높이고 영예롭게 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고 살해하고 괴롭히는 것이 가장 악마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악마 자신을 우리의 주 또는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악마의 사도인 교황 즉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또는 주로서 통치하게 할 수는 없다.¹³⁾

교황은 성경적인 신앙을 허용하지 않고 도리어 구원받으려면 자기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루터는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교회와 전 세계의 주인이요 지상의 신이라고까지 주장한 교황을 거짓 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이며 거짓교회의 우두머리라고 질타(叱咤)하였다.

또한 그는 교황의 행위 즉,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온갖 거짓교리들을 많이 말하고 이러한 가증한 것들을 가장 높이고 자신을 찬양하지 않는 모든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고 살해하고 괴롭히는 악마적인 행위를 고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루터는 악마를 주와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악마의 사도인 교황 즉 적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와 통치자로 삼을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여 경계하고 있다. 루터는 이와 같은 교황의 반 성경적인 탈선과 사탄적인 행위들을 가차없이 고발하고 단호하게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4) 그리스도의 교회를 죽이고 자신들만 살려는 교황주의자들

그들이 사랑하는 바대로 그들은 기독교 세계를 멸절시키려 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사소한 부분이라도 포기하기 보다는 악마 자신을 신과 주로서 소유하고자한다. 그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가련한 기독교인들을 칼로써 강제하여 그들과 더불어 의식적으로 악마에게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하려고 한다.

과거 시절에는 주교들과 실로 모든 기독교인들이(현재에 있어서조차 그러

13) 지원용 편저, 『루터 선집(選集) 제8권』, (서울 : 컨콜디아사. 1985), p. 410.

한 사람들이 있다) 존귀한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게, 기쁨으로 고문을 당하고 또 죽는 자리에 나아갔다. 그리스도 자신도 그의 교회를 위하여, 즉 그것을 보존하고 부양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나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은 현재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죽어야만 하며 그리하여 자신들이 자신들의 폭정, 우상숭배, 속임수, 온갖 악행 가운데서 보존될 수 있어야 한다고 자랑한다. 여러분은 이러한 친구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존속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회는 사라져야만 한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¹⁴⁾

루터는 천주교가 우상숭배와 함께 악마를 신과 주로서 섬기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칼로써 강제로 자기들과 함께 의식적으로 악마에게 예배드리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하려한다고 고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로부터 5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때와 변함이 없이 더욱 간교하게 일치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루터는 과거시절에는 성직자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이 존귀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고문을 당하며 죽는 자리에 나아갔으며 그리스도도 그의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한다. 그런데 교황과 천주교는 이와 반대로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죽어야만 하며 자신들의 폭정과 우상숭배, 속임수, 온갖 악행가운데서 자신의 기독교(세력)이 보존될 수 있어야 한다고 자랑하는데 이에 대해 루터는 개탄(慨歎)하였다. 루터는 진정한 기독교회는 사라지고 거짓 기독교이며 악마를 섬기는 자신들의 거짓교회만이 존속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악한 바람을 고발하고 있다.

14) 지원용 편저, 『루터 선집(選集) 제8권』, (서울 : 컨콜디아사. 1985) pp. 157-158.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 대해서 고발한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천주교가 악마를 섬기는 종교이며 진정한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사탄의 역군들인 거짓 기독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과거보다 더욱 지능적으로 기만과 위장술에 능숙해진 저들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존 칼빈의 주장 : 참 교회와 거짓(가짜) 교회의 비교(기독교 강요 제4권 제2장의 분석)

바른 교리와 바른 예배에서 떠난 로마 교회는 참 교회라고 주장할 자격이 없다.

제2의 종교개혁자요 실질적으로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나 실천적인 면에서 완성시킨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인 존 칼빈은 그의 유명한 신학서인 『기독교강요』 제4권에서 교회에 관한 문제를 천주교와 비교하면서 심도 있게 잘 취급하였다. 이 책 제2장에서 “참 교리와 참 예배에서 떠난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무효이다”라고 하면서 천주교가 참 교회가 아니고 거짓 교회임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강조하였다.

1) 교회의 참과 거짓은 교리의 기본적인 조항의 유지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근본적인 구별)

칼빈은 먼저 여기에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별은 기본적인 교리 조항의 유지 여하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 ① 말씀선포와 성례전의 집행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식별하는 중요한

불변의 표식이다.

② 교회 안에 있는 과오들은 (ㄱ) 교리나 신조를 말살하지 않는 정도의 과오, (ㄴ) 주께서 제정하신 바를 폐지하거나 전복시키지 않는 성례에 대한 과오 등은 얼마든지 용서해야 한다.

③ 그러나 교리의 핵심이나 성례의 효험이 파괴되게 되면 그 교회는 죽게 된다. ...거짓말과 허위가 지배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¹⁵⁾

칼빈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식별하는 중요한 불변의 표식으로서 말씀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비록 과오들이 있을지라도 이 두 가지 중요한 불변의 표식인 말씀과 교리 신조를 말살하지 않는 과오나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을 폐지하거나 전복하지 않는 과오들은 얼마든지 용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일 기독교의 핵심 속에 거짓이 스며들거나 또는 필수적인 교리의 근간이 붕괴되며 성례전이 파괴된다면 목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의 생명이 끝나듯이 그 즉시 교회에 파멸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기독교강요 4권 2장 1항 원문, 김문제 역)고 했는데 이 말은 교회가 확실히 죽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교회의 생사(生死)를 좌우하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례전의 집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천주교가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례의 집행에서 떠나서 죽은 교회가 되었으며 따라서 가짜(거짓)교회로 변종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히 규탄(糾彈)하기 위함이다.

2) 교황이 지배하는 교회는 거짓교회이다(로마 가톨릭과 그 주장)

15) 장수민 지음, 『칼빈의 기독교 강요 분석 II』, (서울 : 칼빈아카데미, 2006), p. 756.

지금 로마 카톨릭의 교황제도하의 교회에는 온갖 거짓 요소가 가득차 있다. (1) 말씀의 사역 대신에 거짓말을 섞은 패악한 조직이 교회를 지배하여 순수한 빛을 꺼버린다. (2) 주의 만찬은 가장 추악한 모독 행위로 대체 되었다. (3)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참을 수 없는 각종 미신으로 더럽혀졌다. (4) 교회는 교리를 떠나서는 존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완전히 매장되고 제거되었다. (5) 공중 집회들은 우상숭배와 불 경건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다.¹⁶⁾

칼빈은 여기에서 교황제도하의 천주교가 거짓(가짜)교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다. 천주교에는 온갖 거짓 요소가 가득 차 있다고 서론적으로 밝히고 다음과 같이 그 이유들을 들고 있다.

① 먼저 그들은 참 교회의 생명이 되는 말씀의 사역을 제쳐놓았다. 순수한 복음의 선포가 사라진 곳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칼빈은 ‘교황 지배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악하고 기만으로 가득 차 있으며(같은 책 김문제역 원문)’라고 그 거짓됨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대속의 복음이 사라지고 인간의 전통들에 의한 거짓 교리들과 위조된 교황권이 지배하는 교회는 거짓교회일 수밖에 없다.

② 로마 가톨릭은 거룩한 성찬식을 더럽혔다. 거룩한 성찬식을 구약의 제사와 같이 변종시켜서 수시로 신부가 이 제사(미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는다고 하며, 무엇보다 그 제사의 떡과 포도주가 직접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며 그것을 먹는 사람의 위장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남은 떡은 감실(남은 성찬 떡을 넣어 두는 껍)에 넣어서 성당 안에 잘 모셔놓고 거기에 수시로 절을 하고 기도를 바치는 행위 등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모독행위를 하고

16) 같은 책. pp. 756-757.

있다. 어찌 이런 곳이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③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참을 수 없는 각종 미신으로 더럽혀졌다. 미사제사에 들어가려면 먼저 1시간 전에 음식을 먹지 않아 공복이 되게 하고, 성당 입구에서 신부가 강복한 성수를 손끝에 묻혀 십자성호를 그으며 “주님, 이 성수로 저희 죄를 씻어 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¹⁷⁾라고 기도하며 들어가는 등의 미신행위를 자행한다. 뿐만 아니라 미사시간에 신부의 성령청원 기도와 성찬제정과 축성문 낭독시에 들고 있는 떡과 포도주가 즉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는 비상식적인 미신행위와, 그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미신적인 행위는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이지 않을 수 없다.

미사시에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실례

(미사 시에 제물을 바치는 기도문)

미사제사에서는 먼저 “성령 청원과 축성 기원,” 그리고 “성찬 제정과 축성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 변화된 빵과 포도주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를 “기념과 봉헌”에서 아래와 같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며 기도하고 있다.

... 이 깨끗한 제물, 거룩한 제물, 흠 없는 제물 영원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존엄한 대전에 봉헌 하나이다.

이 제물을 인자로이 굶어보시고 일찍이 주님의 의로운 종 아벨의 제물과 저희 조상 아브라함의 제사와 대사제 멜키세덱이 바친 거룩하고 흠 없는 제

17) 최형락 역음, 『천주교용어사전』, (서울 : 작은 예수. 2차개정 초판1쇄. 2006), p. 254.

물을 받아주셨듯이 이를 받아들이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거룩한 천사의 손으로 이 제물이 존엄한 천상 제단에 오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제단에서 성자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실 때마다 하늘의 온갖 은총과 축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¹⁸⁾

이렇게 미사시간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체변화 되었다고 하는 떡과 포도주를 신부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인류속죄 제물이라고 바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제물을 받아주신 것 같이 이 제물을 받아 드리고 거룩한 천사의 손으로 이 제물이 천상 제단에 오르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받아먹을 때마다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가득히 내려달라고 빌고 있다. 그러나 구약제사와 같이 제물을 바치고 같이 나누어 먹으며 은총과 복을 비는 행위는 실로 단 일회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모독하며 무효화시키는 무서운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미사중에 연옥에간 영혼을 위한 특별 기도의 예

(신자가 미사 시에 자기가죽을 위해 돈을 바칠 때 특별히 미사(위령 미사)시에 신부가 그 이름을 거명하며 연옥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한다.)

주님, 신앙의 보람을 지니고 저희보다 먼저 평안히 잠든 교우(아무개 거명)를 생각하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 쉬는 모든 이를 행복과 광명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소서.¹⁹⁾

18) 정진석 발행, 『미사통상문』,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제1판 4쇄. p. 22.

19) 같은 책. p. 23.

이는 미사 시에 연옥에 간 자기가족 혹은 돈을 드리는 대상을 위하여 특별히 이름을 부르며 연옥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보내달라는 기도인데 천주교가 과거부터 이것으로 많은 돈을 모았다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연옥에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미사제사의 위력을 맹신하는 신도들의 가련한 손실은 어디에서 보상받겠는가? 이러한 허망한 미신으로 흑세무민(惑世誣民)하는 저들의 죄가 그 얼마나 크겠는가?

3) 강한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짓교회

칼빈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불순종하면서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성전과 의식들을 자랑하는 천주교를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과거 유대인들이 성전과 의식들과 제사장들의 활동을 굉장히 자랑하며 그것을 표준으로 교회를 확정했던 어리석은 전철을 지금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뒤따르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통렬히 비판했다(렘 7:4). (1)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지만(겔 10:4), (2) 제사장들이 사악한 미신으로 예배를 부패시키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으니, (3) 외형만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롬 9:6).²⁰⁾

천주교도 과거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전철을 따라서 성당과 의식들(미사제사 등)과 사제(제사장)들의 활동을 제일로 자랑하며 그것들을 표준으로 하여 교회를 확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이 원문에서 말한 바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

20) 장수민 지음, 『칼빈의 기독교 강요 분석 II』, (서울 : 칼빈아카데미, 2006), p. 757.

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렘 7:4). 주께서는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양심적으로 지키는 곳이 아니면 어떤 성전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지만 제사장들이 말씀을 떠나서 사악한 미신으로 예배를 부패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도 옮겨서 성소의 거룩한 성격을 빼앗았다. 그러니 천주교가 하나님을 사람과 장소에 매이며 형식적인 행사에 끌리며 교회라는 이름과 외형만 있는 곳에(롬 9:6) 항상 계셔야 한다는 듯이 선전하는 것은 아무근거도 없는 거짓이라고 했다.²¹⁾

4)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다(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1.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으뜸 되는 대적이면서도 교회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를 괴롭히며 무식한 사람들을 위협하여, (1) 성전과 (2) 사제 계급과 (3) 기타 외부 장식들을 제시한다.

2. 하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결코 교회가 없다(엡 2:20). (1) 진리를 좇는 자들만이 주의 백성이다(요 18:37, 10:14, 27). (2) 가짜들은 주의 말씀을 좇지 않는다(요 10:4-5, 8:47).

3.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만으로 지배하므로, 이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렘 7:4).²²⁾

칼빈이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21) 존 칼빈 지음, 『기독교강요 하』, 김종흡외 3인 공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2005. 제1판 26쇄), p. 47.

22) 장수민 지음, 『칼빈의 기독교 강요 분석Ⅱ』, (서울: 칼빈아카데미, 2006), p. 758.

1.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큰 대적이면서도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며 위협하면서 성당과 사제직과 그 밖의 외부장식들을 내세워서 현혹한다.

2.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엡 2:20).

첫째, 참 주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한다(요 18:37, 10:14,27). 둘째, 주의 백성은 가짜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며(요 10:4-5), 가짜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요 8:47).

3.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그의 말씀으로 만 다스리시니 그리스도의 왕국(교회)이 그의 거룩한 말씀을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3) 천주교가 거짓 교회인 증거

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식은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찬의 정당한 집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위에서 여러모로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천주교가 참 교회가 되지 못하고 거짓교회가 된다면 그것도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성찬의 올바른 거행문제에 이상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성경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불가하게 된 것

천주교의 최대의 치명적인 결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게 된 데 있다.

① 성경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최근 천주교의 성경장려의 위장성과 허위성)

종교개혁 당시에는 물론 천주교에서 성경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천주교도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치고 강론하는 등 장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왜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왜 그들의 성경 장려가 위장적이고 허위적이란 말인가?

첫째,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높여서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강론하고 독서하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들에게 종속된 것이 되었으니 절대적인 권위가 없다. 그리고 자율적 해석권이 없고 교도권의 해석만 앵무새처럼 따라야 함으로 성경말씀을 조명하는 성령의 깨우침이나 이끄심이 차단되어서 무미건조한 죽은 문자만 배우게 된다. 그러니 그들의 성경공부는 별 재미도 없고 취미도 없고 힘도 없으며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주교에서의 성경은 교황과 교도권의 독점물로서 그들이 읽으라면 읽고 읽지 말라면 못 읽고 그들이 해석한 것만을 따라야 하니 일반 신도들은 성경에 대하여 아무것도 관여할 수가 없다. 신도들은 눈 딱 감고 교도권이 하라고 가르쳐주는 대로 검은 것도 희다 하고 흰 것도 검다하는 것에 무조건 순종만을 강요당하고 있으니 구태여 공부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천주교 안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교도권)의 권위 밑에 떨어져서 그 밑에 부속된 별 볼일 없는 부속물에 불과한 것이니 어떻게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전할 수 있겠는가?

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도록 하고 가르친다 해도 그것이 신도들

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고 가치가 있겠는가? 교황과 성직자들이 성경을 온전히(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성경의 핵심진리들을 저버리고 비성경적이고 반 성경적인 교리들을 앞세우고 가르치며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만약 누구든지 성경의 복음을 깨닫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생기면 당장에 이단자로 몰리게 될 터이니(위의 개종한 신부들이 그렇게 되었다) 누가 마음 놓고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겠는가?

(단, 그래도 어쨌든 성경을 많이 읽게 장려하는 일은 기쁘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순수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성경말씀을 깊이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루터나 칼빈 같은[또 많은 개종한 신부들과 신도들처럼] 참 복음진리와 구주의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 구원 받을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경에 인간 문학서들(외경)을 혼합시켜서 성경의 가치를 깨뜨렸기 때문이다.

외경은 4세기 말부터 일부 교부들의 부주의함으로 70인경과 함께 성경에 덧붙여 사용되어 오면서 거짓된 교리를 만드는 근거로 사용되었는데 16세기의 트렌트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성경과 동일한 정경이라고 공포하고 말았다. 그러나 외경은 말라기서로 끝난 선지자를 통한 계시에 온갖 인간들의 잡다한 단편 소설들과 지혜문서, 시와 역사 기록들을 추가 삽입한 것이다.

그런데 제롬(천주교가 계속 사용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교부)은 외경의 정경성을 통렬하게 반대하면서 외경서들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것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라틴어 성경에 첨부시키는 것조차 반대하였다. 그러나 제롬이 죽은 후에 외경을 라틴어 성경에 포함시켰고 이는 그의 시체를 장사하자마자 되어 진 일이었다.²³⁾

이 외경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아닌 자들이 기록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약간의 교혼은 될 수 있으나 성경에 어긋난 것들이 있으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외경이 차지하는 분량도 295쪽으로 신약성경의 66%나 되며 구약성경의 18%나 되는 많은 것이다. 이러한 잡 문서들이 영감 받은 성경 안에 혼합되었다는 사실은 성경의 권위에 엄청난 손상을 끼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경을 혼합하여서 성경과 동일하게 가르치는 천주교의 말씀선포는 비진리가 혼합된 것이므로 올바른 말씀선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단 1%의 비진리가 섞여도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인간적 전통과 성경을 동일화하여서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말살했기 때문이다.

천주교의 최대의 과오와 죄악은 인간의 제조물인 전통들을 성경정경과 동일화 한 것이다. 그들이 전통을 성경과 동일하다고 주장한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적인 그들의 탈선의 과정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즉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해설총서 3」에 따르면 전통을 성경과 동일하게 만든 경과를 잘 찾아 볼 수 있다. 아래의 이 해설총서 내용을 보면 전통을 성경과 동일시하게 된 잘못된 과정을 알 수 있다.

1) 교회는 애초에 교회가 가르치는 교의가 전부 성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고, 오직 하나의 ‘원천(성서)’만을 알았다.

2) 그런데 가끔 교의(천주교의 교리)와 성서의 관련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즉 성서에 근거가 분명히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자료(권위자, 예컨대 교부들의 문헌, 교회법, 공의회 교령

23) 노오만 가이슬러 외 공저, 『성경의 유래』, 이송오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4. 2쇄 발행), pp. 112-113.

등)도 증거 자료로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3) 그리고 천주교 최고의 신학박사 토마스 아퀴나스마저도 ‘원천’으로서 성서와 병행하는 ‘성전(전통)’의 존재의 필요성과 그것을 창작할 필요성을 미처 눈치 채지 못했다.

4) 그런데 14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록되어 있지 않는’(성서에 나와 있지 않는) 사도적 전통도 있을 수 있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학자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로 인해 신학자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14세기 이전의 신학은 모든 것이 성서 안에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항이 성서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였다.

5)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례나 법령 등은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직접 받아 행사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나 법령들이 있는 천주교회는 성령에 인도되는 ‘그르침이 없는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성서의 최고 권위를 슬쩍 천주교가 가로채서 성경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와 교리를 제조할 수 있다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6) 그러나 이에 대해 성서 이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개혁자들은 ‘성서만’이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성서에서 증명되지 않는 가르침은 오직 ‘인간의 권고’(마태 15, 9; 마르 7, 8)(사람의 계명, 전통)로서 속박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7) 트렌트 공의회는 1546년에 신학자들의 반성을 종합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러 전통을 성서와 병행(동일화)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성서의 불충족성’을 정의(결의 선언) 했다. 성서의 의미가 그들의 교리 전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은 트렌트 공의회 이래 현대에 이르는 동안 명백해졌다.²⁴⁾

이상의 해설서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보면

1) 초대교회는 순수하게 성경만 믿고 가르치고(교리) 따랐는데 천주교의 그 말쑥 많은 전통이라고 하는 “위조(가짜)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2) 인간적으로 편리한 교리들을 만들면서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없으니(성경에 근거가 없으니) 대체(代替) 근거로 잡다한 인간의 말들(외경, 교부들의 글 등등 전통)을 끌어들어서 비성경적인 잘못된 교리들을 제조하였다.

3) 한편 박학다식(博學多識)한 대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1224 - 1274)마저도 성서와 함께 전통 존재의 필요성과 그것을 창작할 필요성을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다. 그런 대학자도 이러한 지혜(사탄적인 지혜)를 짜낼 줄을 몰랐다는 말이다.

4) 그러다 14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기록되지 않은 사도적 전통의 존재와 필요성을 깨달은 학자들은 ‘모든 것이 성서안에 있다’는 과거의 신앙을 저버리고 ‘많은 것이 성서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교리의 근거들을 성서 밖의 전통들에서 찾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전통에 대한 학설들을 만들고 전통들을 본격적으로 제조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이러한 전통 제조는 결국 교회를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게 만들었다. 전통은 교회를 통하여 전달되어 온 것이니 교회는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그르침이 없는 ‘최고의 권위자’(즉 전통과 성서를 산출하는 자)라고 인정하였고 결국 그것을 이유로 해서 천주교회를 성경보

24) H. V. 스트라렌 외 지음, 『제2차바티칸공의회문헌해설총서 3』, 현석호 옮김, (서울 : 성바오로출판사, 1991), pp. 254-256.

다 우위인 최고권위의 위치에 올려놓고 말았다. 그리하여 성경의 최고 권위를 박탈하고 성경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서 전통이라는 미명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천주교와 그 교리들을 제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6)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성서 이외의 권위는 일절 인정하지 않고 ‘성서만’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성서로 증명되지 않는 교리는 오직 인간의 말뿐으로 권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트 공의회는 개혁자들의 양심적인 반발을 짓밟고 기어코 성경이 부족함이 많으므로 전통으로 그것을 보충하여야한다고 하면서 결국 전통도 성경과 동일한 구전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공포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는 성경 성경의 최고 권위를 실제적으로 완전히 말살하고 만 것이다.

존 칼빈은 천주교의 트렌트공의회 제4차시기에 결의하여 공포한 제1교령과 제2교령을 보고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지적하여 비판하였다. (1) 교리가 성경뿐 아니라 전통에도 기초 한다고 한 것 (2) 성경의 목록에 외경들을 바로 삽입 표시한 것 (3) 성경을 오직 불가타 역본만으로 고수하여 공인한 것 (4) 그 성경의 해석권을 자신들이 독점한 것 등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안들이 확립된 이상, 전쟁이 끝났음을 누가 부인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들의 그 후의 논의는 그들을 위한 어떤 필요에서 온 것이라기보다 과시용이었다. 만일 그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성경의 권위에 지지되지 않을 경우, 전통으로 분류될 것이다. 그들은 이 전통이 율법과 선지서와 동등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인정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핑계로 변호할 수 없는

노파의 심한 정신착란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마치 아약스(Ajax)의 방패처럼 자신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미신-그것이 아무리 기괴할 지라도—이란 없게 된다.²⁵⁾

칼빈은 트렌트공의회와 이성과 같은 결의공포를 보고 '상황 끝' 즉, 전쟁은 끝났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외경들과 전통들을 추가 삽입 하여서 정경 66권만의 무기(철 칼)를 능가하는 무기(나무칼)를 만들었으므로 인간적인 면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전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오역이 많은 라틴어 불가타 역본만을 천주교의 공인된 성경으로 확정하고 그 해석권마저 자기들(교도권)이 독점하고 말았으니 게임은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없게 되었다. 그들의 교리에 따라 무제한적인 창작물들(전통들)과 불가타역 성경해석을 통해 못 만들 교리가 무엇이며 비판에 대응(변명)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칼빈은 천주교가 거짓교회인 첫 번째 증거로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불가능함을 좀 더 강력하게 설명했다. (1)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엡 2:20) 한 낮 인간인 교황과 주교들이 그 말씀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다. (2) 순금같이 순수한 진리의 말씀에 인간의 조잡한 문서들을 뒤섞어 버렸다. (3) 무엇보다 인간의 잡다한 전통들을 거룩한 성령의 영감으로 특별히 구별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온갖 인조 잡동사니들을 혼합시켜 버렸다. 그런 천주교에서는 결단코 순수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주교가 참 기독교가 될 수

25) 박건택 편역, 『칼뱅 작품선집 V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0), pp. 138-139.

없고 거짓(가짜) 기독교라는 사실은 이상의 세 가지만 보아도 명명백백(明明白白)하다.

② 성경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는 실제적인 이유

첫째, 성경 66권의 핵심(주제)인 구원의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요 3:16, 행 4:12, 16:31, 갈 1:6-9) (외경들과 전통들이 혼합됨으로)

위에서 지적한 것 같이 성경에 인간의 문학서인 외경들이 뒤섞여져 있고 거기에는 전통(전설들)이라는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성경과 동일하게 구전(口傳)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며 교황과 주교들이 이런 것들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혼합하여 자의대로 해석하고 교리화하고 가르치는 등은 성경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는 아주 실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성경에 근거한 일반적 교훈도 진정으로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다.(복음이 아닌 그릇된 성사들로 구원받는다 고 하기 때문)(히 9:11-14, 23-26, 10:11-18)

천주교의 모든 강의나 설교, 가르침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구원은 미사제사에서 재현되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과 피는 미사 시간에 신부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께 바쳐져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즉석에서 그리스도의 실체로 변화된다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먹음으로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내안에 모셔 들이게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유월절) 양으로서 희생되신”(1고린 5, 7) 십

자가의 희생제사가 제단에서 거행될 때마다 우리의 구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6)

이 천주교의 교회헌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치신 대속의 제사가 그들의 미사시간에 제단에서 바쳐질 때마다 비로소 우리의 구원활동이 성취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그들의 미사시간에 신부의 기도와 축성과 성찬제정으로 참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그 떡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드릴 때 마다 속죄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인류 대속의 위업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무서운 죄악이 아닐 수 없다. 이 교리는 성경대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대속의 복음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믿는 심령이 구원 받는다(행 16:31, 사 55:7, 대하 7:14, 막 1:15, 행 20:21, 엡 1:13)는 하나님의 말씀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죄인이 구원 받는 것이 진정한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왜곡한 모조 의식을 통하여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셋째, 말씀과 성령에서 떠난 인위적인 천주교 사제주의의 치명적인 피해 때문이다.

벤자민 B. 워필드는 천주교 사제주의의 피해를 세 가지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1) 사제주의적인 교리는 영혼으로 하여금 모든 은혜로운 사역들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차단하고, 그에 대해 신뢰

26) 최창무 발행,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p. 81.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대신에 천주교의 사제들이 성령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이 제조한 정교(?)한 성사(의식)들로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가로 막는다.

(2) 사제주의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가운데 모든 은혜의 근원으로 취급하는데, 성령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성령의 사역이 천주교 사제들이 허락하는 곳에서만 사역하는 마치 자연적인 세력인 양 취급한다. 이는 마치 성령을 사제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힘으로 생각한다.

(3) 사제주의는 명백히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의 지배에 대한 성령의 복종을 수반한다. 원래 교회와 사제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성령이 천주교와 사제들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웃지 못 할 현실이다.²⁷⁾

이상의 위필드의 지적은 복음 말씀의 올바른 선포를 통한 구원의 길을 사제라는 특수계급이 성사라는 인위적인 의식을 이용하여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고 성령의 인격을 부인하여 비인격적인 활용수단으로 만들고 급기야는 성령을 사제들의 도구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사제들이 얼마나 성경말씀에서 멀어졌으며 또한 성령의 역사를 사칭하여 성령을 모독하는 두려운 일들을 자행(恣行)하고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천주교 체제 아래에서는 결단코 올바른 성경말씀의 전파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 사제들이 성령의 자리를 가로채고 앉아서 성령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명령(활용)하며 복종시키고 있으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절대로 참 교회가 될 수 없고 거짓 기독교요 가짜 기독교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7) 벤자민 B. 위필드 저, 『구원의 계획』, 모수환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8. 중쇄발행), pp. 71-73

넷째, 천주교가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와 일치운동의 도구(다리역할)로 삼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천주교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부터 성경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고 미사시에도 읽게 하고 번역, 읽기, 쓰기, 공부, 강의 등 여러 모양으로 장려하고 있다. 단순하게 보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중세와는 달리 성경말씀을 사제들이나 평신도들이 많이 접하게 한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가르치는 자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하나의 이용도구로 삼기 위한 것이라면 좋은 결과(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나폴리출신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에도아르도 라빈치 전직 신부의 간증이 있다. 그는 인도에서 성경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성경공부에 대한 열의가 인정되어서 로마 가톨릭 성경대학으로 발탁되어 그곳에서 성경연구에 전념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교회 당국자들은 성경이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개신교 교회들과의 다리를 놓아줄 것으로 생각하는 듯했다”²⁸⁾고 하였다. 천주교가 성경이 개신교와의 일치운동에 유익한 도구가 성경임을 깨닫고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고 포섭하는 무기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여러 면에서 드러난 것이다.

다섯째, 성경 장려의 근본적인 문제점

무엇보다 천주교 성경 장려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기독교로 개종한 유럽출신 전직신부 헤르만 헤거의 지적을 들어보자.²⁹⁾

28) 리처드 버넷 · 마틴 버킹엄,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이상길 옮김, (서울 : 아가페출판사, 2002), p. 284.

(1) 먼저 천주교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에서 가장 높고 궁극적인 근원(권위)이라는 교리는 성경공부(연구)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궁극적인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천주교 자체(교황과 교도권)의 결의(선언 선포 등)가 최고 권위로 성경보다 우선한다는 교리가 성경공부의 결정적 장애물이다.

(2) 이 천주교회 지상(최고권위)교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부수적인 책으로 격하시켰다. 개인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연구하고 진리를 깨달아 확신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천주교가 그 문제에 대해 선언한 교리가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확신하는 바를 접어둔 채 천주교의 견해를 따라야 한다. 만일 성경이 중심이 아니고 최종의 권위가 아니고 부수적인 책이라면 누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겠는가? 게다가 성경의 진리로 천주교의 교리를 의심하거나 부인하면 대죄에 해당하며 영원한 저주를 초래하는데 누가 성경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부하거나 연구하겠는가? 전직 신부 헤르만 헤거의 이러한 지적은 천주교의 성경장려의 최대 문제점과 한계점을 명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다.

2) 성찬이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원래 제정정신에서 완전히 변질되어 이탈한 것

천주교의 성찬 예식은 성찬 제정의 근본정신에서 완전히 떠나 변질되어서 심각한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졌다.

① 천주교인인 게리 월스의 철저한 맹비난

게리 월스는 현재 충실한 천주교인이면서도 천주교와 교황의 잘못

29) 같은 책, pp. 325-326.

에 대하여 가차 없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천주교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들의 전례(미사)가 쇄신되었다고 하지만 고작 라틴어를 자국어로 사용하고 형식이나 순서 진행 등에 (성경독서나)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소위 그들의 성체라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신랄(辛辣)하게 맹공격한 문제로서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모독하고 십자가상의 영원한 구속 제사사역을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 같이 만들어서 말살한 가장 잔악한 사탄적인<성 변화(성체의 실체 변화)의 마술사> 행위라고 규탄(糾彈)하고 있다.³⁰⁾

같은 천주교인이면서도 게리 윌스는 종교 개혁자들이나 기독교인과 같이 원래 제정정신에서 완전히 떠나서 말할 수 없이 변질되어 버린 저들의 성찬(미사)예식에 대하여 최대의 공격을 쏟아 붙이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분별해진 기독교인들은 진실로 각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물질을 신격화해서 신종하는 실로 심각한 탈선이요 변질이고 배교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식을 완전히 파괴한 천주교는 결단코 참 기독교회가 될 수 없고 거짓(가짜) 기독교일 수밖에 없다.

② 천주교의 성찬 파괴에 대한 마틴 루터의 직설적 비난

30) 게리 윌스 지음, 『기만구조 교황의 죄』, 박준영 옮김, (서울 : 도서출판 중심, 2005), p. 489. 여기에서 현재 가톨릭신자인 저자는 교황을 비롯한 천주교의 기만들을 가차없이 폭로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이 계시는 담대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18가지 정도로 그리면서 그 5번째로 그가 이상으로 하는 교회는 “사제직을 -성 변화(성체의 실체 변화)의 마술사들로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빵을 그리스도의 실체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마술사의 행위라고 혹평하고 있다.

루터는 교황권에서 행하는 미사는 가장 최대의 공포스럽고 가증한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인데 오히려 교황 우상숭배들 중 최고요 가장 귀중하게 여겨져 왔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미사는 순전히 인간적인 고안물이기 때문에 제거해도 죄가 되지 않으며 위험도 없는 불필요한 것이라 했다. 더욱이 미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시된 채로 날조되고 고안된 위험한 것이 사실이라면 미사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미사는 인간행위, 심지어 사악한 악당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정죄되고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재가(裁可)없이 거짓된 인간의 견해와 상상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용의 꼬리, 즉 미사는 독사의 자식들과 또 다중적인 우상숭배라는 독을 낳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³¹⁾

루터의 이러한 원색적인 비판과 비난은 광신적이며 비인격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어디까지나 주님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식을 무참하게 짓밟고 가련한 영혼들을 기만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차단하는 행위에 대한 거룩한 의분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500여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 미사의 성찬파괴로 인한 거짓 교회 행위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은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하겠다.

③ 존 칼빈의 성만찬을 더럽히고 말살하는 모독 행위인 미사에 대한 공격

칼빈은 그의 유명한 명저 <기독교강요> 제4권 제17장과 18장에서 참 교회의 표식이 되는 거룩한 성찬을 더럽히고 모독, 말살하는 미사에 대하여 다양하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가

31) 지원용 편집, 『루터선집 제8권』, (서울: 컨콜디아사, 1985), pp. 400-403.

지 요지만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³²⁾

(ㄱ) 우리가 그에게로 장차 올라가서 주님을 경배함이 합당한데 미사는 반대로 그리스도를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로 끌어 내린다고 한다.³³⁾

소위 거룩한 미사성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 내려서 빵조각들과 포도주 속에 날마다 때 마다 무수하게 끌어들이는 옷지 못 할 연극(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장차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합당한 도리인데 이러한 미사 행위는 만왕의 왕을 심히 모독하는 불경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잠꼬대 같은 장난이란 말인가?

(ㄴ) 물질(떡과 포도주)의 숭배를 배척한다. 떡과 포도주를 섬기는 미신행위는 배제되어야 한다.³⁴⁾

빵과 포도주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대로 썩어질 물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신비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살과 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하등의 필요도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 떡과 포도주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행위는 더욱더 있을 수 없는 미신행위로 마땅히 배척해야 한다.

(ㄷ) 이런 숭배는 미신이며 우상숭배이다.³⁵⁾

32) 존 칼빈 지음, 『기독교강요 하』, 김종흡 외 공역, (생명의 말씀사. 2005. 26쇄 발행), pp. 492. 502-504. 523-535. 540. 544.

33) 같은 책, pp. 492-493.

34) 같은 책, pp. 502-503.

35) 같은 책, pp. 504-505.

이런 떡을 높이 들고 길거리로 다니면서 경배를 하게 하는 행위나 감실이라는 궤 속에 넣어두고 사람들이 수시로 그 앞에 가서 절을 올리며 기도를 드리는 행위는 미신이며 우상숭배라는 말은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는가?

(ㄹ) 미사는 사탄의 작품이다.³⁶⁾

칼빈은 여기에서 천주교의 미사는 사탄의 여러 가지 간계에 따른 작품으로 마귀가 극악한 오류로 거의 전 세계의 눈을 멀게 함과 동시에 미사가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한 제물과 예물이라는 거짓 신념을 퍼뜨린 것이라고 공격했다.

(ㄱ) 미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행위이다.³⁷⁾

그는 “미사가 그리스도에게 참을 수 없는 모독과 모욕(불명예)을 가한다”는 점을 밝혔다. 생각해 보자.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승천 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분의 말씀과 교회와 성령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처럼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ㄴ) 미사는 그리스도의 수난(십자가상의 대속의 죽음)을 은폐한다.³⁸⁾

그는 또 “미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수난을 은폐하며 매장하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사탄의 간계로 아주 그럴듯하게(유사하게) 진자를 흉내 내어서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는 이 기만행위는 진짜 그리

36) 같은 책, pp. 524-525.

37) 같은 책, pp. 525-527.

38) 같은 책, pp. 527-529.

스도의 구속의 죽음의 은혜를 감쪽같이 감추고 묻어버리는 마력이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십자가상의 대속의 죽음은 진실로 회개하는 죄인들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이다.

(스) 미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잊어버리게 만든다.³⁹⁾(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억을 사라지게 한다.)

그는 “미사의 셋째 기능으로 그리스도의 단 한번 죽으신 사실을 말살하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축출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는 미사라는 이상아릇한 제사제도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만민대속을 위한 단1회적인 영원한 구속의 놀라운 사실을 말살하여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다.

(오), 미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오는 유익(구원)을 우리에게서 빼앗는다.⁴⁰⁾(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베푸시는 은혜(구원)를 우리에게서 탈취해 간다.)

그는 “미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유익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유익을 우리에게서 빼앗는다.”고 논했다. 즉 미사라는 이 국적(정체) 불명의 해괴한 제사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위조품으로 대체하여서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즈) 미사는 성만찬을 폐기한다.⁴¹⁾(성만찬을 무효화 시킨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난을 우리의 머리속에 깊이 새겨 기

39) 같은 책, pp. 530-531.

40) 같은 책, pp. 531-532.

41) 같은 책, pp. 532-533.

역하게 하신 장면인 성찬은 미사에 의해서 제거되고 파괴되고 폐지되는데 까지 도달했다”고 말했다. 사실 미사는 주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망극(罔極)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없는 감사와 감격, 찬양을 드림으로서 기념하며 마음속 깊이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저들(사제들)은 미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성찬의 무한한 은혜를 제거하고 파괴, 폐지, 무효화하고 말았다.

(츠) 미사는 성경에 없으며 원시교회에도 없었다.⁴²⁾

“이러한 사악한 타락(미사행위)은 보다 순수했던 교회(초대)에는 없었다…이런 방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데 대해서 그들은 명령을 받은 일이 없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한 마디도 없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고 그는 말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초대교회에서도 행한 일이 없는 이러한 미사제사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크) 미사는 판매물이 되었다.⁴³⁾(돈을 버는 수단)

“나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며 의를 얻는다고 상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희생에 대해서 극악한 치욕과 참을 수 없는 모독을 가한다고 단정한다…그러나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을 내고 이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그들의 미사가 적용된다는 것이었다…유다는 그리스도를 은 30개에 팔았으나(마 26 : 15) 이 사람들은 프랑스의 계산 방법에 따라 그리스도를 동전 30개로 판다. 유다는 한번 팔았으나

42) 같은 책, pp. 534-535.

43) 같은 책, pp. 540-541.

이자들은 몇 번이든지 판다.”

(ㄷ) 미사는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다.⁴⁴⁾

결론적으로 칼빈이 여러모로 주장한 것을 보면 천주교의 미사는 그리스도의 성찬을 주하게 더럽힌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모독한 행위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천주교는 이렇게 엄청나게 주님의 성만찬을 더럽히고 말살하며 신성모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미사는 천주교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매장하며 그의 속죄의 죽음을 망각하게 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탈취한 사탄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경악(驚愕)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신적이며 물질 우상숭배적인 미사를 매일, 빈번하게, 온 세계에서 거행하고 있는 천주교를 참 교회라고 감히 부를 수 있을까? 아니, 결단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4) 개혁교회의 주장

그동안 천주교가 참 교회가 아니고 거짓 교회라는 사실을 루터와 칼빈의 주장과 실제적인 증거를 통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는 개혁 교회의 신앙고백과 신학서와 저서를 통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벨직(벨기에)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들 중에서 이 문제를 가장

44) 같은 책, pp. 544-545

간략하게 잘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대표적으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참 교회임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만일 복음의 순수한 교리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성례가 순수하게 이행되며,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 죄를 징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참 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요컨대, 모든 일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뤄지며 동시에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일이 제거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되신 분으로 인정됨으로 그 누구도 이 분에게서 벗어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참 교회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거짓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고자 하지 않는 교회이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성례를 시행치 않고 그들 스스로의 생각에 맡긴 채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의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자를 핍박하며, 그들의 죄와 욕심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다.”⁴⁵⁾

이 신앙고백은 참 교회의 진정한 표식(標式)으로서 (1) 복음말씀의 순수한 교리가 전파되는 것. (2)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가 순수하게 이행되는 것. (3) 그리고 말씀의 교훈에 따른 죄의 징벌(권징)을 들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개혁신교회가 성경적으로 주장하는 공통된 참 교회의 표식이다. 그런데 이 고백서는 결론적으로 추가해서 참 교회란 1) 모든 일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뤄지며 따라서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일이 제거되어야 하며, 2)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되신 분으로 인정되어서 그 누구도 이 분에게서 벗어

45) 김의환 저,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 : 생명의 말씀사, 2000), p. 198.

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에야만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그리고 거짓교회에 대해서도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천주교의 실례를 들어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개척교회의 신앙고백 가운데 이 한 가지만 봐도 천주교는 참교회로 구분될 수 없는 참으로 거짓교회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2) 조직 신학(뵐코프 기독교신학개론)

뵐코프는 개척교회 조직신학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정평 있는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여기에서는 그의 세 가지 조직신학서 가운데 개략적으로 잘 기록한 중간에 속한 개론서에서 인용했다.⁴⁶⁾

교회의 표식(標識)은 유형교회(有形教會)에 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와의 구별을 지어주는 것이다. 개척과 교회는 항상 세 가지 표식(標識)을 말하였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표식(標識)은 결국 하나로 귀의(歸依)되고 마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교훈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교회의 이 세 가지 표식(標識)은 다음과 같다.

① 말씀의 진정한 전파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식이다(요 8:31, 32, 47, 14:23. 요일 4:1-3, 요이 9). 이 표식은 교회의 말씀 전파가 완전하며 또 절대적으로 순수해야만 그 교회를 진정한 교회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상은 지상에서는 얻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전파는 근본적으로 진실 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 신앙과 행위에 관촬적인 감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의(歸依)하도록 하는데

46) 루이스 뵐 코프 저, 『기독교신학개론』, 신복윤 역,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 종교교육부. 1963), pp. 246-247.

뛰어난 교회는 최상의 교회인 것이다.

②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례는 로마교회에서와 같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절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은 이 성례는 말씀의 유형적 전파인 것이다. 그리고 성례는 말씀의 합법적 사역자들에 의하여 신적(神的)제도에 따라서 신도들과 그 자손들에게만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례의 집행은 초대교회의 한 표식으로서 뚜렷하게 눈에 띈 것이었다(마 28:9, 막 16:16, 행 2:42, 고전 11:23-39).

③ 권징(勸懲)의 신실한 시행(施行)

이것은 교리의 순수를 유지함과 성례의 신성(神聖)을 수호(守護)함에 극히 필요한 것이다. 권징에 등한(等閑)한 교회들은 조만간 진리의 빛을 상실(喪失)하게 되고 거룩한 것을 남용(濫用)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 진정한 권징을 강조하는 것이다(마 18:18, 고전 5:1-5, 13, 14:33, 40, 계 2:14, 15, 20).

이 조직신학 개론은 참 교회의 표식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잘 기록하고 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 참 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식은 유형교회(보이는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임을 밝혔다.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모든 유형교회 안에 있는 중생한 신자들만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이므로 개혁교회에서는 이를 유형교회와 뚜렷이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구별을 없애고 일원화해서 보이는(유형의) 천주교가 유일한 교회이고 또 유일한 참 교회라는 꾀변(詭辯)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누구든지 천주교 신자만 되면 즉 보이는 천주교인만 되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실제와 크게 모순되는 억설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천주교가 참 교회라는 주장

가운데는 참으로 이렇게 많은 궤변과 모순과 역지가 혼합되어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벨코프가 아주 잘 요약한 참 교회의 표식 세 가지는 그대로 소화하여서 천주교뿐만 아니라 모든 개척교회와 그 외의 기독교의 간판을 가진 교회라는 단체들의 진위(眞僞)를 구별하는 잣대로 활용하면 좋을 줄 안다.

3) 교회가 시작되는 곳 사라지는 곳(랄프 디디어 「미국장로교는 어디로?」에서)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장로교회의 변질과 배교의 와중에서 말씀과 순수한 복음적 신앙 때문에 노회로부터 목사직을 제명당하고 난 후에 새로운 영적자유를 체험하고 성령의 생생한 역사를 발견한 목사이다. 여기에 인용하는 그의 짧은 인용문은 비록 적지만 참 교회와 거짓교회의 시종을 극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교회가 올바르게 출발하는 곳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휘한다는 조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전파되고 있다는 조건이 있다. 동시에 교회가 끝나는 곳에서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 권위로 보유하지 아니할 때는 이미 교회는 없어진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서는 배교자-우리 주 예수님의 저주받을 원수인 것뿐이다.⁴⁷⁾

저자는 그리스도의 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전파되고 있는 곳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휘하는 곳에서 탄생한다고 한다. 반대로 교회가 사망하는(끝나는: 거짓교회가 되는)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47) 랄프 디디어 박사 저, 『미국장로교는 어디로?』, 차남진 박사 역, (서울 : 세계선교연구원. 1979), pp. 114-115.

최후의 권위로 소유하지 않는 때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진실한 전파가 없는 교회(천주교나 그 어떤 교회)는 배교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받을 원수라고 정확히 선고하였다. 오늘의 천주교는 물론 배교하고 있는 많은 개혁신교회들도 빠 속 깊이 새겨야 할 말인 줄 안다.

(5) 성경 말씀의 증거

1) 참 교회의 표식인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말씀

①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32)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으로다(요 8:4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요 14:23)

② 베드로와 사도들의 가르침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40-42)

③ 바울 사도의 가르침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행 16:30-34)

④ 사도 요한의 교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요이 1:9)

2) 참 교회의 표식인 주님의 거룩한 성찬예식

① 그리스도의 제정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6-28)

② 사도들의 실행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40-42)

③ 사도바울의 교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3-26)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절대로 믿는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순수하게 믿고 전파하고 가르침으로 주님의 몸 된 거룩한 참 교회가 세상에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그 거룩한 주님을 머리로 모신 참 교회는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감격스럽게 기억하며 주님의 영을 더욱 충만히 모시며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하시는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4. 왜 천주교를 위조와 위장교회라고 하는가?

위조와 위장이라는 말은 아주 불쾌한 말이다. 천주교가 위조와 위장 교회라는 말은 유쾌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천주교의 실상을 말하면서 이 불가피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다.

(1) 위조교회

먼저, 천주교가 위조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도록 하겠다.

1) 시체와 위조 유물과 유골을 숭배하는 천주교

먼저 서글픈 일은 천주교를 위조(偽造)교회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위조란 속이기 위하여 거짓(가짜) 것을 진짜처럼 만든 것이다. 위조문서, 위조수표, 위조지폐 등이 있고 그 중에 위조죄란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처럼 위조한 죄를 말한다.

그런데 천주교가 위조교회라는 말은 천주교가 정품(正品)교회가 아니라 위조품 교회라는 말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천주교를 비 정품 교회라고까지 말해야 하는가? 이는 좀 가볍게 보일 수 있으나 전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는 천주교가 위조교회라고 하는 몇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한다.

① 유물과 유골 숭배는 이방종교들의 풍습을 모방한 것이다.

랄프 우드로우는 「로마 가톨릭주의의 정체」에서 고대 비밀종교는 뼈가 묻힌 곳을 성별하게 여겼고 이집트는 순교한 신들의 팔, 다리, 및 두개골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⁴⁸⁾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가톨릭

백과사전을 인용하여서 "떠나간 성인의 기념물로서 남아있는 어떤 물체 곧, 몸 또는 옷의 특별한 부분"의 사용은 “그리스도교 전파 이전”에 존재하였고, “사실상 유물 중에는 어느정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종교 이외에 다른 많은 종교제도와 관련된 원시적 본능에 속한다.”⁴⁹⁾ 고 하였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러한 이방종교들이 원시적 본능으로 행한 유물과 유골숭배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흡수, 모방하여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크게 탈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최고의 고등종교인 기독교에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원시적 자연종교의 잘못된 행습들을 끌어들인 것은 천주교의 탈선과 변질과 타락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천주교는 성인들의 시체나 유물이나 유골숭배를 교리화해서 장려하고 있다.

천주교가 성인으로 추대했던 죽은 자의 유골(성해라고 칭함)과 유품의 숭배는 무류의 보편공의회와 결의로서 교리화 하였다. 이에 대한 트렌트공의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순교자들의 거룩한 유해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여타 죽은 이들의 거룩한 유해를 신자들이 공경해야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지체이며 성령의 궁전이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에 의해 영원한 생명으로 되살아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시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들의 유해에 공경이나 존경을 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그 유해와 유품들을 신자들이 존경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하거나, 성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기념하

48) 랄프 우드로우, 『로마 카톨릭주의의 정체』, 안금영 역, (서울 : 노아와 방주, 1997 1판 7쇄), p. 118.

49) 같은 책, p. 118. 재인용

는 성지를 자주 방문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단죄 받아 마땅한 자들이며, 교회는 이미 그러한 자들을 단죄하였던 것과 같이 지금도 단죄 하는 바이다.⁵⁰⁾

종교개혁의 와중에 개최된 트렌트 공의회는 개혁이 아닌 잘못된 유물과 유골 숭배도 교리화해서 무류의 진리로 둔갑시키고 말았다. 이 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교자들의 유해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성인들의 유해를 신자들은 공경해야 한다.

둘째, 공경할 이유

- 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이기 때문이다.
- ② 그들은 성령의 궁전(殿)이었기 때문이다.
- ③ 그들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④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시실 것이기 때문이다.

공의회는 위와 같이 순교자와 성인들의 유골과 유물숭배의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①, ②, ③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지상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공통으로 누리는 것들이다. 그러니 특별히 공경 받아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④의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은 그들이 지상에서

50) 주세페 알베고리 외, 『보편공의회문헌집 제3권』, 김영국, 손희송, 이경상 역, (서울 : 가톨릭출판사, 2006), p. 775.

그들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정성을 보고 지상에 있는 신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많은 은혜를 받게 해준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성경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거짓말이다. 공의회는 이러한 허황(虛荒)된 거짓교리를 설파하며 이를 부인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듭 거듭 단죄를 선언하는 만용(蠻勇)을 부리고 있으니 실로 크게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③ 787년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새로 건축하는 성당이나 경당(소성당)에는 순교자나 성인들의 유골 없이 봉헌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것을 위반하면 파문까지 선언하였다

사도궁 내에서 가장 특이한 곳은 유물 도서관일 것이다. 천장이 매우 높고 이 방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철재 진열장, 선반, 서랍 등이 빼곡히 채워져 있다.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으스스한 도서관으로서,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은 사서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희한한 일을 처리한다.

유물 도서관의 사서가 하는 일은 초기 성인들과 순교자들의 유골을 담은 아주 작은 상자와 봉투를 전 세계 곳곳으로 보내는 것이다. 교회법에 따르면 성당 또는 경당의 모든 제단에는 성인들의 유물이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당과 경당은 세계 도처에서 매달 새로 생기고 있으므로, 유물 도서관 사서 신부는 뿔가루 몇 줌이나 뿔조각들을 봉투에 넣어 등기 우편으로 부치느라 늘 바쁘다.⁵¹⁾

제2차 니케아 공의회의 결의에 따라 성당이나 경당을 건축하는 곳에 순교자나 성인의 유골을 공급하기 위하여 바티칸 사도 궁내에 유

51) 니노 로 벨로 지음, 『백과사전에도 없는 바티칸 이야기』, 이영수 옮김, (서울 : 생활성서사. 2001), pp. 44-45.

물 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희한(稀罕)하고 괴상(怪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세상에 어떻게 소위 거룩하다고 하는 교황청 내에서 이렇게 괴이(怪異)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천주교 성당이나 경당을 새로 건축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성인의 유골이라도 그 제단 밑에 넣어야만 미사드리는 천주교의 성전(聖殿)으로써 자격을 갖춘다는 말이다.

이것은 천주교의 신앙생활의 중심점인 성당이나 경당의 거룩한 구별이 죽은 성인들의 뼈 조각을 그 제단 아래에 넣어둠으로만 된다는 것이니 참으로 해괴(駭怪)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데 이방종교의 죽은 성인숭배를 모방해서 죽은 성인의 뼈 가루를 모셔야 천주교회당이 된다는 이 교리는 천주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이방종교와 위조교회로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실제로 750년경에 교황이 팔아넘긴 많은 뼈들과 두개골들이 있었는데 817년에 교황 파스칼이 2,300명의 순교자들의 시체를 공동묘지에서 교회로 옮겼고, 교황 보니페이스 4세가 609년에 카타콤으로부터 거룩한 뼈 28마차를 옮겨왔다고 한다.⁵²⁾ 물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유골들이 있었을 것이나 많은 대 성당에 많이 보관하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니 전 세계의 모든 성당이나 경당에 다 보내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 결과로 부득이 위조유물들이 양산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2) 성유물의 대량 위조

52) 황기택, 『로마카톨릭의 진실을 말한다』, (서울 : 예루살렘, 2001), p. 81.

작은 예배당이나 성당들까지도 성유물이 필요했다. 성유물이 없으면 제단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유물이 대량으로 위조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성자의 유물은 출처와 진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값비싼 물건이었다.…성당의 제단과 유물함에 보관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조각들을 모두 모으면 족히 열 개 이상의 십자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였다.⁵³⁾

「하늘과 땅의 지배자 교황들」의 저자 한스 크리스티안 후프는 전 세계의 모든 성당이나 경당(소 성당) 등에 성인들의 유골이나 유물이 들어가야 되니 많은 성인들의 유골과 유물로는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부득이 가짜 뼈나 유물들이라도 대량으로 만들어서 채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 위조유골이나 유물들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우면서도 비싼 값으로 거래되었다고 했다. 그러면 이러한 위조유골이나 유물을 대량으로 만들어 비싸게 팔아서 모은 돈은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 거룩한 유골과 유물들을 대량으로 위조하여서 고가에 팔아서 치부한 사람들은 누구이겠는가?

중세는 위조의 시대

역사가들은 중세를 ‘위조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가짜 문서들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었다. 기독교의 권력과 신앙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위조되었다.⁵⁴⁾

한스 크리스티나 후프는 계속해서 천주교의 중세가 "위조의 시대"였

53) 한스 크리스티안 후프, 『하늘과 땅의 지배자 교황들』, 김수은역, (서울 : 동화출판사, 2009), p. 46.

54) 같은 책, pp. 46-47.

다는 역사가들의 표현을 인용하였다. 그뿐 아니라 천주교는 그들의 권력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용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위조하였고 이를 위한 위조문서의 제작은 예외가 아닌 합당한 규칙이었다고 까지 하였다. 천주교 역사의 중심인 중세가 위조로 점철되었다면 천주교 자체가 위조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3) 교황청은 무수한 위조 유물들의 숭배를 허용하였다.

황기택 목사는 “심지어 성인의 뼈로 추앙하던 몇몇 뼈들이 동물의 뼈로 들어나기도 했다. 스페인의 어느 성당에서는 한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떨어진 날개의 한 부분이라고 불려진 것이 전시되었다. 그러나 조사한 결과 그것은 커다란 타조의 깃털로 나타났다. 현존하고 있는 많은 유물이 가짜이거나 엉터리임을 부인 할 수 없다.”⁵⁵⁾고 하였다.

그리고 황 목사는 엄청나게 많은 십자가 조각들(배 한척에 가득할 정도)과 가시면류관과 가나에서 남았다는 포도주나 베드로가 구운 생선조각과 말구유, 요셉의 목수연장들, 만찬 때 사용했다는 컵, 가룟 유다의 빈 지갑, 빌라도가 손을 씻은 세수 대야, 동정녀 마리아의 머리 카락(색깔이 다른 것이 여러 개)등등 셀 수 없어 보이는 위조유물들이 있다⁵⁶⁾고 하였다.

한편 가톨릭 백과사전은 “그리스도계의 큰 성당들이나 로마까지도 숭배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진열된 더욱 많은 고대 유품 중 다수가 이제는 틀림없는 위조품이거나 적잖이 의심된다고 선언되어야 한다.”⁵⁷⁾고 밝혔다. 그런데도 천주교에서 계속하여 위조유물이나 위조 유

55) 황기택, 『로마카톨릭의 진실을 말한다』, (서울 : 예루살렘, 2001), pp. 82-83.

56) 같은 책, pp. 78-80.

굴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교황청이 위조품이라도 괜찮으니 숭배하라고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백과사전이 말하는바 합법적으로 전시된 분명한 위조품들도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은 묵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위조유물이라도 진품과 같이 합법적으로 진열하여 숭배 받게 하는 사실은 천주교의 위조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가톨릭 백과사전 12권 738페이지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수세기 동안 완전하고 선한 믿음으로 전수되어져온 계속된 잘못이 불명예스럽게 하나님에게 행하여지고 있다. 교황청은 이러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고대의 의심스러운 유물들의 의식을 계속 하도록 허락하고 있다.⁵⁸⁾

이 사전은 정직하게 천주교가 수세기동안 행한 계속된 잘못이 하나님에게 불명예스럽게 행하여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백과사전은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여 고대로부터 내려온 의심스러운 유물들(유골, 유품들)을 계속 숭배하도록 허락하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다. 진짜인지 의심스러운 유물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불명예스러운 행위들을 계속하라고 허락한 교황청의 지탄받을 행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위조유물임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숭배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사실은 “천주교의 권력과 신앙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위조되었다.”⁵⁹⁾는 말과 같이 철면피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

57) 랄프 우드로우, 『로마 카톨릭주의의 정체』, 안금영 역, (서울 : 노아와 방주, 1997 1판 7쇄), p. 119. 재인용.

58) 황기택, 『로마카톨릭의 진실을 말한다』, (서울 : 예루살렘, 2001), p. 83. 재인용

59) 한스 크리스티안 후프, 『하늘과 땅의 지배자 교황들』, 김수은역, (서울 :

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실은 천주교가 위조종교라는 것에 대한 변명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4) 교황권의 위조사실들(위조문서들: 천주교의 정점인 교황권은 위조문서들로 유지되어 왔다.)

우리는 위에서 천주교가 성인들의 유물과 유골들을 무수하게 위조하여 뿌리면서 성당들을 유골의 무덤이 되게 하고 신도들을 미신과 우상숭배자들로 퇴화(退化)시킨 사실들을 살펴보았다. 천주교는 헤아릴 수 없는 유물과 유골의 위조를 합법화하여서 그 위조품들을 품고서야 성당들을 세울 수 있고 그런 위조유물과 위조유골들까지 공경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의 신앙생활과 교권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천주교는 무수한 중요 문서들까지 위조하여서 그 교권을 유지해 왔는데, 이 사실은 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위조된 것은 유물만이 아니었으며 증서마저 위조되었다. 수도원과 재단들은 증서를 위조해서 성유물 소유의 정당성을 증명하곤 했다. 얼마나 많은 증서들이 위조되었던지, 역사가들은 중세를 ‘위조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가짜 문서들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었다. 기독교의 권력과 신앙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위조 되었다. 여기에는 교황들까지 한몫했다.⁶⁰⁾

한스 크리스티안 후프는 천주교가 그들의 교권 유지와 강화를 위하여 많은 위조문서들을 작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의 저서 「하늘과

동화출판사, 2009), p. 47.

60) 한스 크리스티안 후프, 『하늘과 땅의 지배자 교황들』, 김수은 역, (경기도 : 동화출판사, 2009), pp. 46-47.

땅의 지배자 교황들」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는데, 천주교는 유물들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무수한 증서들까지도 위조하여서 그 교권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역사가들이 중세를 '위조의 시대'라고 부를 만큼 많은 증서들이 위조되었고 가짜문서들은 예외가 아닌 규칙이었다는 말은 이러한 것들이 중세 천주교를 유지시켰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는 중세 천주교의 권력과 신앙이 위조품이었다는 말과도 같다. 이들이 위조 유골이나 유물뿐만 아니라 위조증서나 가짜문서 까지도 규칙과 같이 당연시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냈으니 위조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상은 천주교가 자행한 위조문서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

① 먼저 수도원과 재단들은 증서를 위조해서 성 유물 소유의 정당성을 증명하곤 했고,

② 증서가 너무 많이 위조 되어서 중세를 위조의 시대라 부르기도 했고,

③ 심지어 가짜 문서들은 특별한 경우만이 아니고 아주 합법적(규칙)이었다.

④ 천주교의 권력과 신앙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위조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몇몇이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황들 까지 한 몫 했다고 폭로하고 있다.(교황권의 위조문서들)

① 12세기 초 교황 갈리스토2세는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에 위조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고,

② 그레고리오 7세도 세속의 지배권을 선언한 교황령을 위조했고,

③ 중세기의 가장 유명한 콘스탄틴의 기증장이라는 문서도 위조했

다.⁶¹⁾

한스 크리스티안 후프는 이러한 위조문서들은 교황이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하고 스스로 '세속의 지배권을 선언한 <교황령>'을 위조하기도 하고 <콘스탄티누스 기증장>이라는 중세의 가장 유명한 이름을 떨친 문서를 위조한 것 등으로 이루어 졌다고 했다. 진리와 진실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천주교가 이처럼 수치를 모르며 문서들을 위조하여 교황권을 확립시키고 교권을 강화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그러한 사탄적인 기만 죄를 합리화하며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천주교가 기독교임을 부인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조교회라고 불러도 합당 할 것이다.

교황권의 위조문서들

1) 12세기 초, 교황 갈리스토 2세는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에 위조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2) 그레고리오 7세도 하인리히 4세에 맞서 세속의 지배권을 선언한 <교황령>을 위조했다.

3) 여기에는 중세의 가장 유명한 위조문서인 <콘스탄티누스 기증장>도 들어 있었다.⁶²⁾ 그런데 그레고리 7세가 위조한 <교황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30년에 작성했다는 어떤 증서의 사본을 지적했다.

그 내용은 황제가 비잔티움으로 거주를 옮기면서 교황 실베스텔 1

61) 같은 책, p. 47.

62) 같은 책, p. 47.

세에게 라테라노 궁, 로마, 이탈리아와 서쪽지역 일부를 선물했다는 것이었다. 또 그 증서는 황제가 교황에게 '영화로운 황제의 주권과 찬란한 현세 권력'과 황제의 모자와 자주색 망토 같은 통치의 상징들을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그 후로는 교황만이 그 황제의 표장들을 착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교황은 황제의 권한을 가진 자라고 자각했고 중세에 이미 '진정한 황제는 교황'이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이 위조 기증장은 이후 세계정치를 재편하는 역할을 했다⁶³⁾고 한다.

천주교의 상당히 양심적으로 보이는 신학자인 한스 쾅은 아래와 같이 그들의 위조문서들을 지적하고 있다.

4) 역사 연구는 5세기부터 교황들이 명백한 위조문서들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대시켜왔음을 증언하고 있다.

거룩한 교황 실베스테르Sylvester에 관해 마음대로 조작된 ‘전설’은 5~6세기경에 만들어졌다.⁶⁴⁾

5) 5-6세기는 또한 바울로의 가짜 제자라고 생각되는 아레오파기이트의 디오니시우스(Dionysius the Areopagite)의 저서들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는 ‘위계질서’라는 단어와 더불어 천상의 천사들과 지상의 사제들의 전체 위계질서를 소개한 사람이었다.⁶⁵⁾(필자 주: 위조문서로)

63) 같은 책, pp. 47-48.

64) 한스 쾅, 『가톨릭 교회』, 배국원 옮김, (서울: (주)을유문화사, 2007), p. 90.

65) 같은 책, p. 91.

6) 이 시기에 켈라시우스 교황의 두 번째 후계자였던 심마쿠스 교황(Symmachus)을 중심으로한 무리들의 성공적인 위조문서들이 나타나게 되는 데 이들은 무엇보다 ‘Prima sedes a nemine iudicatur’라는 명제, 즉 첫 번째 교황직(Prima sedes)은 황제를 포함한 어떠한 권위에도 판단받지 아니한다(a nemine iudicatur)는 말을 유행시켰다.⁶⁶⁾

양심적인 천주교 신학자인 한스 쾅은 역사 연구의 증언을 토대로 교황들이 명백한 위조문서들을 통하여 5세기부터 자신의 권력을 확대시켜 온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5-6세기에 바울의 가짜제자라고 생각되는 아레오파가이트의 디오니시우스의 위조문서들이 등장하여서 천주교의 위계질서(교계제도)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도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심마쿠스 교황을 중심으로한 한 무리의 성공적인 위조문서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첫 번째 교황직은 황제를 포함한 어떠한 권위에도 판단받지 아니한다.”는 유명한 위조 유행어를 퍼뜨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스 쾅의 진실추구와 거짓에 대한 용감한 고발은 높이 평가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7) <거짓(위)이시도르(Pseudo-Isidorian)교령집>도 있다.

이는 최초로 왕관을 쓴 교황 니콜라 1세(858-867)가 전체적인 권위를 얻기 위하여 857년에 기록된 이 교령집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 책은 2-3세기에 있었던 주교의 편지와 교령과 회의록을 치밀하게 위조한 것으로 니콜라이는 이것이 위조문서 인줄 알고도 초기부터 천주교의 문서보관소에 있었던 것이라고 속이며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책은 몇 세기 전에 생긴 교황의 현세적 권한을 5세기나

66) 같은 책, p. 91.

앞당기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위조문서였으며 다른 어떤 것보다 교황권을 강화시켰으며 천주교의 헌법의 대부분의 기초가 되었다.⁶⁷⁾고 한다.

교황들은 이처럼 치사하게 황제의 기증장까지 위조하여서 세상 황제의 명예와 권력을 도적질하여 누리고 있으며 조금도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위조도 정당한 행위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마귀가 주겠다는 천하의 영화와 권세를 헌신짝처럼 버리신 것(마 4:8-10)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행위로서 소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만약 장차에도 소위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권세욕에 눈이 어두워서 사탄의 앞잡이인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되어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살육하면서 세상권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8) 위장문서에 대한 한스 킹의 지적

8세기가 되자 교황 실베스테르Sylvester에 관해 마음대로 조작된 이 전설은 다시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서’라는 위조문서(15세기에 위조라고 판명되었음)와 연결된다.

이 문서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와 제국의 서쪽 절반을 교황 실베스테르에게 증여하며 교황이 황제의 표장, 자색 도포 및 궁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교황에게 모든 교회, 특별히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지상권을 허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실베스테르 교황에게 기증했던 것은 라테란궁정, 성 베드로 성당 및 라테란 성당의 새 예배당뿐이다.⁶⁸⁾

67) H. H. 할레이, 『최신 성서핸드북』, 박양조 역, (서울 : 기독교문사, 1973), p. 839.

68) 한스 킹 지음. 『가톨릭 교회』, 배국원 옮김, (을유문화사. 2007) p. 90.

한스 쾅은 여기에서 교황 실베스테르에 관해 마음대로 조작된 전설이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서와 연결된다고 하였다. 이 위조문서에 따르면 황제가 교황에게 모든 교회 특별히 안디오크,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지상권을 허락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황제가 교황에게 기증한 것은 라테란궁전과 성 베드로성당, 라테란 성당의 새 예배당뿐이었다고 하였다. 이 위조문서는 교황이 황제에게 제국황제의 권력과 그 장식물들과 많은 지역(로마 제국의 서쪽의 절반)을 증여 받았다는 데에 머물지 않고 심지어 모든 지역의 교회들에 대한 지상권까지 허락받았다는 수치스러운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위조문서들을 통하여 천주교를 확대하고 교회와 세상권 세까지 좌우하려해 온 사실은 명확히 비 성경적이며 반 성경적인 죄악으로 다시 규탄(糾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고 절대 무류한 권위를 가졌다는 천주교 교황의 권위와 세속 권력이 이렇게 많은 위조문서로 유지 발전되어 온 사실은 천주교가 위조종교라는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위한 것이면 위조도 무죄라는 변명과 거짓말들(위조의 합리화)

한스 크리스티안 후프는 <콘스탄티누스 기증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8세기 중반에 교황 바오로 1세가 교회국을 막 정복하려던 랑고바르드족 왕에게 위협을 느껴서 익명의 위조물 제작소에 이 증서를 의뢰했다는 설이 있다. 이 위조문서는 700년 후에야 로렌초 발라와 쿠자누스에 의해 위조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폭로되었다. 그 후에 로렌초 발라는 종교재판소의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곧 복권되어 궁정 수사학 교수와 교황청 비서로 임명됐고 크자누스도 죽는 날까지 교황

들을 위해 일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국의 설립근거인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폭로한 자들에게 천주교가 끝까지 관용을 보일 수 있었는가? 중세 역사 전문가인 호르스트 푸르만은 이렇게 답했다. “중세인들에게는 어떤 사안에 대한 사실이나 정당함을 결정하는 것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고 신이었다. 곧 콘스탄티누스 기증장이 표명한 교회의 지배권은 신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성애 의해 절대 문제시 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위조도 신의 진리를 분별해서 좋은 일이라는 의미로 행했으므로 위조 사실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리고 중세에는 위조범이 재판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위조의 내용을 문제 삼는 사람들은 완전히 규정대로 가차 없이 처형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천주교는 "실제로 19세기까지 입증 할 수 있는 증서가 아무 것도 없었음에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황제의 권위와 서방세계를 선사했다고 고집했다."⁶⁹⁾고 하였다. 즉, 중세 천주교와 지금까지의 천주교가 법과 진리와 이성을 전혀 무시하고 무법적으로 자신들의 위조문서에 근거해서 교권을 정당화 하였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위조사실을 양심의 가책 없이 오히려 자신들의 교황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미명하에 정당화하는 것은 성경의 법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과 질서까지 무시한 철면피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5) 천주교의 비성경적인 위조품 교리들

천주교의 많은 교리들이 거짓이라면, 그것들을 믿는 모든 신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사기당한 것이 되며, 더욱이 사기당해서 도적맞은 영원

69) 한스 크리스티안 후프, 『하늘과 땅의 지배자 교황들』, 김수은 역, (경기도 : 동화출판사, 2009), pp. 48-49.

한 생명은 도저히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영생을 사기당한 사람들의 영원한 불행은 어디에다 호소 할 수 있겠는가?

천주교는 서서히 성경적인 복음신앙에서 이탈하여 나갔다. 그리하여 올바른 초대교회적인 정통신앙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천주교가 제정한 많은 교리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비성경적인 위조품으로 생산되었다. 그들은 그러한 비성경적인 위조교리의 근거를 성경구절을 통하여 해명하고 있으나 문자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억지해석이요 아전인수 격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으로서 자격이 없는 외경과 인간들의 정통들도 정당화 하고 있으니 더욱이 위조교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위조교리들을 간략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황제도

성경 어디에서도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천주교는 자의로 교황제도를 만들어서 오늘날과 같이 절대 무류하고 세상 권력도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도 침범할 수 없는 최고 절대권위로 가르치고 있으니 마귀 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성경에 없는 인조적인 위조제도일 뿐이기 때문이다.

② 주교제도

성경 어디에 광대한 지역 교회들을 지배할 사람으로 주교라는 직책을 세우라고 명하고 있는가? 그 어디에서 그들이 사도들의 후계자요 계승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초대 사도들의 제자들이었던 속 사도들도 감히 그러한 주장을 하지 못했다. 성경적으로 보면 베드로나 사도들의 제도적인 계승자는 없고 영적인 충성된 제자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교제도도 인위적이고 위조된 교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사제(제사장)제도

신약 성경에 사도와 선지자, 감독, 목사, 장로는 있으나 사제나 신부(神父)라는 제도는 없다. 사제는 구약의 유대교 제사종교의 유물일 뿐이고 더욱이 신부는 영혼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국어로는 신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일 뿐이다. 그런데 미사 제사를 통하여 밀떡을 그리스도의 실체로 변화시켜서 속죄 제물로 바치고 성사들을 통하여서 신도들을 구원하는 만능의 슈퍼맨인 사제제도가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러한 것들은 비 성경적인 위조 일뿐이다.

④ 성인숭배와 성인에게 기도

성인은 덕과 지혜가 뛰어나고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는자나 순교자, 훌륭한 고행자, 주교, 금욕적인 동정녀 등 공식적으로 교황이 성인의 품위에 올린 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천국에 직행하여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므로 이들을 공경하고 이들의 기도와 도움을 바라는 것은 참으로 당연하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성경과 다르다. 성경에는 모든 신실한 신자들을 다 성도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들을 숭배하거나 그들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죽은 성인이라는 특별 계급이 있고 그들에게 숭배와 기도를 해야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위조교리이다.

⑤ 성화 상(우상)숭배 교리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스도나 사도들, 천사들이나 마리아와 성인들의 성화나 성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며 기도를 하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다(출 20:4-5. 제2계명). 그런데 천주교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러한 분명한 제2계명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거침없이 무수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과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이 교리는 거짓되고 마귀적이다.

⑥ 연옥교리

연옥교리는 천주교의 아주 영리한 발명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신구약 어디에도 분명한 연옥사상은 전혀 없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연옥의 근거인 마태복음 5장 25-26절이나 고린도 전서 3장 13-14절과 그 외의 두 구절도 연옥과 절대 무관한 말씀이다. 또한 그들이 연옥의 유일한 근거로 대는 정경외의 구약 외경 마카베오기 하권 12장 43-45절도 독립투사 유다가 부활을 기대하여 전사자들의 속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연옥에서의 구출이라는 사상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연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에 속한 제사행위로서 신약시대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이다. 성경에도 외경에도 연옥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연옥 사상을 발명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불신자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도 뚜렷한 위조교리이다. 그런데도 역지로 연옥교리를 만들어서 교권 유지를 위하여 악용하고 있는 것은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대 죄가 아닐 수 없다.

⑦ 성체교리

성체교리는 화체설이라는 허황되고 터무니없는 거짓된 설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사제의 성령청원 기도와 성찬제정과 축성문 낭독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체변화 되었다는 밀 빵과 포도주를 성체로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모시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사제가 떡과 포도주 위에 십자가를 긋고 두 손을 덮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변화가 이뤄지기를 기도하고 눈을 하늘로 향하고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이는…내 몸이다”하고 “이는…내 피의 잔이니”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천주교가 수백 년을 그렇게 믿고 지켜온 이 거룩한 교리(거룩한 것처럼 가장된 교리)를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정죄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나 성경과 올바른 그리스도의 속죄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천하를 호령하는 서술이 시퍼런 교황과 천주교 교권자들 앞에서 이 교리를 부인하고 반박한 것은 이것이 명확히 인조적이며 위조된 거짓교리이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최근에 전 세계의 무수한 기독교회들이 이와 같은 위조교리들로 흑세무민(惑世誣民)하고 있는 천주교와 연합하자는 정신 나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 개탄(慨嘆)하지 않을 수가 없다.

⑧ 마리아 교리

천주교의 마리아 교리에 이르면 경악(驚愕)의 극치에 이르게 된다. 순진하고 평범한 주의 종 마리아를 어떻게 이처럼 엄청나게 변장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그저 입이 벌어질 뿐이다. 마리아의 교리들을 대략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요 일평생 동정을 지

킨 종신 처녀요 원죄 오염 없이 잉태된 자요 평생 죄를 짓지 않은 자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요(중보자는 그리스도뿐임) 교회의 어머니요 부활 승천한 자요 하늘의 여왕이다. 이 외에도 그리스도와 공동 구속자요 성령과 같이 오순절 은사운동에 역사하는 자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자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위조된 마리아 교리들만 보아도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천주교의 정통적이고 성경적인 교리들은 이러한 위조교리들을 가리는 울타리 역할을 할 뿐이고 천주교의 실제적인 핵심교리들은 대개 이상에서 열거한 것들이다. 이러한 천주교의 핵심을 이루는 위조교리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천주교가 극명(克明)하게 위조된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6) 천주교가 위조된 교회이며 위조품이라는 주장

현대의 주석가 번 S. 포이스레스는 그의 명저 「요한계시록 맥잡기」에서 천주교를 위조된 교회라고 부르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는 이 위조된 교회의 대표라고 하였다.⁷⁰⁾ 그리고 20세기의 최고 기독교 설교자요 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천주교야 말로 위조품이요, 가짜 교회이며, 가장 저질의 매춘부요, 세상에서 가장 마귀적인 존재라고 하였다.⁷¹⁾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천주교가 위조된 교회이며, 가짜 교회이며, 심

70) 번 S. 포이스레스 지음. 『요한계시록 맥잡기』, 유상섭 옮김. (크리스찬출판사.2002), pp. 17-18.

71) 마틴 로이드 존스 외 지음. 『천주교사상평가』, 정도수역, (서울 : 말씀과 만남.2003) pp. 40-41

지어는 가장 저질의 창녀이며, 세상에서 가장 마귀적인 존재라고까지 극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악평은 근거 없는 악의에서 나온 공연한 비방이 아니고 많은 연구의 결과로 나온 평가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천주교는 위조유물들과 위조문서들과 위조교리들 위에 세워진 위조 기독교에 불과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중생하지 않은 이교도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모든 성직까지 차지하게 된 필연적이고 슬픈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겠다.

(2) 위장교회

천주교가 위조교회라는 역사적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부득이하게 천주교가 위장교회라는 사실도 간략하게 지적하려고 한다.

1) 위장 공의회(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제는<아지오르나멘토(aggiornamento)> 즉 <외부 형식의 개혁>이었다.”⁷²⁾

이 말은 이 공의회의 주제는 그동안 천주교의 잘못된 정통교리들은 그대로 두고 외부형식(표현 방법 등)만 고친다는 것이다. 이는 소위 그 유명한 개혁(쇄신)공의회가 천주교의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교리들(속 내용)은 그대로 두고 겉옷(외부형식)만 보기 좋은 새 옷으로 갈아입힌(위장시킨) 기만공의회였다는 것을 극명(克明)하게 보여

72) 유재덕 지음, 『거침없이 빠져드는 기독교 역사』, (서울 : 브니엘, 2008), p. 413.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을 보면 그들의 주장대로 도처에서 거짓된 교리들을 현대인과 특히 개혁신교회에 아름답게 포장(위장)하기위하여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2) 위장 교리들

위에서 천주교의 위조교리에 대해서 약설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조한 위장교리들에 대하여 개관만 기술하여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거의 많은 교리의 형식과 표현을 개혁신교회의 것으로 바꾸고 있다(위장). 그런 교리는 먼저 계시교리가 있다. 예를 들면 성경 안에 외경을 그대로 둔 채로, 별궤역 만 가지고, 그것의 독점 해석권을 고수하면서, 또 전통을 성경과 동일시하며 하는 성경 강조는 일종의 기독교에 대한 위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원교리(중대한 교리)를 별도로 다루지 않고 전례나 성사교리로 대체(위장)한 것, 미사를 성체성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 또한 마리아 교리를 교회교리의 맨 끝에 넣고 축소, 위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과거교리에 더 추가하지 않는다는 약속과는 다르게 새 교리들을 추가하고 있다. (1) 일치교리(위장: 표현과는 달리 기독교 통합흡수 교리) (2) 비 그리스도인, 다른 종교관(위장성, 이중성 교리 : 다른 종교와 다른 신들과 다른 신앙과 행위 통한 구원도 인정하면서 결국 천주교를 통한 구원완성을 주장함) (3)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 등. 그리고 마리아가 천주교회를 산출(출생)했다고 하는 새롭고 기발한 교리는 공의회에서 통과하기 어려우니 교황 단독으로 선포한 교리라고 본다. 이러한 교리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위장 교리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줄 안다.

3) 천주교의 무한한 변장(위장)술 (마틴 로이드 존스)(천주교의 무한한 변장술(카멜레온적 기만 변장술))

여기에 마틴 로이드 존스의 핵심을 찌르는 천주교의 기만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얼마든지 자기의 색깔과 모습과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 카톨릭 체제는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장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으며 여러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기를 변장하는 데는 끝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⁷³⁾

로이드 존스가 비판하는 천주교의 변장술은 단순히 카멜레온과 같은 자기보호색에 불과하다고 치부해 버려도 괜찮을까? 그러나 천주교의 이러한 변장술은 가볍게 넘겨버릴 성질의 것이 아닌 데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이러한 변신술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도 피해야하는 것인데 하물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변장술은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사탄적이기 때문에 자기 변장에 끝도 한계도 없다. 천주교의 이러한 기만행위는 천주교의 근본을 노출하는 사실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이 나라·영국·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주 지성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73) 마틴 로이드존스 외, 『천주교 사상 평가』, 정동수 역, (서울 : 말씀과 만남, 2003), pp. 19-20.

로마 가톨릭 교도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장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며 또 비지성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미신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나라에서는 천주교가 관용을 베풀고 기꺼이 의견을 들어 주며 토론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며 친근한 모습을 취하지만 다른 후진국에서는 아주 인내하지 못하며 사악하고도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동일한 로마 가톨릭 교회요 동일한 체제이며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마귀의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⁷⁴⁾

로이드 존스가 기만적인 천주교에 대해 계속하는 성토는 마치 양의 가죽을 입은 이리와 같은 천주교의 양면성을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과 이중 플레이는 천주교가 마귀의 걸작품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강조하고 있다. 천주교가 기만종교라는 사실은 그 뿌리가 사탄이라는 것이 변명 할 수 없는 사실임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요 8:44)의 특징인 위조와 기만과 변장을 일삼는 천주교가 사탄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할 것이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로마 카톨릭 시스템이라는 저 거대한 교회와 체제는 온갖 간교함과 속임수 가운데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갖 불의의 속임수 가운데서 마귀의 간계를 온 천하에 드러내 왔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⁷⁵⁾

로이드는 이와 같이 천주교라는 체제가 수 세기동안 온갖 간교함과

74) 같은 책, p. 20.

75) 같은 책, pp. 19-20

속임수와 마귀의 간계를 천하에 드러내 왔으며 성경에 예언된 위장교회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구영재의 「에큐메니즘의 이상과 우상」에서는 천주교의 간교한 변장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서 지적하고 있다.

구영재는 그의 저서 「에큐메니즘의 이상과 우상」에서 천주교의 능수능란한 카멜레온적 변장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파괴하기 위해 침투하라”(join to destroy)는 「로마」교회의 정신을 경계해야 한다. 오늘날 「로마」교회의 사제들은 “거듭난다”, “구원경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와의 만남”, “성령 세례”, “「그리스도」를 영접”, “은사경험”, “「케리그마」”등의 표현을 상투적으로 늘어놓는다. 사제나 수녀들은 복음적인 집회에 참석도 하며, 기독교의 찬송가도 배운다. 지역 기독교회의 모임, Y.M.C.A.등의 모임에도 나타나며, 기독교회의 메시지와 신학용어도 자유자재로 인용한다. “구원중심”이니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저들의 간교한 표현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속는다. 그들은 기독교회의 목사들과의 만남에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능란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천주교도들에게는 이와 상반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친다. “반대하기위해 인정하라”(agree to disagree, we agree to differ)는 「로마」교회의 생리를 모르면 저들은 변하고 있다고 속단하게 된다.⁷⁶⁾

그들의 이와 같은 기만적인 기독교 용어 도용과 집회참여와, 모임의 동참과, 심지어 목사를 초대해 설교를 시키는 일과 기독교 찬송과, 신학용어의 사용 등의 간교한 위장 행위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속고

76) 구영재, 『「에큐메니즘」의 이상과 우상』, (서울 : 안디오크, 2001), p. 23.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천주교도들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 한 것과 반대되는 거짓된 교리들을 가르친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괴하기 위해 침투”하고 “반대하기 위해 인정”하는 천주교의 기만술책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히 천주교는 변장과 위장의 귀재(鬼才)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겠다. 그들은 지금 세계 도처에서 가지각색으로 현란하게 변장쇼를 하고 있다. 그런데 순진한(어리석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도들은 천주교의 이와 같은 위장술에 깜빡 속아서 그들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끌려들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제정신이라면 이와 같이 속이 뻔히 보이는 그들의 위장술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과 추종하는 많은 양무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갈림길에서 기만적인 천주교에 두 눈 감고 따라가는 모양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나라와 지역과 시간에 따라서 가지각색으로 카멜레온과 같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속 변모되는 천주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조석으로 변하듯이 변덕이 죽 끓듯이 하는 천주교를 어떻게 참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문제도 깊이 숙고(熟考) 해보아야 할 일인 줄 안다.

4) 천주교의 카멜레온적인 능수능란(能手凌亂)한 변색(위장)

천주교는 마치 카멜레온과 같이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변색에 능한 종교이다. 로마제국과 그 외의 모든 주변국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색을 하고 최근에는 나치정권과 협상하고 요즈음은 세계세력(?)과 손을 잡는 등등.

* 어떤 현자가 갈파(喝破)하였듯이 “로마교회는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서는 양처럼 온순하고, 동등한 처지에서는 여우처럼 교활하지만, 번성하게 되면 이리처럼 사나워지기” 때문이다.⁷⁷⁾

* 공신력있는 기독교기관인 “가톨릭정보연구국”(CRIB, Catholic Research information Bureau)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발하였다.

속지 말라. 로마 카톨릭 교회는 카멜레온과 같다. 카톨릭은 프로테스탄트 국가들 내에서는 관용적이고 우호적이며 도덕적 권위가 지고한 듯 보이지만 국민 다수가 로마 카톨릭인 곳에서는 전혀 판판이다. 그들은 자유의 수호자도 결코 아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색깔을 바꾸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색깔은 절대로 카톨릭의 진짜 색깔이 아니다.⁷⁸⁾

천주교가 카멜레온과 같이 보호색으로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변색을 잘한다는 사실은 기독교계에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과 함께 있는 천주교의 일시적인 색깔을 변함없는 색깔로 믿고 속고 있는 기독교는 깨어서 분별해야 한다. 수백 년 역사를 통하여 속아서 당한 그 고통과 손실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속지 않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5. 천주교가 기만종교라는 양심적인 지적

천주교의 이러한 불쾌한 사실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77) 유석근 목사, 『밝혀진 적그리스도의 정체』, (서울 : 도서출판 예루살렘, 2009), pp. 366-367.

78) 같은 책, p. 367.

참으로 괴롭고 싫다. 그러나 한번 내딛은 걸음을 중단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천주교가 기만종교라는 지적과 사실을 기술하기로 한다.

(1)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맥마혼의 지적(천주교의 위장 용어 사용)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맥 마혼은 천주교 대표자들의 용어 사용이 매우 간교하다고 비난했다. 예를 들면 '은혜에 의한 구원'은 복음주의자들에게는 '행위가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나 천주교인들에게 있어서 은혜란 구원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여러 공적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주교가 표현하는 '은혜에 의한 구원'은 복음주의자들이 의미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며 그 차이는 의미뿐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맥 마혼은 가톨릭 변증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은 공식적인 천주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들의 공식적 교리나 예식과는 거리가 먼 것 들이다.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꾸며 표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미혹하는 속임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복음주의 학자들과 가톨릭학자들이 함께 점검한 결과 가톨릭 변증자들은 '가톨릭 교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듯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했다. 그러나 맥 마혼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마리아를 예배하면서 자라났고 하나님 보다 마리아에게 훨씬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라났고 자기의 친구들과 친척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156개의 기도

를 드리는 묵주기도를 항상 드리며 마리아에게 드리는 수백 수천의 호칭 기도가 있고 성인들에게도 셀 수 없는 호칭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드릴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기도한 경험은 모든 가톨릭 교인들이 매일 겪는 것이라고 폭로하였다.⁷⁹⁾

맥 마흔의 이러한 지적과 폭로는 오늘날 '일치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천주교 대표들과 그들과 결탁한 개신교 대표자들의 간교한 기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소위 천주교와 기독교의 에큐메니칼운동(일치운동)을 하는 천주교 대표자들이나 그들과 거의 동화되어가고 있는 개신교 대표자들의 간교한 기만에 넘어가지 않도록 크게 경계해야 할 줄 안다.

(2) 현대 천주교의 최대의 죄: 기만(현재 천주교 신자인 게리 월스 교수의 <기만구조 교황의 죄>에서의 지적)

1) 현대 천주교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악하고 기만적인 이중의식의 죄가 있다.

현재 진실한 가톨릭 신자이며 교수인 게리 월스는 오늘날의 천주교는 완전무결하게 보일만큼 대체로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개선되었다고 했다. 또한 성경지식, 전례(典禮)참여도, 사회적 관심, 개인의 성덕 등의 수준은 대단히 높아졌으므로 교회의 죄는 과거의 유물로 돌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자문(自問)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하지

79) 로저 오클랜드, 『새 포도주와 바벨론 포도나무』, 스테반 황 옮김, (서울 : 밴드오브 퓨리탄스, 2010), pp. 78-80.

못한 일들이 있다는 징후들이 드러나며 얼핏 보기에도 조화롭지 못한 이상아릇한 기미들이 눈에 띄며 교회 안에 일종의 이중의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⁸⁰⁾고 하였다. 그는 먼저 과거의 온갖 추악한 죄악들로 진흙탕이 된 천주교에 비하면 오늘날의 천주교는 완전무결하게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개선되었다고 호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천주교에도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징후들이 드러나며 얼핏 보기에도 조화롭지 못한 이상아릇한 기미들이 눈에 띄며 교회 안에 일종의 이중의식(즉 기만적인 이중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결코 간과하지 말고 직시(直視)해야 할 줄 안다.

2) 현대 천주교는 진실을 정치적 정략의 도구로 삼고 과거의 오류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 기만을 자행하고 있다.

또 그는 진실이 교회의 정략에 종속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교황들이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인상을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 교황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에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과거의 진실하지 못한 판단보다는 낫다는 듯이 천주교 교육부서는 역설적으로 부단히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그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들에는 눈을 감곤 한다⁸¹⁾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현재 천주교에서는 진실이 그들의 정치적인 계획의 도구로 이용되는 조류가 계속되고 있으며 교황들의 오류를 은폐하기 위해서 교황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 진리를 왜곡(기만)하는 것이 과거에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것 보다는 낫다는 듯이 계속해서 진리

80) 게리 윌스, 『기만구조 교황의 죄』, 박준영 옮김, (서울 : 도사출판 중심, 2005), p. 9.

81) 게리 윌스, 『기만구조 교황의 죄』, 박준영 옮김, (서울 : 도사출판 중심, 2005), p. 17.

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들에는 무책임하게 모른척하고 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실로 오늘날의 천주교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영적이고 음흉한 무서운 기만죄를 범하고 있다는 폭로로서 우리는 이러한 사탄적인 기만에 희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경성하여서 강력하게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3) 현대 교황 측근들의 기만은 가장 사악한 죄악이다.

게리 월스 교수는 현대 교황 측근들이 자행하고 있는 간교한 기만을 과거의 난잡했던 바티칸의 죄악상에 비교하여 말하고 있다.

교황 측근들이 진리에 간접적으로 끼친 피해는 화가들이 성당 벽에다 영원히 고통받는 모습으로 그려 놓을 만큼 난잡했던 바티칸의 과거 죄악상에 비하면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만은 단순히 개인적인 탐욕이나 지배자의 야심보다 영적 가치관이라는 성채 안에 훨씬 깊숙이 파고 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예수는 ‘내가 곧 진리다.’라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쓰면서 진리를 희롱한다. 이것은 복음을 싸구려로 만든다. 진리가 지지를 받기 위해 허위에 의지하게 만든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유형의 기만을 가장 사악한 것으로 간주한 바 있다.”⁸²⁾

게리 월스 교수는 현대 교황 측근들이 진리에 간접적으로 끼친 피해는 그들의 과거 죄악성에 비하면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영적 가치관을 깊이 침해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진리'이신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진리(예수)를 조롱하는 행위이며 예수(진리)의 복음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행위이다. 이는 기만으로 진리를 지지하는 죄악으로서 성 어거스틴이 가장 사악한 것으로 간주한 바 있는 유형

82) 같은 책, pp. 19-20.

의 기만이라고 개탄(慨嘆)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수의 지적대로 그들의 기만 죄는 보이는 윤리적인 죄악이 아니므로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한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 있으니 그 피해가 크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성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그들의 기만이 가장 사악한 죄악이니 우리는 그 기만에 속아서 신앙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과오에 빠지지 않도록 큰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경계해야 할 줄 안다.

4) 기만 죄는 과거 어떤 죄 보다 훨씬 은밀한 타락이다. 이제 모든 천주교인들을 이 은밀한 교황의 죄에서 해방시켜야 될 때이다.

게리 월스 교수는 자신의 책은 장상(長上)(교회와 수도원의 가장 높은 지위)들이 강요하는 기만의 무게에 짓눌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제들의 정직성에 보내는 존경의 표시라고 했다. 그리고 또 그 무거운 기만의 짐을 벗어 던지라는 호소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성직자와 평신도들을 포함한 가톨릭인들 모두를 이 기만의 압박에서, 이 시대에 은밀히 자행하고 있는 교황의 죄에서 해방시켜야 될 때라고 외쳤다. 그리고 이 은밀히 자행되는 기만 죄는 오르카냐나 단테가 혹독하게 비판한 죄들에 비하면 눈에 잘 띄거나 포착되지 않고 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성의 배신으로서 훨씬 더 은밀한 타락이라⁸³⁾고 혹평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죄악에서 천주교인들이 해방되기를 기원 할 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간교한 기만에 어리석게 속아서 종교개혁 전의 암흑세계(천주교)로 다시 두 손 들고 기어들어가는 에큐메

83) 같은 책, p. 21.

니칼 운동을 단호하게 배척해야 할 것이다.

(3) 천주교가 진실을 밝히지 않고 계속 숨기는(기만하는) 이유와 그 결과

게리 월스는 그들이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하는 큰 죄악을 저지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숨길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경우 계속 숨기고자 하는 충동은 건박하고 기계적이며 거의 필연적인 것이 된다. 기만의 구조에서 벗어나기는 갈수록 어려워진다. 과거에 대한 온갖 책임 회피, 불성실한 변명, 노골적인 부정, 공공연한 선언, 존경 표시, 신심들, 교묘한 속임수, 일탈, 두려움들이 누적된 결과이다. 이처럼 복잡하게 엉클어진 담벼락, 이 난마 같은 방벽과 격자창과 덧문들 밖으로 진실이 새어 나가도록 허용하면 교회가 난처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계속해서 진실을 얼버무리는 것이야말로 더 큰 골칫거리요 범죄가 된다.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모독이자 그들이 받은 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덮어 두려는 소치이다.⁸⁴⁾

저자는 여기에서 천주교는 숨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계속 속이고 있으며 어떤 방면으로든지 진실이 새어 나가도록 허용하면 천주교가 난처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한다. 그런 결과는 천주교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 기만하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며 또한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모독행위이며 그들이 받은 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덮어두려는 악

84) 같은 책, p. 76.

랄한 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이러한 기만적인 커다란 범죄행위는 마치 일본 정부와 같은 행위로(그들의 야만적인 죄들을 부인하며 없었던 것으로 덮어버리려는 행위) 마땅히 규탄 받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천주교의 이러한 행위는 사탄적인 기만종교의 특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 거짓말(기만)은 영적인 죄로서 육적인 간음보다 더 나쁜 죄이다(어거스틴).

기만 죄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비판하며 경계하고 있다. 게리 월스는 여기에서 기만 죄를 육적인 간음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한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육체적인 죄보다 영적인 죄를 더 나쁘게 보고 있다. 거짓말은 육신보다 영혼을 타락시키는 한결 냉정한 선택이기 때문에 간음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로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더럽히는 자에게 내리고 있는 단죄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더럽히는 자에게는 그보다 훨씬 혹독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결합된 사람이, 속임수를 쓴다는 것은 곧 진리 그 자체가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사람이 어둠 덕분에, 사실을 덮어 가리고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사실을 없는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성공을 거두는 이 세상 우두머리의 거짓된 체제로 되돌아가게 만든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는 진리를,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진리(요한 8:32)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다.⁸⁵⁾

85) 같은 책, p. 486

여기에서 성 어거스틴이 지적한 것과 같이 거짓말은 어떠한 육적인 죄보다 큰 것인데 천주교가 위조와 기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천주교가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불신 세상과 같이 거짓(기만)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로서 세상의 왕인 사탄의 노예로 전락(轉落)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처사로서 천주교가 거짓 기독교이며,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는 정 반대되는 사탄적인 기만종교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적인 위조와 기만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오히려 당연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자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짓말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망언(妄言)을 일삼는 무리들에게 속아서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해야 할 줄 안다.

(5) 가장 크고 악질적인 죄는 신앙을 속이는(사기치는) 기만이다(미우라 아야코: 「성경에서 본 인간의 죄」 213-223).

거짓 그리스도의 죄(이단들의 죄)

지금까지 거짓말, 속임, 변장, 기만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진리를 전하며 가르쳐야 하는 기독교회가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기만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기만들이 천주교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1) 영원한 구원을 사기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진실한 여신자로서 불모의 땅과 같은 일본에서 건져낸 보배와 같은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거짓말의 죄는 거짓말인 줄 모르게 할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⁸⁶⁾라 하고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전 재산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 예컨대 신앙이 그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앞에 사기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⁸⁷⁾

그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신앙을 사기당해서 일평생 믿었던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피해는 무엇으로도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의 사기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성경말씀 몇 곳을 인용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마 7:15, 16. 마 24:23, 24. 막 13:21-23)가 영원한 구원의 사기꾼임을 지적하고 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이상, 그 그리스도가 가짜라면 가르침 자체가 무너지고 만다."⁸⁸⁾고 하였다. 즉 가짜 그리스도에게 속아서 믿고 따르면 영원한 구원을 사기 당한다는 것이다.(이는 이단들에게 영혼을 사기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누가 거짓 선지자이며 거짓 그리스도인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자기의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다. 그리고 거짓

86) 미우라 아야코 지음, 『성경에서 본 인간의 죄』, 김유곤 옮김, (서울 : 설우사. 1992), p. 213.

87) 같은 책, p. 216.

88) 같은 책. pp. 216-218.

그리스도는 직접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처럼 행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천주교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충실하게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 좋을 대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황은(주교들도 포함)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대행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최고 권좌에 앉아서 성경 정경에 인간의 문학서에 불과한 잡다한 외경들을 마음대로 추가하여 삽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권을 독점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는 많은 거짓신앙교리들을(위의 위조교리 항에서 밝힌 대로) 제조하여 가르치고 있으니 이 정도만으로도 스스로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모든 죄를 능가하는 악질적인 죄는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일이다.

성경에 따라 간음, 탐욕 등에 대해 말하자면 끝이 없으므로 그만두겠지만 이 모든 죄를 능가하는 악질적인 죄가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일이다.⁸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원한 구원을 사기치는 사기꾼은 가짜(거짓) 그리스도이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죄들보다 가장 악질적인 죄는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다. 하나님의 제사장(사제)의 이름으로 거짓 제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위에 앉아서 그리스도를 초월한 월권행위를 일삼는

89) 같은 책, p. 220.

다면 이야 말로 모든 죄를 능가하는 죄로 악질적인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아니겠는가?

3) 추구했던 영원한 생명이 가짜라면 무엇으로 보상 받겠는가?

시계를 도둑맞았다거나 돈을 도둑맞은 피해라면 보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구하던 영원한 생명이 가짜였다면 보상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⁹⁰⁾

만약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것이 가짜라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는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가짜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내가 천주교를 통하여 사제들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신앙생활을 잘하였으니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막상 죽어보니 지옥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 천주교 신앙이 가짜여서 사기 당했다고 어디에다 호소 할 수 있겠는가? 영원히 되 바꿀 수 없는 운명에 한번 빠지고 나면 아무리 후회하고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우주에 하나뿐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사기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와 조심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6. 교황은 거짓선지자인가 적그리스도인가 거짓 그리스도인가?

90) 같은 책, p. 221.

(1) 거짓 선지자?

오늘날 교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교황이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나오는 둘째짐승 곧 거짓선지자(계 19:20, 20:10)라고 한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거짓선지자라면 몰라도 여기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짓선지자는 아닐 것 같다.

(2) 적그리스도?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란 말은 종교개혁 시에는 어느 정도 맞았고 지금도 그런 면이 다소 있지만 종말의 적그리스도는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다니엘서(7:8, 11, 20, 11:36)와 데살로니가 후서 2장(3-8)과 계시록 13장(1-8)에 잘 예언되고 있는 인물이다. 이상의 말씀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과거 제국의 황제와 같은 정치적인 독재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은 특히 성경에 예언된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요일 2:18, 22)라는 단어의 적(敵) 안티(anti)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적하여와 대신하여’이다. 대적하여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대신하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

로서 거짓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교황이 거짓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황이 거짓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찾아보기 드물어 보인다. 그러나 굳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마 7: 15-16, 마 24:23-24, 막 13:5-6, 13: 21-23) <거짓 그리스도>가 교황에 어울리는 표현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교황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사람들이 천주교 안에 많이 있었던 것을 다음의 글만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으니 실로 교황은 거짓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1) 교황이 거짓 그리스도라는 증거들

① 교황 무류성 선언과 그 뒤 따른 선언('교황은 그리스도이시다')

교황 무류성 교리를 선언한 제1차 바티칸 고의회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황 무류성 교리가 1870년 7월 18일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에 의해 교리로 비준되고 공식 선언되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황은 직무에 있어서 그리스도이시니 재판과 권능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대의 소리 앞에 절하나다. 오! 피우스여! 그대의 소리는 그리스도의 소리이며 하나님의 진리이니이다. 당신을 붙드는 것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니이다”라고 선포하였다.⁹¹⁾

첫째, 교황 무류성 교리는 교황을 거짓 그리스도로 만든 것이다.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 비오 9세는 교황 무류성 교리를 선언

91) 황기택, 『로마 카톨릭의 진실을 말한다』, (서울 : 예루살렘, 2001), p. 127.

하였다. 교황은 "교황이 사도좌에서 발언할 때, 즉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목자요 스승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전 교회가 받아들여야 할 교리를 자신의 사도적 최고권위를 가지고 선언할 때, 그는 복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하느님의 도움에 힘입어 무류성을 지닌다."⁹²⁾고 선언하였다. 세상에 오류가 없는 절대 진리는 그리스도와 성경(정경 66권)뿐이다. 그런데 교황이 오류가 없는 절대 진리를 선언한다는 말은 실제로 교황이 그리스도와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들의 교리는 교황을 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가짜 그리스도 즉 거짓그리스도로 만든 것이다. 이 한가지 교리만으로도 교황은 분명히 거짓 그리스도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교황 무류성 교리를 선언한 교황을 그리스도라고 극구 칭송한 공의회원들

교황 무류성 교리 선언 다음의 선포는 일반 공의회 문서 등에는 빠져 있다. 이는 그들의 의도적인 은폐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무리하게 그 악명 높은 교황 무류의 교리를 제정하여 선포하였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교황 비오 9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 "교황은 직무와 재판과 권능에 있어서 그리스도이며 그대의 소리는 그리스도의 소리이며 하느님의 진리"라고 그리스도처럼 높이 받들고 경배한다는 선포는 이 공의회가 교황을 거짓 그리스도로 추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 하겠다.

② 천주교 지도자들의 교황에 대한 표현들 (이하 ①~⑧은

92) 주세페 알베리고 외,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3권』, 김영국 외, (서울 : 가톨릭출판사, 2006), p. 816.

아일랜드의 알렌 캠벨(Alan Campbell)의 저서에서 인용함)⁹³⁾

① 페라라스(Ferraris): “교황은 아주 존엄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는 단지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그러므로 만약 천사들이 잘못을 범하게 된다면 이 권능으로 교황이 그들을 판단하고 서로 교정시킬 수 있다.”

이 사람은 교황이 "단지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드높이고 교황이 천사들까지도 교정시킬 수 있다고 단언하는데 실로 이는 교황을 거짓 그리스도로 높인 언사라고 할 것이다.

② 그레고리 11세(Gregory XI)(교황) “그 사람 교황은 하늘의 힘을 가졌으며 자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부정의를 정의로 바꿀 수 있고 그는 모든 힘에 가득 차있다.”

이 교황은 교황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의 권능을 소유했고 모든 자연에 마음대로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 할 수 있으며 부정의를 정의로 바꿀 수도 있는 전능자라고 한다. 이도 교황이 거짓 그리스도임을 천명한 것이라 하겠다.

③ 교황 이노센트 10세(Innocent X)(교황)의 대관식에서의 말: “가장 성스럽고 축복스런 아버지시여 교회의 우두머리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시며 하늘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시며 천사들이 하늘에서 숭배하고 두려운 지옥의 문들과 모든 세상들이 경배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숭배하나이다.”

대관식에서의 교황에 대한 이 찬사도 교황을 교회와 세상의 통치자

93) 유선호,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서울 : 하늘기획, 1998), pp. 107-108. 재인용.

이며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으며 천사들과 세상들의 경배를 받는 거짓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④ 볼우남샌카탐에서 교황 보니페이스(Boniface): “로마 교황은 모두를 판단할 수 있으나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고 그 로마 교황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들은 다함께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그는 교황이 그리스도와 같이 모두를 판단 할 수 있으나 누구에게도 판단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심지어는 교황을 통하여 모든 생물(인류도 포함)들이 다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는 망언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교황이 그리스도와 같다는 망발은 교황이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⑤ 교황 줄리어스 2세(Julius II): “세상에 있는 다른 또 하나의 하나님”

교황을 하늘의 하나님 외에 세상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교황을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여기는 것으로 이도 교황을 세상의 다른 또 하나의 거짓 그리스도로 만드는 언사라고 할 것이다.

⑥ 교황 비오 10세(Pius X):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교황은 거짓 그리스도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⑦ 베이룬 추기경(Bayloone)이 교황을 두고 한 말: “하나님의 영이 볼 수 있도록 변한 인간이다.”

이 추기경의 극찬도 교황을 성육신한 그리스도와 동일시 한 것으로

서 일개의 인간 교황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며 따라서 이도 교황을 거짓 그리스도로 높인 대죄라 할 것이다.

⑧ 1949년, 아일랜드 카톨릭 성직자들이 교황 레오 12세를 두고 한 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신 다른 예수이다.”

이들은 교황이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중재자이신 다른 예수라고 명확하게 말하여서 교황을 하나의 다른 거짓 그리스도로 분명히 공언하고 있다.

⑨ 중세 천주교 최대의 신학자이며 박사칭호를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황과 그리스도사이에는 다른 것이 없다”⁹⁴⁾는 말을 하였다. 중세 최대의 신학박사가 이정도로 교황을 그리스도와 동일하다고 부른 것은 교황이 명백한 거짓그리스도임을 확인해준다.

⑩ 한글-라틴 라틴-한글 사전(辭典) 145쪽에 보면 교황을 <유일한 교황 그리스도(a solo aummo pontifice Christo)>라고 하였다. 라틴어 사전을 통한 이와 같은 교황 칭호는 천주교가 교황을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극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③ 교황은 지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한다.

교황 레오 13세는 그의 회칙(encyclical) “기독교국의 재결합” (The Reunion of Christendom) 에서 교황은 “이 지상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한다”고 선언하였다.⁹⁵⁾

94) 구영재, 『에큐메니즘의 이상과 우상』, (서울 : 안티오크, 2001), p. 106.

95) 로레인 보트너, 『로마 카톨릭 사상 평가』, 이송훈 역, (서울 : 기독교문서

교황 레오 13세의 이와 같은 선언은 교황이 지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와 동등하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교황은 그리스도의 참된 대리자, 지상에서 하나님 자신이다.

뉴욕 교리문답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교황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신적인 권위에 의해서 교황은 개인과 모든 성직자 그리고 그의 백성에 대해 신앙과 도덕적인면에서 지고하고 완전한 권력(power)을 가진다. 그는 그리스도의 참된 대리자이며, 전체 교회의 머리이며, 모든 기독교인의 아버지이며 스승이다. 교황은 전혀 오류가 없는(the infallible) 통치자, 교리의 창립자(founder), 종교회의의 권위자이며 재판관이다. 즉 교황은 진리의 보편적인 지배자, 세계의 중재인, 하늘과 지구에서 최고의 재판관, 누구에 의해서 판단 받지 않는 동시에 모든 것의 심판자, 지상에서 하나님 자신이다."⁹⁶⁾

뉴욕 교리문답은 교황을 천주교내의 완전한 권력자이며 그리스도의 참된 대리자요 전체 교회의 머리요 전혀 오류가 없는 통치자로 계속 높여가다가 심지어 진리의 보편적인 지배자요 세계의 중재인이요 천상천하에 최고의 재판관이며 아무에게도 재판 받지 않는 동시에 모든 것의 심판자이며 지상에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교리서는 교황을 명확하게 거짓 하나님과 거짓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있다.

선교회, 1992), p. 180.

96) 같은 책, p. 180.

⑤ 교황이 지상의 신이라고 주장한 사람들
교황을 지상의 신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앙코나의 아우구스티누스(1328년 사망), 카사니스의 젤셀리누스(1350년경 사망), 자바렐리스의 프란치스쿠스(1417년 사망)가 그렇게 주장하였다.⁹⁷⁾

교황을 신격화한 사람들은 이들만이 아니고 위에 나오는 교황들이나 그 외에도 많은 수의 교황들의 공통적인 신념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교황과 같은 지위에 오르면 루시퍼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행사를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⑥ 사제(The priest)는 다른 그리스도다.

사제가 성직 수임을 받을 때, 그는 “alter christus”로 불리는데, 이 말은 “또 다른 그리스도”(another christ)를 의미한다. 이것은 사제들에게 예수님의 지위를 침해할 여지를 허용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사제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⁹⁸⁾

일반사제가 하나의 다른 그리스도라면 사제들의 우두머리이며 최고 권위자이며 대표인 교황도 말할 것 없이 다른 그리스도이다. 아니 다른 그리스도들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사제

97) 지원용 편집, 『루터 선집 제8권』, (서울 : 컨콜디아사, 1985), p. 410. 재인용.

98) 릭 존스,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정동수, 박노찬 옮김, (서울 : 두루마리, 1998). p. 380.

들 또한 거짓그리스도들이요 교황은 거짓 그리스도들의 대표격인 거짓 그리스도인 것이다.

⑦ 마틴 루터의 주장

마틴 루터는 교황에 대하여 이렇게 주장하였다.

교황은 자신을 그리스도 보다 높게 세우고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진정한 적그리스도이다...왜냐하면 교황은 기독교인들을 자기 자신의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교황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와 대등하게 그리고 그리스도보다 위에 위치시켜야만 하였고 자신을 머리라 주장하고 교회와 전 세계의 주인이라고 선언했다.⁹⁹⁾

이것은 비록 중세시대 교황들의 이야기이지만 루터가 지적한 이러한 교황들의 언행은 단지 그때 그들만의 소신이 아니고 거의 많은 교황들의 공통된 자부심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신들을 교회의 머리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더욱이 무류교리의 선포자이며 최고 무쌍(無雙)의 권위자로 자처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를 양산(量産)하게 되는 함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⑧ 교황은 교회의 머리(으뜸)가 될 수 있는가?

정진석 추기경은 『교회법전 주해』에서 “교회의 안보이는 으뜸은 주 그리스도이시고(에페1:22, 23 콜로1:18, 3:15) 교회의 보이는 으뜸은 교황이다¹⁰⁰⁾”고 했다. 이 말은 교회의 머리를 보이는 교회의 머리와

99) 지원용 편집, 『루터 선집 제8권』, (서울 : 컨콜디아사, 1985), p. 409- 410.

100) 정진석, 『교회법전주해』,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8), p. 362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로 나누어서 교황을 보이는 교회의 머리라고 축소시키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의하면 교회는 가시적인 집단인 동시에 영적인(보이지 않는) 공통체이며 인간적 요소(보이는 것)와 신적요소(보이지 않는 것)로 합성된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다.¹⁰¹⁾ 이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는 하나의 복합체(하나)이다. 그러므로 교황은 보이는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도 된다. 그러므로 교황은 천주교의 진짜 머리인 것이다. 이는 실로 교회의 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위치를 찬탈한 것이다.

“사실 초대 교회는 지상에서 수장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수장)였으며, 그들 모두는 형제였다.”¹⁰²⁾ (교회의 머리, 엡 1:22, 5:23, 골 1:18, 2:10)

로레인 뵈트너의 이 인용구에서 보다시피 초대 교회 때는 그리스도만이 머리였으며 다른 수장을 가지지 않았고 사도들은 모두 형제로서 평등했다. 그런데 베드로나 그의 후계자라 자처하여 교황이 그리스도의 머리 자리를 찬탈(篡奪)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⑨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수 있는가?

로레인 뵈트너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오직 성령님 뿐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제 삼위이신 보혜사 성령하나님만이 교회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시는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이

101)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가톨릭교회교리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pp. 329-330.

102) 로레인 뵈트너, 『로마 카톨릭 사상 평가』, 이송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 184. 재인용.

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천주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리자(교황)를 원하지 않으며 그런 대리자는 필요가 없다.

성경은 명백하게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성령이라고 가르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요 14:26) 삼위의 세 번째 위격 (The third person)이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장시키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속성을 가지셨다. 그리스도는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그러한 대리자(교황)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루터와 칼빈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머리로서 기꺼이 인정했으며 교황을 적그리스도로서 고발하였다. 교황이 사람들의 영혼 그리고 교회와 국가 위에 군림하여 우주적이며 전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주장은 그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며 하나님의 부섭리자(Vice-regent)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이제까지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큰 사기꾼(imposter)이며 가짜(fraud)임을 드러내는 것이다.¹⁰³⁾

루터와 칼빈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고발하였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하나님의 부 섭리자라고 하는 주장은 그가 지상에 생존했던 사기꾼들 중 가장 큰 사기꾼이며 가짜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통박하고 있다. 천주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처럼 떠받드는 교황이 역사상 지상 최대의 사기꾼이며 가짜라고 하는 고발은 교황이 명백한 거짓 그리스도임을 천명(闡明)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⑩ 그리스도의 대리 주재자로 전권을 행사한다?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릭 존스(Rick Jones)는 그의 저서 「천주

103) 같은 책, p. 182.

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에서 다음과 같이 교황을 악평하고 있다. 교황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 주재자로서 설혹 주재자인 예수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교황만이 그것을 행사 할 수 있는 권위와 전권이 있으므로 교황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릭 존스는 수억의 사람들의 숭상을 받고 있는 교황을 인류사상 최고의 종교적 사기꾼이라고 고발하고 있다.

교황은 지상에서 예수의 “대리 주재자”(vice-president)이다. 설사 주재자인 예수가 무엇을 하고자 하더라도 오직 교황(pope)만이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와 전권을 소유한다. 교황은 수억의 사람들로부터 숭상을 받고 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쥔 최고의 종교적 사기꾼이다.¹⁰⁴⁾

⑪ 교황을 최고 권위자라고 확정한 천주교 법조문

천주교 「교회법전」은 교황을 천주교의 최고 권력자라고 하고 있다.

교황은 자기 임무에 의하여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331조) 교황은 합법적 당선을 수락함과 함께 주교축성으로써 교회에서 완전한 최고 권력을 얻는다.(332조 ①)¹⁰⁵⁾

교황이 천주교에서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최고의 권력자라는 말은 교황이 천주교에서 <최고의 완전한 권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이 권위는 언제나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교황의 판결이나 교령에 불복하는 상소나 소원은 용인되지 아니한다.(331조, 333조③)¹⁰⁶⁾

104) 릭 존스,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정동수, 박노찬 옮김, (서울 : 두루마리, 1998), pp. 379-380.

105)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교회법전』,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p. 227.

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교황의 이러한 권위는 전 세계에까지 미친다고 확대해석 하기도 한다.

천주교는 그들 자신의 교회가 성경을 산출했으므로 언제든지 성경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자기들은 언제나 성경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전통이라는 창고에서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끼집어 낼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경 위에 군림한 천주교 최고의 권위자는 성경보다 권위가 높을 뿐 아니라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보다도 권위가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그리스도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위에 군림하여 하나님의 말씀(기록된 성경과 전달된 전통)의 결정권을 쥐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권을 독점하고 있는 무류의 교황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이란 말인가? 완전하고 직접적인 최고의 권력을 언제나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으며 판결이나 교령에 불복하는 장소나 소원이 용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독재권력을 가진 인간이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절대권위를 가진 교황은 인간이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 다. 그러므로 이러한 최고권위를 독차지한 교황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존재 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집단의 머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거짓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⑫ 천상천하와 지옥의 지배자인 교황

교황 인노센트 3세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교회와 세계의 최고 지배자” 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상이나 하늘이나 지옥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에게 속해있다.”고 주장했다.¹⁰⁷⁾

인노센트는 모든 교황 중에서 가장 권력을 많이 행사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자신을 최고로 높이는 월권행위였다. 더욱이 이 교황의 최대의 죄악은 천상과 지상과 심지어는 지옥에 있는 모든 것이 소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하는 교황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함에 있다. 이 주장은 교황이 실제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천상천하와 지옥의 모든 소유권을 가졌다는 말은 거짓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말이다.

무엇보다 교황은 거짓 기독교의 수장이니 거짓 그리스도라 할 수 있고 온갖 거짓(비성경적) 교리들을 양산하여 천주교를 역사상 가장 큰 기독교 이단이며 이방의 혼합종교로 변종시켰으니 가히 거짓 그리스도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조와 기만을 일삼고 있으니 진실로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⑬ "기쁘다 교황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천주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79년 12월에 미국 아이오아주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천주교 성가대는 “기쁘다 교황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¹⁰⁸⁾라는 찬양으로 환영하였다고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교황이 그리스도라고 여러 교황 자신들과

107) H. H 할레이, 『최신 성서 핸드북』, 박양조 역, (서울 : 기독교문사, 1973), p. 843.

108) 구영재, 『에큐메니즘의 이상과 우상』, (서울 : 안디오크, 2001), p. 119.

그 외의 여러 사람들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부인 할 수 없게 되었다. 세상에 그리스도는 단 한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런데 교황도 그리스도라면 도대체 교황은 누구란 말인가? 그러므로 누가 무어라고 해도 교황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사칭)한 거짓(가짜) 그리스도라고 밖에 달리 말할 도리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짓 그리스도 가운데 교황도 그 하나라고 보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적용하여도 될 줄 안다.

2) 거짓 그리스도인 교황의 특징

미우라 아야꼬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동일하게보고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을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털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 있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거짓 예언자’ 중에 거짓 그리스도를 포함시켜도 좋을 것이다. 위의 말씀에 의하면 거짓 그리스도는 언뜻 보아 온유한 양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마음은 욕심이 많고 이리와 같다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즉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자는 돈벌이나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다. 나의 남편이 지은 노래에 ‘나에게 여러 모로 고마운 아기 예수는 으리으리한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도다’라는 작품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는 왕궁 같은 것과는 인연이 없다. 그는 부자가 아니다. 이른바 왕위에 있지 않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가난한 자의 눈물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과는 인연이 없다. 유력한 정치가나 경제인과는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 병자나 노인이나 이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의 친구이다.¹⁰⁹⁾

109) 미우라 아야꼬, 『성경에서 본 인간의 죄』, 김유곤 옮김. (서울 : 설우사, 1992), pp. 221-222.

여기에서 그는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① 위장성

그는 거짓 그리스도가 외면상으로는 온유한 양같이 위장하고 나타난다고 하였다. 위장은 위선과 기만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탄적인 성격이다. 위에서 여러 가지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주교는 거짓(가짜)교회이고 위조교회이고 기만교회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천주교의 수장(교종: 교주)은 그러한 거짓과 위조와 기만의 총책임을 결코 모면(謀免)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천주교의 총책임자인 교황에게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인 위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일 것이다.

② 탐욕성

미우라 아야코는 양으로 위장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노략질이라는 말은 탐식하는, 탐욕스러운, 약탈자, 강도, 사기꾼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욕심 많은 이리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는 돈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는 물질욕심이 많아 부요하고 사치하고 호화롭게 살기를 좋아하며 무엇보다 권력욕이 많아서 세속 권력을 차지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교황이 자신들의 교권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순수하게 복음을 신앙하는 많은 양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하고 기쁨의 축배를 들었던가? 마치 피에 굶주린 이리와 같이 잔악하고 흉악하게 그리스도의 양들을 수천만이나 살육하기에 지칠 줄을 모르지 않았는가? 세상 천지에 어떻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잔

학무도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교황들이 누린 온갖 사치와 호사와 영화와 세속의 정치적인 권세를 탐하여 온 과거의 긴 역사를 보면 교황들이 거짓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으리으리한 궁궐에 태어나지 않았고 왕궁 같은 것과는 인연이 없고 부자가 아니었고 왕위에 있지도 않았고 대 재벌가나 큰 정치 권력가들과는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교황들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삶과 완전히 반대인 삶을 살지 않는가? 역사상 얼마나 많은 교황들이 세상의 왕권을 쟁탈하기 위하여 이전투구(泥田鬭狗)를 일삼았던가? 그러므로 교황은 거짓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절대로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3) 거짓 그리스도인 교황의 죄

미우라 아야코가 여기에서 밝힌 거짓 그리스도의 죄는 거짓 그리스도인 교황의 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거짓 그리스도의 죄는 헤아릴 길이 없다.

- ①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신앙을 짓밟았다는 인간에 대한 죄만이 아니다.
- ② 하나님의 가장 신성한 영역에 흠발을 들여놓고 어지럽힌 것이다.
- ③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무시한 것이니,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말살하려 한 것이다.
- ④ 거짓 그리스도의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소행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철저히 부정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존재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¹¹⁰⁾

그녀는 거짓 그리스도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예리하

110) 같은 책, p. 221.

게 분석하여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폭로하고 있다.

첫째, 그것은 먼저 사람들의 신앙을 짓밟는 범죄라는 것이다. 이는 교황이 교회와 사제들을 통하여 신도들을 구원한다고 외치고는 능히 구원 할 수 없는 거짓교리들을 제조하여서 속인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다. 즉 인간들의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깎그리 짓밟아버리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이다. 수 억 명의 신도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구원과 영생을 상대로 사기 쳤다면 그 죄 값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다는 말인가?

둘째, 자기가 신도들을 구원할 자격자라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의 죄는 하나님의 가장 신성한 영역에 흠발을 들여놓고 어지럽힌 것이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영역으로 자기희생적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영역이다. 즉 죄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사역인 것이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는 감히 무엄(無嚴)하게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받았다고 사기 친 것이다. 그러니 이 거짓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 대죄를 범한 것이다.

셋째, 거짓 그리스도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인류의 참 유일한 구주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무시하여 실로 구주 그리스도를 말살하려 한 것이다. 이 얼마나 크나 큰 죄악인가? 실제로 천주교의 교황은 이러한 무거운 대 죄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범하고 있다. 그의 모든 칭호와 직무와 교리와 가르침과 활동들을 통하여서 말이다.

넷째, 거짓 그리스도의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소행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므로 실제로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존재라고 말 할 수 있다. 천주교 교황의 행위도 이

러한 종류로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소행이며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철저히 부정함으로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가짜 그리스도란 말이다. 혹시 필자의 말이 너무 과하다고 할 수 있을까? 결단코 추호(秋毫)도 그렇지 않고 매우 타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4) 만약 교황이 거짓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천주교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황은 거짓 그리스도임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미우라 아야꼬의 주장을 좀 더 들어 보기로 하자.

① 천주교가 제정하고 가르치는 그릇된 교리들 자체는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만다.

‘그리스도교’ 라고 부르는 이상, 그 그리스도가 가짜라면 가르침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만다.¹¹¹⁾

그렇다.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사칭한 가짜 그리스도라면 그들이 가르친 비성경적인 교리들 자체는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들의 인위적이고 비성경적이며 반성경적인 교리들은 마치 사상누각(砂上樓閣)과 같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예수 그리스도)를 닦아 두었는데 누구든지 그 위에 금, 은, 보석이나 나무, 풀, 짚으로 세워서 마지막 날에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되 자신은 불 가

111) 같은 책, pp. 217-218.

운에서 구원을 얻은 것 같으리라고 했다.(고전 3:10-15) 그러나 천주교와 교황은 그 터(교회의 기초)를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 닦아 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래와 같은 인간적인 교황(교도권)과 문학사(외경)와 전통들 위에 세웠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 그 터도 남지 않을 것이니 상은커녕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② 천주교는 모든 죄를 능가하는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악질적인 범죄 집단이 되고 말 것이다.

성경에 따라 간음, 탐욕 등에 대해 말하자면 끝이 없으므로 그만 두겠지만 이 모든 죄를 능가하는 악질적인 죄가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일이다.¹¹²⁾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몇 명의 교황들은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나 하나님으로 사칭하기를 스스로없이 했다.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그리스도 행세를 자행한 것이 대부분의 교황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황들은 그리스도를 사칭한 악질적인 죄인이며 그들이 통치하는 천주교도 악질적인 범죄집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교황이 가짜 그리스도라면 천주교는 영혼들의 영원한 운명(생명)을 담보로 하는 영원히 보상받을 길이 없는 최대의 사기꾼 종교가 되고 말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산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하려는 것일까? 시계를 도둑맞았다 거나 돈을 도둑맞은 피해라면 보상할 수도 있을 것이

112) 같은 책, p. 220.

다. 그러나 추구하던 영원한 생명이 가짜였다면 보상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¹¹³⁾

거짓 그리스도는 영원히 보상받을 길이 없는 영생을 담보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다. 거짓 교회의 우두머리이며 거짓 그리스도인 교황은 모든 이단자를 따르는 자들과 동일하게 자기를 추종하는 못 영혼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오도(誤導)하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이 빼앗긴 영원한 생명을 보상받겠는가?

5) 거짓 그리스도인 교황을 믿고 따르는 결국(최후)은?

예수께서는 누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해도 믿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다.

1. 그것을 무시하고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참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2.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고,
3.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된다.

거듭 말하지만 그리스도 신자에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다.”¹¹⁴⁾

미우라 아야코는 위와 같이 거짓 그리스도인 교황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① 거짓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면 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가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대 과오에 빠진다는 것이다.

② 거짓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참 그리스도

113) 같은 책, p. 221.

114) 미우라 아야코, 『성경에서 본 인간의 죄』, 김유곤 옮김. (서울 : 설우사. 1992), p. 223.

의 완전한 구원을 부인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거짓 구원을 믿게 되어서 영원한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③ 거짓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구세주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서운 죄에 빠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유일하신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좀 더 추가하여서 거짓 그리스도인 교황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엄청난 결과를 지적하려고 한다.

④ 거짓 그리스도를 믿고 거짓 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영생)을 잃게 될 것이다.

⑤ 거짓 그리스도에 속아서 그를 믿고 따르면 영원한 천국의 복락(행복)을 잃게 될 것이다.

⑥ 하나님을 부인하고 참 구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아서 따라가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지옥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 1:8-9)

자신을 보이는 교회의 머리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대행자)라고 하는 교황은 실제로는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거짓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인용하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그 말씀들에 마음대로 추가 삽입하기도 하고, 인간의 전통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라고 해서 말씀의 권위를 말살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외경을 인용하지 않으셨고, 인간의 유전(전통)들을 정죄하셨다. 그러므로 진실로 교황은 그리스도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이며 따라서 거짓 그리스도가 아닐 수 없다.

교황들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연옥교리를 만들어서 무수한 영혼들을 기만하여 이익의 제물로 삼으며 제2계명에 엄연히 엄금한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숭배하게하며 그것들에게 기도하게 하니 명백한 거짓 그리스도가 아닌가?

또한 자신들의 교회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교회들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니 모든 이단들과 공통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중생한다고 하며 자기들 사제들에게 고해하고 사제가 명하는 보속을 행해야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니 천부당만부당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잘못은 밀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기도로 그리스도의 실체인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며 이것을 매일 전 세계의 모든 성당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미사제사를 드리며 이것을 받아먹으면 그리스도를 몸 안에 실제로 모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악의 기만이며 최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천주교는 이 교리를 포기하면 사제들과 그 존재 자체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교리와 의식을 사수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 부인하는 진실한 성도들과 개혁자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최악까지 자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그리스도와 동화(同化)시키기까지 높인 교리(가톨릭교회교리서 966항)를 제조한 것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대죄이며 기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온갖 거짓과 기만으로 순진한 영혼들을 속여서 영원한 불행으로 이끌고 있는 교황은 거짓 그리스도이며 따라서 그 죄벌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상상하기도

힘든 것이다.

7. 천주교가 혼합종교라는 말이 사실인가?(종교다원주의의 주도자)

옛날부터 천주교가 주변의 이방 종교들과 혼합되어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천주교가 더욱 더 혼합종교로의 행보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다. 천주교가 거짓교회라는 사실을 재론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그 혼합성이 그 거짓성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므로 이 문제를 간략하게나마 기술하려고 한다.

이 혼합종교운동은 종교 다원주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천주교는 초기부터 토속화라는 미명하에 당시 바벨론 그리스 로마종교의 습성과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을 많이 혼합하여 왔다. 그런데 본격적인 혼합종교로의 변종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종교다원주의를 채택한 때 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황용현 목사는 그의 저서 「여자의 후손」에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기독교계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 이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WCC)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¹¹⁵⁾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아서 이 종교다원주의의 혼합운동의 선두주자는 천주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15) 황용현 목사, 『여자의 후손』, (경기도 : 아미출판사, 2013. 개정증보 3판), pp. 167-168.

(1)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문의 내용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642-645p) (다른 종교들을 용인함)

최근 천주교의 혼합종교화 현상을 밝히려면 먼저 소위 개혁과 쇄신 공의회라고 부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의하여 선언한 이 문제에 대한 선언문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종교들에 대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 「비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에는 다른 종교들에 대하여 과거에 없던 과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힌두교

먼저 범신론적이며 윤회 환생신앙과 심각한 계급종교로 알려진 힌두교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아주 호의적으로 말하고 있다.

힌두교에서는 사람들이 신의 비밀을 찾아 풍부한 신화와 뛰어난 철학적 탐구로써 그 신비를 표현하며, 금욕 생활이나 깊은 명상을 통하여 또는 사랑과 신뢰로써 신에게 귀의하여 인생고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추구한다.¹¹⁶⁾

이러한 주장은 천주교가 돌변하여 다른 종교들을 포섭하려는 동지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신앙을 인정하여 추파(秋波)를 던지고 있는 모양으로 보여

116) 최창무 발행,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개정판>』, (서울 :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2004. 제2판 제2쇄), p. 642.

질 수밖에 없다.

불교

불교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며 호의적으로 평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여러 종파에 따라 이 무상한 세계의 근본적 불완전성을 긍정하고, 심신과 확신으로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거나 아니면 자기 노력이나 위의 도움으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가르친다.¹¹⁷⁾

불교는 원래 무신론적이었으나 후대에 대승불교는 다신론 적이며 우상종교화 되었으며 영원한 윤회환생의 고통에서 해탈하여 열반에 이르려는 수행과 노력의 종교이다. 원래 천주교는 이러한 불교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인지 불교의 중심교리를 긍정하여주고 지지하여 주고 있다. 이도 종교통합을 위한 종교 혼합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슬람교

이슬람에 대한 정통 기독교의 입장은 명확한 부정이었다. 그런데 천주교는 여기에서 정통적인 기독교의 전통을 뒤집어 놓고 있다.

교회는 또한 모슬렘도 존중하고 있다. 그들은 살아 계시고 영원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유일신을 흠송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듯이 그들 신의 감추어진 뜻에 충심으로 순종하며, 아브라함에게서 이슬람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즐겨 주장한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예언자로 받들며, 또 그분의

117) 같은 책, p. 642.

어머니이신 동정마리아를 공경하여 때로는 그분의 도움을 정성되이 간청하기도 한다. 또한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시어 공정하게 갚아 주실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따라서 그들은 도덕 생활을 존중하며 특히 기도와 자선과 단식으로 하느님을 섬긴다.¹¹⁸⁾

천주교는 여기에서 자기들과 다소 공통성이 있는 이슬람의 교리들을 자기들의 교리와 관련지어서 긍정하며 인정하여주고 있다. 이슬람은 천지창조주요 유일신을 숭배한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슬람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기뻐하고 있다.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나 예언자의 하나로 받든다는 점을 치하하고 있다. 그들도 최후의 부활과 공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며 도덕생활을 존중하며 기도와 자선과 단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점 등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성경적으로나 정통 기독교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칭찬하고 높이 평가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러한 파격적인 제스처의 의도는 또한 무엇이겠는가? 이는 천주교의 종교통합과 혼합을 위한 행보가 아니겠는가?

유대교

유대교에 대해서도 얼마 전까지와는 완전히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천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과 유대교가 천주교로부터 받은 형용할 수 없는 온갖 수모와 박해와 무자비한 희생들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교회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에 따라 이미 성조들과 모세와 예언자들에게서 교회의 신앙과 선택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한다. 신앙에 따

118) 같은 책, p. 643.

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조와 함께 부름을 받았으며, 선택된 백성이 종살이하던 땅에서 탈출한 사실도 교회의 구원을 신비롭게 예표한 것이라고 교회는 공언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옛 계약을 맺으신 그 백성을 통하여 구약의 계시를 이어받았고, 이방인들의 야생 올리브 나뭇가지가 접목된 좋은 올리브 나무뿌리에서 자라고 있음을 잊을 수 없다.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시고 당신 안에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음을 교회는 믿고 있다.¹¹⁹⁾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런 천주교의 유대교에 대한 긍정과 호의를 넘어서 유화적인 제스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 위와 같은 주장은 성경과 초대교회와 개혁신교회들이 다 같이 주장해온 대로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천주교는 과거의 유대인과 유대교에 가했던 무수한 범죄의 피해를 보상이라도 할 의향이 있다는 말인가? 문제는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종교통합과 종교혼합을 통한 그 무엇에 있다는 데에 있다.

천주교가 혼합종교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거의 초기부터 그 자체 내에서 구성되어 왔으나 최근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에서 공식적이며 공공연하게 더욱 확실히 되어 교리화 되었다. 그들은 애써 본색을 감추기 위해 위장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그들의 목적은 뚜렷하다 할 것이다. 본인들도 밝혔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의회를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 내부의 연합만이 아닌 다른 모든 종교까지도 포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최종 목표는 기독교와 세계 모든 종교의 통합을 통한 혼합이며 이것은 세계의 통합과 하나의 세계건설을 목표로 하는 세력과 연계(連繫)된

119) 같은 책, pp. 643-644.

일임이 밝혀지고 있다.

천주교는 초기에서부터 형성되어 온 이방종교들과의 혼합이 계속 발전되어 오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며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의 기독교(천주교)와 하나의 세계종교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들의 구실은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내막은 참과 거짓, 선과 악,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과 사탄, 참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 기독교와 이방종교 등을 무차별하게 뒤섞어서 뒤죽박죽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혼합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며 반면에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다. 따라서 천주교가 혼합종교가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며 반대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므로 철저히 경계하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2) 이방종교의 온갖 것들이 혼합된 천주교

1) 수많은 예증들

랄프 우드로우(Ralph Woodrow)는 『로마 카톨릭주의의 정체』에서 수많은 예증들을 통하여 이교주의와 그리스도교의 혼합물이 천주교를 만들어냈다고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① 이교도들은 어머니 여신을 예배하고 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이 천주교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미명아래에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다.

② 이교도들은 남신과 여신들을 여러 가지 날들, 직업들 및 사건들과 관련시켰는데 천주교는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여서 “신들”을 “성인”들로 불렀다.

③ 이교도들이 신들의 신상이나 우상을 사용했던 것같이 천주교도 그런 것들을 단지 이름만 바꾸어서 사용했다.

④ 고대로부터 여러 형태의 십자가가 미신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천주교에서 이들 중 어떤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십자가를 하나의 상(像)으로 높이 들 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참된 희생이 화체설과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함께 미사의식을 통하여 애매하게 되어 버렸다.

⑤ 반복하는 기도와 목주와 유물사용 등 모두가 이교주의에서 온 것인데 이것들이 천주교의 기도와 숭배물이 되었다.

⑥ 이교의 직책인 대제사장(Pontifex Maximus)의 칭호가 로마 주교에게 적용되었다.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아버지들 중의 아버지, 곧 교황으로 불렸다!

문자 그대로 수백의 이교 의식들이 천주교에 흡수되었다.¹²⁰⁾

저자는 이 외에도 이 책을 통하여 천주교가 무수한 이방종교의 풍습이나 의식들을 받아들여서 하나의 혼합종교가 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는 천주교 학자들도 천주교가 이교주의와 천주교의 혼성물로 발전되어온 것을 수긍하면서도 이 혼합물은 이교관행을 기독교화(토착화)한 천주교의 승리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가톨릭 백과사전을 인용하였다.

우리는 분향과 정결케하는 물과 같이, 이교 예배와 죽은 자에게 드리는 의식에서 일반적으로 초사용을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위축 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교회가 음악, 빛, 향수, 세정식(洗淨式), 꽃 장식, 천개, 부채, 스크린, 종, 제복등과 같은 많은 다른 것들을 채택 한 것과 같이 초, 분향, 정결케 하는 물을 초기부터 예배에 짜 넣었다. 이런 것은 어느 특정 우상 종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우상숭배 종교들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들이다!

120) 랄프 우드로우 저, 『로마 카톨릭 주의의 정체』, 안금영 역, (서울 : 노아와 방주, 1997), pp. 273-274.

성수, 기름, 빛, 분향, 노래, 행렬, 부복, 제단장식, 사제의 제의(祭衣)는 자연히 보편적으로 종교적 본능이 되는 것들이다.¹²¹⁾

2) 천주교의 한 잡지 표지사진에 나타난 혼합종교

『에큐메니즘의 이상과 우상』의 한 면을 차지한 괴상(怪狀)한 사진이 있다. 한 천주교의 성당 안 제단 뒤에는 십자가상이 높이 걸려 있고 제단 앞에 좌측으로는 큰 손에 걸려있는 묵주의 두 끝에 십자가와 작은 부처상이 달려있다. 그리고 그 우측에는 제법 큰 부처상이 신도들의 자리를 향하여 앉아 있다. 이 사진은 로마 가톨릭에서 6개 국어로 발간하고 있는 "30일"이라는 잡지의 표지사진이다.(1989년 8/9월호)¹²²⁾ 이 책은 천주교를 비판하거나 이단을 폭로한 잡지가 아니고 천주교에서 발간하는 잡지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록 하나의 잡지 표지이지만 천주교와 불교가 혼합된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천주교가 모든 이방종교들과 혼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공포하고 있는 단면이라고 해도 될 줄 안다.

3) 「평화를 위한 세계 기도회」의 종교혼합 사실

바실레아 슈링크는 그의 책 「앗씨시 86 세계 평화대회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1968년 10월 27일에 이태리의 앗씨시 에서는 "평화를 위한 세계 기도회"로 모였다. WCC에서 '대단한 관심'이 있다고 한 이 모임에는 각종종교단체의 지도자 150여명이 모였다. 기독교 내에서는 51개의 연합대표들이 참석하였고 비기독교(일반종교)도는 30명이 포함되었다.

121) 같은 책, p. 274.

122) 구영재 저, 『에큐메니즘의 이상과 우상』, (서울 : 안디오크, 2001), p. 169. 재인용.

이 기도회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초대에 의하여 성립되었다. 여기에는 그리스 정교의 대표와 고대동방교회의 대표, 루터교 세계연합의 대표, 개혁신교 세계연맹의 대표, 감리교 세계협의회 대표, 침례교 세계연맹의 대표,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와 세계교회 에큐메니칼협의회(WCC) 사무총장 등이 모였다. 그리고 다른 이방종교들인 유대인, 모슬렘과 불교신자, 또 티베트의 라마교의 수장인 달라이라마, 힌두교도, 시크교도, 신도교도, 인도의 샤만들과 아프리카의 마술사들, 뱀을 섬기고 온갖 잡신을 섬기며 악한 사탄을 숭배하는 갖가지 종교의 대표자들이 다 함께 모였다고 하였다.

그때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신문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관광객, 호기심 많은 자, 경건한 신자들은 성 그레고리 성당에서 2명의 미국 인디언들이 깃털로 장식하고 칠을 한채 평화의 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으며, 또 산타마리아 마찌오레 성당에서는 힌두교도, 시크교도, 지아나 교도들이 평화에 대한 그들의 견해 들을 피력하였고 성 베드로 성당에서는 불교승려 들에 의하여 향불이 피워지고 염불이 행해졌다.

고색창연한 성 베드로 성당 내의 십자가 옆에는 불교도들의 기원 깃발들이 있었고 제단 위의 법케 옆에는 부처 불상이 놓였으며, 쏫대 옆에는 향이 타고 있었고, 종소리 대신 목탁이 울렸으며, 그레고리 찬가 대신 불교의 염불이 울어지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도, 힌두교도, 모슬렘교도, 유대교도, 시크교도, 불교도, 페르시아교도, 아프리카 자연 종교들간의 공통적인 영적인 연관이 맺어짐을 느낄 수가 있었다.¹²³⁾

이상은 천주교 주도로 교황이 120여명의 세계기독교 대표들과 30명

123) Basilea Schlink, 『Frieden um jeden Preis? Assisi '86』, (Seoul : Emmaus Publishing Co, 1990), pp. 5-8. 재인용.

의 종교대표들을 초청해서 벌린 "평화를 위한 세계기도회"의 규모와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WCC와 그 산하의 기독교 대표자들과 10개가 넘는 다양한 종교대표자들이 모여서 실로 세계종교 전시장을 방불케 하였다.

그리고 신문 기자가 기록한 대로 여기 천주교의 성 그레고리 성당에서는 세계평화의 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초혼, 신 내림) 일을 하였다. 그리고 산타마리아 마찌오레 성당에서의 이교도들의 강연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성 베드로 성당내의 불교의식과 불상을 세워놓고 불교승려가 목탁을 치며 창가 대신에 불교의 염불을 외웠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여 주고 있는가?

기독교와 모든 종교들 간의 공통적인 영적인 연관이 맺어짐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기사는 이 앗씨시의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지향하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한 마디로 이 세계종교 기도회는 천주교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다양한 기독교와 세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성당 안에 불러들여서 그들의 종교 강연들과 종교의식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모든 종교를 천주교 안에 혼합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3) 천주교가 혼합종교라는 한 개종자의 진지한 주장

조상 대대로 신봉해온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열렬한 기독교의 복음전도자가 된 제임스 G. 맥카티는 그의 명저 『가톨릭에도 복음이 있는가?』에서 다음과 같이 천주교의 혼합종교성을 지적하고 있다.

성 베드로 성당 본관의 제단 위쪽으로 높은 대형 원형 천장 주변에 글이 새겨져 있다. 글자가 커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데, 이 글은 가톨릭의 표어가 되는 구절이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마 16:18, 듀에이 레임 번역).

로마 가톨릭교회가 사람 위에 세워진 기관이라는 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해 주는 증거인가? 사실이 그렇다. 이러한 가톨릭교회를 인정해 보자.¹²⁴⁾

그는 계속해서 아래와 같이 천주교가 혼합종교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¹²⁵⁾

- 1) 가톨릭 신학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로마 가톨릭은 사람에게 기초를 두고 있다.
- 2)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혼합하고,
- 3) 진리와 오류를 섞은 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 4) 가톨릭은 성경(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사람의 말)둘 다에 근거하여 믿음을 갖는 조직이다.
- 5) 가톨릭은 예수님의 희생 제사에 덧붙여 사제 신부들의 희생 제사를 통해 속죄를 제공한다.
- 6) 가톨릭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덧붙여 사람의 선행을 통한 구원을 가르친다.
- 7) 가톨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덧붙여 동정녀 마리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이런 각각의 특이한 고리들을 갖고 있는 가톨릭 교회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4:12)고 하는 성경

124) 제임스 G. 맥카티 저, 『가톨릭에도 복음이 있는가?』, 조남민 역, (서울 : 한인성경선교회, 2006), pp. 448-449.

125) 같은 책, p. 449.

말씀에 꼭 맞는 기관이다.

8) 가톨릭교회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찬 지하실 위에 성 베드로 성당의 본관 제단을 세웠다.

이렇게 그는 천주교가 하나님과 사람을 섞어서 그 기초를 삼고,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혼합하였으며, 진리와 오류(비 진리)를 혼합한 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인간의 말인 전통 둘 다에 근거하여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제사에다 인간 제사장(사제)들의 제사를 혼합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에 사람의 선행을 보태서 구원받는 교리를 가르친다. 또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인간 마리아의 중보도 혼합하여 병행시키고 있으며, 베드로와 죽은 사람들의 뼈들을 천주교회의 터(기초)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가 지적한 이러한 혼합의 사실들은 천주교가 얼마나 불순한 혼합종교인가를 적나라(赤裸裸)하게 밝혀주고 있다.

(4) 사탄에 속한 거짓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비극적 종말

천주교에서 개종한 제임스 G. 맥카티는 계속해서 천주교 지도자(사제)들의 정체와 그들에게 기만당하여 추종하는 사람들의 책임과 최후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1) 천주교 지도자들의 정체

...이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완전히 반대하진 않는다. 이와는

정반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고, 그들의 예식에 성경을 사용하며, 그들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한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의 거짓 교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교활하게 모방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자들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속임수 뒤에 누가 있는가? 성경에 의하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딤후 4:1)고 한다. 궁극적으로 거짓은 그 근본이 옛 부터 거짓말쟁이인 “거짓의 아비”(요 8:44) 사탄에게 있다.¹²⁶⁾

저자는 천주교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조상 대대로 천주교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그가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이러한 저자는 천주교를 속속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천주교에 대한 비판도 정확하다. 그는 여기에서 거침없이 천주교가 거짓 선생(이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기독교를 모방하여서 기도하게 하며 예식에 성경을 사용하며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나, 그들은 마지막 시대의 거짓교사들로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교활하게 모방해서 많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자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터무니없는 속임수의 배후에는 성경 말씀대로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거짓의 아비 사탄'이 있다고 하였다.

2) 속아서 사탄을 따르는 지도자들이나 신도들의 종말

제임스 G. 맥카티는 속아서 사탄을 따르는 지도자들이나 그들에게

126) 제임스 G. 맥카티 저, 『가톨릭에도 복음이 있는가?』, 조남민 역, (서울 : 한인성경선교회, 2006), pp. 449-450.

속아서 따르는 신도들의 불행한 종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은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나 주교 및 신부들이 의도적으로 사탄의 목적을 따라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다. 대부분 그들은 바울이 돌아서기 전 같이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딤후 1:13)고 한 것과 같다. 그들은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과 같은 “속은 자”, 즉 속고 있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 자신들의 죄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물 붓듯이 부어 주지 않으신다면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가톨릭 신자들, 즉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이 모두 다 자신들의 죄 속에서 사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¹²⁷⁾

사람은 대부분 의도적으로 사탄을 따르며 거짓 것을 믿고 가르치지 않는다. 거짓된 환경이나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 속아서 거짓 것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속아서 비 진리를 믿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나 그들에게 속아서 거짓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각자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만일 마지막 때에 성령의 특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현재 전 세계의 거의 대다수의 천주교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이 모두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살후 2: 11-12)

127) 같은 책, pp. 450-451.

(5) 혼합종교운동의 주도자 천주교(종교통합이라는 미명하의 천주교의 혼합종교 운동)

천주교는 혼합종교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서 혼합종교운동의 주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위에서도 약간 밝혔지만 혼합종교적인 종교 통합운동은 천주교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에서 온 것이다. 「마지막 시대의 배도 무너진 교회」의 저자 박길서 박사는 이 책에서 모든 종교통합운동의 선두주자인 천주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1) 종교통합은 하나님에 대한 조직적 대항이며 사탄의 최후 발악이다.

종교 통합이라는 명분하에 하나님과 사탄을 하나로 만들고 있다. 하나님이 사탄이며 사탄을 곧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 인본주의적 하나 됨은 새로운 바벨의 건설이며 하나님에 대한 조직적 대항이며 도전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사탄의 최후의 발악이며 전 세계적 배도의 분명한 증거이다.¹²⁸⁾

저자는 종교통합이 창조주와 피조신이며 반역신인 사탄을 혼합시켜서 동일화하는 사탄의 최후 발악적인 공작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여러 종류의 잡신을 믿는 종교들을 혼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합종교에 빠지는 기독교는 배도의 무리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실로 종말적인 사탄의 반역행위에 동조하는 최악의 범죄행위라고 하지 않을

128) 박길서 저, 『마지막시대의 배도 무너진 교회』, (서울 : 밴드 오브 퓨리탄스, 2011), p. 177.

수 없다.

2) 종교통합운동의 선두주자인 천주교의 위장에 미혹되고 있는 기독교이다.

박길서 박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천주교가 선두에서 주도하고 있는 종교통합운동은 그들이 중세 천 여년 간 세계를 지배했던 암흑시대의 부활을 목표하는 것으로 벌써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들의 이 운동은 항상 화해와 평화운동으로 위장하여서 기독교를 유혹하는 것이므로 철저한 경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 통합 운동의 선두주자는 로마 가톨릭교이다. 로마 가톨릭은 중세를 지배하였던 그들의 황금시대의 부활을 바라며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한 노력을 수 세기 전부터 해왔다.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로마 카톨릭은 항상 평화와 화해라는 위장막을 쓰고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마 가톨릭의 연막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미혹 되어 가고 있다.¹²⁹⁾

3) 기독교 지도자들은 세계 종교통합운동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그는 계속해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천주교는 기독교통합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종교의 일치를 위해서 서두르고 있으며 거기에 기독교 지도자들도 끌어들이고 있다. 물론 종교혼합적인 통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도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결코 이 일에 협력해서는 안 될 것이다.

129) 같은 책, p. 185.

이제 로마 가톨릭은 세계 교회 연합의 차원을 넘어 모든 종교의 일치를 위해 서두르고 있으며 이들이 주관하는 대부분의 모임에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불교, 라마교, 정교회 등의 지도자들도 함께 협력하여 이러한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다.¹³⁰⁾

(6) 천주교의 혼합성

1. 천주교는 성경 진리에다 인간들의 말들 (외경, 전통)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기독교를 개조한 종교(가짜, 위조 기독교)이다.
2. 여호와 하나님에다가 이방신들을 혼합시켰다.
3. 참 교회에다가 인위적인 가짜 교회를 혼합시켰다.
4.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혼합시켰다
5. 베드로와 사도들을 교황과 주교들과 혼합시켰다.
6. 성경의 구원 교리에다가 모조품 구원(성사 구원)교리를 혼합하였다.
7.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이방 종교, 다른 영(귀신 등)을 혼합시켜 마리아를 만들었다.
8. 성경의 그리스도에 성경에 없는 다른 그리스도 즉 인간이 만든 모조 그리스도(소위 성체 빵과 포도주)를 혼합하였다.
9. 성경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그 후의 성인들을 혼합시켜 그들의 성상(우상)을 만들었다.
10. 성경의 천국에 인간이 지어낸 연옥을 혼합시켰다.
11. 성경의 성령에 자기들의 영(생각, 주장)과 세상의 영(다른 영, 귀신, 악령 등)을 혼합시켰다.

130) 같은 책, p. 191.

12. 참 기독교에 거짓 기독교와 이방 종교들을 혼합시켰다.
13. 성경의 연합 사상에 세속 인간적 통합(야합)을 혼합시켰다.
14.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들이 지향하는 유토피아(세속 권력 통치)를 혼합시켰다.

이렇게 천주교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비 진리들을 혼합시켜서 그 결과로 비 진리의 종교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혼합을 금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의 혼합을 엄금하고 계신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 행위를 엄금하시며 경계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와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여러 모양으로 징벌하셨고, 우상숭배가 계속되자 결국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이방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포로생활의 고초를 겪게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신앙에서도 동일하시다. 우상숭배는 물론 거짓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스승, 다른복음, 적그리스도 등등을 경계하고 계신다. 이러한 것들은 순수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신앙에 우상과 같은 다른 신앙을 혼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경계하고 경고하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특히 이렇게 신앙에서의 혼합을 엄금하시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독생자 그리스도와 거룩하신 성령과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보존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의 복음을 다른 잡신들과 거짓 복음과 혼합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반역행위요 배신(배도)행위이며 모독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 (이는 한 여자가 남편 여럿을 두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천주교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혼합운동은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의 울타리 안에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과 기타 모든 잡다한 종교들을 모두 섞어 넣는 것이다. 모든 종교를 마치 비빔밥과 같이 뒤죽박죽 섞어 놓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교혼합은 죽도 밥도 아닌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더럽고 역겹고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고후 6:14-16)

8. 천주교의 불변절(不變節)설과 불멸설은 믿어도 될까?(천주교는 영속·불후·무류의 교회일까? : 천주교의 불행한 최후에 대한 예언들) (천주교는 타락은 있어도 변절은 없을 수 있을까?)

20세기의 유명한 천주교 신학자 한스 킹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천주교의 불변절설과 불멸설을 다음과 같이 아주 맹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내적 타락이 아무리 두렵게 만연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저기서 지치고 게을러진다 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분망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분별없고 조야하고 비루하고 치사해진다 하더라도, 여러모로 이질화하고 주님을 배반한다 하더라도, ‘보시오, 나는 세상 종말

까지 어느 날이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마태 28,20) 하고 영광된 주님이 교회와 연대하여 교회를 보호 지원하고 있다. 교회는 죄악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파멸할 수 없다. 교회에는 하느님의 자비에 의해 항구한 불후성(不朽性)이 주어져 있다. 온갖 죄악과 과오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느님에 의해 은총 속에 보존될 것이다.

진리의 배반이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위험하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 저기서 갈팡질팡하고 회의하게 된다 하더라도, 혹시 오류를 범하고 정도(正道)를 벗어나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영’이 ‘협조자’로 교회에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요한 14,16-17) 것이다. 교회는 거짓의 세력에 굴복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속을 수 없다. 교회에는 하느님의 약속에 의하여 확고한 무류성(無謬性)이 주어져 있다. 온갖 오류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느님에 의하여 진리 안에 보존될 것이다.”¹³¹⁾

양식 있고 진실을 추구하는 한스 쾅의 이러한 절대적인 확신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성경말씀 전반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억측과 자만에서 온 것인가? 그런데 이런 맹신은 아무리 보아도 성경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회의 범죄와 교리적인 탈선과 부패에 대해 단호한 형벌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2: 3: 17: 18:등등) 천주교의 이러한 착각과 맹신은 결코 성경말씀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처럼”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아마 천주교는 자신들을 “제2의 선민”이라고 착각하는 믿음에서 이러한 무모한 맹신을 과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스

131) 한스 쾅 지음, 『교회란 무엇인가?』, 이흥근 옮김, (분도출판사, 1994 신정판 (2005. 14쇄)), pp. 143-144.

라엘과 천주교는 결코 동일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지상에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6천여 년의 역사를 지탱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인 죄 값을 대대로 치렀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의 존재로서(하나님을 증명하는 역사적 산증인으로) 보존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주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만든 인간적 교리들을 양산했다.(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렘 2:13))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살하고 모독하며 거룩한 성령을 자신들의 사유물로 추락시켰다.(이는 철저한 배신이며 배도행위이다) 그러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인간 중보자들을 세우고 인위적인 거짓 구원과 영원한 멸망의 길로 신도들을 오도하고 있다. 그 위에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천만 명이나 잔인하게 학살하는 죄를 더하였다. 이러한 천주교는 결코 제2의 선민일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형벌을 절대로 면할 수 없을 것이다.(위에 열거한 성경말씀을 볼 것) 그런데도 자기들이 제2의 선민이니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호언장담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만용(蠻勇)적 맹신(盲信)이란 말인가?

9. 교황과 천주교의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

(천주교의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주석가들의 해석)

천주교의 종말에 대해 천주교 내에 유명한 두 개의 개인 예언이있다. 하나는 성 말라키의 마지막 교황에 대한 예언이고, 하나는 파티마에 출현한 마리아의 교황과 천주교의 종말에 관한 끔직한 예언이다. 그러나 비밀과 은폐가 특징인 천주교에서 이러한 비밀에 대하여 일반 세계에 공개하는 일이 드물므로 그러한 예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게 보인다. 상당히 실현성이 있는 그 예언들에 대한 정보들도 있으나 그 출처제시 문제상 포기하고 분명히 영감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주교의 종말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여 요한계시록 가운데에 천주교에 대한 예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본문은 특히 두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두 곳의 말씀에 대한 해석들 가운데 좀더 구체적으로 된 것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해석한 내용을 인용함으로서 이 예언에 대한 부분을 마치려고 한다.

(1) 천주교의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예언

천주교에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밭 아래에는 달이 있고 열 두 별의 면류관을 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어떤 기독교의 주석가들 가운데에서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천주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두 해석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서 천주교에 대하여 의심 없이 제시된 두 곳은 17장 1절에서 7절, 16절 말씀과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 전체이다. 이 두 장 말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천주교가 붉은 빛 짐승을 탄 큰 음녀라고 함(계 17:1-18)

계시록 17장은 주로 큰 음녀의 활약과 종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 그 내용을 성경 본문대로 정리해 보겠다.

첫째, 큰 음녀의 정체(계 17:1-6)

① 지상 나라와 백성들을 배도하게 함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계 17:2)

② 배후세력 : 적그리스도(짐승) 세력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계 17:3)

③ 외식자 (사치생활로 호사를 누림)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중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하더라(계 17:4)

④ 이름 :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중한 것들의 어미,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중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계 17:5)

⑤ 역사상 복음적 기독교를 심히 박해한 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계 17:6)

둘째, 큰 음녀의 최후

내가 본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

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계 17:16)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계 19:2)

2) 천주교 관할지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심판)

(계18:1-24) 17장에서는 큰 음녀 즉 큰 성 바벨론의 주인공에 대하여 예언했는데 18장에서는 그 음녀의 주거지인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

첫째, 멸망의 선포

① 멸망 선언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 하였도다 하더라(계 18:2-3)

② 천국백성의 피신 권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

③ 음녀 성(城)의 죄와 심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갚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
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
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하나님은 강하신 자 이심이니라(계 18:5-8)

둘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는 자들

- ① 왕들과 상인들의 애통(9-10)
- ② 왕들과 상인들을 영화롭게 해준 상품들(11-16)
- ③ 바다에서 일 하는 자들의 애통(17-19)

셋째,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

- ① 성도들은 즐거워하라(20)
- ② 큰 성이 멸망한 결과(21-24)

17장은 하나님께 배도한 종교와 그 지도자(큰 음녀)의 처참한 심판
을 예고하고 있으며 18장은 그 배도한 종교와 그 지도자의 활동지인
큰 성의 완전한 파멸을 예고하고 있다.

(2) 계시록의 이 예언에 대한 몇 가지 해석

천주교의 종말에 관한 계시록 말씀의 해석은 많이 있다. 그러나 여
기에서는 몇 사람의 해석만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큰 음녀는 누구인가?(계 17:1-18)

큰 음녀는 먼저 천주교이며 교황이 대표자로 역할 할 것이다. 또 천

주교와 연합하는 자들도 거기에 자동으로 그 음녀 그룹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

김준식 목사는 그의 저서 「요한 계시록의 증언」 하권에서 '큰 음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음녀’는 배교자들, 진리에서 떠난 자들, 세상 권력과 결합한 종교, 세속화된 종교를 음녀라고 말합니다. 신세계 정부 치하의 통합종교청을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의 정체를 알려면 신세계 질서의 세계종교통합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세계질서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종교통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세계종교통합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주도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교황권을 조종하는 것은 예수회입니다.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세계단일정부를 수립하게 되자 신세계 종교통합청의 주축이 예수회가 됩니다. ‘음녀’란 타락한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배도한 종교인 신세계 통합종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에 들어와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주도하에 참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때에 종교 통합청이 그 앞잡이가 됩니다.¹³²⁾

김목사는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짐승을 탄 음녀에 대하여 좀 색다른 해설을 하고 있다.

① 음녀에 대해서

(1) 배도자들

(2) 진리에서 떠난 자들

(3) 세상 권력과 결합한 종교

132) 김준식 목사, 『요한계시록의 증언』 하권, (서울 : 아침향기, 2012), p. 227.

(4) 세속화된 종교

(5) 신세계 질서의 세계종교 통합청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② 신세계 질서의 세계종교 통합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 그 핵심목표 중 하나는 종교통합입니다.

(2) 이 종교통합은 천주교의 교황이 주도할 것이다.

(3) 천주교와 교황권을 조종하는 것은 예수회이다.

(4) 신세계 종교통합청의 주축이 예수회가 된다.

(5) 후 3년 반에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주도하에 참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때에 종교통합청이 그 앞잡이가 된다.

여기에서 김목사는 큰 음녀부분을 해설하면서 최근의 세계문제와 종교통합문제를 언급하고 예수회가 참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최근 종말론자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런 해석을 주의 깊게 주시해 지켜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은 조심할 점도 없지 않으나 상당히 현실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김목사는 이 해설에서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문의 음녀는 신세계질서의 종교 통합청이라고 하며 신세계 종교통합은 천주교의 교황이 주도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천주교와 교황권을 조종하는 것은 예수회라고 한다. 더 나아가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세계단일 정부를 수립하게 되자 신세계 종교통합청의 주축은 교황이 아니고 예수회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들어와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주도아래 참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때

에 이 큰 음녀인 교황과 예수회가 조종하는 신세계 종교 통합청이 그 앞잡이가 된다고 하고 있다.

김 목사의 이러한 해설은 아주 생소한 것이며 이해하기 어려울 줄 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하게 큰 음녀의 주도 세력이 천주교와 교황이라는 정도만 알고 다음 해설들을 더욱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제는 다른 성경 해석가들과 기타의 음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을 대략 들어 보겠다.

①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의 견해

홀 린세이는 그의 책 「신세계의 도래」에서 "계시록 17장에 대한 대부분의 개신교 주석자들은 적그리스도와 로마 가톨릭교회가 바벨론의 매춘부였다고 믿는 개신교도들의 생각을 단순히 새롭게 표현하여 왔을 뿐이라"¹³³⁾고 하였다. 여기에 적그리스도를 천주교와 동일한 바벨론의 음녀라고 한 것은 그 둘이 아주 밀착하여 행하기 때문에 일부의 오해라고 생각되며 대부분은 본문의 뜻대로 배도한 천주교로 해석하고 있다.

②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견해

마틴 루터는 매우 함축적으로 "바티칸은 바벨론의 매춘부"¹³⁴⁾라는 주장을 그의 1534년 판 성경중의 삽화로 폭로하였다.

그리고 이광복 목사는 그의 「계시록 설교노트」에서 "칼빈은 카톨릭

133) 홀 린세이, 『신 세계의 도래』, 김용순 옮김, (서울 : 보이서사, 1989), p. 220.

134) 유석근 목사, 『밝혀진 적 그리스도의 정체』, (서울 : 예루살렘, 2009), p. 297.

력을 음녀로 보았다."¹³⁵⁾고 밝히고 있다.

2) 큰 음녀의 득세(짐승 위에 올라앉음: 계 17: 2-5)

득세한 큰 음녀에 대한 몇 사람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큰 음녀의 권력

김준식 목사는 이 음녀가 탄 사탄의 색깔인 용의 붉은 빛(계 12:3)의 몸에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한다.(이는 대부분의 주해자들이 일치한 견해이다) 여기에서 이 음녀가 짐승을 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적그리스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며, 적그리스도와 음녀가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뜻한다¹³⁶⁾. 이는 그 둘이 긴밀한 협력자 관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는 말이라고 하겠다.

② 적그리스도의 대행자 역할인 큰 음녀

김연길 목사는 "큰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그녀의 배후세력이 적그리스도이며 적그리스도의 대행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³⁷⁾고 하고 있다. 이는 짐승이 자신을 낮추고 음녀를 등에 태우므로 한 편으로는 자신은 숨기고 음녀를 전면에 내세워서 선전효과를 높이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③ 큰 음녀와 짐승의 협력관계

번 S. 포이쓰레스 박사는 "큰 음녀가 탄 짐승의 특성들은 계시록 13

135) 이광복 목사, 『계시록 설교노트』, (서울 : 흰돌, 2002), p. 224.

136) 김준식 목사, 『요한계시록의 증언』 하권, (서울 : 아침향기, 2012), p. 228.

137) 김연길 목사, 『계시록(도표)요해』, 권전주 : 신아출판사, 2007), p. 232.

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과 일치한다. 이 음녀가 짐승을 탔다는 사실은 큰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협력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황제(짐승)의 권력은 음녀에게 쾌락과 부(막대한 금전)를 제공한다¹³⁸⁾고 하고 있다. 이도 그 둘 사이에 모종의 협정(계약)등에 의하여 상생(相生)의 협력관계를 맺고 서로 호흡을 맞추어 동일 목표를 위하여 같이 활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라 하겠다.

④ 큰 음녀와 짐승의 사랑 없는 밀월

홀 린세이는 적그리스도와 그 창녀와의 관계를 가장 큰 정부(情夫)와 그의 간부(姦婦)사이로 묘사하고 있다. 그들의 부정한 관계는 전 3년 반 동안만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정상적인 애정관계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그들은 애정은 전혀 없고 서로 상대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기주의자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창녀가 짐승을 탄다는 사실은 그 종교 조직이 짐승의 나라를 휩쓸고 다니며 온갖 행세를 다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환난의 전반인 3년 반 동안의 로마의 적그리스도는 그 창기와 더불어 적당한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녀의 가장 큰 정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상한 내외간입니다. 각자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들 사이엔 사랑이 없습니다. 창기가 짐승을 탄다는 사실은 그 종교 조직이 그 나라를 휩쓸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¹³⁹⁾

138) 번 S. 포이쓰레스, 『요한계시록 맥잡기』, 유상섭 옮김, (경기도 고양 : 크리스찬 출판사, 2002), p. 183.

139) 홀 린세이, 『신세계의 도래』, 김용순 역, (서울 : 보이서사, 1989), p. 226.

(3) 큰 음녀의 최후 운명(참혹한 종말)(계 17:16)

큰 음녀(계 17:)와 큰 성 바벨론(계 18:)은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아니고 이명동의(異名同意)라는 것이 성경 본문의 문맥으로 보아서 정확한 것이다. 단 음녀는 그 종교의 주도 세력자들이며 바벨론은 그녀의 활동지역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연결되어 있는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17장의 큰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만 취급하여 보고자 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대부분의 개신교 주석가들은 이 큰 음녀가 천주교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큰 음녀의 멸망은 천주교의 멸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은 실로 조심스럽고 두려운 문제로서 크게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몇 주석가들의 직설적인 해석을 참고하여 보도록 하겠다.

1) 적그리스도와 그의 국가가 음녀를 멸함

이광복 목사는 "열 뿔과 짐승(적그리스도와 그의 국가)이 배교교회(천주교와 통합종교)를 미워하여 멸망시킨다"¹⁴⁰⁾고 하고 있다. 계시록 17장 16절은 음녀의 비극적인 최후를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다. 즉 열 왕과 적그리스도가 합세하여서 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모든 명예와 재산의 몰수) 벌거벗겨서 수치스럽게 하고 살을 먹고(잔혹한 살육) 마지막에는 불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과거에 천주교와 교황들이 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들과 종교개

140) 이광복 목사, 『계시록 설교노트』, (서울 : 도서출판 흰돌, 2002), p. 232.

혈자들을 무자비하고 참혹하게 고문하고 살육하고 화장한 것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 같이 보인다.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이 음녀는 천주교이지만 그 우두머리이며 대표인 교황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큰 음녀의 말살

김연길 목사는 “열 뿔 짐승은 큰 음녀에게 우상(인간 하나님=적그리스도)으로 추대받은 후(계 13:15)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이 음녀의 조 직체를 말살하여 버린다”¹⁴¹⁾고 하고 있다. 짐승은 음녀를 크게 우대하여 자기 등에 태우고 자신은 준마(하인)와 같이 굴욕을 참고 봉사하다가 자신의 세계제패의 목적이 달성되자마자 이용가치가 없어진 음녀를 미워하여 말살해 버린다는 것이다.

3) 큰 음녀가 10뿔과 짐승에게 미움을 받은 결과

한원식 목사와 김영진 목사는 원문 중심 계시록 강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계 17:16절 강해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음녀를 미워하여” 뒷날 다 이용된 후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이도 위의 해설들과 같은 내용으로 짐승이 음녀를 사랑하여서 태워준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망하게 함”은 황폐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다.

명예를 완전히 박탈하고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철저하게 빈털터리가 되게 한다는 것이라 하겠다.

141) 김연길 목사, 『계시록(도표)요해』, (전주 : 신아출판사, 2007), p. 234.

“벌거벗게 함”은 완전히 망하게 함을 의미한다. 거지를 만들, 실체를 드러냄.

이는 인간의 속살을 완전히 노출시켜서 온전한 수치와 모멸(侮蔑)을 당하게 하는 최대의 수치 행위라고 하겠다.

"그 살을 먹고" 육체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복수 sarkas(살, 육체)에 주의하라.

이는 천주교가 과거에 온갖 고문으로 성도들의 신체를 갈기갈기 찢는 등의 잔혹한 행위를 한 것들을 상기하게 한다.

“불로 아주 살라잡”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원리.¹⁴²⁾

진실한 복음신앙인들과 개혁자들을 무참하게 화형시킨 그 뜨거운 불길에 이 음녀에게 옮겨 붙은 것이 아닐까?

큰 음녀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한 계시록 17장의 예언은 여러 모양으로 해석이 가능할 줄 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들은 음녀의 비참한 최후를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있다. 한 마디로 하면 토사구팽(兔死狗烹)격으로 짐승(적그리스도)에게 이용만 당하고 그 위에 미움까지 받아서 참으로 불행하게 최후를 맞게 된다는 말이다. 이는 가련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게 한다. 필자는 이상과 같은 요한 계시록의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서 지혜롭게 대비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천주교와 연합하면 그들과 동일하게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영원한 불행에 빠지게 될 터이니 경성하여서 단호하게 천주교와 그를 따르는

142) 한원식, 김영진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서울 : 장로신문사, 1012), p. 380.

WCC에 넘어가지 않도록 멀리하며 단절하여야 할 것이다.

제 7 장의 결론

이상으로 본장을 마치면서 본장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여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천주교는 자신들만이 참 교회이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천주교는 루터, 칼빈,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신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말씀에 의해 거짓교회인 것이 드러났다.
3. 천주교는 위조교회이며 위장교회라는 사실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4. 천주교는 가장 사악한 기만종교가 되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5. 교황은 기만적인 거짓 그리스도이다.
6. 천주교는 혼합종교가 되었다.
7. 천주교의 불변설, 불멸, 무류설은 인간적인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
8. 천주교의 종말에 대한 예언들은 이 거대한 거짓 기독교에 대한 불행한 최후운명을 예상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천주교가 거짓(가짜)교회이며 하나의 거대한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상누각과 같은 거짓 기독교의 불행한 실체의 종말에 대하여 엄숙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제 8 장

천주교와의 연합(일치)운동
(Ecumenism)은 배도와
파멸의 길이다

요즘 기독교와 천주교의 연합(일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쉽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운동은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기 쉽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오랫동안 분열되어 불화하게 지낸 기독교와 천주교가 하나가 되는데 무엇이 위험하단 말인가? 본장에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밝히고 그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려고 한다. 필자는 본장에서 기독교(특히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천주교의 연합운동에 대하여 기술하려고 한다.

천주교와의 연합운동을 왜 위험하다고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천주교는 오래전에 완전히 기독교에서 이탈하여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종(變種)되었기 때문이다. 즉 배도의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변종된 천주교와 연합하면 그들과 똑같이 변종되고 배도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천주교와 연합한 배도한 기독교는 영원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따라서 인류 구원의 유일한 원천을 차단(遮斷)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서의 목적과 같이 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와의 연합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다.

본장에서 취급하는 자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과 그 문헌 해설서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해설」과 「교회 일치 문헌 제1권과 제2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본장에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중요 요점들만 밝혀서 천주교의 일치운동의 목표와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고 자세한 내용은 허락된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1. 기독교(개신교)내의 연합운동

최근에 천주교는 그리스 정교회와 기독교와의 연합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천주교의 연합운동을 다루기 전에 먼저 기독교내의 연합운동에 대하여 간단하게 밝히겠다. 사실 교회연합운동은 기독교에서 먼저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최초의 연합운동은 해외선교사들의 선교협력을 위한 선교대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선교대회는 1860년 리버풀 대회, 1854년 뉴욕과 런던의 세계 대회, 1888년의 세계선교대회로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1900년 뉴욕에서 에큐메니칼 선교대회라는 이름으로 20만명이 모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선교운동의 정점이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였다.

선교대회는 계속 발전해 오다가 1948년 암스텔담에서 개신교, 성공회, 그리스 정교회 대표가 모여서 세계교회 협의회(WCC)로 새롭게 출범하여서 적극적인 에큐메니칼 시대가 열렸다(제1차 WCC대회). 그 후 제2차 WCC 에반스톤 대회(1954), 뉴델리의 제3차 WCC대회(1961년)를 거쳐서 현재는 제9차 대회를 지나 2013년 부산의 제10차 WCC 총회까지 바라보고 있다.¹⁴³⁾

그리고 이 세계적인 기독교 연합운동에 동참한 교단은 개신교, 성공회, 정교회 등에서 약 110여개 나라와 349개 교회들이 정식 회원교단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기독교는 150여년에 걸쳐서 연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가히 전 세계적인 기독교 연합 세력으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 기독교 연합운동은 전 세계 기독교를 아우르는 거대한 양적성장을 하였지만 질적으로는 정통 기독교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143) 박영호 지음, 『현대 에큐메니칼운동과 사회선교』, (개혁주의 신학사, 2010), pp. 111-112.

2. 천주교의 연합운동

사실 천주교가 기독교와 공식적으로 연합운동을 시작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부터라고 할 것이다. 이는 기독교의 연합운동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보고 기회를 타서 합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기독교 연합운동의 거대한 물줄기를 로마로 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1) 기독교와 천주교 연합운동의 기원

다음은 천주교의 기독교와의 일치운동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중대한 목적의 하나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을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촉진하려는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중대한 목적의 하나이다.

...역사의 주님께선 우리 죄인들에 대한 당신 은총의 계획을 지혜롭게 인내로 이행하시며, 최근에는 서로 갈라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심과 일치의 열망을 더욱 풍부히 불어넣기 시작하셨다. 어디에서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총에 자극을 받아, 갈라진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도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재건하려는 운동이 날로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그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고찰하며, 이미 교회에 관한 교리를 선언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 사이에 재건하여야 할 일치의 열망에 넘쳐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이러한 하느님의 부르심과 은총에 응답할 수 있는 도움과 길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¹⁴⁴⁾

144) 최창무 발행, 『제2차바티칸공의회문헌』,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2004), pp. 363-364.

위의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 서론은 그들이 일치운동을 시작하게 된 경과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먼저 이는 하나님의 은총의 계획수행에 의한 것이며 최근에 갈라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치의 열망을 풍부하게 불어 넣기 시작하셔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총에 자극을 받고 갈라진 형제들 사이에서도 성령에 힘입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일치의 재건운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저들은 이 일치운동이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와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이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그 반대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이 모든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모든 기독교인 의 일치의 재건의 열망에 따라 모든 천주교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움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천주교의 기독교와의 일치운동이 공식화된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천주교가 모든 기독교의 흡수 통합에 집중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일치운동의 로마 가톨릭원칙

천주교의 활발한 일치운동을 바로 알려면 그들이 먼저 내건 <일치운동의 원칙>을 잘 알아야 될 것이다. 천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에서 먼저 그들의 일치운동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1) 원칙 1. 단일성

일치운동의 가톨릭 원칙으로서 먼저, 교회의 일치성은 단일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① 먼저 일치의 최고 원리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단일성을 들고 있다.
- ② 그리고 교회일치의 원천으로서 성체성사의 단일성을 들고 있다.
- ③ 다음은 교회일치의 원천으로서 성령의 단일성을 들고 있다.
- ④ 마지막으로 천주교의 유일한 교회로서의 단일성을 들고 있다.¹⁴⁵⁾

이상은 천주교의 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으로서 네 가지 단일성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서 삼위일체와 성령의 단일성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사실이므로 그 외의 두 가지만 간단히 설명하겠다.

첫째, 교회 일치의 원천으로서의 성체성사의 단일성 문제이다.

일치 교령 문헌에서는 “성체성사는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고 이룩한다.”(일치 교령 2조)고 했고, <이 문헌 해설총서 3>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단일성을 표시하고 실현하는 기묘한(놀라운) 성체성사를 세우셨다.”(507p.)고 했다. 이 두 문장은 같은 의미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한 몸과 한 피 받은 형제자매로서 일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성체성사는 천주교의 미신적이며 우상적이며 그리스도의 단번에 완성하신 속죄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체성사(미사제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실체로 변했다는 떡과 피를 받아먹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145) H. V. 스트라렌 외 지음, 『제2차바티칸공의회문헌해설총서 3』, 현석호 옮김, (서울 : 성바오로출판사. 1991), pp. 507-509.

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가 된다는 말이다. (천주교는 크게 잘못된 미사 제사를 전통적이며 생명적인 예배라고 믿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로 개종하여서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여하여 성체를 받아먹는 것이 성체의 단일성에 참여하는 것이며 천주교가 추구하는 일치의 근본목적이라는 말이다. 이는 단일한 천주교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성체를 받아먹는데 까지 나아가야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말로서, 바로 말하면 정통 기독교를 배도하게 하여 말살하려는 간악(奸惡)한 흉계이다. 즉 기독교를 천주교로 흡수통합 하여서 천주교와 같은 한 미사,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 일치운동의 근본목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천주교의 유일한 교회로서의 단일성 문제이다.

천주교는 항상 자기들의 교회만이 유일하고 완전하고 참된 교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세계 교회 일치는 당연히 천주교 안으로의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초지일관(初志一貫)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치교령」도 그 주된 요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거룩한 교회를 세말까지 온 세상에 건설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고 다스리고 성화하는 직무를 12사도단에 맡기셨다." 또 그리스도는 "그들 중에서 베드로를 뽑으시어 그의 신앙고백 후에 그 위에 당신 교회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그에게 천국열쇠를 약속하셨으며 그의 사랑 고백 후에는 모든 양들을 신앙에 견고케 하고 완전한 일치 가운데 다스리도록 위임 하셨다.(일치교령 2조).

...가톨릭 교회의 신앙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설립한 유일한 교회는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교회헌장 8조). 이 가톨릭 신앙의 선언을 들으면 가톨릭 교회와 갈라진 형제들은 불쾌하게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에게는 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¹⁴⁶⁾

이상의 해설서에 따르면 먼저 천주교는 그리스도께서 12사도단과 특히 베드로 위에 세우셨다는 잘못된 주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설립한 유일한 교회는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교회헌장 8조)는 주장을 들어서 지상에 있는 유일한 단일 교회인 천주교와의 완전한 일치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유일하고 단일한 교회인 천주교 안에 모든 교회가 단일한 교회로 합치는 것이 일치운동의 가톨릭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회들은 칼빈이 말한 “거짓 교회”이며,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한 “사탄의 걸작품”인 천주교의 일치운동에 속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배도하고 천주교에 빠져 들어가 우상숭배와 우상제물을 먹음으로 심판을 받는 지경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 2:20-23절 참고) 각 성하여 경계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일이 요긴하다고 생각한다.

2) 원칙 2. 가톨릭 교회와 갈라진 형제들의 관계

교회일치의 가톨릭 원칙으로서 두 번째는 「가톨릭 교회와 갈라진 형제들의 관계」라는 제 목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의 교회가 분열로서 갈라진 관계가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 많은 단체들이 가톨릭 교회와의 완전한 일치에서 갈라져 나갔다.¹⁴⁷⁾(일치교령 3조)고 하였다.

② 그들 가운데에도 불완전하지만 많은 교회적 요소와

146) 같은 책, p. 509.

147) 같은 책, p. 497.

구원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가까운 관계임을 지적하고 있다.¹⁴⁸⁾

이 말은 (일치교령 3조) 종교개혁으로 독립하여 참 교회를 회복한 개혁교회들은 불완전한 교회이므로 참 교회 자격도 없고 참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인간적인 단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다.

③ 불완전한 그들은 천주교와 완전히 합치해야만 완전해 진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구원 방법의 모든 충족에 도달하여 완전한 구원에 도달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을 천주교와 완전히 합치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천주교 일치운동의 두 번째 원칙이라는 것이다.¹⁴⁹⁾(즉 갈라진 단체(개신 교회를 단체라고 함)들은 불완전하므로 완전한 천주교로 돌아와야(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치교령 3조)

이에 대하여서 추가적으로 부연(敷衍)한 것은 다음과 같은 말이다.

교령은 갈라진 그리스도교 신자에 대해 가톨릭 교회에 돌아오라고 말한 일은 한 번도 없다. ‘돌아오라’는 말은 가톨릭 측은 잘못이 없고 갈라진 그리스도교 신자 측만이 잘못이 있어 방황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하의 설명에서 밝혀지겠지만 교령은 이와 같은 불순한 태도를 물리치고 가톨릭 교회 자신을 개혁할 필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가톨릭 신자와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가 함께 만나는 교회의 모습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령은 돌아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모든 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결합 되어야 한다.’(일치교령 3조)라고 말하고 있다.¹⁵⁰⁾

148) 같은 책, p. 497.

149) 같은 책, pp. 497-498.

150) 같은 책, p. 514.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가톨릭교회와 갈라진 형제의 관계의 원칙은 먼저,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가톨릭교회로부터 분리하여 나간 분리주의자들 (즉 일치를 깨트린 범죄자들)이라는 것이고, 또 갈라져 나간 자들은 교회가 아니라 <단체들>이라 말하며, 그러므로 기독교는 참 교회가 아니고 따라서 구원도 없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가 불완전한 교회적 요소와 불완전한 구원의 수단만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문헌 해설서의 주장은 간단하다. 먼저 기독교는 불안정하지만 천주교와 어느 정도 일치를 보존하고 있는 점이 있다. 쉽게 말하자면 약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성찬행사를 행하고 구원의 신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등 천주교적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성경과 전통이 선언한 일치에는 참여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는 결국 기독교는 천주교와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단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독교회는 천주교로 돌아와서(이 말은 피하고 있으나 결국은 같은 말이다) 천주교와 완전히 합쳐야(통합되어야)만 온전한 구원을 얻고 완전한 교회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추가로, 교령이 갈라진 그리스도교 신자에 대해 가톨릭교회에로 ‘돌아오라’고 말한 일은 한 번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서 돌아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신 “모든 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고 천주교와의 완전한 결합이란 바로 천주교로 돌아와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들이 상투(常套)

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뜻은 같고 표현만 다르게 하는 기만적인 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주장은 도저히 용납될 수없는 독선이요 억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은 분열이 아니고 본연의 교회의 회복(초대교회의 회복)이었다. 그리고 복음적인 개혁교회(적어도 종교개혁 당시와 그 후의 복음에 충실한 교회들)는 성서의 완전한 계시 가운데에서 순수한 중생과 성화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실현하는 점에 있어서 완전한 교회였다.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반쪽짜리로 만들고, 자기들 인간의 전통과 교리들과 모순 많은 교권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탈한 천주교가 엄청난 배교와 배신과 불신을 회개하고 기독교회로 돌아와서 합치하여야 옳다. 그런데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기독교가 불완전하고 천주교가 완전하니 천주교로 돌아와야(천주교와 완전히 결합해야)한다고 주창(主唱)하고 있으니 진실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는 이들의 이러한 거짓된 술책에 결코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다.

3) 원칙 3 . 일치운동의 제 2 방법(대화를 통하여 설득시키는 것)

일치운동의 가톨릭 원칙의 세 번째 것은 단순히 「일치운동」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 해설서에서는 「일치운동의 제2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잘 교육받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일치교령 4조)라고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일치운동의 방법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해설서는 대화를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 ① 대화의 방법은 잘 교육받은 전문가들을 통하는 것
일치운동의 제2의 방법은 잘 교육 받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뤄지

는 대화라고 하고 있다.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은 대화 방법의 위험성이다. 물론 선의의 대화는 좋은 결과를 가져 오겠지만, 좋지 않은 동기의 대화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에텐 동산에서의 하와와 뱀의 대화가 그 좋은 실례이다. 그리고 얼마 전 공산주의자들도 이 대화와 평화 공세로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그런데 천주교가 대화의 방법을 채택 했다는 사실은 많은 경계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된다. 즉 고도로 전문 훈련을 받은 대화 주도자들은 훈련받지 못한 상대들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잘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르지 못한 동기를 가진 대화자들은 사탄 적 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이단사상을 가진 자들과의 대화는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이다.

② 천주교는 대화를 통하여 기대하는 세 가지 성과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상대방의 교의와 생활에 대해 더 올바른 인식과 더욱 공정한 평가를 가지게 된다.

둘째,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양심이 요구하는 여러 활동에서 광범위하게 협력할 수 있다.

셋째, 그리스도의 뜻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를 참가자들이 반성할 수 있으며, 쇄신과 개혁의 사업에 착수하도록 고무된다. 151)고 하고 있다.

③ 대화의 목적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첫째, 완전한 일치를 방해하는 장애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

151) 같은 책. p. 515.

대화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경우 “차차 교회와 완전한 일치를 방해하는 장애들을 극복할”(일치교령 4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유일한 하나의 교회에 모여 성체의 전례(미사제사)를 거행하며 일치(통합)을 이루는 것

그 길(필자주: 확실한 대화의길)을 걸을 때에만 ‘크리스천들이 유일한 하나인 교회에 모여 한 성체의 전례를 거행하며 일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일치교령4조)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¹⁵²⁾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치 교령이 겨냥하는 대화의 목적이다. 천주교가 일치 운동에 대화의 방법을 도입하는 목적은 여기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먼저 그들은 기독교 개별 교파들을 상대로 하여서 끈질긴 장기간의 대화를 통하여 일치운동에 방해되는 장애들을 하나씩 제거하여 결국은 그들이 목표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루터교와 감리교와 다른 교파들이 설득되지 않았는가 추측되어 진다. 그러므로 기독교회들은 근본적으로 천주교를 대화의 상대로 삼아서는 안 되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줄 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유일한 천주교회에 모여서 한 미사제사에 참여하여 거짓된 성찬을 먹음으로서 일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즉 완전히 천주교 안으로 백기를 들고 투항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이 제의하는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이 주도하는 종교연합회나 일치기도 영성훈련 따위를 단호하게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호한 처사만이 호시탐탐(虎視眈眈) 우리의 신앙과 진리와 교회를 통제 삼키려는 저들의 간계를 물

152) 같은 책, pp. 515-516.

리치는 길이 될 것이다.

④ 일치운동의 궁극목적과 개인 개종문제

이 일치교령은 대화 다음에 개인의 개종문제를 간략히 다루고 있다. 개인 개종문제를 다루기 전 일치운동의 궁극 목적을 다시 강조하고 그 외의 부수적인 개인개종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첫째, 일치운동의 궁극 목적(갈라져나간 기독교 전체를 천주교로 재통합시키는 것)

교령은 일치운동이 결코 개개인의 개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일치운동의 모든 활동이 개개의 갈라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자기가 속한 단체를 떠나 다른 단체로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그리스도교 단체들을 갈라놓고 있는 장애가 서서히 제거되고 그들이 한 단체로서 재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⁵³⁾

여기에서는 개개인이 천주교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한 천주교로 재통합하는 것이 천주교 일치운동의 궁극목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둘째, 개인 개종문제

완전한 보편적 일치를 바라는 개인들의 준비 작업과 화해는 본질적으로 일치활동과 분명히 구별되지만, 둘 다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에서 나오는 것임

153) 같은 책, p. 516.

로 결코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¹⁵⁴⁾

그렇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톨릭 교회로 개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금하는 것은 아니다. 교령은 개인적인 개종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이 일치운동의 목적과 다르지만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¹⁵⁵⁾

여기에서 천주교는 먼저 다시 그들의 일치운동의 궁극적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것은 일치운동의 모든 활동이 여러 가지 다른 그리스도교 단체들을 갈라놓고 있는 장애가 서서히 제거되고 그들이 한 단체로서 재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즉 개신교의 전 교파들이 단체적으로 천주교로 복귀 하는 것)말하고 있다. 이는 대화의 궁극적 목적과 동일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천주교의 기독교를 향한 활발한 일치운동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 순간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영혼을 사냥꾼들의 덫에서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또 기독교를 교단 별로 통채로 삼킬 뿐만 아니라 그러기 전에도 개별적인 개종자들을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완전한 일치를 소원하는 개인들의 화해(개종)는 분명히 일치운동과 다르지만, 둘 다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기독교의 개인적으로나 교단 전체적으로 천주교로의 흡수 통합이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대이단으로 변종되고 이방의 혼합종교가 된 천주교에로의 기독교인들의 개인적 개종과 전체적 통합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천연덕스러운 이들의 억지주장과 기고만장(氣高萬丈)에 그저 어안이 병병할 따름이다.

154) 최창무 발행, 『제2차바티칸공의회문헌』, (서울 :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2004), p. 369.

155) H. V. 스트라렌 외 지음, 『제2차바티칸공의회문헌해설총서 3』, 현석호 옮김, (서울 : 성바오로출판사. 1991), pp. 516-517.

천주교는 그들의 일치 사무국의 오랜 준비 끝에 1967년 5월 14일 일치운동 실천에 관한 일반지침을 반포하여서 개인 개종자들을 받아들이는 지침을 말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한 편으로는 교단과 기독교 단체들을 향하여 일치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종자들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47년 전부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들은 양면작전을 벌리고 있는 것이며,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낚시로 낚아 올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형 그물을 사용하여 영혼들을 씹쓸이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의 이러한 비양심적이며 비인간적인 일치운동에 대하여 똑바로 알고 단호하게 대처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은 또 상투적인 거짓말 즉 “교령은 개인적인 개종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이 일치운동의 목적과 다르지만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잊지 않고 있다. 필자는 천주교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저들의 치밀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거짓말들에 진절머리가 나고 있다.

(3) 연합(일치)운동의 실천방법

그리고 이어서 일치운동의 실천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이하는 문헌 해설 총서 중에 일치 교령의 요약에 실린 것을 그대로 옮겨서 그들이 47년 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실천하고 있는 바를 확인하고 경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치를 회복하는 것은 전교회의 임무이다.

교회일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가.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나, 인간적이며 현세적인 제도로서나 언제나 필요한 쇄신을 할 것, 도덕, 규율, 교의의 표현방법에서 정확히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개혁할 것.

이미 행해지고 있는 이 쇄신은 예컨대 성서운동, 전례운동, 설교와 대화, 평신도 사도직, 수도생활의 새로운 형식, 결혼의 영성, 사회문제에 관한 가르침과 활동 등이다.

나. 내적 쇄신

자아포기, 겸손, 은유, 유화, 마음의 관대성, 하느님과 갈라진 형제에게 일치에 반대되는 죄의 용서를 청할 것, 그것에 책임 있는 사람을 용서할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더 한층 긴밀히 사귈 것.

다. 공동기도

ㄱ) 가톨릭 신자는 자주 일치를 위해 기도한다.

ㄴ) 어떤 특별한 경우에 가톨릭 신자가 갈라진 형제와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ㄷ) 전례의 공동참가는 일치를 회복하기 위해 무차별하게 사용할 수단은 아니다. 일치의 표현이란 점에서는 흔히 공동행위를 금하지만 은혜를 받으려는 목적은 가끔 공동행위를 권한다. 구체적인 행동방침에 대해서는 주교가 정한다.

라. 갈라진 형제들에 대한 이해 :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것을 호의로써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대화가 유익하니 연구와 대화로서 기독교인들을 설득 할 것을 권하고 있다.

마. 일치운동의 실천을 위한 전문가(사제등) 양성 : 일치운동의 실천을 위한 교육신학이나 역사학 등을 논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교회일치의 관점에

서 정확히 가르칠 것, 이것은 특히 사제양성에서 또 포교지에서 중요하다.

바. 가톨릭 교리의 올바른 표현 : 갈라진 형제들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리의 전체를 올바로 설명할 것, 여러 교의(敎義) 사이에 순서가 있음을 잊지 말 것.

사.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

ㄱ) 그리스도교 신자 공통의 신앙과 희망에 대해 입증할 것.

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 :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평화를 추진하고 복음을 사회문제에 적용하고 학문과 예술을 진보시키고 사회악에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서 서로 협력할 것. 156)

이들은 모든 기독교회를 옛날같이 천주교로 일치(통합)시키는 것이 천주교의 맡은 의무라고 하며 그들의 일치운동의 목표를 다시 천명(闡明)하고 이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평하기로 하겠다.

1) 천주교의 개혁

먼저 천주교의 쇄신을 들고 있다. 천주교 자체의 개혁과 제도의 개혁, 그리고 도덕, 규율, 교리의 표현 방법이 정확한 정통성이 없는 것을 개혁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들은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자신들과 남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행해지고 있다고 열거한 개혁들도 일치를 위한 표현 방법만의 개혁에 불과한 것이다.

156) 같은 책. pp. 499-500.

2) 신도들의 내적개혁

이도 일치를 위한 덕들을 갖추고 일치에 반대되는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 책임자를 용서하고 삼위 하나님과 더욱 긴밀히 사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진정한 심령의 개혁이 아니다.

3) 공동기도

여기에서는 천주교도 자신들의 일치를 위한 기도와 갈라진 형제들과 함께 일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장려하고, 가끔 전례(미사 등 공식 경배)에 공동 참여를 권하고 있다. 이도 일치 기도라는 명목으로 기독교인들을 유인하며, 심지어 은혜 받으려는 목적이라고 하며 그들의 위상 의식에 조심스럽게 공동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라고하는 여자 이세벨의 유혹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계 2:20)

4) 갈라진 형제들에 대한 이해

이를 위해서 상대방의 것을 연구하고, 전문가를 세워 대화하는 것이 유익하니 연구와 대화로서 기독교인들을 설득할 것을 권하고 있다.

5) 일치운동의 실천을 위한 전문가(사제 등)양성

6) 가톨릭 교리의 올바른 표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부터 이들은 모든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교

리들을 개혁할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릇된 거짓교리들을
기독교인들에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데에만 관심을 집중해왔다. 그러
므로 오직 그들의 초지일관(初志一貫)한 관심사는 예전의 공의회들과
트렌트 공의회나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무서운 이단적 교리들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기만적으로 위장하는
일 뿐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7)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

이것도 천주교의 기독교와 엄청나게 다른 신앙과 희망은 숨기고 일
부의 공통적인 것만을 증명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여 공동
체의식을 심어주어서 일치되기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봉사라는
이름아래 같이 활동함으로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이상으로 천주교 일치운동의 실천방법을 가장 간략하게 평해 보았
는데, 그들은 많은 경우에 완곡(婉曲)한 표현이나 애매모호(曖昧模糊)
한 표현이나 이중적 의미의 표현을 잘 사용한다. 그러므로 항상 기독
교인들은 각별히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액면(額面) 그대로 믿지
말고 그 배후와 동기를 생각하여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4) 기독교와 일치를 위한 대화의 토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일치 교령 제3장에 기독교와 대화의
토대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이는 기독교(개신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이하 네 가지가 기독교와 연합할 수 있는 토대라는 설명이다. (1. 그리

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2. 성서 연구, 3. 성사 생활, 4.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 그리고 이 교령에 대한 문헌해설 총서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이요, 주님이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마리아론에 관해 가톨릭의 교의와 현저하게 다른 가르침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려는 소망에 사로잡혀 완전한 일치를 추구하고 있다.

② 성서 연구

성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성서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가톨릭의 교의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일치를 달성하기위해 성서는 수중에 있는 뛰어난 도구이다.

③ 성사 생활

세례로써 그리스도와 합치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들에게는 세례에서 흘러나오는 완전한 일치가 결여되어 있다. 성체성사의 완전한 본체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와의 교류는 생명을 드러낸다.

④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하고 있다(신앙, 감사, 정의감, 이웃사랑).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가톨릭 신자와 언제나 같은 뜻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도덕의 원천으로서 지키고 있다. 157)

기독교와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대화의 토대로 제시하고 있는 이

157) 같은 책. pp. 501-502.

상의 네 가지를 간략하게 평해 보겠다.

1)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

저들은 기독교가 그리스도론과 구원론과 교회론과 마리아론에 관해 가톨릭과 현저하게 다른 교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주님과 유일한 중재자로 선언하는 점이 일치 대화의 토대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우리와 전혀 다른 교리들도 있으며 그 모든 교리들은 비 성경적이며 반 성경적인 것들이다. 가장 근본문제가 되는 성경관이나 그 외의 치명적인 교리들이 있는데도 오직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일치가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의 그리스도 신앙이 그릇된 성사를 통한 것인데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말한 대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와 일치하려는 소망에 사로잡혀 천주교와의 완전한 일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바로 천주교와의 일치라고 여기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주교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일부 기독교의 무지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고무되어서 일치 공의회를 개최하여 대대적인 기독교 통합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뼈저린 현실 앞에 기독교인들은 각성하여서 주님께 배도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천주교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자들을 경계하며 비장한 각오로 대처해야 할 줄 안다.

2) 성서 연구

저들은 기독교가 성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는 점에 착안하여서, 비록 자기들과는 다른 성서와 교회에 대한 교리 (견해라고 격하시킴)를 가지고 있으나 통합(일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서는 가장 탁월한 도구라고 말한다.

저들은 기독교에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며 성경의 최고와 절대권위를 믿고 있는 점을 역용하여서 기독교의 흡수통합에 최대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공의회로부터 성서를 강조하며 미사시간이나 여러 다른 시간들에 성서읽기와 공부와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일치를 위한 공의회 이런 정책에 따라서 수 세기에 걸친 오랜 성서 감금을 풀고 성서를 번역하고 교육에 활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나, 문제는 그런 성서 개방의 목적이 기독교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데 있다. 즉 진정으로 성서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고(실제로 이들은 성서를 반쪽 진리로 취급하고 있음) 기독교인들을 포섭하기에 유리한 것으로 무장하고 선전하고 사용하려는 도구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의 술책에 결코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3) 성사 생활

여기에서 그들은 기독교의 세례와 성찬을 불완전하지만 그런대로 인정하고 일치 대화에 유익하게 활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기독교의 세례와 성찬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완전한 자기 사제들의 세례와 성찬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표를 숨기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음에도 말하겠지만) 천주교의 이단성의 핵심 중 하나인 세례와 성찬(성체)구원교리도 성경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이러한 연막작전에 속지 않도록 극히 조심하여야 하겠다.

4)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

기독교가 도덕적인 면에서 복음 이해에 항상 같지는 않지만 그들과 일부의 공통점으로서 성서를 원천으로 지키는 천주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이점도 일치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일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활용하려는 점을 극히 경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천주교 교황청의 「에큐메니즘」의 3대 목표와 교황의 천명

「에큐메니즘의 이상과 우상」에서 구영재는 ECT(복음주의자들과 가톨릭교도들의 연합)문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 중 두 가지만 보면 다음과 같다.

1) 로마교황청의 「에큐메니즘」의 3대 목표

천주교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여기에 이 운동의 중요한 3대 목표를 볼 수 있다.

- (1) 비(非) 「가톨릭」 교도들을 「가톨릭」 권으로 불러들임.
- (2) 「에큐메니칼」 은사운동 등을 통하여 가톨릭교도들이 가톨릭교회를 떠나는 것을 예방함.
- (3) 복음주의자들이 「가톨릭」 교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으로서 오는 가톨릭교회의 공백상태를 막기 위함.¹⁵⁸⁾

158) 구영재, 『에큐메니즘의 이상과 우상』, (서울 : 안디오크, 2001), pp.

여기에 기록된 대로 천주교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목표들은 명확하다.

첫째는 자신을 버리고 타인들과 사랑으로 연합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고 비 천주교도들을 천주교 안으로 흡수하려는 것이다.(끌어드리는 것)

둘째는 이중에도 에큐메니칼 은사운동을 이용하여 천주교도들이 천주교에서 이탈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는 것이다. (천주교도들을 묶어두는 것)

셋째는 복음주의자들의 전도로 천주교인들이 계속 빠져 나가서 천주교가 문을 닫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기독교회가 에큐메니칼 운동 때문에 전도를 못하게 하여서 천주교가 안심하고 문 닫을 걱정도 안하게 하려는 것)

이상의 교황청의 에큐메니즘의 3대 목표를 보면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로 (과거의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려는 뜻은 추호도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복음적인 기독교의 부흥운동(은사운동)과 열렬한 전도로 천주교가 붕괴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기독교도들을 천주교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어서 중세와 같은 천주교 천지의 세계를 만들어서 중세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영원히 누리하고자 하는 탐욕을 가득히 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천명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프로테스탄트와 대등한 위치에서는 "하나"가 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천명, 제네바의 WCC본부 방문시 재천명(1984. 4.) - 로마가 항상 모든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교황이 머리가 되어야 함을 천명

(Ecumenical Press Service, July 1984).¹⁵⁹⁾

이 두 번째 문서에서는 그들의 구체적이며 노골적인 의도가 거듭 천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천주교가 항상 모든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위에 교황이 머리가 되는 천주교 체제가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천명은 천주교 안으로 모두 들어와서 복종하여야 한다는 파렴치한 억지주장과 같다. 우리는 각성하여서 저 사탄의 결작품의 간교하며 기만적인 일치운동에 속아서 저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복음으로 저들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천주교와 세계교회협의회(WCC)와의 관계발전

천주교와 기독교의 연합 문제를 살피면서 천주교와 세계교회협의회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해설 총서(3)의 기록을 참고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먼저 천주교와 세계교회협의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왔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중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해설총서(3)에 따르면 먼저 2차 바티칸 공의회 중에 천주교와 WCC 와의 연합운동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해설서에 따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중에 천주교와 WCC 사이의 관계발전 과정을 알 수 있다.

159) 구영재, 『에큐메니즘의 이상과 우상』, (서울 : 안디오크, 2001), p. 180.

1) 천주교와 WCC의 관계개선 열망(WCC가 선도함)

천주교와 WCC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전부터 접근하여 왔으나 특히 이 공의회 중에 더욱 밀접하여진 것을 알 수 있다. 천주교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중인 1963년 9월에 로체스터회의 마지막에 WCC 중앙위원회는 공식성명을 통해서 천주교와 WCC와의 관계를 다룬 보고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그것을 전면으로 승인한다는 뜻을 선언 했다. 그리고 두 단체의 결합 가능성을 환영하며 대화가 계속되기를 바란다¹⁶⁰⁾ 하였다. 이러한 WCC의 반응은 천주교와의 관계개선을 바라는 그들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천주교와 WCC의 관계수립은 기독교의 WCC가 먼저 추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양측 합동연구회의 창설(WCC가 주도함)

1965년 1월에 WCC 중앙위원회는 14명(개신교 6명, 정교회 2명, 천주교 6명)의 합동연구회의의 창설을 제안하고, 베어 추기경은 WCC 본부를 방문하여 천주교 측의 긍정적인 회답을 밝힘으로 양측의 합동은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로 6세는 이 일에 대한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밝히고 일치를 위한 오랜 대화의 지속을 요청하며 큰 관심을 표명했다.¹⁶¹⁾

3) 바오로 6세의 일치를 위한 공동기도회 개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막바지에 교황 바오로 6세는 성 바울로 대성당 밖에서 이 일치를 위한 공동 기도회를 갖고 대화와 연구의 계속을

160) H. V. 스트라렌 외 지음, 『제2차바티칸공의회문헌해설총서 3』, 현석호 옮김, (서울 : 성바오로출판사. 1991), p. 485.

161) 같은 책, pp. 485-486.

강조했다. 그리고 일치의 여러 문제는 확실히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 했다.¹⁶²⁾ 이렇게 해서 천주교는 2차 바티칸 공의회 전부터 시작한 WCC와의 일치운동을 이 공의회 중에 확실하게 추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2차 공의회기 중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천주교와 WCC의 연합운동은 공의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어 왔고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공의회 문헌해설총서(3)>는 공의회 종료 이후의 천주교와 WCC의 관계 진전을 잘 기술하고 있다.

이 2차 공의회 문헌해설 총서는 공의회 이후의 천주교와 WCC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공의회 종료 후에도 천주교와 WCC의 관계는 계속되고 더욱 깊어지고 있다.

1) WCC 중앙위원회 의장의 확언과 선언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끝났다. 그러나 1966년 2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WCC 중앙위원회에서 의장 비사 토포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즉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단순히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WCC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모든 기독교도들에게 관련된 문제이다. 그리고 이 공의회가 켈신과 그리스도인 가족에 대한 아름다운 자각과 모든 교회와 연대책임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서로 더 많이 알려야 할 사항과 옹호해야 할 공통 입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¹⁶³⁾고 지극

162) 같은 책, p. 486.

163) 같은 책, pp. 486-487.

히 감동적인 선언을 하였다.

이 의장의 발언은 천주교(공의회)에 완전히 매료(魅了)당한 사람처럼 깊은 생각 없는 오해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대다수의 천주교와의 연합운동자들과 같이 천주교의 역사적이나 교리적이나 현실적인 커다란 과오들을 전혀 모르는 너무나 천진난만(天真爛漫)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천주교 지도자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촌극(寸劇)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은 심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이러니 일반 지도자나 평신도들은 어떠하겠는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수 천년동안 훈련되고 중무장한 천주교를 당할 수 있겠는가? 지극히 참담(慘憺)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는 폐회사에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크게 문을 열어 천주교와 세계교회협의회에 가맹하고 있는 여러 교회와의 사이에 새로운 형제관계를 예기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나타냈다. 공의회는 일치운동 추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¹⁶⁴⁾는 감동적인 극찬의 선언을 하여서 천주교(공의회)의 기만적인 속내를 모르는 가벼움을 또 드러내고 있다. 이로 보면 공의회 이후에는 천주교와의 연합운동이 더욱 가속화되리라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WCC와 천주교 합동연구위원회 보고서

WCC는 1965년 1월에 <합동연구회>의 창설을 제안하여서 창설하였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6명, 정교회에서 2명, (WCC가맹교회 8명) 천주교에서 6명으로 총14명으로 구성하였다.

비사 토프트 목사와 윌레브란 주교가 공동의장인 합동연구위원회의 보고서는 이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164) 같은 책, p. 487.

첫째, 이 연구위원회의 첫 목적은 교섭이 아니고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라하면서 지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둘째, 이 일치운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따라야할 규정과 ‘신앙과 직제’등의 전문분야를 위한 양측의 협력 등을 규정해서 WCC에 정식 가입하지 않고도 이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치밀한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을 알 수 있다.¹⁶⁵⁾

셋째, 1966년 2월 WCC 중앙위원회의 회기 중에 루가스 피셔 박사는 공의회가 거둔 지대한 공헌을 인정하고 보고서에서 “제4회기 중에 일치운동은 진전했다.”고 하고 결론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나 이 일치에 대하여 어떻게 명확하게 표현(표명)할지를 몰라 안타깝다는 식의 말을 덧붙였다.¹⁶⁶⁾ 이 보고서는 천주교 2차 공의회 중에 천주교와 WCC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이좋게 일치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안쓰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천진한 생각이 오늘날 WCC 대표들의 공통점인가? 아니면 아닌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속아주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3) 1966년 7월 <제네바 WCC 총회의 3대 목표>

WCC 총사무국장직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비사 토프트 박사는 1966년 7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WCC 총회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¹⁶⁷⁾

첫째 목표, 여러 교파의 신학상의 의견 차이를 불구(不拘)한다. 즉

165) 같은 책, p. 487.

166) 같은 책, p. 488

167) 같은 책, pp. 488-489.

여러 교파들의 신학적인 의견차이(다름)에 얽매이지 않는다(free from)는 것이다. 이는 신학교리 차이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연합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교리상의 분명한 이단이나 사이비나 유사 기독교도 상관하지 않고 다 연합한다는 것이다. 온갖 이단종파까지 모두 포함하는 연합은 결코 기독교 연합체 일 수가 없다. 이는 WCC는 결코 기독교 연합체가 될 수 없으며 온갖 잡동사니들의 야합(野合)체라고 할 수 밖에 없게 한다. 그러므로 이 첫 목표에서부터 WCC는 완전히 기독교 정신에서 탈선한 집단임을 부인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 긴박하게 느끼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함께 대화 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WCC의 두 번째 목표는 긴급한 사회나 정치 등 세계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모든 정통 기독교의 제1차 목표는 언제나 인류 영혼들의 구원이었다. 그 뒤를 이어서 빈곤이나 질병이나 기타 사회, 정치의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사회나 정치문제가 주된 목표는 아닌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의 1차 사명인 복음전파는 제쳐놓고 사회문제만을 다룬다는 것 자체도 크게 정통 기독교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목표, 복음 안에서 국가, 인종, 사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힘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복음 안에서’라는 수식어는 하나의 액세서리(장식품) 정도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말이 수식하는 명사절인 ‘...힘을 증명하는 것’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세속적인 권력을 증명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WCC의 세번째 목표는 교파들과 교인들의 단결을 통하여 세속적인 힘(세력)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이는 결코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사용하려는 복음의 힘이 아닌 것이다. 세속적인 숫자와 물리적인 세력을 세상에 행사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권력도 좋은 면에 사용하면 괜찮다고 하겠으나 과거 천주

교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볼 때 거의 지배욕을 위해 악용되었으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세 번째 유혹 즉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네게 주리라”는 제의에 단호히 거부하신 사실(마 4:8-10)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5-28)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세기에 교황이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왕들을 다스리던 역사를 동경하거나 막강한 교권을 만들어서 세계를 다시 지배해 보겠다는 야망이나 망상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 밖에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WCC가 천주교와 연합하려는 목적이 천주교와 같이 이러한 세속적인 권력을 휘 두르는 것이라면 이는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배도행위이며 반역행위임을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천주교와 종교개혁을 통해 생겨난 여러 기독교 파와의 관계는 더욱 가깝고 깊어지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와 천주교회는 그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있는 대화, 즉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주의 깊게 주시하여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 천주교와 WCC의 연합운동에 대한 경계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회설 총서 3>에서 이상과 같이 천주교와 기독교의 세계 최대 단체인 세계교회협의회와의 관계의 시작과 진행 과정과 현재의 관계를 대충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천주교와 WCC의 관계가 제 2차 공의회 초기에 시작되었다는 것과 공의회 후의 짧은 기간에도 많이 발전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매우 긴밀하고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WCC 총회의 목표를 지켜보면서 좌시할 수 없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인 교리적인 문제는 덮어놓고 무조건 외형적인 일치만을 다룬다는 것이다. 즉 사회문제해결의 근본인 영적이며 신앙적인 차원은 완전히 제외하고 전혀 불신앙적으로 긴박한 사회문제 해결만을 위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합은 진정한 신앙 안에서의 일치가 아니고 정치적이고 비성경적이며 불신앙적인 야합과 같은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영적인 힘이 아니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힘의 집결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황당무계(荒唐無稽)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주교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중심해서 WCC와 천주교의 일치운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온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이 운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될 줄 안다. 그것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WCC총회가 설정한 천주교와의 일치운동의 세 가지 목표가 정통 기독교에서 완전히 이탈한 천주교 위주의 동조 운동인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WCC와 천주교의 이 일치운동은 비성경적이며 비기독교적인 천주교로의 흡수통합 운동임을 온 천하에 천명하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 진정한 교회연합에 대한 성경의 교훈

(1) 성경의 교훈에 대한 루터의 견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시에 진정한 교회의 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경적으로 말하였다.

외적 물리적인 연합과 내적 영적인 연합

루터는 교회의 연합을 외적 연합 즉 물리적 모임과 내적인 영적인 연합으로 분류하였다. 기독교 공동체의 연합은 그리스도 자신에 의하여 모든 물리적 외적 장소들과 지역들로부터 분리되어 영적지위가 부여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교회를 장소들과 지역에 묶이게 하는 물리적 공동체로 간주하는 것은 끔직한 일이라고 하였다. 물리적인 모임과 연합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통하여 내적인 영적 연합으로부터 스스로 튕겨져 나와 있다고 하였다. 영적연합과 물리적 연합이 하나이며 동일하다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외적 모임과 연합이 기독교 세계를 창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속여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¹⁶⁸⁾ 루터는 오늘날 천주교와 WCC에서 도외시 하고 있는 진정한 내적이며 신앙적이며 영적인 연합만이 참된 연합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외적이며 물리적이며 가시적이며 불신앙적인 연합은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그들은 옛날의 루터에게 다시 배워야 할 줄 안다.

168) 지원용 편집, 『루터 선집 제8권』, (서울 : 컨콜디아사, 1985), pp. 66-67.

루터는 다시 천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아래 속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연합 밖에 있다는 사실이 어느 누구를 이단자나 비 기독교인들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천주교 권력을 통한 외적 연합이 하나의 신적 질서의 성취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슬리는 공공연하고 신성모독적인 거짓말임에 틀림없다고 하였다. 또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이단자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참된 신앙을 지니지 않는 것이 이단자들을 만든다고 하였다. 로마의 천주교를 중심한 모임에 속하는 것이 신앙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천주교 밖에 있다는 것이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¹⁶⁹⁾고 하였다.

루터는 이미 5백 여 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회가 어느 특정한 장소나 교파나 교회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도 천주교 권력이나 교파나 교회의 외적인 연합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 진정한 연합은 오히려 참된 신앙을 소유한자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와 WCC는 성경말씀과 그에 따른 루터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WCC의 광적인 세계 기독교 교파들의 연합운동과 천주교의 중세적인 단일 독재 교회체제 수립을 위한 광분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영적연합만을 추구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2) 성경의 교훈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견해

20세기의 복음적인 대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저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요한복음 17장과 에베소서 4장 강해)에서

169) 같은 책, pp. 67-68.

진정한 교회연합에 대한 성경적 결론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¹⁷⁰⁾

1) 교회연합(하나 됨)의 문제는 교리보다 부차적인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교회연합은 먼저 교리를 배운 다음에 교제를 가져야 하는 그 순서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행 2:42)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17장과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난 바로 그 순서라고 했다. 그러므로 연합에 대한 관심 때문에 교리를 도외시(度外視)하거나 평가절하 하는 오늘날의 경향은 신약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대한 거부이며 위반이라고 하였다.

천주교와 연합운동을 하는 WCC는 교리보다 연합을 우선시하고 연합이 더 중요하다고 하며 교리를 희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WCC의 행위는 연합보다 교리(진리)가 중요하고 우선이라는 성경의 교훈에 대한 거부이며 위반이 되는 것이다.

2) 교회연합은 결코 가시적(可視的)인 교회나 제도에서 출발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 되게 하는 진리 그 자체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로이드 존스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구원을 보증하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참 자녀를 의미한다는 그릇된 가정을 세웠다고 지적하고 있다.(눅 3:8, 요 8:39-44, 롬 2:28-29참고) 그리고 진리는 제도와 전통이나 다른 모든 것에 선행하여야 하며 심지어 교회를 포함하는 제도(교파 등)나 모든 것들은 진리

170) 마틴 로이드 존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김성웅 역, (서울 : 기독교 해사, 2002), pp. 107-117.

의 말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진리에 의한 비가시적 교회가 가시적 교회에 우선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WCC가 교파나 교단의 숫자나 제도나 전통을 진리보다 앞세우는 것이 과오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보다 진리가 앞서야 하며 진리가 중요하고 생명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줄 안다.

3) 연합에 관한 문제를 숙고하는 출발점은 항상 중생(重生)과 진리에 대한 믿음이어야한다

연합이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위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무시한다면 다른 아무 것도 연합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WCC가 중생과 진리문제를 팽개치고 연합한다고 하면 이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선(線)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4) 중생과 진리에 대한 믿음이라는 이 두 기준을 희생한다거나 그것들을 무시하면서 다른 어떤 것에 기초한 연합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거짓된 것이다.

그는 거듭해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무시하거나 희생하면서 다른 것에 기초하여 추구하는 연합은 마치 양꼬 없는 빵이나 주인 없는 객들만의 행사에 불과한 실로 거짓되고 무의미한 놀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WCC는 과연 이러한 연합운동을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다는 말인가? 또 무엇을 위하여 한다는 말인가?

5) 연합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지지하거나 장려하는 행위

는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용납될 수 없다.

진리와 비 진리는 화해될 수 없으며 그것 사이의 간격은 메워질 수 없다. 그런데 신앙의 기본 진리에 관해서는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숫자(덩치)만 늘리려는 것은 마치 사업가들의 사업 확장을 위한 합병과 정치적 정당간의 야합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세속화된 방식으로 교회세력을 확대하고 보존하려는 행위는 교회권력을 장악한 자들의 세속적인 권력 강화를 위한 행위로 비취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6) 교회나 교회들의 협의체를 근본적인 문제들이 논의되고 토론되는 하나의 공개장(公開場)이나 간증의 기회가 주어지는 곳으로 간주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교회에서는 근본적인 진리에 관하여서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말한 근본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들은 우리와 형제가 아니며 우리는 그들과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똑같은 생명을 소유하고 동일한 본질적 진리에 찬성하는 형제들 사이에서만 토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본질적 문제가 아닌 것은 이견의 조정을 위하여 토의하는 것은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하였다. 지난 수십 세기를 통하여 받아들여져 온 크고 중요한 진리를 부인하는 자는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다. 기독교의 정의에 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기독교의 연합에 관하여 쟁론하고 토의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며 WCC 연합운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하여 극명한 인식을 가져야하겠다. 그리고 명확한 본질적인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고수함으

로 정통적인 기독교의 생명을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7) 연합은 일차적으로 수(數)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생각되어야 한다. 수와 강력한 조직만을 중요시하는 현대의 경향은 성경의 교훈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는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소수의 남은 자나 심지어는 개인들을 통하여 지난 수십 세기에 걸쳐서 이루어 오셨다고 하였다.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기드온의 단 삼백 명 용사(삿 7장)나 블레셋 군대를 홀로 무찌른 요나단(삼상 14:1-23)이 그랬다. 또한 850대 1의 엘리야(왕상 18장)와 400대 1의 미가야 선지자(왕상 22:1-40)와 전 유대인과 유대 왕권과 선지자들을 대항한 한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아모스, 세레 요한, 단지 열두명의 제자들, 그리고 천이백 년의 전통과 권세를 켜 천주교에 홀로 맞선 루터 등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였다.

로이드 존스의 이 말은 소수 정예에 어떤 고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수와 조직으로 성경의 중심을 뒤덮어 버리려는 현대기독교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불 신앙적이며 인본적인 태도야 말로 기독교 교단들과 천주교, 심지어 이방 종교까지 연합하려는 WCC의 비성경적이며 불 신앙적인 치명적인 과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8) 우리 시대에 요청되는 가장 큰 요구는 갱신과 부흥을 위해 새롭게 세례 받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이드 존스는 기독교의 진정한 연합과 거짓된 연합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에 대한 결론으로 이 시대를 향한 기독교의 능력

있는 증거를 위해서 요청되는 제일 큰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조직과 다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님의 능력이 가장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나 교파의 크기나 연합하여 하나로 뭉치는 데에 일차적 관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성경진리의 가르침과 성령의 생령력에 일차적인 관심을 둘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끝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로마 가톨릭 적인가(포괄주의적, 조직적, 그리고 위계적인 교회관), 아니면 교회를 끊임없이 성경 말씀의 권위(판단) 아래 둘 것과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적인가?”¹⁷¹⁾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와 교파들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여야 할 것이다. WCC 지도자들도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와 양 무리들과 이 세계의 운명을 천주교와 WCC적인 인간 조직과 인간적인 권력아래에 의탁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위탁할 것인가?

5. 천주교가 기독교를 자매교회라고 한 것에 대한 해명

이것은 천주교가 기독교를 자매교회라고 부른데 대해서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교황청 신앙교리 성에서 <자매 교회들>이라는 표현에 대한 공지>라는 문서로 발표하였다. (2000. 6. 30.)

171) 마틴 로이드 존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김성웅 역, (서울 : 기독교 해사, 2002), pp. 107-117.

그 내용의 중요한 골자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자매 교회들’이라는 표현에 대한 공지 >

8. 자매 교회들이라는 표현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성하께서도 여러 문서와 연설에서 자주 사용하셨다.

10.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자매 교회들은 오로지 개별 교회들(또는 개별 교회들의 집합, 예를 들어 총 대주교좌 교회들 또는 수도 관구들)이 서로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자매 교회들이라는 말을 엄밀한 의미로 사용 할 때에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필자주: 천주교)는 모든 개별 교회의 자매가 아니라 어머니임을 언제나 분명히 하여야 한다.

11. 그러나 위에서 상기한 대로, 가톨릭 교회가 어느 한 개별 교회나 교회 집단의 자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단순히 용어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톨릭 신앙의 기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단일성을 존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이므로, 복수를 나타내는 교회들이라는 말은 개별 교회들에만 해당된다.

12. 끝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자매 교회들이라는 표현은, 동방과 서방의 공통된 전통에서 입증된 것처럼, 유효한 주교직과 성체성사를 보존해 온 교회 공동체들(필자주: 개별 천주교회와 개별 정교회들)에게만 사용될 수 있음도 유념하여야 한다.¹⁷²⁾

여기에서 우리는 천주교의 기독교 일치운동의 근본적이고 분명한 자세를 볼 수 있다. 또 본 공지 문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차 바티칸 공의회와 바오로 6세에게서 도입한 지역교회 즉 자매교회라는 개념을 새롭게 이름 붙여 사용하는 사실이다. 그것은 천주교만이 모교회이고 천주교의 개별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녀(딸들: 자매들)교회이고, 그 외의

172) 강우일 발행, 『교회일치문헌(제1권)』,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pp. 142-145.

개혁교회들은 자매(형제)들이라는 표현도 사용될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독교를 형제교회니 자매교회니 하는 말은 기만적인 립 서비스 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천주교의 교회일치 운동이 교파와 교파간의 대등한 관계에서의 일치도모가 아니고, 오직 어머니 교회인 천주교의 품안에 교파들이 돌아와서 안겨야 되는 일치운동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별 천주교 외의 모든 정교회들(천주교의 자매교회들)도 모교인 천주교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자매교회도 될 수 없는 개신교회 모든 교회들은 모교회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머니인 천주교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천주교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줄 안다. 그런데 자매교회도 못되는 개신교회들을 형제교회라고 부를리는 만무하지 않는가? 그러니 공연히 천주교가 우리를 형제교회라고 부른다거나 우리의 큰집이라는 등의 근거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6. 천주교와 기독교 세계교회협의(WCC) 신앙직제위원회와의 호의적이고 긴밀한 연합운동

위에서 천주교와 WCC의 관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여기에서는 천주교와 WCC의 신앙직제위원회와의 깊은 관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1) WCC 신앙직제위원회란 무엇인가?

이는 WCC안의 신앙과 직제위원회로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신앙과 직제”는 교파들을 나누어 놓고 있는 신학과 직제의 문제를 다룬다. ... 교회 일치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세례, 성만찬, 직제 문제에 대하여는 1982년 페루의 리마에서 수렴문서가 도출되어, 세례와 성만찬과 직제에 대한 에큐메니칼 이해와 실천에 엄청난 공헌을 하였다.¹⁷³⁾

WCC의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모든 교파를 분열시키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조직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조직은 그 목적대로 작업을 하여서 1982년에 페루의 리마에서 교회 일치의 장애물로 작용해온 세례, 성만찬, 직제 문제에 대한 수렴문서를 도출하여서 일치운동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고 하고 있다.

(2) 천주교와 WCC 신앙직제위원회의 친밀한 연합운동

- 1) 천주교는 아직 WCC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 2) 그런데 WCC 내의 신앙과 직제위원회에는 정회원 12명을 파견하였다.

WCC는 이 가장 핵심적인 기구에 천주교 대표를 초청하였고, 천주교는 대표를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교회일치운동에 가장 중요한 신앙과 직제문제의 토의와 연구와 발표에 천주교 대표들이 깊숙이 관여하

173) 루카스 피셔 편저, 『에큐메니칼 신학의 발전사(1)』, 이형기 역,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pp. 3-4.

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천주교와 WCC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WCC가 이러한 비회원 교단을 핵심적인 <신앙과 직제위원회>에 정식으로 초청했다는 것은 어떤 편법을 사용했는지 모르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그런 불법적인 초청에 기꺼이 응하여 12명이나 되는 위원을 파견하여서 <세례, 성찬, 직제>문서 작성에 적극 동참케 한 것도 있을 수 없는 비신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3) WCC는 천주교의 기독교 흡수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인 「세례, 성만찬, 직제」 문제를 천주교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묵시(默示)적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사실은 비회원 교파인 천주교를 가장 핵심적인 위원회에 12명(전 위원의 1/10)이나 초청하여서 정회원권을 주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 한 가지 만으로도 이해가 될 것이다.¹⁷⁴⁾ 그러므로 WCC와 천주교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천주교와 WCC의 호의적이고 긴밀한 연합운동

위에서 살펴본 대로 천주교와 WCC가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천주교의 일치운동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은 호의적인 관계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

174) 강우일 발행, 『교회일치문헌 제1권』,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p. 538.

1) 천주교의 산하 단체인 떼제 공동체에게 WCC의 신앙직제위원회의 50여 년간 심혈을 기울인 문서인 「세례, 성만찬, 직제」의 초안을 작성(떼제공동체의 막스 투리양신부의 주도아래 이 보고서 작성 작업을 함)하게 한 사실이다.¹⁷⁵⁾

어찌하여 WCC가 이런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비회원 교파인 천주교 학자들에게 의탁하고, 그것도 천주교 산하 단체와 그 수장인 신부가 작성까지 하게 했던 말인가? 이런 사실은 저들 사이가 보통 이상의 아주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교황 요한바오로2세의 칭찬과 격려

교황 요한 바오로2세가 이 「세례, 성만찬, 직제」 문서를 발표하기 2년전(1980년)에 로마에서 신앙직제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은 이미 결실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그분께 이 모든 결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요한 16, 13 참조). 여러분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목표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¹⁷⁶⁾

이는 교황이 이 문서가 발표되기 2년이나 앞서서 WCC 신앙직제위원회의 이 문서의 실무위원회에게 한 말이다. 이는 교황이 미리 문서 작성 과정과 그 내용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원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심지어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감사

175) 같은 책, p. 472 (같은 책, 534p. 참고)

176) 같은 책, p. 538

하면서 계속 잘하라고 격려까지 하고있다. 이 사실도 천주교와 WCC 아주 긴밀하게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천주교의 「교회 일치문헌 제1권」에 이례적으로 리마(세례, 성만찬, 직제)문서(66페이지)를 전부 싣고, 이 문서 전문에 대한 가톨릭의 응답서를 58페이지나 기재하고 있는 사실¹⁷⁷⁾

이 사실은 천주교와 WCC가 매우 호의적으로 연합운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신앙직제위원회의 「세례, 성만찬, 직제」문서가 천주교의 세계기독교통합(일치)운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게 하는 대목이다. (즉 이 문서가 천주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주 유리하게 잘 작성되어 있다는 것.) 한편 이 사실은 WCC가 천주교의 기독교 통합운동에 측면지원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도 되는 것이다.

7. 천주교가 WCC신앙직제위원회의 리마문서(세례, 성만찬, 직무)를 높이 호평하는 이유들

(1) 신앙 직제위원회가 <세례, 성찬, 직제>문서를 도출(導出)한 사실

위에서도 대충 보아 짐작하겠지만 천주교와 WCC의 특별한 관계는 친밀이나 호의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177) 같은 책, pp. 469-595.

첫째로 이해 할 수 없는 사실은 WCC는 왜 정회원이 아닌 천주교 대표들을 WCC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직제위원회에 정회원으로 12명이나 받아들여서 가시적 일치의 키(KEY)가 되는 <세례, 성찬, 직제>문서 도출(導出)에 거의 중요한 주도역할을 하게 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로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이 중요한 문서 작성을 천주교적인 단체로 잘 알려진 때제 공동체의 수장(막스 투리앙 신부)에게 위탁했느냐는 것이다.

셋째로 성찬과 직제문제가 왜 천주교 교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작성하게 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황은 그 문서가 공식으로 발표되기 2년 전에 미리 신앙직제위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였다.

넷째로 천주교의 <교회일치문헌 제1권>에 그 문서 전문을 기재하고 문서에 대한 천주교의 반응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실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차례 이 문서에 대하여 환영하며 옹호하고 격려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필자는 이런 일련의 사실들에 대하여 깊이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친밀이나 호의 이상의 특별한 모종의 정치적인 결탁(結託) 같은 것을 의심받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좋은 일이라면 몰라도 기독교의 생명이 되는 세례와 성찬과 직제 문제를 두고, 비 성경적이며 미신적이며 우상숭배적인 천주교의 세례와 성찬과 직제 즉 종교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온 것을 이렇게 처리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교리는 기독교의 생명이다. 이 교리들을 천주교의 율법적이며 이방미신과 우상적이며 인본적인 교리들로 대체한다면 생명의 복음적인 기독교는 WCC회원 교단 가운데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이 일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천주교를 끌어들어서 이 문서를 작성하

도록 도와준 WCC 측에 있다고 본다.

(2) 「교회 일치 문헌」 제1권에서 든 이유들

「세례, 성찬, 직무」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 1982년 리마에서 이 문서를 출판한 신앙직제위원회의 성격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위원회는 성공회, 정교회, 개신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필자 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정회원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12명의 대표를 신앙직제위원회에 파견하여 그들이 개인 자격으로 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완전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이는 120명의 회원들 가운데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위원회는 개별 교회들과 공동체들을 폭넓게 대변 한다.

둘째, 「세례, 성찬, 직무」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의 역사적인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신앙의 일치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 일치 운동의 과정에서 가장 우수한 결실이다. 이 문서는 어느 정도의 동의나 적어도 신학적 의견 수렴의 영역들을 제시하여 교회 일치 운동의 목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셋째, 「세례, 성찬, 직무」는 신앙직제위원회가 교회들과 공동체들의 응답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수십 년 동안 눈에 띄게 발전해 온 1982년의 리마 문서는 교회들과 공동체들에게서 이 문서를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 몇 가지 제안들과 함께 ‘최대한 적절한 권위를 지니고 ... 공식적인 응답’을 얻으려는 목적에 맞게 충분히 완성 되었다고 여겨졌다.” 178)

교황과 천주교가 이 신앙직제위원회와 리마문서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매우 이해적인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이것이 천주교를 위시해서 기독교 전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산물인 만큼 폭넓은 기독교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천주교가 핵

178) 같은 책, pp. 537-539.

심자리를 차지하고 핵심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고 찬성한다는 뜻이 내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둘째 이유는 이 문서가 교회일치운동의 가장 우수한 결실이며 따라서 교회일치 운동의 목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다. 즉 이 문서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서 기독교 흡수통합의 목표달성에 크게 이바지 하겠으니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다. 천주교는 이렇게 자기들의 기독교 흡수통합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전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그들은 이 문서가 교회들과 공동체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 몇 가지 제안들과 함께 ‘최대한 적절한 권위를 지니고 ... 공식적인 응답’을 얻으려는 그들의 기독교통합 목적에 맞게 완성되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호평하고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는 WCC와의 측면교접을 통하여 노력은 적게 하고 필요한 목표는 거의 달성하는 큰 성과를 올리고 대단히 만족해하며 호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천주교가 개신교가 하는 일에 참여하여 같이 협력하고 대대적으로 잘 했다고 호평한 일은 천주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그것은 이 문서가 천주교에 아주 유리하게 잘 작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들의 기독교 통합 목적 달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주교가 이렇게 크게 환영하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크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고 WCC의 이 문서를 신앙적이며 성경적으로 바르게 수정하라고 강력하게 제기해야 할 줄 안다.

(3) 천주교 교리를 개신교에 성공적으로 이식(移植)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주교는 역사상 전례 없이 최초로 개신교 단체(WCC 신앙직제위원회)가 작성한 문서를 대대적으로 긍정하며 높이 평가하며 호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생명 걸고 무수한 피를 흘리며 배척한 그 교리들을 전 세계 개신교 대부분을 대표하는 WCC에서 거의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1. 「세례 성찬 직무」 문서는 천주교의 세례 성찬 성품성사 교리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착각이 될 정도이다. 다른 교파들의 견해는 장식용으로 조금씩 가미하였고, 천주교 교리서가 아닌가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대부분이 천주교 교리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들은 개신교의 핵심교리를 파괴하는 이러한 교리들을 둔갑(遁甲)시켜서 세계 개신교를 총 대표하는 WCC에 슬그머니 이식(移植)하는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크게 호평하고 있는 것 같다. 완성은 아니지만 거의 80%정도는 성공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머지는 조금만 손쓰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보아서 천주교가 기독교에 개입해서 행한 일이 이렇게 크게 성공한 적은 전례(前例)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2. WCC가 이렇게 너무 쉽게 천주교가 원하는 대로 이러한 작업을 거의 주도하여 성취하는 방향으로 적극 도와주었으니 이 신앙직제위원회의 「세례 성찬 직무」 문서에 대하여 호평과 찬하를 거듭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서는 대 이단적인 천주교의 핵심교리들을 기독교에 슬그머니 이식시키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천주교의 치명적인 교리들을 이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 문서는 천주교의 세례구원 교리를 이식시키고 있다. 천주교 사제에게 세례받는 자는 다 구원받고 중생하고 영생한다는 인위적인 거짓교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교묘하게 이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문서는 천주교의 미사제사와 화체설을 그대로 이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에는 유일한 십자가 속죄가 성만찬 속에서 실체화 되며 천주교의 중보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진다¹⁷⁹⁾는 해설을 달고 있다. 그 외에도 노골적으로 “많은 교회가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이지만 신비스러운 방식에 의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그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임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된다고 믿고 있다.”¹⁸⁰⁾는 해설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기술적으로 천주교의 성체성사와 관련된 교리들을 삽입하면서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이 사실은 실로 종교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피 흘려 반대한 미신적이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무효화 시키며 우상숭배적인 화체 교리를 정통 기독교 성찬 교리와 대체시키려는 간교한 술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천주교의 사탄적인 술책에 동조하는 WCC는 도대체 정통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심히 의아심이 앞서는 것을 어찌 할 수 없다.

179) 세계교회협의회, 『BEM 문서 : 세례, 성찬, 직제』, 이형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p. 37.

180) 같은 책, p. 38.

마지막으로 이문서는 천주교의 교황과 주교 중심의 직제를 교묘하게 이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도계승이니 감독제도계승이니 하면서 “안수 받는 직제에 대한 상호 인정”¹⁸¹⁾을 주장하면서 천주교의 교황과 주교제도와 사제제도를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실로 적그리스도와 거짓그리스도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천주교 변질과 변종의 정점에 있는 악명 높은 교황제도가 아닌가? 천주교의 온갖 거짓된 교리들과 탈선과 오류와 오도(誤導)의 정점에 있는 교황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인가? 성경위에 군림하는 최고권위자이며 무류의 권력자라고 하는 대 이단적인 천주교의 직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제2의 암흑시대를 초래하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교황제도의 온갖 폐해들과 권력투쟁과 최근까지 자행되고 있는 비성경적이며 세상 권력지향적인 과오들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용납될 수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문서는 천주교의 이러한 이단교리들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교묘하게 주입하고 있으며 그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이식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문서가 천주교의 세례, 성찬 직무(직제) 위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개신교나 다른 교파의 세례, 성찬, 직무는 들러리 정도로 조금씩 취급하고, 천주교의 것들은 해설까지 곁들여 가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래도 천주교가 이 문서에 자신들의 세례, 성찬, 직무 교리를 이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천주교가 WCC의 이 문서에 대하여 갖는 지대한 관심과 호평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 문제에 대하여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줄 안다. WCC는 신앙 직제위원회의 잘못된 이 리마문서를 바로잡아야한다. 천주교 교

181) 같은 책, pp. 70-71.

리를 정통 기독교에 이식시키려는 천주교의 간계를 물리치고 정통 기독교 교리간의 조율에 힘써야 할 줄 안다. 아니 아예 천주교 대표들을 신앙직제 위원회에서 퇴출시키고 정통 기독교 대표들로만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WCC가 진정으로 성경적인 정통 기독교회 연합체라고 한다면 말이다.

(4) 리마문서(BEM)를 구체화한 <리마 예식서>의 역할

WCC 신앙직제위원회에서 1982년 1월에 페루의 리마에서 채택한 세례, 성만찬, 사역(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에 관한 합의 문서를 ‘리마 문서’ 혹은 ‘B E M 문서’ 라고한다. 그리고 이 리마 문서 중 ‘성만찬’ 부분의 직접적인 산물이 ‘리마 예식서’인데 이것이 맨 처음 사용된 곳도 리마였다.¹⁸²⁾ 이 리마 예식서는 WCC 신앙직제 위원회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자 신앙 직제위원회에 변칙적으로 침투(?)한 천주교의 대 성공작이 되었다. 이것은 위에서 거론한바와 같이 천주교의 성찬교리를 아주 기술적으로 기독교(WCC)에 이식(복사)시키는데 성공한 작품으로 보인다.

1) 리마 예식서(Lima Liturgy)의 작성 과정

리마 예식서는 WCC가 추구해온 모든 기독교의 연합을 위한 50여 년 동안의 노력의 결실이다. 유 선호 목사는 저서 『리마 예식서의 정체』에서 이것은 “교리적인 합의를 통한 일치운동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WCC가 의식을 통한 일치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 낸 산물

182) 유 선호, 『리마 예식서의 정체』, (서울 : 하늘기획, 2002), p. 22.

이다.”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예식서는 기독교들과 정교회, 천주교의 의식들을 약간 혼합하여서 만들었으나 그 근본 뼈대는 천주교의 미사예식이다.¹⁸³⁾고 하였다. 그러므로 필자는 리마 예식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2) 리마 예식서의 구조와 내용

① 구조

유선호 목사는 리마 예식서의 구조가 개회의 예전, 말씀의 예전, 성만찬의 예전 등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35개의 작은 순서들로 이루어 졌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¹⁸⁴⁾고 했다.

☆ 개회의 예전

1. 개회 찬송
2. 인사
3. 죄의 고백
4. 용서의 선언
5. 자비의 연도
6. 영광송

☆ 말씀의 예전

7. 오늘의 기도
8. 구약성서 봉독
9. 명상의 시편
10. 서신 봉독
11. 알렐루야 영창
12. 복음서 봉독
13. 설교
14. 침묵
15. 신앙고백
16. 중보의 기도

☆ 성찬의 예전

17. 준비기원
18. 인사의 교환
19. 처음 기원
20. 삼성창
21. 성령 임재의 기원 I
22. 성찬 제정사
23. 기념사
24. 성령 임재의 기원 II
25. 추모의 기원
27. 주의 기도
28. 평화의 인사
29. 분병례
30. 하나님의

183) 같은 책, p. 42.

184) 같은 책, pp. 37-38.

어린양 31. 성찬에의 참여 32. 감사의 기도 33. 폐회 찬송 34. 분부의 말씀 35. 축복기도

② 내용의 일부 혼합적인 부분들

이상의 구조만 보아서는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다. 여기에서는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주시해야 할 부분들만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내용 중에 혼합적인 부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인사는 천주교 예식서의 것. 3. 죄의 고백과 4. 용서의 선언은 미국과 캐나다의 루터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루터교 예식서’에서 채용한 것. 5. 자비의 연도는 동방 정교회에서 온 것. 15. 신앙고백은 정교회와의 화해의 의미에서 채택. 16. 중보의 기도는 5세기 말경에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키리에(Kyrie)의 연도를 반영한 것. 17. 준비기도는 유대교와 천주교 예식에 사용되는 축복기도에 근거한 것. 24. 성령임재의 기원 I은 동방정교회로부터 온 것. 25. 추모의 기원은 천주교의 전통에 따른 것으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26. 마지막 기원도 천주교 예식에서 온 것이다.¹⁸⁵⁾

이상으로 보면 35개의 순서들 중에 10가지 순서가 천주교와 정교회, 루터교에서 온 것을 알 수 있다. 개신교의 것은 루터교의 것 두 가지 뿐이고 그 다음 8가지는 정교회 3가지, 다음 천주교 5가지로 되어 있다. 세 개의 교단의 것들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주의 예식이라고는 하나 사실은 천주교와 그 사촌간인 정교회의 것들이 거의 다(80프로)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용순서의 구성도 천주교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85) 같은 책, pp. 42-43.

③ 이 예식서가 내포하고 있는 천주교 미사화한 중요한 부분들

이 예식서의 전체 내용은 천주교의 <미사통상문>과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유 선호 목사는 <리마 예식서>와 <천주교 미사 통상문>을 도표로 나란히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표현과 배열만 좀 다르고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유 목사는 ‘천주교 미사의식이 둔갑한 것이다’고 하였다. 이식(移植)이나 복사라고 보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결과 몇 가지 순서와 문장의 표현들만 수정되었을 뿐 그 기본 골격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했다. 결국 여러 가지 미사연구로 예배 갱신론자들이 극찬하는 리마 예식서는 다름 아닌 천주교의 미사의식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¹⁸⁶⁾고 하였다.

천주교가 이렇게 집요하게 WCC 신앙직제협의회를 통하여 기독교회의 안방(예배)까지 침투하여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다. 천주교가 일치의 미명으로 또 예배갱신이라는 명목으로 기독교의 심장부를 공략하고 있는 치(齒) 떨어는 현실을 어찌 경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④ 리마예식서의 치명적인 독소들

첫째, 기독교에 주입시킨 천주교의 미사의식의 독소들

이 예식서의 중요 핵심부분은 천주교의 이단적인 미사교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교묘하게 둔갑시켜서 그대로 주입시켰다. 간략하게 그 둔

186) 같은 책, p. 55.

갑시킨 핵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선호 목사는 이 「리마예식서의 정제」에서 이 예식서의 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치명적인 천주교 미사의식의 의미¹⁸⁷⁾로 다섯가지 독소를 지적하고 있다.

둘째, 성령의 능력으로 성찬이 실체로 변화된다는 기만적인 독소

<리마예식서>는 성만찬의 전제행위로 성령초대의 기도를 내세워서 실체변화(화체)가 마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주고있다.(리마예식서 순서 ‘21. 성령 임재의 기원(I)’, ‘24. 성령임재의 기원(II)’)¹⁸⁸⁾ 이는 천주교의 이단적인 화체교리를 성령의 이름을 빌려서 합리화하는 것이다. 사제가 성령청원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천주교의 미신적이며 우상숭배적인 성찬의 실체를 변화시킨다는 성령을 모독하는 주장이다.(리마문서(BEM 문서) 38-40p.참고) 이는 성령이 그들의 미신과 우상숭배를 가능하게 한다는 기만적인 독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이며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를 무효화시키는 이러한 천주교의 미사제사를 성령께서 능력으로 성취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께 대한 최대의 모독이며 천주교의 거짓복음을 통하여 참 구원을 말살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될 것이다.

셋째, 십자가의 희생제사의 재현제사를 감사 찬양의 제사로 위장하는 독소

다음으로 천주교의 미사제사를 교묘하게 눈가림하기 위하여서 표현을 빙빙 돌리고 있다. 「리마문서」에서는 성만찬의 첫째 의미를 “성부

187) 같은 책, pp. 38-41.

188) 정아베스, 『리마 예식서』, (<http://blog.daum.net/jlin55kr>, 2008), pp. 4-5.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서의 성만찬”이라고 한다. “성만찬은 교회가 모든 피조물을 대신하여 드리는 찬양의 대제사라고 하며 이 찬양의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땅의 소산이자 인간의 수고의 결실인 떡과 포도주는 신앙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봉헌된다.”¹⁸⁹⁾고 한다.

이렇게 BEM 문서가 정의한 성만찬의 첫째 의미는 감사라고 했는데 이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적인 성만찬의 의미는 첫째가 주님 속죄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다음 순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리마문서는 성만찬 자체가 감사라고 곡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찬양과 봉헌(제사드림)¹⁹⁰⁾과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쉽게 말을 바꾸면 성만찬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감사, 찬양드림)라는 것이다. 이렇게 돌려서 결국은 이 성만찬이 천주교의 그리스도 속죄제사를 재현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되게 하고 있다.

리마예식서에서는 ‘23. <기념사>’에서 “주님의 아들의 희생을 기억 하시어 이 땅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24. <성령 임재의 기원 (II)>’에서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¹⁹¹⁾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리마문서의 내용을 축약하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189) 이형기 역, 『BEM 문서 : 세례, 성만찬, 직제』,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p. 35.

190) 같은 책, p. 35.

191) 정아베스, 『리마 예식서』, (<http://blog.daum.net/jlin55kr>, 2008), pp. 4-5.

이 문서와 같으며 더 나아가 천주교 미사예식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리마예식서>는 천주교의 이단적인 미사예식을 표현만 바꾸어서 그대로 주입한 것이다. 이는 실로 그리스도께서 단 1회적으로 완성하셔서 인류를 대속하신 고귀한 은혜를 말살하고 소꿩장난과 같이 매일 무수하게 전 세계의 천주교당에서 사제들에 의하여 재현함으로써 성취된다는 무서운 대 이단적인 교리이다. WCC를 통하여 세계의 기독교회가 이러한 영혼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거짓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종교 개혁자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저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넷째, 기념이라는 말로 실체 변화를 위장하는 독소

개신교의 대부분은 성만찬을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기념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 리마문서와 예식서에서도 기념이라는 말을 차용(借用)하고 있다. 그런데 기념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것을 천주교의 실체변화라는 개념으로 뒤집기위하여 억지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성만찬에서 말하는 기념에 대한 성경의 생각은 성만찬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예전(儀式 : liturge)으로써 거행 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의 현재적 효과를 가리킨다.”¹⁹²⁾고 단순한 기념을 억지로 …현재적 효과를 가리킨다고 짜 맞추고 있다.

그리고 “기념(혹은 기억)으로서의 성만찬”의 <해설>에서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또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이지만 신비스러운 방식에 의하여 부활하신 그리

192) 이형기 역, 『BEM 문서 : 세례, 성만찬, 직제』,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p. 36.

스도, 즉 그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임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된다고 믿고 있다.”¹⁹³⁾ 이렇게 하여서 슬쩍 화체설에 의한 실체변 화교리를 주입하고 있다. 이들은 천주교와 정교회 등 몇 교회만의 잘못된 화체신앙을 “많은 교회들이” 믿고 있다고 기만하고 있다.

그리고 이 <리마예식서>에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살과 피가 되게 해달라는 직접적인 기도가 두 곳에 나오고 있다. 예식순서 ‘17. <준비 기원>’에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이 땅과 인간 노동의 열매로 이 떡을 주셨사오니 이 떡이 곧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¹⁹⁴⁾라고 기도하고 있다. 예식순서 ‘21. <성령 임재 기원(I)>’에 “이 불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감사의 식탁이 성결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저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¹⁹⁵⁾ 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 두 순서 중에 집례자가 드리게 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은 천주교의 미사의식에서와 똑 같이 성찬의 떡이 곧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저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여기에서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내리셨던 불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떡과 포도주가 저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되게 하소서 하고 성령을 도용(盜用)하고 있다.

이 사실은 실로 종교개혁을 뒤엎는 기막힌 사건이다. 기독교 목사들이 표준예식서라고 하면서 이 예식서의 순서대로 앵무새처럼 복창을 하면서 천주교의 대 이단적인 미사제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무지와 불신앙이 기독교계를 뒤엎고 있는데 그저 모두 로봇(트)같이 기계적으로 따라가고만 있다는 말인가? 진실로 개

193) 같은 책, p. 38.

194) 정야베스, 『리마 예식서』, (<http://blog.daum.net/jlin55kr>, 2008), p. 3.

195) 같은 곳, p. 4.

탄하지 않을 수 없는 무서운 배도와 배교와 반역을 자행(恣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섯째, 성도의 교제로서 신도간과 기독교와 세계의 화해와 일치(연합)를 주장하는 독소

이 예식서는 천주교적 미사제사로서의 성만찬의 의미가 “그리스도 인들끼리의 교제, 화해, 나눔이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대세계적인 교제라고 진술되고 있다. 즉 한 주어진 장소에서 하나의 빵과 공동의 잔을 나눈다는 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거기에 참여한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들의 동참자들과 하나가 됨을 말해주며, 그러한 효험을 가지는 것이라”¹⁹⁶⁾ 고 했다. 이 예식서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참여자들의 교제를 자연스럽게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중시해야할 것은 이 교제가 단순한 참여자들 간의 교제의 차원을 넘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대세계적인 교제’라는 것이다. 이 예식서는 천주교를 대변해서 천주교적으로 변종된 이 성찬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참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와 일치를 도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마침내는 천주교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대(大)세계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미사에 동참하면 결국 그들의 우상제물을 먹게 되어서 그들과 동일한 우상숭배자들이 되고 마는 불행한 결과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궁극적 목적임을 명심하여 그 기만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경성하여 유일한 복음신앙을 수호해야만 될 것이다. 교제, 화해, 일치라는 천주교와 WCC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이 성만찬이라는 천주교적인 미신과

196) 유 선호, 『리마 예식서의 정제』, (서울 : 하늘기획, 2002), p. 41.

우상숭배적인 미술의식이라는 사실은 사탄의 기독교 공격의 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현세적인 하나님통치의 나라(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세계)대 땅이라는 독소

유선호 목사는 「리마예식서의 정체」에서 계속해서 “성만찬은 창조 의 중국적 갱신으로서의 약속된 하나님의 통치를 대망하도록 해 주며, 또한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을 축하하고 예상하는 축제”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다분히 현세적(인간들이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곳)이라¹⁹⁷⁾고 말하고 있다.

유목사의 이 말은 천주교 미사제사로 변종된 리마예식의 마지막 의미가 천주교적인 종말사상의 성취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본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역한 세계를 심판하시고(시편 2편) 완전하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요한 계시록 21장 1-8절)는 말씀은 무시하고 천주교 중심의 지상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허망한 꿈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천주교는 종교개혁자들이 생명바쳐 비판하고 거부하며 화형도 불사하며 거절한 그들의 미사제사를 교회연합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에 주입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 천주교가 WCC에 투입되어서 리마문서와 리마예식서를 만들어서 완전히 기독교의 생명을 말살하고 있는데 WCC와 기독교 관계 지도자들은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다.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

197) 같은 책, p. 41.

는 자들이 많은 것 같다.

몰라서 속아 이용당하고 있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만약에 알고서도 앞장서서 도와주거나 구경만 한다거나 더 더욱이 잘한다고 박수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일까? 진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러한 무서운 배도와 배역의 길을 달리고 있는 이들은 그만 늦어지기 전에 제정신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샅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 만일 그들이 우리 주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베드로 후서 2장 15-16, 20-22)

3) 리마문서와 예식서를 통하여 기독교에 주입시킨 천주교의 이단 교리들

리마문서와 리마예식서에 주입시킨 천주교의 이단적인 신학사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리를 무시하고 의식만 같이하자는 것(천주교의 이단교리들은 다 무시하고 성찬식으로 연합하자는 것)

유선호 목사는 계속해서 천주교가 <리마예식서>에 주입시킨 몇 가

지 이단교리들을 지적하고 있다.¹⁹⁸⁾ 천주교의 화체설과 희생제사설을 그대로 받아들인 WCC는 성만찬에 대한 교리는 피차 이해하여 주고 (각자의 신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식만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신학적 교리의 차이는 덮어두고 천주교 것으로 변종시킨 성만찬만 같이 하자는 것이다. 성경말씀과 진리는 무시하고 무조건 눈 딱 감고 천주교의 악명 높은 미신적이며 우상숭배적인 미사의식을 그대로 따르자는 자폭(自爆)적인 주장이다. 한심하고 가련한 자살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② 용서의 선언(천주교 신부의 월권을 흉내 내라는 것)

리마 예식서의 제4번 순서가 “용서의 선언”인데 그 내용을 보면 “목사:…나는 교회의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언합니다.”¹⁹⁹⁾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천주교 신부가 고해한 사람들에게 사죄를 선언한 것과 같다.²⁰⁰⁾ 이 사죄의 선언은 천주교에서 신부에게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보기에 그런 권한이 없는 목사들이 이렇게 앵무새처럼 복창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구경거리라고 뒤에서 비웃지 않겠는가?

③ 성인 숭배

리마문서 성만찬 제 11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며, 모든 성인들 및 순교자들과 교통하는 우리

198) 같은 책, pp. 55-68.

199) 정야베스, 『리마 예식서』, (<http://blog.daum.net/jlin55kr>, 2008), p. 1.

200) 유 선호, 『리마 예식서의 정제』, (서울 : 하늘기획, 2002), p. 62.

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인쳐진 계약으로 새롭게 된다.²⁰¹⁾

이 문서는 천주교의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유선호 목사는 “이것은 성인숭배사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연옥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나 선행의 댓가를 천국이나 연옥에 있는 이들과 서로 나눠주고 나눠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천주교의 연옥 사상과 성인숭배 사상에서 온 것이다.”²⁰²⁾고 했다. 천주교는 미신적이며 우상숭배적이며 비성경적인 이러한 사상들을 공력은 많이 들였지만 WCC에 아무 저항없이 너무 쉽게 이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WCC는 이렇게 영혼의 생명이 달린 천주교의 탈선한 이단 교리들을 무조건 받아들인 책임을 하나님 앞에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④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리마예식서 ‘25번 순서 <추모의 기원>’에서 “또한 저희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화평안에서 죽어간 저희의 자매들과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주님께만 알려진 모든 사람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기쁜 잔치에 저희보다 먼저 간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이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²⁰³⁾라고 기도하고 있다. 성경과 기독교에는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가 없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런데 WCC의 이 예식서는 천주교에서와 똑 같이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201) 이형기 역, 『BEM 문서 : 세례, 성만찬, 직제』,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p. 63.

202) 유 선호, 『리마 예식서의 정체』, (서울 : 하늘기획, 2002), pp. 63-64.

203) 정야베스, 『리마 예식서』, (<http://blog.daum.net/jlin55kr>, 2008), p. 5.

⑤ 사역(직제)의 상호인정

리마문서는 세례, 성찬, 직제 세 가지를 취급하여서 천주교의 것으로 이식시키는데 거의 성공하였다. 그 가운데 직제는 사역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모든 기독교단의 교직들을 상호 인정하지는 방향²⁰⁴⁾으로 이끌었다. 이 말은 특별히 천주교의 교황직과 주교직과 사제직이 인정 받게 하는 게 주목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적은 리마예식서에 기도의 형식으로 주입하고 있다. 예식서 ‘16.<중보의 기도>’에 “목사 : 교회들로 하여금 한 주님을 섬기는 서로 서로의 교역을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화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²⁰⁵⁾ 그리고 이 예식서 ‘25. <추모의 기원>’에도 “목사 : … 주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목사와 장로, 집사와 그 밖의 일꾼들, 또 그 밖의 다른 형태의 교역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²⁰⁶⁾

이렇게 WCC는 리마문서에서 계획한 것을 리마 예식서에서는 완전히 기도의 형식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그들의 주목적은 다른 교단들의 직제들도 인정하지만 천주교의 교황과 주교와 사제직을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악명 높은 천주교와 함께 교황을 인정하고 그 직제들을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교황의 통치권 안에 통합시키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정신 바짝차리고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황은 천주교 최고의 권위자로서 성경말씀 보다

204) 이형기 역, 『BEM 문서 : 세례, 성만찬, 직제』,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pp. 70-71.

205) 정야베스, 『리마 예식서』, (<http://blog.daum.net/jlin55kr>, 2008), p. 3.

206) 같은 곳, p. 5.

우위에 있고 무류하며, 주교와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탈취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무효화시키며,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모욕적인 것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치명적인 교리”의 주인공이며 완전히 신격화²⁰⁷⁾된 존재라고 한다. 이렇게 비성경적이며 크게 잘못된 천주교의 교직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천주교에 완전히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⑥ 성찬 받음으로 구원 얻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런데 리마 문서는 천주교 성찬교리와 같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먹음)으로써 이 구원의 은사를 받는다.”²⁰⁸⁾ 고 한다. 영혼의 구원은 그 심령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대속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천주교와 똑같이 미신적인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주교의 미신종교로의 동반 추락을 말하는 것이다. 영원한 영혼 구원의 가장 귀중한 문제를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⑦ 천주교회를 참 교회로 인정케 함

리마예식서만 보아도 몇 군데에서 천주교가 참 기독교라는 교리를 주입시키고 있다.

리마예식서 순서 ‘15. <신앙 고백>’은 니케아 신조인데 이는 381년에 확대된 니케아 신조이다. 그런데 끝 부분에 “우리는 하나의, 거룩

207) 유 선호, 『리마 예식서의 정체』, (서울 : 하늘기획, 2002), p. 66.

208) 이형기 역, 『BEM 문서 : 세례, 성만찬, 직제』,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p. 34.

하고, 세계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²⁰⁹⁾ 이 신조는 325년의 니케아 신조에 더 추가 한 것으로 특히 원래 ‘거룩한 교회’만 있는데 56년 뒤에 ‘하나의,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추가한 것이다.²¹⁰⁾

그런데 이 신조를 리마예식에서 공동으로 고백하는 신조로 삽입해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계속 고백하게 하고 있다. 이는 천주교의 교회교리(가톨릭 교회교리 750조)를 그대로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리마예식서 순서 ‘25. <추모의 기원>’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목사 : 오 주여,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주님의 교회, 하나의 교회요 거룩한 교회이며, 세계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천주교만이 참되고 유일하고 거룩하며 사도전래의 세계적인 기독교라는 저들의 거짓된 교리의 교회를 기억해달라고 전 세계의 이 예식을 행하는 곳마다에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 이래 거짓교회이며 가짜교회로 분류되어온 대 이단인 천주교가 이렇게 해서 교묘하고 기만적으로 기독교에 표준 문서니 표준 예식서라는 것으로 가장(假裝)하고 침입하여서 잠식(蠶食)해 가고 있다.

천주교는 WCC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리마문서와 리마예식서로 마치 <트로이 목마>와 같이 WCC 회원교단들에 침투시켜서 모든 기독교의 천주교에로의 흡수통합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가고 있다.

⑧ 기독교의 보이는 일치소원(연합기도)

이 리마예식서에서는 여러 곳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리마예식서 순서 ‘5. <자비의 연도>’에 “목사 :

209) 유 선호, 『리마 예식서의 정제』, (서울 : 하늘기획, 2002), p. 3.

210) 필립 샤프, 『신조학』, 박일민 편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라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²¹¹⁾ 순서 ‘16. <중보의 기도>’에 “목사 : 교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세례안에서 가시적인 일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²¹²⁾ 순서 ‘17. <준비 기원>’이 “목사 : 밀알이 들판에서 흩어지고 포도나무가 포도밭에서 사라졌으나, 이 상 위에 있는 떡과 포도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주여, 주님의 온 교회가 이 세상 구석구석으로부터 주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모여들게 하옵소서.”²¹³⁾ 순서 ‘32. <감사의 기도>’에 “목사 : 오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성찬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교회의 완전한 일치를 향해 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화해의 징표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소서.”²¹⁴⁾

이상 예식순서 네 곳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반복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기독교회의 일치와 연합은 성경적으로 중요한 교훈이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천주교와 WCC가 주장하는 일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인간적이며 가시적인 몸통 키우기인 것을 알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교리는 묻지도 않고 이단이든지 사이비든지 무조건 뭉치지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안에 한 피 받은

211) 정야베스, 『리마 예식서』, (<http://blog.daum.net/jlin55kr>, 2008), p. 1.

212) 같은 곳, p. 3.

213) 같은 곳, p. 3.

214) 같은 곳, p. 5.

형제자매의 신령한 연합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인간적인 세 불리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인위적인 단합은 왜 하려하는 것인가? 면밀히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연합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비교되며 세속적인 정치적 어떤 목적을 위한 야합이나 다를 바 없는 위험천만한 봉당(朋黨)조직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신앙적이며 탈성경적인 연합은 결국 그리스도와 진리와 참 교회에 대한 반역과 적그리스도적인 것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대적이 될수 있을 것이다.

4) 리마예식서의 위험한 목표

① 천주교식 성찬의식을 통하여 세계의 기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

유선호 목사는 WCC는 교리적인 합의를 통한 일치의 추구는 가능성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의식적(성례전적) 일치를 통한 세계교회의 통합을 꿈꾸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그들의 노력이 리마문서와 리마 예식서로 나타난 것²¹⁵⁾이라고 한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천주교의 미사의식을 표현만 조금씩 바꾸어 그대로 사용하게 해서 모든 기독교회가 신앙과 교리는 다 버리고 이 의식을 통하여 먼저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1차 목표이다. 심장은 빼 버린 시체들만 모아서 세를 과시하려는 모양과 같다.

② 천주교식 성찬의식을 통하여 세계의 기독교를 천주교 예로 복귀(귀속)시키는 것

유 목사는 예배갱신운동은 엄격히 말하면 “의식주의적 예배운동”이

215) 유 선호, 『리마 예식서의 정체』, (서울 : 하늘기획, 2002), p. 71.

다. 그들이 회복하고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세적 천주교 예배 의식으로의 복귀이다²¹⁶⁾라고 했다. 이 말은 WCC와 천주교가 합작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리마 예식을 통한 의식주의적인 예배운동은 한마디로 중세적 천주교로 복귀하여 하나로 합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들의 일치운동은 모든 기독교를 연합시켜서 천주교 안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③ 천주교식 성찬의식을 통하여 말씀설교를 제거하고 천주교의 의식종교화하여서 정통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것(천주교 천하가 되게 하는 것)

유목사는 의식주의적인 예배운동은 한마디로 말해 영적인 고갈이며, 교회의 목을 조르는 것이며 생명의 고갈²¹⁷⁾을 가져온다고 한다. 이들의 이러한 성찬 중심의 천주교적 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만다. 두 시간동안 이러한 미신적이며 우상숭배적인 의식만 행하면 설교할 틈을 주지 않는다. 교회와 예배의 최고의 요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데 이것을 제거하면 교회가 생명을 잃게 된다. 그리하여 천주교의 미신과 우상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가 천주교의 의식종교에 빠지면 그들과 함께 생명을 잃어버리고 미신과 우상숭배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모든 기독교가 그렇게 되면 복음과 생명을 잃고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말 것이다.

이상으로 리마문서와 특히 리마 예식서의 구조와 천주교의 미사화한 내용과 그 독소적인 의미와 이단사상과 그 목표를 간략하게 살펴

216) 같은 책, p. 70.

217) 같은 책, p. 74.

보았다. 우리는 지금 천주교가 일치라는 미명하에 WCC를 통하여 기독교를 무력 없이 침략하고 있는 사탄적이며 기만적인 만행(蠻行)을 목격(目擊)하고 있다. 그들의 간악한 행위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WCC에 속하여서 천주교의 이러한 사탄적인 만행에 협력하는 이들도 이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동자를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명심불망(銘心不忘)하기 바란다. 기독교인들은 깨어서 교회와 자신을 이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주실 만왕의 왕께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며 뱀같이 지혜롭게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8. 천주교 일치운동의 최종 목적과 성만찬의 중요성

(1) 일치운동의 목적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해설총서3」에서는 다음과 같이 천주교의 일치운동의 목적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가톨릭의 교회일치운동은 진리에 충실하고 가톨릭 교회의 신앙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일치의 재건’, 즉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재통합 - 이는 「일치교령」이 맨 처음에 밝히고 있듯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중대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미 하느님 백성에 어느 정도 속해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필자 주:

천주교외의 기독교인)는 가톨릭 교회에 완전히 합치해야 한다. 이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방법의 모든 충족에 도달 할 수 있다. 218)

이상의 내용을 보면 천주교의 교회일치운동의 목적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중대한 목적중의 하나는 일치의 재건 즉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재통합(이는 나뉘기 전 곧 종교개혁전이나 동서분열 이전과 같이 다시 천주교 안에 합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위의 문장에서도 ‘가톨릭 교회의 신앙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② 그 다음 문에서는 천주교 이외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느님 백성에 어느 정도 속해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못 박고, 즉 천주교인들과 같이 완전한 그리스도교 신자가 못된다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방법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회에 완전히 일치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해설총서에 따르면 천주교가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기독교 일치운동이란 천주교 이외의 모든 기독교를 분열 이전의 중세기와 같이 천주교예로 통합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마땅히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오히려 다른 기독교인들을 구원하겠다는 엉터리 넌센스(nonsense)이다.

이들 기독교 최대 이단의 이런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일치운동에 성체성사(성만찬)의 필수성

218) H. V. 스트라렌 외 지음, 『제2바티칸공의회문헌해설총서 3』, 한석호 옮김, (서울 : 성바오로출판사. 1991) pp. 502. 497.

천주교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교회 일치문헌과 바티칸 공의회 문헌해설 총서는 일치운동에 성체성사의 필수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교회 안에 놀라운 성체성사를 세우셨다. 성체성사는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고 이룩한다.(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364) 성체성사는 교회의 존재와 그 일치의 기초를 이루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교회 일치문헌 제1권 147)

세례로써 그리스도와 합치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들(필자 주: 천주교 이외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세례에서 흘러나오는 완전한 일치가 결여되어 있다. 성체성사의 완전한 본체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찬식에서(필자 주: 천주교의 미사제사에 참여하여서 그들이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라고 하는 성만찬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의 교류는 생명을 드러낸다.²¹⁹⁾

모든 불일치를 하루아침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서서히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접근하고 공통의 기준인 복음에 따라 자기 교회의 모습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공상적인 이상을 한꺼번에 추구 하지 말고 현실에 적합한 길을 착실히 걸어가야 한다. 그 길을 걸을 때에만 “크리스천들이 유일한 하나인 교회에 모여 한 성체의 전례를 거행하며 일치를 이루게(일치교령4조) 될 것이다”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²²⁰⁾

이미 바울로는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이다.”(1 고린 10, 17)라고 말함으로써 성체를 교회일치의 원천으로 제시하고 있다.²²¹⁾

219) 같은 책, pp. 501-502.

220) 같은 책, p. 516.

221) 같은 책, p. 508.

이러한 방법으로 조금씩 교회의 완전한 일치를 가로막는 장애들을 극복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인 성찬례를 거행하며, 하나이고 유일한 교회의 일치 안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 369p.)

이상의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해설총서에 따르면 천주교 주도의 기독교 일치운동은 반드시 성체성사(성찬례)를 통해야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① 그리스도께서 천주교회 안에 놀라운 성체성사(미사제사에서 사제의 축복에 의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밀떡과 포도주를 하느님께 속죄의 제물로 봉헌하고서 신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의식)를 세워 주셨다는 것이고, 이 성체성사는 모든 기독교의 일치를 나타내주고 성취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천주교의 미사제사의 성찬례를 통하여 기독교의 일치가 나타나게 되고 완성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체성사는 천주교의 교회 일치운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기독교인이 천주교 안에 들어가서 사제에게 세례를 받고 그에게 성찬을 받아먹음으로 완전한 천주교인이 되고 이로서 천주교와의 일치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② 성체성사는 천주교의 존재의 기초를 이루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천주교 중심에 기독교 일치의 기초를 이루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성체성사 위에 천주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성체성사 위에 천주교 중심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체성사는 천주교 일치운동의 필수요소라는 말이다.

③ 기독교인들(개신교인)은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며, 성체성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본체를 모시고 있지 않다고 한다. 즉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

지 않은 가짜 신자들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천주교의 성찬식에 참여 (이는 천주교 신앙을 고백하고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그들의 미사제사에 참여하여서 신부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먹는 것)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천주교와 연합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천주교와 일치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일치운동에서 성체성사를 생명같이 여기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저들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거꾸로 저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으니 기막힌 주객전도(主客顛倒)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들의 유아독존(唯我獨尊)적이고 독선(獨善)적인 망언(妄言)에 대하여 도대체 무어라고 말해야 옳겠는가? 또 저들의 안하무인(眼下一無人)격인 이런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타당 하겠는가? 오늘날 신흥 이단들이 정통 기독교를 삼키려는 추태(醜態)들에 비하면 천주교는 양반이라고 칭찬해야 옳을까?

④ 점진적이며 착실한 일치운동을 전개할 때에만 “크리스천들이 유일한 하나인 천주교회에 모여서 한 성체성사의 미사제사를 거행하며 일치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목적에 도달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그들의 일치운동의 목적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이러한 일사불란(一絲不亂)한 결의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다.

⑤ 바울 사도의 성찬식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단순한 문자적인 말씀만으로 해석하여서 그들의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성체성사를 천주교 일치운동의 원천으로 제시하는 과오를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⑥ 일치운동의 최종 결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인 천주교의 성찬례에 참여하며 유일한 천주교와의 일치로 합해질 것이라는 이야기

이다.

우리는 천주교가 2차 바티칸 공의회로부터 계획한 ‘천주교로의 기독교 재통합’의 뚜렷한 목적을 주도면밀(周到綿密)하게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오고 있는데 대하여 경탄을 금할 수가 없다. 아무래도 이 일이 계시록의 예언을 이루게 되는 사탄의 역사에 힘입은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성하여 가능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저들의 계략(計略)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임박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경성하여 기도하며 경계해야 할 줄 안다.

9. 한국천주교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의 협력과 교황 방한

(1)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창립문제(한국 기독교에서의 리마문서와 리마예식서 확산운동)

2014년 5월 22일에 한국의 개신교와 천주교가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 총회에는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NCCK) 회원교단 대표들과 한국 천주교와 정교회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 장을 기록하면서 이 사실은 지나칠 수가 없다. 바로 위에서 WCC의 신앙과 직제 문제는 자세히 취급하였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그에 따른 한국교회에서의 후속조치를 다룰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의 창립과 그에 따르는 중요한 문제점들을 먼저 알리려고 한다.

1) WCC 신앙직제위원회는 천주교의 지원을 받으면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가시적 일치를 위해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성찬과 하나의 교회를 성취하기 위하여 <세례, 성찬, 직제>의 일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종교개혁 때부터 극명하게 갈라진 이 세 가지 문제를 다시 천주교의 것으로 통합시키려는 기만적인 간교한 작업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신앙과 직제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신앙과 직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하나됨을 선포하며, 예배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적 삶에 의하여 표현되는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성만찬적 사립으로 이룩되는 가시적 일치를 지향하도록 교회를 부르는 것이다.²²²⁾

WCC가 1982년 페루의 리마에서 작성한 <BEM(세례, 성찬, 직제) 문서>는 비회원교파인 천주교의 대표를 12명이나 불러들여 참여시켜서 도출한 것이다. 특히 천주교 계통의 <폐제 공동체> 대표인 막스 뚜리앙 신부의 주도아래에서 이 문서의 작성 작업을 하게 하였다.²²³⁾ 이렇게 해서 산출한 이 문서는 위에 인용된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 통합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세례, 성찬, 직제를 신앙직제위원회가 목적하는 대로 천주교의 그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작업의 산물이라고 할 것

222) 세계교회협의회 편, 『BEM 문서: 세례, 성만찬, 직제』, 이형기 역,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p. 110-111.

223)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 위원회, 『교회일치문헌 제1권』,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pp. 538, 472.

이다. WCC는 기독교를 통채로 천주교와 통합시키기 위하여 기독교가 무조건 천주교의 세례, 성찬, 직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작업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WCC와 천주교의 통합을 위한 세례, 성찬, 직제의 일치화 운동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가시적 세력연합을 위하여 기독교가 천주교의 대 이단적인 미신과 우상 제물을 용납하게 하여 교황권에게 굴복하게하려는 술수로 보인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무수한 피로 사수한 화체설에 근거한 천주교의 미사성체와 하나님위에 최고의 권위자로 군림한 무류의 교황제도를 용납하여서 생명의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폭거라고 하겠다. 또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 되었다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들여서 천주교의 우상제물을 먹게하고, 인본적이며 이단적이며 이교적인 교황권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하려는 간악한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금번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 직제협의회’ 창립은 한국의 기독교를 천주교와 통합시키려는 간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① 창립총회 소식

한국 기독교보는 한국의 개신교와 천주교가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일치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 하고 지난22일 대한 성공회 서울 대 성당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원교단 대표들을 비롯해서 한국천주교와 정교

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보도했다.(한국기독교공보 2014년 5월 31일(2면) [2948호]) 이 신문은 계속해서 아래와 같이 창립총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

② 총회 선언문 내용

한국 신앙직제는 창립선언문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짧은 교회 역사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형제적 일치와 친교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교현장에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발생한 배타적 무관심과 상호비방을 중지하고 분열의 책임을 서로 느끼며 영적 대화를 통한 일치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깝게 사귀고, 함께 공부하며, 함께 행동하고, 함께 기도하는 등 사업의 방향을 4가지로 잡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 대화의 흐름을 평신도들에게 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한국 기독교공보는 상기 보도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 총무 신정훈 신부가 ‘향후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통해 신앙과 직제가 조화를 이루는 결실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기록했다.

이 말은 천주교가 이 협의회를 통하여 성취하고자하는 바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것은 천주교의 이단적인 세례와 성찬과 교황중심의 제도를 기독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장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김희중 대주교의 발언

이 신문기사 말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의 발언을 덧붙이고 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마치 다른 종교를 가진듯한 배타적인 말과 행동을 서슴치

않았는데 이것은 신앙의 오류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자존심과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부산물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행동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일치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 아니라 교인들까지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 대주교의 발언 내용은 짚고 지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첫째, 천주교와 기독교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천주교는 트렌트 공의회 이후에 완전히 이질적이며 이교적인 변종(變種)신앙을 고착시키고 확대하여 정통 기독교와 완전히 결별하여서 기독교의 최대 이단이 되었고 심지어는 이교화 되고 혼합종교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어떻게 감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진실로 양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둘째, 그간 양측의 갈등은 신앙문제가 아니고 자존심과 집단 이기주의의 부산물이다?

이 대주교는 양측의 갈등들이 근본적인 신앙 때문이 아니고 단순한 자존심과 집단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과소평가하고 있다. 결코 그것이 아니다. 천주교 측에서는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집하기 원하고 기독교 측에서는 올바른 정통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다. 이 갈등은 근본적인 신앙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셋째, 다시 한 번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행동하자?

대주교는 방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노력할 필요가 무엇이란 말인가? 전후가 안 맞는 말이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치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치는 단순한 인간적이며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과 말씀을 통한 바른 복음신앙 안에서의 일치이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참 복음신앙 안에서의 일치를 원하신다.(요 17:14-23) 그러한 신앙 안에서 사랑하고 성경말씀과 복음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요이 1:1-3) 그러나 이 대 주교의 발언은 초점이 빗나간 것이 아닌가?

다섯째, 우리뿐 아니라 교인들까지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

이 대주교는 마지막으로 천주교와 기독교간의 연합은 지금까지와 같이 지도자들 끼리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든 평신도들도 같이 연합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젠 본격적으로 모든 개개 교회와 모든 평신도들도 다 같이 모여서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단 천주교와 복음적인 기독교는 혼연 일체가 되어서 완전히 천주교화 되고 말 것이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장벽은 무너져 버리고 온전히 천주교 세계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천주교와 WCC의 일치운동의 최종 목표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NCCK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신앙과 직제협회를

창립한 목적이 한국의 전 기독교회와 평신도들까지 전부 천주교화 하려는 것임을 명심하고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너무 늦어지기 전에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깊은 잠에서 속히 깨어나서 사탄의 집중공격으로부터 우리자신과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 나가도록 간곡히 호소한다.

5월 22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NCCK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신앙직제협의회 창립은 실질적으로 WCC와 천주교가 해온 <세례, 성찬, 직제>의 일치운동을 한국 기독교에 접목시키려는 의도임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를 일치연합의 미명으로 삼키려하는 한국천주교에 한국기독교를 배반하고 도매금으로 넘기려는 WCC의 배교행위를 단호하게 폭로해야 하겠다. 결코 그들의 기만적인 미사여구(美辭麗句)에 속지 말아야 하겠다. 한국 기독교의 생사가 걸린 이 중대한 문제에 한국교회는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천주교는 절대로 자신들의 세례와 성찬과 직제를 기독교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세례, 성찬, 직제의 일치란 바로 천주교의 세례, 성찬, 직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천주교와의 신앙직제의 합의란 천주교의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주교와의 세례, 성찬, 직제의 일치란 기독교가 천주교와 똑같이 동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독교와 한국 천주교는 구별점이 없어지고 동일한 종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세계)은 천주교 하나만 남아있는 단일 천주교 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그야말로 제2의 암흑세계가 되고 말 것이다.

과연 한국의 기독교는 조국에 올바른 신앙과 표현과 행동의 자유가

말살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겠는가? 자신의 영혼과 가족과 국민의 영혼을 송두리째 사탄의 걸작품인 천주교에게 무상으로 팔아 넘기고 말겠다는 말인가? 성경말씀 대로 생명의 복음을 저버리고 온갖 미신과 우상과 잡신을 섬기는 가짜 기독교에 팔려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잃고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말겠다는 말인가?

4) 금년 초의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교단 대표 간담회의 목적(가톨릭신문 2014. 1. 1. 제2876호, 2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작년 말(12월 20일)에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 설립 추진을 위한 교단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는 이 모임에서의 교단대표들의 합의사항 한 가지만을 소개하려고 한다.

“오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장을 마련, 가톨릭교회와 개신교의 일치를 보다 증진하는데 힘을 신기로 했다.”

이 교단대표 간담회를 통하여 천주교는 3월에,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는 4월에 각각 신앙직제협의회를 설립하고, 5월 22일에 같이 모여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창립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필자가 시간이 많이 지난 이 모임 이야기를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하는 이유가 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장을 마련하자?>

이 모임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단 대표들과 한국천주교 대표들이 모여서 5월에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창립하자는 우선적인 목표가 정해졌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 목표가 밝혀졌다. 그것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비판적으

로 성찰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이 말은 종교개혁의 시간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자는 말이 아닌가?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駭怪罔測)한 말인가?

종교개혁이란 마틴 루터를 필두로 해서 중세 천주교의 영육간의 흑암세계에서 성령의 강력한 개입으로 신앙과 생명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이 개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소생하게 되어 생명의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세계는 광명을 찾게 되었다. 인류역사상 종교개혁의 위업은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교회들의 분열과 여러 가지 실수와 약점들이 노출되었지만 그래도 그 생명력은 아직 세계에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신앙의 생명력을 상실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속화되고 명예와 부귀와 인간적인 세력을 사랑하게 되어 배교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급기야는 종교개혁을 야기(惹起) 시킨 주범인 천주교가 호시탐탐(虎視眈眈) 종교개혁의 역사를 말살시키려는 야욕을 노골화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WCC계통의 일부 지도자들이 천주교의 술수(術數)에 적극 호응(呼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 어느 누가 감히 성령의 강한 역사로 성취된 종교개혁의 의미를 비판하여서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성토했단 말인가? 종교 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을 회개하라고 한다는 말인가? 이런 일은 사탄이나 감히 벌릴 수 있는 장난이다. 그런데 한국기독교교회협회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주교와 손을 맞잡고 이러한 무지막지(無知莫知)한 죄악을 감행하려고 한단 말인가? 어찌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두려운 만행을 자행(恣行)할 수 있다는 말일까?

천주교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무

산(霧散)시키려고 쉬지 않고 기독교를 공격해왔다. 그런데 그들의 소원이 이제 적군(기독교) 중에 거대한 원군(배교자들)이 출현하여서 쉽게 성취될 수 있게 되고 말았다. 과연 종교개혁은 천주교에 분열의 대죄를 범한 것이고 개혁자들은 다시 종교재판을 통해서 그 시체라도 중벌(화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해야 하겠는가? 종교개혁을 회개하고 무효화 시키고 말살하고 천주교로 복귀하지는 데 앞장서는 개신교 지도자들은 과연 어떠한 인물들일까? 진실로 두렵고 치가 떨린다. 진실로 들을 귀가 있는 이들은 마음속 깊이 듣고 통탄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2) 프란치스코 교황방한에 대한 WCC총무의 발언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 올라프 픽셰 트베이트는 금년 4월 9일에 방한하여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기독신문, 2014. 4. 16. (6면))

1) 한국기독교회는 교황을 환대해야한다.

“8월에 한국에 오는 교황은 한국 백성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지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환대해야 한다.” 이 총무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이 내용은 천주교와 교황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천진난만한 것이거나 고의로 모른 체하면서 말하는 기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교황의 이번 방한의 주목적은 과거에 순교당한 124명의 시복식을 거행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천주교는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여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전국에 홍보하여서 교세를 더욱 확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교회교협의회의 총무가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한국교회를 모독하거나 기만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된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천주교 교황의 선전부장격이 된 WCC 총무의 이러한 망언을 강력하게 규탄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 교황 방한을 계기로 기독교 전체가 연합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되면 좋겠다.

“교황 방문을 계기로 기독교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되면 좋겠다.” 본란을 기록한 기자는 이 말에 덧붙여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연합을 우회적으로 밝혀”라고 했다.

이러한 WCC의 행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행한 이처럼 직접피부에 닿는 발언을 듣고 보니 마음이 찝찝할 뿐이다. 이제 WCC의 천주교와의 밀접한 관계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WCC는 천주교와 일체가 되어있고 전 기독교회에 천주교를 홍보하여서 받아들이게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WCC의 핵심부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에 소속된 교단들은 소경이며 병어리인가? 무조건 소경된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무작정 따라가도 된다는 말인가?

3) 교황 방한에 대한 WCC 총무의 발언 유감

WCC총무의 이상과 같은 발언은 상상을 초월한 파격적인 것으로써 첫째는 한국기독교교회에 교황의 금년 방한을 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사실은 기독교 최대의 이단인 천주교의 수장을 한국 기독교회가 대대적으로 환영하라는 주장으로써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망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는 금번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하여 가톨릭과 모

든 기독교(개신교)의 연합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이러한 주장은 교황의 방한을 천주교와 기독교의 연합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살리자는 천주교에서나 말할 수 있는 지극히 수치심 없는 실언(失言)이라고 생각된다.

진실로 천주교가 역사와 현실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경적 복음과 진리에 대하여 배반(배도)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교황의 방한에 대하여 환대와 기대를 표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WCC총무의 이와 같은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WCC의 정체가 완전히 천주교의 시녀가 되고 앞잡이가 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疑懼)심까지 갖게 한다. 대등한 위치에서의 당당한 연합운동이 아니고 완전히 예속(隸屬)된 속국민이 황제를 맞이하는 듯 한 자세가 아부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10. 천주교와 기독교 연합운동의 발전현황

천주교는 2차 바티칸 공의회와 일치 교령의 실천을 다방면으로 충실하게 진행해오고 있다. 위에서 그 몇 가지를 열거했지만 아래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발전 상황을 간략히 열거하겠다.

(1) 천주교 주도의 일치기도주간 실시

먼저 천주교는 일치교령에 ‘일치를 위한’ 기도나 일치운동을 위한 회합 때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가톨릭 신자들이 갈라진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허락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일치교령8조)고 밝히고 매년 일치기도주간(1월 18일- 25일)을 정해 놓

고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기도라는 명목으로 기독교회와 공동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짐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와 분위기를 확대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타 교파의 개종권유(전도, 선교)의 차단 (문서 : 개종 권유의 도전과 공동 증거의 소명)(천주교와 WCC 공동실무 위원회)

그들은 천주교와 WCC 공동실무위원회의 이름으로 「개종 권유의 도전과 공동증거의 소명」이라는 문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교회 일치 문헌 제1권> 597-622페이지에 기재하였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서로 다른 교단 교인의 개종을 권유하지 말자는 것이다.

교회 역사에서 ‘개종권유’라는 말은 긍정적인 용어로, 나아가서는 선교 활동과 동등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들어, 특히 현대 교회 일치 운동의 배경에서, 이 말은 다른 그리스도교 공통체의 신봉자들을 데려오려는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을 지칭할 때 적용되는 부정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더욱 노골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더욱 은밀할 수도 있다.²²⁴⁾

여기에 부연된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같은 말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천주교와 정교회가 남아메리카나 러시아나 천주교 우세국가 등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반대하거나 방해하고 있다는 보고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나 초대교회는 생명 없는 유대교도들이나 이교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순교하면서까지 전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생명의

224) 강우일 발행, 『교회일치문헌(제1권)』,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p. 610.

복음이 있다면 다시 전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천주교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주교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으로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지상명령이다. 그런데 천주교와 소위 세계기독교교회연합회 라고 하는 WCC가 공식적인 회원관계도 아니면서 소위 <공동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서 이런 진정한 복음전도와 선교를 반대하는 문서를 발표하는 행위는 도대체 무어라고 해야 옳겠는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기독교회들이 많이 타락하고 약화되는 기회를 포착해서 천주교는 직간접적으로 기독교인 개종권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무엇보다 모든 지상파 TV나 영화 등이 천주교 독점물과 같이 기독교는 악평하는 장면만 내보내고, 천주교에 유리하게 관련된 장면만 방영하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상파 방송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천주교가 장악하고 천주교 포교기관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씻기 어렵게 보인다.

자신들은 기독교인 개종을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도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마치 중무장한 침략군이 아군에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거기다가 WCC까지 합세해서 아군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것은 실로 심각한 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며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기독교 교파들과의 일치관련 합의 성사 현황

천주교는 매우 활발하게 전 기독교를 향한 일치운동을 공격적으로 단행하고 있는데 그중의 또 한 가지는 기독교 교파들을 상대한 1대1

일치운동이다. 여기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간단하게 그런 사실이 있다는 정도만 소개하고 지나가려고 한다. 근거는 천주교의 「교회일치문헌 제1권과 제2권」에서 발췌한 것이다. (순서를 연도별로 하지 않고 책에 나온 대로 함)

1) 루터교 세계연맹과 가톨릭 교회의 의화 교리에 관한 합동 선언문 성사 (교회일치문헌 제1권 623-665)

1999년 10월 31일,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는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 의장 에드워드 카시디 추기경과 루터교 세계 연맹 크리스티안 크라우저 회장이 의화교리에 관한 합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심상태 신부 번역.225)

천주교와 루터교는 종교개혁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지닌 이신득의교리에 대하여 모종의 합의를 도출하여서 합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으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사실은 천주교의 근본 교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루터교와 기독교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표현만 유사하게 만들어서 모종의 합동 선언문을 발표한 것 뿐이라는 의혹을 크게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계감리교협의회도 2006년 7월 23일에 서울 북판에까지 와서 천주교와 「칭의 교리에 대한 교리적 합의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루터교나 감리교가 말쑥한 제정신을 가졌다면 저들에게 말려들어 갈수 있었는지 많은 사람이 경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길서 박사의 다음 글을 참고하여 보기 바란다.

225) 같은 책, p. 623.

실제로 루터교와 로마 카톨릭과의 칭의에 대한 연합은 전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배도이다.(2006년 7월 23일에는 세계 감리교 교회협의 회도 공동 칭의 교리 선언에 합의하였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인간의 구원(칭의)에 대하여 행위 중심의 구원을 가르친다. 우리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이다. 공동 선언문은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적인 약속 위에도 말씀과 성사를 행하는 ‘신실한 사람들’만이 이 은혜를 확신 할 수 있다고 한다. 선한 일은 필연적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사를 시행해야하며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일이 필수적 이라고 가르친다.²²⁶⁾

이 루터교와 감리교와 천주교의 의화 교리에 관한 합동 선언문 서명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배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천주교의 변함없는 의화(칭의)교리가 기독교와 정 반대인 인간 중심의 구원인 것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공동 선언문 자체의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적인 약속 위에도 말씀과 성사(저자 주: 세례와 미사 성체 등)를 행하는 신실한 사람들만이 은혜를 확신 할 수 있으며…선한 일과…성사는 필연적이며 필수적이라고 가르친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 말은 <말씀+성사+선한일=구원>이라는 천주교의 의화교리를 명확하게 알게 한다. 이상만 보아도 천주교와 루터교(감리교)의 의화교리에 관한 합의 선언문 선언은 근본적으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과 웨슬레와 성경의 복음에 반대되는 잘못된 합의 선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심적인 천주교 신학자 한스 쾅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죄인의 칭의에 관한 천주교와 루터교 간의 말썽 많은 합의문 등 그들의

226) 박길서 지음, 『마지막시대의 배도 무너진 교회』, (밴드오브 퓨리탄. 2011) pp. 189-190.

일치명목의 대화들은 동등한 대화 상대라기보다 실제로는 단지"엑스트라"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²²⁷⁾는 말이 정확하다 하겠다. 사실 의화교리 공동 선언문 공포나 일치 대화등 모든 연합운동은 기독교가 천주교의 치밀하고 교활한 흡수통합 계획에 말려드는 엑스트라(조연)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이 정확 할 것이다. 그들의 간교한 기독교 말살정책의 장단에 맞추어 덩달아 맞장구치며 지옥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무지몽매한 모습들은 가련하기 짝이 없다!

2) 그리스도의 제자회-로마 가톨릭 교회 국제 대화 위원회 최종 보고서(1992)「그리스도 안에서 친교인 교회」(1992. 12. 7) (교회일치문헌 제1권 667-691)

이 합의 문서도 그리스도 제자들 교회와 천주교의 합작품으로 천주교의 일치운동의 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는 기독교파들과 천주교의 위장된 일치를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지나가도록 머리말들만 실었다.

3) 로마 가톨릭교회와 세계감리교협의회 공동위원회(제7회기 (1997-2001) 보고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 가톨릭교회와 감리교회의 가르치는 권위(2001) (교회일치 문헌 제2권 15-124)

4)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로버트 룬시 캔터베리 대주교의 공동 선언(1989. 10. 2) (교회일치문헌 제2권 125-333)

※ 여기 성공회와의 공동선언에서는 <시에틀 성명>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과 희망이신 마리아」를 239쪽에서 333쪽까지 많은 페이지에

227) 한스 쾅, 『가톨릭 교회』, 배국원 옮김, (서울 : (주)을유문화사, 2007, 초판 제4쇄), p. 244.

신고 있다. 천주교는 성공회가 마리아에 대해 호의적인 틈새를 타고 마리아 숭배의 본색을 가능한 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각 교파의 특징과 강조점을 파고 들어가서 집중 공략하는 전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깨어서 저들의 사탄적인 술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하겠다.

5)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 평의회와 정통 오순절교회들과 그 지도자들의 상호 대화 (제3회기(1985-1989) 보고서) 코이노니아의 전망 (교회일치문헌 제2권 335-436)

6) 복음 교회 -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선교 대화 보고서(1977-1984)(교회일치문헌 제2권 437-524)

이렇게 해서 개신교의 여러 교단들이 천주교와 일종의 부분적인 합의 선언을 함으로서 천주교와 신앙의 일치를 이룬 것 같은 인상과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천주교가 이렇게 WCC와의 연합운동과 각 개교단과의 연합활동과 개인 개종활약 등으로 양면 삼면작전을 통하여 기독교를 포위하고 집중 공략(攻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겠다.

(4) 천주교의 각국 NCC (국내 기독교 연합회)가입과 공동 활동 참여 현황

1) 천주교가 각국 교회 협의회에 참여한 실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각국 교회 협의회(National Councils of Churches: NCC)에 참여하는 것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시종일관 증대되어

은 현상입니다. 1965년 공의회 당시 가톨릭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교회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오늘날 110개로 확인 되는 각국 교회 협의회 가운데, 가톨릭교회는 70개 협의회에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회일치문헌 제2권 595)²²⁸⁾

2) 천주교의 각국 교회 협의회에 가입한 의미(각국의 NCC는 천주교 일치운동의 하나의 도구로 간주)

교회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교회 협의회가 다른 교회들 가운데에서, 교회들 사이에 이미 현존하고 있는 일치를 표현하고 또 더 훌륭한 일치와 더 효과적인 그리스도교 증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하나의 수단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역 단위 교회 일치 운동」 제5장 2항). … 이 문서는 협의회를 하나의 도구로 본다. 유일한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치를 추구하는데 쓸 수 있는 그저 하나의 도구로 봅니다.(같은 책. 600)²²⁹⁾

3) 교회 협의회는 완전한 일치를 향한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도구

교회 협의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의 완전한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 일치 운동의 목표나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교회 협의회는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일 뿐이지만 완전한 일치를 향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 교회 협의회는 ‘사랑이 깃든 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고립을 깨트리고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는 가운데 교회 일치의 만남은 불신과 편견과 뿌리 깊은 반목을 점차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 분명히 각 교회가 자신의 관점과 신앙적 신념을 상대방에게 전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

228) 주교회의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 『교회일치문헌 제2권』,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p. 595.

229) 같은 책, p. 600.

지만, 우리는 각 집단의 주장과 이해를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 점차적으로 회원들 사이에서 나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같은 책, 608-609)²³⁰⁾

이상에서는 천주교가 기독교를 자기들 안으로 연합시키기 위하여서 각국의 교회 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현황을 밝히고 있다. (110개국 교회 협의회 중에 70개국이나 되는 교회 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천주교가 각국 교회 협의회에 가입한 이유는 이것이 천주교의 기독교 일치를 위한 하나의 필요한 방편이며, 더 나아가서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는 천주교의 기독교 통합을 위한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천주교는 비 성경적인 잘못된 교리를 제정하거나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하고 나서는 입버릇처럼 성령을 앞세운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교리를 만들거나 무슨 일을 꾸며 놓고서 성령의 거룩한 이름을 도용(盜用)하는 것은 망령(妄靈)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의 기만적인 감언이설(甘言利說)에 결코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극명하게 천주교에만 구원이 있고 갈라져 나간 집단들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846항에서 “천주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제 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주어진다는 의미이다…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들어오기를 싫어하거나 그 안에 머

230) 같은 책, pp. 608-609.

물려 있기를 거부하는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천주교는 자기들의 이런 철칙을 숨겨두고 다른 기독교인들도 다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자매인 것같이 취급하면서 신앙과 직제위원회 활동이나 「세례, 성찬, 직제」 문서 작업이나 그 후속 활동 등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교리서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하지도 않고 구원도 없다고 단언한 기독교모임인 세계교회협의회에 뒷문으로 들어가서(?) 친밀하게 일치를 위한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다른 기독교도들을 천주교 안으로 들여와서 구원 받게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변명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식으로 WCC회원으로 가입하지도 않고, 이런 일을 측면에서 하며 그것도 대등한 교회 대 교회 관계와 같이 행하는 것은 그들의 본색을 감춘 기만행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들의 교회가 참 교회이고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면 세계 제일의 교세와 조직과 매스컴과 기동력을 가진 저들이 왜 정정 당당하게 다른 기독교인들을 구원하기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렇게 비굴한 행동을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행위에서도 그들의 본색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천주교가 종교개혁으로 부활된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교회들을 다시금 <일치의 재건>이라는 미명하에 복음이 없고 죽은 자기 교회로 모두 끌어들어서 말살하려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야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각국의 교회협의회를 이용하여 각국의 기독교를 전락시키려고 하는 온갖 흥계를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5) WCC 제10차 부산총회에서 바라본 WCC와 천주교

와의 관계(가톨릭 신문. 2013. 11. 3. 1, 23면, 11. 10. 13면 참고)

최근 WCC 10차 총회가 2013년 10월 30일로 11월 8일까지 한국 부산에서 열렸다. 필자는 국내 교계신문들과 가톨릭신문을 통하여 이 총회와 천주교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가톨릭신문에 게재된 내용들 중 몇 가지만을 통하여 WCC와 천주교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가장 최근의 정보이므로 참고 할 가치가 크다고 본다.

1) 천주교는 이번 총회에 WCC의 정 회원이 아니고 협조자(파견참관인, 교회일치 활동 관계자 등으로 칭함)로 30여명을 파견했다.

이 총회는 전 세계의 140개국에서 349여개 개신교 교단들과 정교회에서 회원으로 8,500여명이 참여하고 천주교는 WCC 활동의 협조자로 적극 연대하고 있는데 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 중에 천주교는 정식회원으로 가입도 안했지만 매번 교회일치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협조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가톨릭 신문. 2013. 11. 3. 23면)

교황청 일치평의회 의장 등 가톨릭 대표단 30여명이 참가하여 '새 선교 정책 성명'을 발표하며 생명수호를 위한 기도와 협력을 다짐했다.(가톨릭 신문. 2013. 11. 10. 1면)

그리고 WCC 제10차 총회 참관인으로 참가한 가톨릭 대표단은 앞으로 WCC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선을 위한 기도와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위 신문 같은 면)

① 이번 총회에 참여한 천주교 대표단은 자기들을 파견참관인과 교회일치 활동관계자와 협조자 등으로 자칭하고 있다. 이러한 호칭들은

그들의 성격에 대하여 좀 의아하게 보이게 하는 면이 있다. 그 성격은 그들의 행보를 좀 더 살펴보아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② 이 대표단은 이 총회에 참가해서 "새 선교정책 성명서"를 발표하며 생명수호를 위한 기도와 협력을 다짐한다고 하였다. 기독교최대의 연합총회에 비회원인 천주교 대표가 30여명이나 참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도와 협력을 다짐하는 등의 일은 좀 의아하게 보일 수 있다.

③ 그리고 이 대표단은 앞으로 WCC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공동선을 위한 기도와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하였다. 이는 천주교가 WCC와 공동으로 추구하는 선을 위하여 기도와 활동을 더욱 힘쓰겠다는 말로서 둘 사이에는 공통되는 유익과 목표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④ 그리고 천주교는 정식회원은 아니지만 매년 교회일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협조자로 참여한다면 왜 떳떳하게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여서 적극적으로 일치운동을 하지는 않고 있는가? 이들은 천주교가 기독교파들과 동등하게 연합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실리만을 취하려는 이기적인 행태는 아닌가?

2) 이 부산 총회의 개막식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메시지를 전했다. (위 신문 11. 10. 13면)

이 사실은 천주교와 교황이 이 WCC 총회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이 총회 중 천주교 대표단의 활동(위 신문. 11. 10. 1면)

특히 이번 WCC 총회에서 천주교 대표단의 활동을 보면 마치 그들

이 WCC의 정식회원과 똑같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이 총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회의에 참여하여 정회원들과 동일하게 관여하였다. 그리고 이 총회의 핵심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에큐메니칼 좌담에도 정회원들과 똑같이 관여하였다. 그리고 교파별 대륙별 모임에도 아무격의 없이 정회원과 조금도 다름없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회원교파들 중의 하나와 같이 동일하게 교파별 모임도 가지고 추기경이 강의도 하였다.

- ① 총회 주제회의에 참여함
- ② 에큐메니칼 좌담에 참여함(부산총회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
(위 신문. 13면)
- ③ 교파별 대륙별 모임 등에 각각 참여함
- ④ 다양한 교파교단의 그리스도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짐

이상과 같은 그들의 이 총회에서의 활동들을 보면 정회원과 동일하게 활동하는 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아심이 앞선다. 정식회원도 아닌 천주교가 어느 회원 교파 못 지 않는 대표단을 거느리고 참가하여서 모든 회원 교파들과 동등하게 중요한 회의와 활동에 동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서 WCC당국의 명확한 해명과 재발 방지책의 발표가 있어야 될 줄 안다.

- 4) 교파별 모임에서 쿠르트 코흐 추기경이 강의를 했다(위 신문. 같은 면)

5) 총회 일정 중 천주교의 미사제사를 드렸다(위 신문, 같은 번)

이 총회에서 천주교 대표단의 활동 중에 가장 경악을 금하지 못할 사건은 총회장 안에서 천주교 대표단이 다른 정회원 교파들과 동일하게 천주교의 미사제사의식을 행한 것이다. 또 이 미사시간에 한국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이자 교황청 일치평의회 위원인 김희중 대주교(광주대교구장)가 강론도 행했다는 것이다.

천주교의 핵심의식인 미사제사는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반대한 미신적이며 우상숭배적인 의식이 아닌 것인가? 루터의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하여야 될 때가 아닐까?

교황권에서 행해지는 미사는 가장 최대의 그리고 가장 공포스러운 가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 미사가 불필요하고 무익하고 위험스러우며 또 우리가 미사 없이도 더욱 필요하고 유용하고 보다 확실성 있는 것을 획득할 수 있다면 이러한 폐해들을 영원히 막기 위하여 더더욱 미사는 중단 되어야 할 것이다...게다가 이 용의 꼬리, 즉 미사는 독사의 자식들과 또 다중적인 우상 숭배라는 독을 낳는다...나도 미사의 집전자 그리고 그가 행하는 것(미사의 성찬 떡을 만들어 제물로 바치고 나누어주는 일)을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거나 또는 우월한 것으로 여기게 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님의 도우심으로 화형을 당해 재가 되기를 택할 것이다.²³¹⁾

종교개혁자들은 다른 무엇보다 이 미사를 거부한 것 때문에 무수히 살해를 당하였다. 미사는 성경과 초대교회에서 찾아 볼 수없는 순전히 인간적인 고안물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에 완전히 복음을 왜곡하여 영혼의 구원의 길을 차단한 미사제사를 단호하게 거부했고 오늘날까지 개신교회는 미사를 완전히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종교

231) 지원용 편집, 『루터선집 제8권』, (서울 : 컨콜디아사, 1985), pp. 400, 402-403.

개혁의 계승자인 340여개의 (정교회외의) 개신교 교파들이 일치를 위하여 모인 총회장소 한 가운데에서 미사제사를 거행했다는 사실은 전체 개신교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정교회는 정회원교파이고 천주교와 같은 공격적인 자세를 갖지 않았으므로 일단 별도로 한다.)

6) 천주교 대표단은 불교사찰들을 방문해 담화를 나눴다.(위 신문. 같은 면)

교황청 일치평의회 사무총장 브라이언 패럴 주교 등 대표단은 10월 28일에 서울 화계사를 방문해 종교간 대화와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쿠르트 코흐 추기경과 김희중 대주교(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대표회장)등 일행은 11월 1일 부산 해운정사를 방문해 대한불교 조계종 정종 진제스님과 담화를 나누고 "종교를 넘어 모든 인류가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7) 11월 1일에 열린 교파별 회의시간에 천주교도 회의를 열었다 (위 신문. 같은 면)

천주교 회의는 컨벤션홀 108호에서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회의는 의장 코흐 추기경 주례로 기도, 문건발표, 참석자 소개, 한국교회 변천과 대사회적 참여를 소개하는 영상, 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각국의 참가자들이 북한교회의 상황과 한국교회의 교회일치 운동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8) 천주교와 WCC의 교회일치운동의 실질적 협력에 다리 역할을 한 <신구교공동사업기구>(Joint Working Group. JWG)(위 신문, 11.

10. 13번)

필자는 이런 기구가 설립되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들었다. 미처 이런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있겠지만 그들이 이와 같은 중대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필자는 천주교나 WCC의 문서들 중에서 이 사실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합동연구위원회〉는 (1965년 1월) WCC가 주도하여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 다른 것 같다)

그러므로 이 제8장에서 다룬 <천주교와 WCC의 연합운동>에 대하여 좀 정확하지 못하게 기술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새롭게 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게 되어 다행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독자여러분은 위에서 미진하게 기술된 부분은 이하의 기술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여겨주면 감사하겠다. 여기에서는 이 신문지상에 새롭게 밝혀진 천주교와 WCC가 합동하여 <신구교공동사업기구>를 설립하여서 두 그룹이 공동으로 수행하여온 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톨릭교회의 교회일치운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본격화 되었다.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와 WCC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에 따라 1965년 신구교공동사업기구를 공동 설립하고 공동실무단의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신구교공동사업기구는 지난 2006년 브라질에서 열린 제9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이후 이번 부산 총회까지 전 세계 대륙별 구성원 18명을 임명해 다섯 차례 전체회의를 가졌고, 총회를 위한 의제와 내용을 준비했다.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 의장 쿠르트 코흐 추기경은 이번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에서 "지난 50년 이상 우리는 교회일치의 여정을 함께

해왔다"면서 "그 동안 우리는 과거의 많은 편견과 오해를 극복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의 다리가 세워졌다"고 평가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천주교와 WCC가 <신구교공동사업기구>를 설립 하여서 다음과 같은 공동적인 일치운동을 하여온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

1) 천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직후에 본격적인 교회일치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공의회가 1965년 12월 8일에 끝났는데 1965년에 이 공의회가 끝나자마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개신교 등과의 연합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천주교는 소위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부르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교령과 교황청의 지령에 따라서 다른 기독교 교단들과의 적극적인 연합운동을 개시하였다는 말이다. 이는 이 공의회를 통하여 모종의 지령이 발령되었다는 짐작을 하게 한다.

2) 천주교는 이 공의회 직후에 WCC와 손을 잡고 <신구교공동사업기구>를 설립하여서 계속 활동하여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천주교와 WCC의 공동사업으로서의 에큐메니칼 일치운동의 기원이 천주교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일치교령」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이는 천주교와 WCC의 공동사업으로서의 일치운동은 천주교가 주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게 하기도 한다. 1965년 12월 8일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자마자 즉시 그 해 안에 <신구교공동사업기구>를 결성했고 그후 계속적으로 이 공동실무단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면 천주교는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불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자마자 1948년에 출범한 WCC와 손을 잡고 1:1의 관계를 맺었다. 직접 WCC안에 들어오지는 않고 밖에서 대등한 협력 파트너로서 WCC의 기독교 연합운동에 협력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WCC의 일치운동이 천주교의 일치운동에 유리하도록 조종하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사게 하고 있다.

3) 천주교는 1982년에는 WCC의 핵심적인 신학 문제를 다루는 <신앙직제위원회>에 12명의 위원을 투입하여서 정식회원 이상의 역할을 하여서 「세례성찬직무」라는 문서를 산출해 내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 문서로 천주교와 기독교의 실질적인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례와 미사와 교황중심의 교계제도를 합리화하고 기독교가 용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천주교가 극찬하는 바와 같이 개신교를 천주교에 연합(합병)시키는 데에 중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이 <신구교공동사업기구>가 WCC 제9차 총회 이후에 전 세계의 대륙별 구성원 18명을 임명해서 다섯 차례나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부산 10차 총회의 의제와 내용들을 준비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이번 부산의 WCC 10차 총회가 실제로 WCC 단독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천주교와 공동으로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WCC는 실질적으로 천주교의 지도를 받거나 조종을 받고 있다고 까지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부산총회의 의제와 내용들이 천주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5) 그리고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 의장 쿠르트 코흐 추기경이 이 총회에서 행한 발언은 이 총회에 대한 천주교의 호평(好評)임을 알 수 있다. 이 평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50년 이상 천주교는 WCC와 기독교일치여정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왔다고 했다. 이 말은 WCC의 기독교 일치운동은 단독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천주교의 협력을 얻어서 해왔다는 것이다. 천주교가 WCC안에 회원으로 가입하지는 않고 WCC 밖에서 WCC와 대등한 위

치에서 WCC의 개신교 중심의 교회일치운동을 도와왔다는 것이다. 천주교가 무엇 때문에 WCC의 개신교 중심의 교회일치운동을 도와주고 있다는 말인가? 그들이 인심이 좋아서 개신교파들 중심으로 모두 연합하여서 사이 좋게 잘 발전하여 나가라고 이렇게 수고해 주고 있다는 말인가? 천주교의 역사나 최근까지의 행적을 보면 절대로 단순히 WCC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볼 수는 없다. 과연 그들이 WCC에 들어오지는 않고 밖에서 공동사업이라고 하면서 WCC를 도와주는 의도가 무엇이란 말인가? 50여 년 동안 천주교가 WCC를 도와주어서 이루어진 성과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 결과로 그동안 우리는 과거의 많은 편견과 오해를 극복했다고 단언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천주교와 WCC가 같이 협력하여서 WCC의 일치운동을 해온 결과로 기독교의 천주교에 대한 많은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었다고 자신만만하게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 확신에 찬 단언은 천주교의 WCC와의 협력 덕분에 기독교가 천주교의 교리들과 의식들에 대해 이단시하고 마리아교니 미신이니 우상숭배니 하는 등의 많은 편견과 오해가 사라졌다는 말이다. 이 말은 자신들이 WCC와의 공동사업기구를 통한 노력으로 <기독교의 천주교에 대한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자신에 찬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즉 그들은 이 협력이라는 명분하에 기독교를 천주교에로 재통합하려는 숨은 목적달성이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확신에 찬 장담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WCC와 공동사업을 했다는 것은 결국 WCC 소속 기독교단들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작업을 해왔다는 말이 아닌가?

그리고 천주교와 WCC 사이에 새로운 상호이해와 실질적 협력의 다리가 세워졌다고 호평했다. 이는 두 그룹이 공동 목표를 위하여 같이

협력하여 일하다 보니 서로 간에 새로운 이해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탄탄한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발언들을 종합하여 보면 천주교는 애당초에 기독교교파들의 연합체내에 일원으로 소속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WCC를 옆에서 조종해서 자기들에게로 끌어드리려고 획책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WCC도 이러한 천주교의 의도를 알고서도 그들과 협력한다고 하면서 천주교의 의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천주교를 WCC 안에 포섭시키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천주교를 도와서 WCC를 천주교화 되도록 도와서 WCC를 천주교와 합병시키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까? 이들의 그동안의 행보에서 이러한 의혹을 살만한 이유를 다분히 발견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혹시 이 두 그룹 중에 WCC측이 먼저 천주교를 끌어들었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천주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6) 천주교와 WCC의 <신구교공동사업기구>에서 성취한 몇 가지 일들이 <신구교공동사업기구>가 행한 일들 중에 우선 드러난 것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례·성만찬·직제」 문서 산출 (1982년)

② 타 종파의 개종권유(전도, 선교) 차단

문서 「개종권유의 도전과 공동증거의 소명」 산출(1995년)

③ WCC의 세계교회연합운동을 천주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작업(1965년부터)

(제 10차 부산 총회의 의제와 내용들을 천주교와 WCC의 <신구교공동사업기구>를 통하여 준비함 등)

그동안 천주교와 WCC가 보조를 같이하여 설립한 <신구교공동사업기구>에 대하여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야 알고 보니

두 그룹이 공동으로 작업하여서 산출한 일들로 드러난 것이 「세례, 성만찬, 직제」 문서와 「개종권유의 도전과 공동증거의 소명」이었다. 그리고 이 공동기구 설립후에 개최된 WCC총회의 의제들과 내용을 산출하여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이와 같이 보면 두 그룹이 <신구교공동사업기구>를 설립해서 해온 일들은 천주교 측을 향한 것은 없고 일방적으로 주로 개신교 측을 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공동사업기구는 어느쪽을 위하여 설립하였는지 알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하게 말하면 WCC를 위한 것이 아니고 천주교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양 그룹의 일치운동이란 결국은 천주교의 교세확장을 위한 범세계 기독교 흡수통합운동 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천주교와 WCC의 연합운동이란 상호 간에 대등한 관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 단독의 범 기독교 흡수통합을 위한 연합운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진정한 연합운동이 아니고 천주교만을 위한 흡수통합운동인 것이다. WCC는 이러한 천주교 위주의 연합운동에 들러리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WCC는 모든 회원교파들을 연합시켜서 천주교 안으로 이끌고 들어 가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의혹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7) 이 가톨릭 신문 기사를 통하여 본 천주교와 WCC의 연합운동의 종합평가

① 천주교와 WCC는 단순한 연합의 대상이 아니다. 보통으로 생각하는 양측이 서로 대등한 관계로 연합하려는 대상이 아니다. 공동목표를 가지고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이다.

② 이 두 그룹의 <신구교공동사업기구>는 1965년 에큐메니칼 공의

회라고 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에 결성된 것으로 그 공의회의 <교회일치교령>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양 측의 공동 사업기구 결성은 천주교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이 공동기구 결성의 목적은 천주교가 의도하는 방향이 되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천주교를 WCC안으로 연합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WCC를 천주교 안으로 연합(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 사실은 WCC 회원교단 신도들에게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천주교는 완전히 기독교에서 전락하여 이방종교와 같이 변종된 종교, 온갖 우상숭배와 거짓교리들로 거짓 기독교가 되고 마리아숭배로 치달아 있는 복음적인 기독교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배도한 종교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은 말 뿐이고 티끌만치도 없는 천주교, 종교 개혁자들이 생명 바쳐 찾은 생명의 신앙을 헌신짝 같이 저버린 천주교에 다시 두 손 들고 들어간다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단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천주교에 무조건 들어가려는 무모하고 불 신앙적이며 배교적인 WCC에 대하여 확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번 길을 잘못 들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운명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의도대로 성취된다면 진정한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생명의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어지기 전에 잘못된 노선에서 떠나 생명의 바른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 7:13-14)

11. 천주교와의 일치(연합)운동은 배도(背敎)의 길이다.

그동안 WCC와 천주교간의 미친듯이 질주하고 있는 일치운동을 살펴해보았다. 이제는 이 일치운동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배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

(1) 배도란 무엇인가?

이상근 박사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해에서 배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2:3절. 배도하는 일. 신약에서는 이곳과 행 21 : 21에만 보이는 낱말이다. 고전어에서는 정치적 또는 군사적인 배반을 가리켰고, 유다교 예서는 이교로 타락하는 것을 가리켰다(행 21 : 21이나 수 22: 22 및 대하 29: 19의 70인역). 여기서는 종말에 있을 복음에서 타락하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도 종말의 예언에서 배도하는 사실을 지적 하셨다(마 24 : 10).²³²⁾

이상근 박사는 이 주해에서 배도하는 일이 고전어에서는 정치적 또는 군사적인 배반을 가르쳤고, 유다교에서는 이방종교로 타락하는 것을 가르쳤으나 이 절에서는 종말에 있을 복음에서 타락하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종말의 예언에서 배도하는 일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오늘날의 세계교회들이 그리스도의

232) 이상근박사, 『신약주해 살전-디도』, (서울 : 총회교육부, 1977. 5판발행), p. 109.

구원의 복음을 저버리고 온갖 기복복음이나 변영복음이나 기적들과 치유에 치중하는 복음과 인본적인 사회, 정치, 세계의 정의와 평화의 복음, 인본주의 바벨탑의 복음, 신비주의, 심지어는 루시퍼나 사탄의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것들까지 들 수 있다. 이러한 배도의 거센 물결은 지금 전 세계와 한국 땅 까지도 쓰나미 같이 밀려오고 있다.

프란시스 웨퍼는 「오늘의 교회의 사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불완전과 영적 간음을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다. 영적 간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후자의 경우는 배교(背敎)이다.²³³⁾

배도가 유대교에서 이교로 타락하는 것이며 교회가 복음에서 타락하는 것이라는 말은 영적 간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배교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배교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들이 꾸며낸 그럴듯한 다른복음 즉 온갖 미신이나 우상, 탈선한 성령운동, 혼합종교적인 신비운동, 거짓교리들과 이단교리들을 따르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온갖 다른 복음의 파도에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성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줄안다.

(2) 천주교는 큰 음녀이며 배교집단이다

233) 프란시스웨퍼,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 권혁봉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6. 12.20.2판 1쇄발행), p. 48.

마틴 로이드 존스는 천주교가 배교집단이라고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

우선 ‘하나의 체제’란 관점에서 살펴볼 때, 본인으로서는 로마 카톨릭주의로 알려진 이 체제가 말로, ‘마귀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단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체제는 크리스천의 믿음과 성경의 가르침에서 심하게 이탈(離脫)된 종교단체이므로, 본인은 주저없이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과 더불어, 이 체제를 ‘배교집단’(背敎集團)이라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배교를 기독교의 진리로부터 전적으로 이탈한 기독교라고 정의합니다. 혹자는, ‘글쎄요, 당신은 직접적으로 로마 카톨릭을 지칭하는 겁니까?’라고 반문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선 무척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에 카톨릭을 배교집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진실 그 자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엔 진리에 대한 ‘부인’(否認)의 문제라기보다는, 차라리 진리에 대한 ‘첨가’(添加)로 말미암아, 마침내 진리로 부터 이탈하게 된 경우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이것(진리에 대한 첨가)이야말로 온갖 교활함이 들어오는 곳이요, 마귀의 속임수가 들어오는 곳이란 말입니다.²³⁴⁾

이상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배교에 대하여 잘 정의하고 있다.

저자가 여기에서 천주교를 배교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부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진리에 대한 첨가로 말미암아, 마침내 진리로부터 이탈하게 된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다. 사실 진리에 대한 첨가야말로 온갖 교활함이 들어오는 곳이요, 마귀의 속임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600여년 천주교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 간음으로 우상들을 섬

234) 마틴 로이드 존스 지음, 『로마카톨릭사상평가』, 편집실 옮김, (서울 : 안디오크. 2000) p. 17.

겨운 배도의 역사이다. 그들의 이러한 배도의 길은 트렌트 공의회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더욱 확정 되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위장과 진리에 대한 첨가로 완성 되었다. 이러한 천주교의 배도 행보는 확고하며, 전 기독교회를 이러한 배도교회로 흡수 통합하는 일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천주교는 주의 종들을 가르쳐 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두아디라교회의 자칭선지자 여자 이세벨(계 2:20-23)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시록 17장의 붉은 빛 짐승을 탄 큰 창녀로 대부분 해석하고 있다. 또 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도 큰 창녀의 본거지나 관할 지역들로 보고 있다.

큰 음녀

① 이광복 목사의 「계시록 설교노트」에는 14명의 주해자들 가운데 8명이 큰 음녀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교회, 사탄의 화신인 거짓 교회, 적그리스도에 이용될 종교단체, 타락을 유발시킬 종교적인 제도, 모든 우상숭배의 근원지를 상징, 배교할 미래의 교회, 적그리스도교와 그의 유혹, 미래의 배교적인 교회로 본다고 기록하고 있다.²³⁵⁾

② 번 S. 포이쓰레스 박사는 「요한 계시록 맥잡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탄의 교회 공격 목적과 두 가지 방법

가. 교회 공격의 목적

235) 이광복 목사, 『계시록설교노트』, (서울 : 도서출판 흰돌, 2002), p. 223.

사탄은 속임수와 교리의 혼란을 통하여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 그는 교회를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애쓴다(계12:15). 하지만 그는 역시 짐승과 음녀의 모양으로 그의 부하들을 일으켜 상제하고 보조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게 한다.

나. 짐승으로 공격

짐승은 국가권력을 대표하고 그것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위협한다. 그것은 위협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 신자들이 우상에게 굴복하도록 공포를 조성하려고 한다. 그것은 만일 당신 이 굴복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다. 음녀를 통하여 공격

그러나 사탄은 다른 방식의 공격도 한다. 음녀는 섹스와 돈과 쾌락을 대표한다. 협박과 두려움 대신에 음녀는 유혹과 쾌락의 매력을 이용한다. “당신의 금지된 욕망에 굴복하라. 우리는 섹스, 돈, 건강, 장수, 명성 또는 재물이든 정욕이 원하는 것을 경배한다.”²³⁶⁾

저자는 여기에서 계시록에 나타난 사탄의 교회 공격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탄의 교회공격의 목적은 속임수와 교리의 혼란을 통하여 교회를 진리로부터 떠나 배도하여 멸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탄의 교회 공격의 방법은 그의 부하들을 통하여 대리로 공격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짐승이라는 강력한 세상권력과 무력을 통한 갖가지 박해를 통하여 굴복 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음녀를 통한 유혹과 쾌락의 매력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236) 번 S. 포이쓰레스 지음. 『요한계시록 맥잡기』, 유상섭 옮김. (크리스찬출판사.2002), pp. 17-18.

우리는 지금 큰 음녀에 대하여 살피고 있는데 저자는 그 창녀가 사탄의 부하요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유혹하여 배도하게 함으로 파멸 당하게 하는 도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음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신부를 모조한 형상은 계시록 17-18장의 음녀이다. 음녀의 부패성과 부도덕성은 신부의 순결성과 대조된다. 음녀의 몰락은 신부가 나타나는 계기가 된다 (19:1-6). 신부는 참된 경배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음녀가 거짓 경배자, 위조된 교회를 대표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²³⁷⁾

이상으로 저자는 음녀 곧 큰 창녀에 대하여 어린양의 신부와 대조되는 모조품인 가짜 신부요 위조 교회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창녀가 첫째로,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배도와 배교의 거대한 무리를 형성하여 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배반하고 자신들이 그 위에 군림하여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천주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③ 홀 린세이의 「신세계의 도래」(요한계시록 해설)

홀 린세이는 그의 저서 「신세계의 도래」에서 계시록 17장의 큰 음녀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매춘부, 창녀 매음부라는 말은 흔히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대하여 개인이, 또는 도시가, 또는 국가가 정신적으로 떠난 것을 상징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춘부라는 말은 특히 속임수가 있는 종교를 말하는 데 사용됩니다. ... 거짓 종교와 놀아나는 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 정신적인 음행으로 나타

248) 같은 책, p. 17.

납니다. 진정한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약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전반인 3년 반 동안의 로마의 적그리스도는 그 창기와 더불어 적당한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녀의 가장 큰 정부(情夫)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상한 내외간입니다. 각자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들 사이엔 사랑이 없습니다. 창기가 짐승을 탄다는 사실은 그 종교조직이 그 나라를 휩쓸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 입니다. 238)

저자는 매춘부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서 신앙적으로 떠난 것을 상징하는데 사용되며 특히 속임수 있는 종교를 말하는데 사용된다는 것과 거짓 종교와 놀아나는 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 정신적인 음행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창기가 짐승을 탄다는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정부(情婦)가 되어서 그 종교 조직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휩쓸 것임을 암시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서 우리는 이 큰 음녀가 천주교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 환난의 3년 반 동안에 로마의 적그리스도가 이 창녀와 타협의 길을 모색해서 그녀의 가장 큰 정부(情夫)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내외는 사랑이 없는 이상한 부부로서 서로 이용만 하려한다고 한다. 그때에 그녀의 종교조직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휩쓸 것이라고 하니 이 큰 음녀는 천주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④ 데이브 헌트의 「짐승 위에 탄 여자」

데이브 헌트는 그의 저서 「짐승위에 탄 여자」에서 또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짐승 위에 탄 여자의 이마위에 장식된 말은 ‘비밀이라 바벨론’이다. 이 여

238) 홀 린세이 지음, 『신세계의 도래』, 김용순 옮김, (서울 : 보이스사, 1989) pp. 219, 226.

자가 희생한 이방 종교를 대표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흥미 있는 것은 이 여자가 이방 종교화한 기독교를 구현(具現)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여자는 로마에 본부를 둔 전 세계적 종교 체제를 나타내며, 기독교로 자칭하지만 사실은 바벨과 바벨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요한의 환상을 좀 더 검토해 감으로써 더욱 논박의 여지가 없는 결론이 될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역사상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심한 핍박을 가한 당사자이며, 이방신을 섬기는 로마와 회교도들이 살해한 숫자 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한 자이다. 그리스도인의 박해와 처형에 있어서 로마교회를 능가한 자들은 모택동과 스탈린 밖에는 없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지는 않았다. ‘성도들과 예수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로서 로마 가톨릭에 필적할 종교 단체는 단 하나도 없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의 짐승은 희생한 로마제국과 적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바 있다. 로마에 본부를 둔 가짜 교회가 짐승 위에 탄 여자이다.

조만간 이 동맹은 세계 지도자와 바티칸과의 동맹이 될 것이다. 실로 여자가 짐승을 타게 될 것이고, 이 여자의 역할은 중차대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종교 평화 없이는 정치적 평화가 없을 것을 잘 알고 있다. 모든 종교가 기꺼이 서로가 서로를 동역자로 포용하여 공동 목표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전에는 진정한 지구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교황은 우리가 자세한 기록을 제시한 바와 같이 완전한 종교 통합의 성취를 위해서 결정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²³⁹⁾

여기에서 데이브 힌트는 짐승위에 탄 여자가 그녀의 이마위에 장식한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란 말을 통하여 이방종교화한 천주교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로마에 본부를 둔 전 세계적 종교

239) 데이브 힌트 저, 『짐승위에 탄 여자』, 정태운 역, (서울 : 도서출판 누가, 2007), pp. 57. 204. 318. 362.

체제를 말하며 그들이 기독교라고 자칭하지만 실상은 바벨론에 뿌리를 둔 종교라고 지적하고 있음은 매우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음녀요 배도체제를 크게 경계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는 천주교가 역사상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심한 핍박을 가했고 이방신을 섬기던 로마제국과 회교도들이 살해한 숫자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다고 고발하고 있다. 스탈린과 모택동 외에는 살상에 있어서 천주교를 능가할 자들이 없으며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여자로서 천주교에 필적할 종교 단체는 단 하나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과 17장의 짐승은 희생한 로마제국과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며 그 짐승위에 탄 여자는 로마에 본부를 둔 가짜교회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는 지정학(地政學) 분석가들이 미국과 교황과의 사이에 "신동맹"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 동맹은 세계 지도자(적그리스도)와 바티칸의 동맹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이 동맹이 성사되면 실제로 음녀가 짐승을 타게 될 것이고 이여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고 클 것이라고 하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종교들 간에 평화와 있어야 정치적으로 세계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줄 알고 이 일을 위한 대표자로 교황을 앞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천주교는 거짓교회, 사탄의 도당, 악마의 지체들이다(종교 개혁자들, 기타의 주장)

종교 개혁자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신랄(辛辣)하고 적나라(赤裸裸)하

게 비판 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존 위클리프(교황직은 인간과 마귀의 터전위에 세워졌다)

실제적으로 최초의 종교개혁자라고 부를 수 있는 개혁전 개혁자로 종교개혁의 문을 연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 교황은 하나님의 터전이 아닌 인간의 터 위에 섰고 지금은 마귀의 터전위에 놓였다고 고발하였다. 교황은 사도와 정 반대로 살기 때문에 사도의 계승자가 아니며 선택받은 자들의 참교회도 아니라고 하였다. 오히려 루시퍼의 저주받은 발에 안긴 버림받은 자들이고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고 외쳤다.

그는 교황직이 신적 터전 위에 있지 않고 인간에 기초했으므로 지금은 마귀적 터전 위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단순함과 가난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황은 사도와는 정 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사도들의 계승자가 아니며 선택자들의 참교회도 아니다. 오히려 루시퍼의 저주받은 팔에 안긴 유기(遺棄)자들이요 그들의 권좌는 적그리스도의 권좌라고 하였다. 240)

2) 존 후스(교황은 악마의 지체들이다)

존 위클리프의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은 존 후스는 천주교와 교황을 비난하면서 그들이 비록 교회의 머리나 일원이라고 말하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악마의 지체들이라고 혹평했다. 그리고 교황청은 영적 감화력은 없고 신앙보다는 유럽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인 이익을 위해 전심전력하며 이단적이라고 공격하였다.

240) 서요한 저, 『중세교회사』, (서울 : 도서출판 그리심, 2003), p. 759.

세상적인 견해에 의하면 비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나 교회의 일원이 라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마의 지체들이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로마 교황청은 영적 감화력이 없었고 신앙적인 지도보다는 유럽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인 이익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였다. 후스는 교황이나 주교의 허락 없이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파문하고 심판 날에 배교자로 취급하는 것은 이단적이라고 공박하였다.²⁴¹⁾

3) 마틴 루터(교황은 악마의 사도이며 적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에 높이 들려 귀하게 쓰임 받은 종교개혁의 선봉장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다. 먼저 교황권은 인간의 고안물이며 주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며 무익할 뿐 아니라 악마에 의해 일어난 기독교에 대한 가해자라고 지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황권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거짓말들을 더욱 많이 하고 가증한 것들을 모든 것 보다 높이고 교황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고 살해하고 괴롭히는 가장 악마적이라고 한 말을 기억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마를 주나 하나님이라 찬양할 수 없으니 악마의 사도인 교황이 우리의 머리와 주로서 다스리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부르짖은 이 루터의 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교회가 아닌 교황주의자들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명령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물리쳐야 할 것이라는 그의 주문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교황권은 인간적 고안물이요, 명령된 것도 아니며 또한 무익하다. 거룩한 기독교 교회는 이러한 우두머리 없이도 잘 존재할 수 있고 만일 이러한 우두머리가 악마에 의하여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훌륭히 존속해 있었을 것이다.

241) 같은 책, p. 766.

끝으로 교황권이 하나님께 대립하여 미사, 연옥, 수도원 생활, 인간 행위들 (이러한 것들은 교황권의 본질이다)에 관한 자신의 거짓말들을 더욱 많이 말하고 자신에게 속한 이러한 가증한 것들을 모든 것들보다 높이고 영예롭게 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고 살해하고 괴롭히는 것이 가장 악마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악마 자신을 우리의 주 또는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악마의 사도인 교황 즉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또는 주로서 우리를 통치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교황주의자들에게 그들이 교회라는 것을 승인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교회 이름으로 명령하거나 또는 금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242)

4) 존 칼빈(오래전에 파멸된 천주교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도구로 전략해 버렸다. 거짓교회이다)

종교개혁의 신학자이며 실제적인 완성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은 "교황이 지배하는 교회는 거짓교회이다."고 단언하였다. 그 이유로 기독교의 핵심 속에 "거짓"이 스며들었고 필수적 교리의 근간이 붕괴되고 성례전의 파괴를 들었다. 그러면서 천주교는 이미 파멸된 것이라고 외쳤다.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딤후 3:15)인데 기만과 허위가 지배하고 있는 천주교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천주교(바벨론)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준에서 볼 때 사탄의 도당이라고 하였다.

천주교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전략해 버렸다는 확신은 칼빈으로 하여금 종교개혁에 헌신하도록 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오늘날의 천주교는 거짓과 기만으로 날로

242) 지원용, 『루터 선집 제8권』, (서울 : 컨콜디아사, 1985), pp. 408, 410. 427.

더욱 기승을 부리고 판을 치며 세상을 속이고 기독교를 기만하며 말살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은 보고 들을 줄 알아야한다.

그러나 만일 기독교의 핵심 속에 거짓이 스며들거나 또는 필수적인 교리의 근간이 붕괴되며 성례전이 파괴된다면 목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의 생명이 끝나듯이 그 즉시 교회에 파멸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필자 주: 그러므로 천주교는 이미 오래 전에 파멸된 것이라는 의미)…또 한 진리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 3: 15)라고 하면, 기만과 허위가 지배하고 있는 곳(필자 주: 천주교)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음은 확실하다.

교황이 지배하는 교회는 거짓 교회이다.

참으로 예루살렘과 바벨론, 즉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단의 도당을 구별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구별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요 8: 47).²⁴³⁾

영적 전투가 교회의 사명으로 파악되어 더욱 구체화되어 칼빈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어 나타난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투쟁이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그의 확신은 그가 종교개혁에 가담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였다.²⁴⁴⁾

5) 마틴 로이드 존스(천주교는 위조품, 가짜교회, 가장 저질의 매춘부, 세상에서 가장 마귀적인 집단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영적인 눈으로 예리하게 천주교를 관찰하고서 그것이 위조, 기만, 저질, 마귀집단이라고 가차 없이 고발한 20세기 신앙의 위인이다. 그는 머지않은 장래에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교회가 존

243) 존 칼빈 저, 『基督教 綱要』, 김문제 역, (서울 : 세종문화사. 1980), pp. 89-90, 96

244) 이신열 지음, 『칼빈신학의풍경』, (서울 : 도서출판 대서. 2011), p. 191.

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천주교가 될 것이라고 주저 없이 예고하였다. 그 이유는 천주교가 벌써 다른 교회들을 흡수하고 삼켜 버렸기 때문이다. 천주교는 세상에서 가장 마귀적인 집단이므로 기독교 회들을 삼키는 데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앞으로 이 땅에 하나의 거대한 세계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교회가 나머지 다른 회들을 흡수하고 무지 속에 있는 그들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말로 위조품이요, 가짜 교회이며 가장 저질의 매춘부요, 세상에서 가장 마귀적인 집단이기 때문입니다.²⁴⁵⁾

6) 제임스 G. 맥카티(천주교는 거짓의 아버지 사탄에게 속한다)

제임스 G. 맥카티는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로, 천주교에 복음이 없다고 전하며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쓴 전도자이다. 그는 먼저 성경말씀(딤후 4:1)을 인용하여서 천주교가 거짓을 통하여 사탄의 영을 쫓는 거짓말쟁이인 거짓의 아버지 사탄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천주교의 교황이나 주교들이나 신부들이 의도적으로 사탄의 목적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 3장3절 말씀과 같이 "속은 자"즉 속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거나 따르지 않고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 자신들의 죄 속에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특별히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회개의

245) 마틴 로이드 존스 외 지음, 『천주교사상평가』, 정동수 역, (서울 : 말씀과 만남, 2003) pp. 40-41.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천주교 신자들은 자신들의 죄로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딤후 4:1)고 한다. 궁극적으로 거짓은 그 근본이 옛 부터 거짓말쟁이인 '거짓의 아비'(요 8:44) 사탄에게 있다.

이 말은 가톨릭교회의 교황이나 주교 및 신부들이 의도적으로 사탄의 목적을 따라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그들은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과 같은 “속은 자”, 즉 속고 있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 자신들의 죄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물 붓듯이 부어 주지 않으신다면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가톨릭 신자들, 즉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이 모두 다 자신들의 죄 속에서 사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246)

(4) 천주교와 연합하면 똑같은 배도의 무리가 되고 거짓교회가 되며 사탄의 도당, 악마의 지체들이 될 수 있다.

천주교와 종교통합운동(연합일치운동)의 배도성

박길서 박사는 그의 저서 「마지막 시대의 배도 무너진 교회」에서 천주교와 종교통합운동의 배도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246) 제임스 G. 맥카티 저, 『가톨릭에도 복음이 있는가?』, 조남민 역, (서울 : 한인성경선교회. 2006), pp. 450-451.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적 하나 됨의 과정에서 종교의 하나 됨은 하나님에 대한 배도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모든 배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러한 배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배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종교 통합을 이루려는 배도는 그렇지 않다. 종교 통합으로 인한 배도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행위이다. 종교적 통합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벽을 없애고 결국 하나님과 사탄이 같은 능력과 같은 힘을 행사하는 동등한 존재로 치부하는 배도이다. 종교적 배도는 진리와 거짓이 하나 되게 하며 선과 악이 하나 되게 하는 용서받지 못할 배도이다. 화합과 평화라는 명분 아래 이제 서서히 종교 통합의 운동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 명심해야 할 사실은 협조와 공존은 가능하나 통합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과 기름이 섞이려면 물이 기름이 되든지 아니면 기름이 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종교의 통합은 곧 물과 기름을 혼합하려는 것과 같다. 진리와 비 진리는 함께 공존할 수는 있으나 혼합은 되지 않는다.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할 수 있으나 하나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화합과 평화라는 명분하에 종교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통합에 대한 기반은 만들어졌다.

...이러한 종교 통합 운동의 선두주자는 로마 가톨릭교이다. 로마 가톨릭은 중세를 지배하였던 그들의 황금시대의 부활을 바라며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한 노력을 수 세기 전부터 해 왔다.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로마 가톨릭은 항상 평화와 화해라는 위장막을 쓰고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마 가톨릭의 연막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미혹되어 가고 있다. 그들 뒤에 숨어 있는 사탄의 실체를 보지 못한 채... 이미 빌리 그래함, 잭반 임프, 로버트 홀러 등 여러 세계적 교계 지도자들이 교황을 인정하고 가톨릭을 수용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킬 여지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달리 말해 그들의 통합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로마 가톨릭인들 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과 합류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한다. 무서운 배도이다.²⁴⁷⁾

저자는 여기에서 종교통합운동의 배도는 과거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배도임을 밝히고 있다. 천주교가 주도하는 종교 통합의 배도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과 사탄,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이 하나 되게 하는 용서받지 못할 배도이다. 그리고 그는 종교통합에 관해 “협조와 공존은 가능하나 통합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종교 통합은 물과 기름을 혼합하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저자는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공존할 수는 있어도 혼합은 되지 않고, 선과 악도 같이 공존 할 수 있으나 하나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통합운동의 선두주자는 천주교로서 그들은 중세 황금시대의 부활을 꿈꾸며 항상 평화와 화해를 위장하여 모든 종교의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기독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천주교 뒤에 있는 사탄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미혹되어 무서운 배도의 길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설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일이다. 천주교는 하나님과 그분의 절대 불변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최고 권위의 자리에 앉아서, 인간의 전통들을 앞세우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권세와 야합하여 살아온 역사를 회개함 없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세상의 권세에 편승하여 천하를 호령하며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247) 박길서 지음, 『마지막시대의 배도 무너진 교회』, (서울 : 밴드 오브 퓨리탄스, 2011), pp. 183-185.

그러므로 저들과 하나가 되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창녀가 되고 배도의 무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진리를 말살하는 사탄적인 종교 통합이므로 우리는 절대 크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벌써 기독교파들 가운데 몇몇 단체가 저들과 제법 가까워지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 기독교 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WCC가 저들과 아주 단짝이 되어서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목격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기독교의 일부가 큰 창녀 집단이며 배도의 무리인 천주교와의 연합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심히 우려스러운 현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만일 많은 기독교가 이러한 추세로 천주교와 연합을 한다면 복음적인 기독교는 소수가 될 것이고, 큰 음녀와 배도의 무리가 세상을 거의 채우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재촉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12.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반대한 미사제사(천주교의 성찬식)를 받아들이는 것은 종교개혁을 다시 무산(霧散)시키는 배도행위이다

(1) 천주교의 일치운동의 목적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천주교의 교회일치운동의 목적은 극명(克明)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기독교회가 다 천주교 안으로 통합하여 들어오게 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의 미사제사에 같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내세운 <일치의 재건>이라는 미명하에 종교개혁으로 쪼개진 하나의 천주교를 다시

세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회들을 천주교와 통합하여서 똑 같은 천주교인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결국 교황의 통치에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완전한 천주교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종교개혁으로 회복된 참 생명의 기독교를 말살하고 제2의 중세와 같은 암흑세계를 만들어 천하를 다스리려는 야욕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인들을 참 생명의 복음으로부터 이탈시키고 미신과 우상과 죽은 의식종교로 끌고 가는 무서운 영혼의 살상행위이다. 왜냐하면 이는 참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고 천주교의 미신적이며 우상숭배적인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 천하의 생명의 복음을 말살하고 참 생명을 주는 복음과 구원의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실로 모든 기독교인을 배도자가 되게 하여 저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2) 종교 개혁자들은 미사를 생명 걸고 거부했다(결사반대)

「가톨릭성체비판」의 저자 로저 오클랜드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종교 개혁은 사실 복음과 생명을 잃은 의식적이며 우상숭배적이며 강포한 교권에게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일어난 신앙부흥운동이었다. 그런 개혁자들이 보기에 미사는 가장 위험한 것으로서 철저하게 배격해야 하는 것이었다. 무수한 종교 개혁자들이 천주교에게 화형을 당한 가장 큰 이유는 천주교의 특이한 교리인 성체교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사에서 성 변화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라는 교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가 언급하려는 요점은 왜 우리 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했는지 그 특별한 이유를 말하려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교황에게 굴복을 거절했기 때문에, 또는 영국 교회로부터 독립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전혀 그러한 종류의 것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화형을 당한 가장 큰 이유는 로마 교회의 단 한 가지 특이한 교리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경우가 그 교리의 수용 여부에 따라 삶과 죽음으로 갈리었다. 만일 그들이 용납하면 사는 것이요, 거절하면 죽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그 교리는 주님의 만찬에서 성 변화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라는 교리이다.²⁴⁸⁾

1) 마틴 루터의 결사반대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봉자로서 최전선에서 온갖 적들의 집중 공격을 온 몸으로 막아야 했다. 그러면서도 천주교의 미사제사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루터는 미사에 대하여 <슈말칼트 신조>에서 단호하게 대항했다.

교황 권에서 행해지는 미사는 가장 최대의 그리고 가장 공포스러운 가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다른 모든 것들에 우선하여 미사는 교황 우상숭배들 가운데 최고로, 그리고 가장 귀중하게 여겨져 왔다. 그렇게 된 것은 이 희생제사 즉 미사의 행위(그것이 비록 악한에 의해 드러진다고 할지라도)가 이생에 있어서 그리고 저기 연옥에 있어서 인간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 주장되었기 때문이다. ...미사가 불필요하고 무익하고 위험스러우며 또 우리가 미사 없이도 더욱 필요하고 유용하고 보다 확실성 있는 것을 획득 할 수 있다면 이러한 폐해들을 영원히 막기 위하여 더더욱 미사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48) 로저 오클랜드 지음, 『가톨릭성체비판』, 스테반 황 옮김.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pp. 105-106.

결사 교황주의자들이 다른 모든 조항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양보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 조항에 대해 양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캄페지오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미사를 포기하기 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산산조각으로 찢김을 당하는 편을 택하겠노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나도 미사의 집전자 그리고 그가 행하는 것을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거나 또는 우월한 것으로 여기기 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형을 당하여 재가 되기를 택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나뉘어 있고 또 반대되며 또한 영원히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 교황주의자들은 만일 미사가 폐지된다면 그와 더불어 교황 제도로도 폐지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기 전에 우리 모두를 죽음에 처하게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용의 꼬리, 즉 미사는 독사의 자식들과 또 이중적인 우상숭배라는 독을 낳는다.²⁴⁹⁾

루터는 여기에서 천주교의 미사에 대해 잘 비판하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사는 가장 가증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ㄱ) 왜냐하면 미사는 교황우상숭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ㄴ) 미사는 악한이들에게도 이 세상과 연옥에서 죄로 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다고 믿도록 하기 때문이다.

(ㄷ) 미사는 불필요하고 무익하고 위험한 것으로 그 폐해를 영원히 막기 위하여 중단 하여야 한다.

② 미사에 대해 천주교인 캄페지오는 결사 수호하였고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결사 반대하였다.

249) 지원용 편집, 『루터선집 제8권』 (컨콜디아사. 1985) pp. 402-403.

(ㄱ) 캄페지오는 ‘미사를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산산조각으로 찢김을 당하는 편을 택하겠노라’고 하였다.

(ㄴ) 루터는 ‘미사를 예수그리스도와 동등하거나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형을 당하여 재가 되기를 택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③ 천주교는 미사의 폐지가 천주교 자체 제도의 폐지임을 잘 알고 있다.

④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모두를 사형할 것이다.

⑤ 용의 꼬리인 미사는 독사의 자식들과 그 밖에 다중적인 우상숭배의 독을 낳는다.

천주교인이 미사에 생명을 건 것 이상으로 루터도 화형을 당하여 재가 될지라도 미사를 거부하겠다고 결연(決然)한 의지를 천명(闡明)하였다. 루터는 이와 같이 미사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신앙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500여년이 지낸 오늘날에도 미사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단지 그 순서나 사용하는 언어만 각국어로 바뀐 것뿐이다. 또한 그들은 미사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대외용으로 성찬례니 성체성사 등으로 위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미사에 대하여 루터와 같은 분명한 태도를 견지해야 옳을 것이다.

2) 존 칼빈의 적극반대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미사를 통해서 예배를 왜곡시키고 타락시켰는

데 칼빈은 이를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우상숭배로 간주하였다.

첫째, 성찬을 희생제사와 동일시하는 신성모독을 범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유일성과 효력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저를 뒤흔들어 놓는다.

둘째, 미사는 성찬을 왜곡하여 우상숭배로 만든다. 성찬의 떡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찬 왜곡의 본질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서 떡을 숭배하게 되는 우상숭배가 미사에서 행해진다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사람들이 떡을 신적인 것으로 상상하게 하고,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으로 숭배되게 할 때, 사실 그것은 들려 올리워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숭배된다. 이것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해당된다. 250)

칼빈은 종교개혁의 신학적 완성자로서 미사에 대한 입장도 루터 못지않게 강력하고 구체적이다. 심지어 미사는 사탄의 여러 가지 간계 중의 하나로 이뤄진 것이며, 마귀가 극악한 오류로 전 세계의 눈을 멀게 하고, 성만찬을 희미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완전히 말살해서 인류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극평하고 있다. 이러한 미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은폐하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을 망각하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서 빼앗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또한 미사는 그 근본이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악평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값없고 순수하고 완전한 대속의 은혜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도리임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결단코 이러한 인

250) 이신열 지음, 『칼빈신학의 풍경』, (도서출판 대서, 2011), pp. 191-192.

류구원의 유일한 길을 가로막는 사탄적이며 사악한 미사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기타 반대들

① 천주교 신자 게리 월스의 미사에 대한 신랄(辛辣)한 비판

실제로 그 교회(저자가 희망하는 교회)는 사제직을 사제들로-성 변화(성체의 실제 변화)의 미술사들로-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폐기하신 낡은 희생제사가 다시 복원되었다. 그리고 그 희생제사에서 교황권이라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은 오로지 신자들이었다.²⁵¹⁾

저술 당시 착실한 천주교 신자인 저자는 그의 명작인 「기만구조 교황의 죄」에서 교황과 천주교의 기만적이고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가치(假借)없이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서슴없이 천주교의 성체에 대하여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실체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신부들의 미술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폐기하신 옛 구약적인 희생 제사를 다시 복원한 것임을 밝히고, 그 희생제사에서 오직 가련한 신자들이 교황권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라고 개탄(慨嘆)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양심적인 천주교 신자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251) 게리 월스 지음. 『기만구조 교황의 죄』, 박준영 옮김. (서울 : 도서출판 중심, 2005) pp. 489, 490.

② 다른 예수인 성체 예수운동의 심각한 위험성

여기에서는 미사의 성체에 대한 최근 천주교의 노골적이고 위험천만한 주장들에 대한 로저 오클랜드의 「가톨릭 성체 비판」에서 요점만 소개하려고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동안의 천주교의 성체성사 사상을 정리하여서 요약하고 최근에 새롭게 발전시킨 성체에 대한 대 이단적인 사상을 폭로하고 있다.

가. 다른 예수인 성체 예수를 불신하면 파문당한다.

먼저 저자는 많은 천주교 신도들이 천주교의 화체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성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신체적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화체설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분명하다. 누구든지 성체 성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어떤 면에서라도 부인한다면 그는 ‘파문’ (Anathema)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트렌트 공의회의 교회법과 교령집」 및 「가톨릭교회 교리문답」에서 인용한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가장 거룩한 성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신성과 함께 실제로, 몸과 피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즉, 결과적으로 성체에 완전한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단지 주님은 성체 안에 상징, 모습 또는 힘으로만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성체 성사에서 받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리고 성사적으로 (sacramentally) 받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만 받는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²⁵²⁾

그리고 저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비판하고 있다.

252) 로저 오클랜드 지음. 『가톨릭성체비판』, 스테반 황 율김.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10), p. 24. 재인용.

나는 화체설이라고 불리는 초자연적인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성체 예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화체설에 의하면 가톨릭 사제가 성찬용의 빵을 축성하여 실제 그리스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 성체 그리스도는 성궐(tabernacle) 또는 성체 안치기(monstrance)라는 곳에 담겨 사람들의 숭배를 받을 수 있도록 전시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기꾼들을 알아내기 위해 성경적인 병기들로 무장해야 한다. 바울은 우리가 가짜들을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준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든”(고 후 11:4) .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는 가짜이며 그가 전하는 예수는 가짜 예수다. 즉,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 예수는 성경의 예수가 아닌 것이다.²⁵³⁾

저자는 여기에서 천주교가 화체설에 근거해서 빵을 그리스도의 실제 성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사제들에게 있다는 것과 이 성체 그리스도를 성궐과 성체안치기에 담아서 교도들의 숭배를 받도록 전시한다는 사실을 비판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말씀을 통해 사도들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기꾼들을 알아낼 수 있도록 무장해야 할 것이다. 사도들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는 가짜 전도자요 그가 전하는 예수는 가짜예수라는 것이다. 성경 어디에 이러한 성체예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천주교가 전파하는 성체예수는 가짜예수요 가짜복음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상으로 보면 천주교가 그리스도니 예수니 복음이니 선교니 하는 말들은 거의 가짜이며 헛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미사에서의 떡과 포도주도 예수라는 것, 즉 <성체예수>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참 예수님은 천국 보좌에 계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성찬 떡 안에 계신다고 주장하며, 그 성체를 모시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분명히 이

253) 같은 책, pp. 25, 23-24.

<성체예수>는 다른 예수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른 예수를 받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파문과 저주를 선고하고 있으니 진실로 적반하장(賊反荷杖) 아닌가?

나. 천주교의 새 선교(세상을 성체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가짜 그리스도, 가짜복음, 축소복음전파)

로저 오클랜드는 계속해서 위에서 지적한 천주교의 성체 그리스도는 바울사도가 경고한 다른 복음이며 사탄이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미혹하기 위해 기만적으로 만든 가짜복음임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 그리고 간교한 궤계자 사탄이 구세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복음은 사탄이 제조한 추가복음이며 축소복음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천주교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새 선교' 프로그램은 세상을 <성체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천주교의 이 <성체 그리스도>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며 이 거짓복음에 기초한 천주교의 '새 선교'도 사람을 천국으로 구원하는 길이라고 미혹하지만 실상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사탄은 언제나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을 혼동시켜 추가 복음이나 축소 복음을 믿게 만든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에 의해 미혹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고후 11:4; 갈 1:6). 사탄은 간교한 궤계자다. 구세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은 마귀의 궁극적인 계획의 한 부분이다.

복음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다고 해서 참된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거짓 복음에 기초한 선교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미

혹하지만 사실은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²⁵⁴⁾

다. 교황의 성체를 통한 선교(성체선교) 강조

오클랜드는 교황 요한 바오로2세가 2000년 6월에 열린 제47차 국제 성체대회에서 행한 설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요한 바오 2세는 2000년 6월에 열린 제47차 국제성체대회에서의 설교를 통해 성체는 가톨릭교회의 선교 사역의 원천이며 중심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대회는 성육신의 위대한 희년의 중심에 성체를 두며 성체의 모든 영적, 교회적 그리고 선교적인 깊이를 표명한다. 사실, 교회와 모든 신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 하기 위해 성체로부터 꼭 필요한 힘을 얻어내야 한다. 주의 유월절 성찬인 성체 성사를 거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교 사건이며 이 세상에 새 생명의 번식을 위해 씨앗을 심는 것이다,

교황은 자신이 묘사하는 성체 성사의 선교적인 면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성체 성사는 ‘선교적’ 성사인데, 그 이유는 성체 성사로부터 선교의 은혜가 흐를 뿐만 아니라 성체 성사 그 자체 안에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영원한 원천과 원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²⁵⁵⁾

교황의 이 성체대회 설교의 중요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성체는 천주교의 선교사역의 원천이며 중심이다.

교황은 먼저 성체가 천주교의 선교사역의 원천(源泉), 즉 선교가 흘러나오는 근원이라고 하고 또 성체는 천주교의 선교사역의 중요하고

254) 로저 오클랜드 지음. 『가톨릭성체비판』, 스테반 황 옮김.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10), pp. 79-80.

255) 같은 책, p. 28.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이는 성체가 천주교 선교사역의 근원이며 핵심이라는 의미이다. 사실 선교의 근원과 핵심은 대속주 그리스도인데 교황은 성체를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교황이 그리스도의십자가의 복음을 다른복음 즉, 성체의 복음으로 대체시킨 사실을 공포하고 있는 것이다.

2) 성체대회는 성육신의 위대한 희년의 중심에 성체를 두며 성체의 깊이를 표명한다.

교황은 여기에서 이 성체대회가 그리스도 탄생의 위대한 희년(2000년)의 중심에 성체를 두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도 탄생의 2000년 되는 해는 새 천년을 맡는 해로서 3천년 즉 새 시대를 출발하는 시점에 성체를 가장 중심에 모시고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회는 성체가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선교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것임을 표명한다고 하며 성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새 천년을 맞으면서 천주교가 성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공포한 것이다.

3) 천주교와 모든 신도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성체로부터 꼭 필요한 힘을 얻어내야 한다.

교황은 복음선포와 선교를 위해서 성체를 힘의 원천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성체의 능력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선교복음 자체도 선교의 능력도 성체에 있다는 신기한 발상이다.

4) 성체성사 거행 자체가 선교사건이고 세상에 새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교황은 성체성사 거행자체가 선교수행이고 세상에 생명의 번식을

위해 씨앗을 심는 행위라고 하여서 성체자체에 최대의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도 성체지상주의의 과오를 노출하고 있을 뿐이다.

5) 성체성사의 선교적인 면

마지막으로 교황은 성체성사가 '선교적'성사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성체성사로부터 선교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성체성사 자체 안에 만인을 위한 구원의 영원한 원천과 원칙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도 결국 같은 말로서 성체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면서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선교와 구원의 영원한 원천과 원칙으로 성체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성체성사가 바로 선교라는 허황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요한 바오로2세가 2000년 6월 국제성체대회라는 국제규모의 성체거동대회에서 행한 설교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교황이 여기에서 주장한 성체선교는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성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으로 한심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라. 마리아는 성체를 강조한다.(성체 마리아)

오클랜드는 전 세계에 출연하는 마리아들의 공통적이며 중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것은 성체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고 예배를 받아야하며 성체숭배는 평화와 통합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 지구상의 네 귀퉁이에서 나타난 출현(필자 주: 마리아의 출현)은 같은 공통적이고 중심적인 주제를 표명한다. 즉, 성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성체는 예배를 받아야 하며, 성체 숭배는 평화와 통합

을 가져올 것이다.

성체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쏟게 만드는 것은 교황뿐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니라고 주장하는 출현(필자 주: 나타난 마리아)들이다. 성체 예수를 향해 온 세상을 이끌려는 그들의 비전은 과연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²⁵⁶⁾

전 세계에 마리아가 방방곡곡에 출현했고 프랑스 한 나라만 해도 마리아 출현 성지가 937개 처²⁵⁷⁾나 된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참 마리아의 출현이라고 인정한 곳은 일곱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마리아 사전」에서는 성모가 발현한 성지를 20곳이나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수백 개 이상의 성모 발현 성지나 마리아 기념 성지나 기념 성당 등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곳에 발현한 마리아가 성체를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온 인류에게 성체 예수를 숭배하라고 부채질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과연 전 인류에게 성체를 숭배하라고 강조하는 발현 마리아들의 꿈은 성취 될 수 있을까?

마. 그리스도의 성체적 통치(성체 재림)

오클랜드는 페트리스코의 글을 인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모든 마리아 출현의 메시지는 과거든 현재든 상관없이 마리아의 성심의 승리가 예수의 거룩한 마음의 성체적 통치로 귀결될 것을 말한다. 성체적 통치는 복된 성례 안의 예수에 대한 영속적인 숭배를 통해 오게 될 것이다.

성체의 어머니와 성체 그리스도가 곧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

256) 같은 책. pp. 140, 147.

257) Dave Hunt 지음. 『짐승위에 탄 여자』, 정태윤 옮김. (서울 : 도서출판 누가. 2007) pp. 347, 350.

할 것이라는 사상을 지지하는 여러 많은 자료들이 있다.

돈스테파노 곱비 신부는 성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과 함께 거하신다. 그분의 현존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으며 태양처럼 온 세상에 빛을 발하면서 새 시대의 시작을 표시할 것이다.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는 성체의 가장 찬란한 영광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영광스런 통치를 그의 성체적 통치의 우주적인 승리와 함께 회복할 것이다. 그때는 성체적 통치는 그 능력을 다 드러낼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과 개인들과 가족들과 사회 및 이 세상의 구조 자체를 다 변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질 것이다.²⁵⁸⁾

이제 천주교는 올 데까지 다 왔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성체 예수, 성체 선교, 성체 마리아, 성체 재림(전 세계 인류가 다 천주교에 들어와서 성체를 받을 때가 바로 성체 재림이라는 것)과 전 세계의 성체 통치라는 백일몽(白日夢)같은 잠꼬대는 그들의 종말이 임박함을 알리는 경고음과 같이 들린다. 댜에는 그들 나름대로 그런 허망한 꿈을 끌어 어떤 인간적인 전망이 보일런지 모르지만, 이는 진리의 하나님이며 전능하시고 불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실현 불가능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으로 천주교의 미사제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종교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배교와 불신앙의 길이고 인류 구원의 길을 틀어막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천주교와의 일치운동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거듭 거듭 확인하게 되었을 줄 안다.

(3) 일치운동의 명목으로 미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종교

258) 로저 오클랜드 지음. 『가톨릭성체비판』, 스테반 황 옮김, (서울 : 기독교 문서선교회, 2010) pp. 158-160. 재인용.

개혁을 무효화(無效化)시키는 배도(背道)행위이다

1) 천주교와 연합하여 미사를 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자살행위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천주교의 교회일치운동의 목표가 기독교인들을 천주교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 것임을 뚜렷이 밝혔다. 이는 마치 두아디아교회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가르쳐 피어 행음하게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계 2: 20) 그러므로 천주교의 간교한 기만에 넘어가서 그들의 우상제물인 미사성체를 받아먹는 행위는 주님께 대한 배교행위이며 우상 숭배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속아서 행한 행위라고 변명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호 4:6)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식은 하나님께 대한 무식으로 이어지고 모든 중요한 신앙 지식에 대한 무지가 되게 한다. 그중에도 가장 핵심적이고 생명인 복음진리에 대한 무지는 패망의 길이요 자살행위와 같다. 우리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 하신 말씀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경계하며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하겠다.

2) 무수한 순교자의 피로 획득한 생명의 기독교 말살(抹殺)행위이다.

무엇보다 천주교의 일치운동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과거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로 산 기독교회를 말살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나태함으로 생명의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지고 사탄의 교회들만 남게 된다면 우리는 뭐라고 변명

할 수 있겠는가?

(4) 세계교회주의(세계교회일치운동)를 따르지 말라 (팔호내의 번호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항목 번호임)

아래는 천주교에서 개종하여 천주교에 진정한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제임스 G. 맥카티가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다.

제2차 바티칸회의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모든 종류의 크리스천 교회들을 하나로 하자는 세계교회주의(세계교회일치운동)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 회의는 세계교회주의 운동을 위해 세 가지 지침을 제정 했다. 첫째,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가톨릭교회를 설립하였고, 교회에 성체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교황과 주교들을 주신 것을 가톨릭 신자들은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가톨릭교회는 세례로 인해 의롭게 된 가톨릭 신자가 아닌 기독교 신자들을 ‘이탈 한 형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가르쳤다(818항, 1271항). 가톨릭교회는 이탈한 기독교 신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유효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톨릭교회에서와 같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한다(819항, 824항). 셋째, 다른 기독교 신자들의 그릇된 비방을 피하기 위해 모든 가톨릭 신자는 세계교회주의 운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성명이 이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이해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유능한 전문가들이 대화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821항).

이 회의는 가톨릭교회가 추구하는 세계교회주의 전략의 목표가 가톨릭과의 교류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금씩 교회의 완전한 일치를 가로막는 장애들을 극복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인 성찬례를 거행하며, 하나이고 유일한 교회의 일치 안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당신 교회에 주신 일

치,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일치가 가톨릭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으며 세상 종말까지 그 일치가 날로 자라나기를 바란다. -제2바티칸회의

비록 가톨릭교회가 이 궁극적인 최종 목표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가톨릭 복음주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는 성공했다. 예를 들면, ‘삼천 년대 그리스도인의 선교’라는 명목으로 1994년 ‘복음주의와 가톨릭’이 미국에서 함께 서명한 것을 생각해 보라. 여기에서 복음주의를 이끄는 사람들과 가톨릭을 이끄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과 가톨릭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라고 했다. 그들은 상대방의 양들인 신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신학이요, ‘양을 훔치는 것’이라고 명명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치된 선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역을 같이 하고 복음을 같이 증거하는 모형을 찾기로’ 결의했다.

이런 세계교회운동의 타협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가톨릭 교회와 협력하거나 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가톨릭 교회는 거짓된 복음과 계속되는 제사와 마리아를 헌신적으로 숭배하는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가 ‘항상 성전(聖傳, 전통)과 함께 성서를 신앙의 최고 규범으로’ 삼는 한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공통된 근거는 없다.²⁵⁹⁾

천주교에서 개종한 제임스 G. 맥카디는 그의 명저인 「가톨릭에도 복음이 있는가?」에서 세계교회주의(교회일치운동)를 허용하지 말라고 위와 같이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주된 목적중 하나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하는 세계교회 일치운동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2) 그 공의회는 이 일치운동을 위해 세 가지 지침을 제정했다.

259) 제임스 G. 맥가티 저, 『가톨릭에도복음이있는가?』, 조남민 역, (한인성경 선교회, 2006), pp. 457-458.

① 그리스도가 천주교를 설립하고, 성체와 성령을 주셨고 교황과 주교들을 주신 것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심임을 알 것

② 이탈한 기독교 신자들의 세례가 완전치는 못하지만 ‘이탈한 형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가르침

③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그릇된 비방을 피하기 위해 모든 천주교 신자는 세계교회 일치운동을 촉진해야 할 것

3) 이 공의회가 추구하는 세계교회 일치운동의 전략의 목표

① 완전한 일치를 가로막는 장애들을 극복하는 것

② 모든 그리스도인이 유일한 천주교의 성찬례(저자 주: 미사성체성사)를 같이 거행하게 하는 것

③ 유일한 천주교회와 하나 되게(일치 안으로) 모이게 하는 것

이렇게 공의회는 일치운동의 전략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두었다.

4) 아직 이 최종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미국의 한 예를 들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천주교 주도적인 세계교회 일치운동에 대해서 분명한 거부를 천명(闡明)하고 있다.

첫째, 이러한 세계교회 일치운동과의 타협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성경적인 기독교는 가톨릭교회와 협력하거나 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런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① 가톨릭교회는 거짓된 복음과 계속되는 제사와 마리아를 헌신적으로 숭배하는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② 가톨릭교회가 신앙의 최고규범을 항상 ‘전통과 성서’를 신앙의

최고 규범(권위)으로 삼는 한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공통된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필자 주, 이는 성경만이 신앙의 최고 권위임을 부인하고 인간의 전통들도 성경과 동일한 최고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천주교와는 결코 연합 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천주교에서 성장하고 배워온 저자가 천주교와의 일치운동에 대하여 확고부동하게 반대하며 주장하는 내용이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할 줄 안다.

(5) WCC는 천주교와의 일치운동을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필자는 천주교가 전개하고 있는 일치운동의 시작부터 그 동기와 목적과 방법 등을 간략하게나마 소상하게 들춰봤다. 이제 천주교가 기독교를 향하여 전개하고 있는 일치운동의 의도는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를 완전히 흡수 통합하여서 복음적인 기독교를 지상에서 말살하려는 운동은 사탄이 제일 원하는 바이며 기뻐할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이 운동을 벌리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복음적 기독교 말살운동에 전 세계기독교 300여 교파가 합세하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이 아니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필자는 주도자들 소수 외에는 이 사실을 잘 몰라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분명히 WCC의 핵심 주도자들은 의도적으로 천주교와의 일치운동에 협력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WCC 회원 교회들은 주도자들의 비성경적이며 비기독교 적인 잘못된 행보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고 이의 사과와 시정을 촉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확실한 사과나 시정 없이 뻔 한 변명이나 늘어놓고 변화가 없다면 회원 교회들은 단호한 결단을 내려 WCC를 미련 없이 탈퇴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용단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러한 사실이 백일하에 밝혀졌고, 조금만 주의하여 조사하여 보면 뻔히 알 수 있는데도, 아무런 항의나 탈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동조하여 나가는 교파들이 있다면, 먼저 그 교파에서 이 운동에 가담하는 주동자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앙 있는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교회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안다. 만약 이러한 지도자들의 움직임도 없이 침묵뿐이라면 살아있는 평신도들은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옳을 줄 안다.

13. 천주교와의 일치운동은 멸망의 길이다.

종교 개혁자들과 많은 신실한 신학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천주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성경 말씀은 도처에서 배도자들의 멸망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으며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천주교와의 일치운동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유일한 인류구원의 복음을 저버리고 자신들과 인류를 영원한 멸망의 수렁에 빠트리는 행위가 됨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

(1) 배도자 이스라엘의 멸망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반복하였다. 그들은 아무리 경고하고 징계해도 계속 반복하여 같은 배신행위를 중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다.

1) 북 이스라엘의 멸망

북 이스라엘은 그 초기부터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음란히 섬기다가 종내는 B.C. 721년에 앗수르에게 멸망당했다.

2) 남 유대의 멸망

남 유대도 북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배도를 거듭하다가 끝내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

3) 유대의 최후 멸망

유대는 배도의 역사로 얼룩진 과거에 은혜와 약속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귀국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금 저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위에 인간의 유전과 교권, 외식과 위선으로 뒤범벅되어 마침내는 하나님의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최악의 죄악을 범했다. 그리고 그들은 종내에는 AD 70년에 로마제국에게 다시 멸망당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수한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의 배도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어김없었다.

(2) 배도자 가룟 유다의 멸망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하나였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고 자책감으로 목매여 자결하여 배도자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다.

(3) 이세벨과 그를 따라 행음하고 우상제물 먹는 자들의 멸망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계 2:20-23)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의 꾀에 넘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배도자가 되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형벌하신다는 경고는 오늘날의 배도자들에게도 동일한 것이다.

(4) 성경의 배도자들에 대한 영원한 멸망형벌 예고

1) 하나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형벌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 1:7-9)

주님께서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에 주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불신자, 배도자)들에게 주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경고하고 계신다.

2) 말세의 배도자들의 형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 하리니(살후 2:3)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리므로 하나님은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9-12)

배도하는 일은 멸망의 아들(적그리스도)이 출현하기 직전에 일어나고, 배도한 자들은 악한자(멸망의 아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 것들을 믿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배도의 무리인 천주교와 그와 연합하는 자들의 멸망의 형벌에 대한 예언

1) 큰 창녀의 멸망(배도 무리의 주동자의 멸망)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반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계 17:1-6)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니라 네가 본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계 17:15-16)

또 내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계 17:18)

본문에서 큰 창녀는 무시무시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을 타고 호령하는 여전사로 등장한다. 그러나 그녀는 얼마 못가서 그 짐승에게 미움을 받아서 망하게 되어 발가벗기고 살을 뜯어 먹고 불타죽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호화찬란하고 천하를 호령하던 큰 창녀의 종말은 너무도 충격적으로 보인다. 배도자

들의 대표의 불행한 결말을 보고 우리는 큰 교훈과 경고를 받아야 할 줄 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짐승)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와 일시적인 동맹자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마지막때의 적그리스도라고 믿고있다. 그리하여 그가 전세계를 지배하는 총통이 되어서 온갖 권력을 행사하여 당할 자 없는 풍운아(風雲兒)가 될 줄 알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아부하며 그를 알현하고 점수를 따기 위해서 줄서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알자!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그와 밀약을 맺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할 뿐이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교황은 그에게 버림을 받고 처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계 17:16)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네가 본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계17:16)

말세의 거대한 배도의 물결에 쓰나미처럼 떠밀려 천주교로 빠져 들어가면 천주교가 받을 무서운 멸망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저들의 유혹을 받아서 복음 진리를 저버리고 온갖 우상과 미신에 빠지면 저들과 똑같은 배도자의 멸망을 같이 받고 피하지 못할 비운에 같이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2) 배도 무리의 본거지와 그 관할 국가와 지역들의 파멸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 하였도다 하더라(계 18:1-3)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천주교와 연합한 기독교회들과 주님과 복음과 성경진리를 저버리고 그릇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큰 창녀와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같이 받게 된다는 것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

(6) 배도무리의 멸망에 대한 해설가들의 설명

1) 「신세계의 도래」의 해설(적그리스도가 거짓 종교조직을 멸망시킨다.)

홀 린세이는 그의 저서 「신세계의 도래」에서 환난 중기에 가서 더 이상 거짓 종교조직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자 사탄의 노예가 된 자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그런 다음 적그리스도는 위대한 종교적 매춘부를 배신하여 죽이고, 그 창녀의 피 값을 갚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환난기간에 그 창녀를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창녀가 활동하는 곳은 적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의 왕국을 파괴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오늘날 천주교의 힘을 꺾으려고 한다면 천주교의 교황과 추기경과 주교들을 암살하고 중요한 회의와 교회의 건물을 파괴할 것이고, 천주교의 재산과 재정을 몰수하여 천주교를 끝내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저자의 추측은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처참하고 끔직한 천주교의 최후를 제법 그럴 사하게 묘사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상력을 동원한 천주교의 종말이 진정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비극적인 천주교의 불행한 최후를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는가?

환난 중기에 가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와 손을 잡고 일하는 적그리스도가 더 이상 그 종교 조직의 지지가 필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통찰력 있는 지도자이며 놀라운 일꾼이 될 것입니다. 사탄이 들쭉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위의 하나는 그 위대한 창기를 배신하고 그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들은 모두가 대단히 시적입니다. 이 위대한 종교적 매춘부가 진실한 신자들의 피로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의 정부(情夫)의 마음이 그녀를 배신하게 하시어 그녀를 죽이게 하십니다!²⁶⁰⁾

한 가지 떠오르는 의문은 적그리스도가 환난 기간에 이 창기를 죽일 때에 그는 그녀가 지배하는 어떤 지역을 파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창기가 성행하는 곳이 적그리스도의 왕국 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왕국을 파괴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늘 날 로마 카톨릭 교회의 힘을 꺾으려고 한다면 그는 바티칸시나 로마시를 내리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교황과 추기경과 주교들의 암살이 일어나고 또한 어떤 중요한 회의와

260) 홀 린세이 지음. 『신세계의도래』, 김용순 옮김. (서울 : 보이스사. 1989), pp. 226-227.

교회 건물의 파괴가 일어날 것이고 교회 재산과 재정을 몰수하여 그것을 끝맺게 할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양상이 적그리스도가 그를 억누르려고 하는 거짓 종교 조직을 파괴하려 할 때 나타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그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을 세계의 종교 지도자로 군림하고 자기에게 모든 경배를 집중하도록 할 것입니다.²⁶¹⁾

저자는 큰 음녀가 만약 천주교라면 짐승이 어떻게 그를 꺾겠는가 하고 가상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다. 우리는 저자의 깊은 통찰력을 주시하여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2) 「짐승위에 탄 여자」의 해설(큰 음녀에 대한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광경)

데이브 헌트는 그의 저서 「짐승위에 탄 여인」에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결혼한 적그리스도와 사이비세계교회의 밀월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여 적그리스도의 배신으로 비극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변종시켜서 사유화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살시킨 천인공노할 천주교의 죄악에 대한 공의의 심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더욱이 예수의 증인과 성도들의 강물 같은 피를 흘린 대가로 예고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계 17:16-17)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 안다.

무엇보다 음녀와 그 음녀의 왕국에 대한 최종적이고 단호한 심판의 강력한 공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큰 음녀가 짐승과 동맹을 맺고 그 위에 올라타고 황제와 같이 온갖 사치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처참하게 적그리스

261) 같은 책, pp. 228-229.

도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여 참담하게 멸망당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불같이 맹렬한 심판에 대한 경고와 선고를 받은 사실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편의에 의한 이 결혼 즉 적그리스도와 사이비 세계 교회(World Church)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밀월이 끝나면 적그리스도는 등을 돌려서 ‘음녀’(계 17:16)를 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17절). 이 짐승 위에 탄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 고소는 이 여자가 값진 ‘금, 은, 기명과 보석’들을 매매했을 뿐 아니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판 악행이다(계 18:12, 13). 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기록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놀라운 음조로 “하늘에서 음성”이 다음과 같이 들려오고 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 하신지라. 그(녀)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녀)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녀)에게 갚아주라. 그(녀)가 어떻게 자기를 영회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여자)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자이심이니라(계18:4-8).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함께 진정한 동정과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출하자.²⁶²⁾

우리는 계 17장과 18장을 통해 큰 음녀의 비극적인 최후와 그녀의

262) 데이브 헌트 지음. 『짐승위에 탄 여자』, 정태운 옮김. (서울 : 도서출판 누가. 2007), p. 363.

근거지인 큰 성 바벨론의 맹렬한 불의 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같은 인간으로서 깊은 공휼심과 동정심을 금할 수가 없다. 먼저 큰 창녀로 지적되는 교황과 천주교와 다음으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연합하여 같은 배도와 멸망의 운명에 빠지게 되는 한 형제 자매였던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더욱 아프지 않을 수 없다.

나가는 말

(WCC는 넓은 길로의 질주(疾走)를 돌이키라)

천주교와 WCC는 함께 넓은 길(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14절)

천주교와 WCC는 함께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넓은 길(멸망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일시적 편리와 안락을 위하여 그리로 경쟁적으로 달려가고 있다.

천주교와 WCC의 앞에는 문이 크고 가는 길이 드넓고 아무 장애물도 없는 수 십차선 고속도로 같은 길이 펼쳐져 있다. 아주 탄탄하고 매끄럽고 거침없는 대로(大路)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몰려가고 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경찰 기동대의 호위를 받으며 모든 사람의 칭찬과 갈채를 받으며 춤추고 노래하며 거대한 홍수와 같이 유유히 밀려가고 있다.

멸망의 아들(적그리스도)을 따르면 같이 멸망당한다.

일반적인 성경 예언의 해석에 따르면 다니엘서 7장15-27절에 나오는 마지막 짐승과 요한 계시록 13장 1-9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동일한 것으로 세상 마지막 제국을 통치할 자로 보고 있다. 이 짐승의 특징은 사탄(용)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 마흔두달 동안 일을 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다.(계 13:1-7) 그리고 신

성모독 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고 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18절에는 큰 음녀가 바다에서 올라온 붉은 빛 짐승을 탔으나 얼마 못가서 그에게 미움을 받아서 망하고 처참하게 화형을 당한다고 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11-21절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천군천사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오셔서 짐승을 따르든 왕과 장군과 장사들과 모든 사람들을 무찌르고 짐승과 그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진다고 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2절에서는 위의 네 곳에 나오는 짐승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동일하게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다. 여기에서는 위에서 짐승으로 표현된 자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불법한 자, 악한 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멸망의 아들의 중요한 특징들을 4절에 선명하게 기록하였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상의 말씀들을 보아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등장하는 흉측한 짐승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 짐승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예고된 ‘멸망의 아들’임이 틀림없다. 이 멸망의 아들은 사탄의 권능을 받아서 모든 권능을 행했으며 모든 신들과 숭배받는 것들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

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까지 내세웠다. 그 위에 감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아마겟돈으로 집결시켰다. 그러므로 그는 <적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다.

살후 2:8절에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고 하였다. 또 계19:11-21절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백마탄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강림하셔서 그 입의 검으로 만국을 치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한다고 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짐승과 거짓선지자를 함께 잡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나머지는 그 입의 검에 모두 죽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다.

이상의 성경말씀들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세상 종말에 출현할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예고된 ‘멸망의 아들’임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추종하던 큰 음녀(교황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세도는 단명하고 처참하게 막을 내리게 된다고 했다. 또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며 섬기던 모든 사람들도 그가 산채로 잡혀 던져 들어가게 될 영영한 유황불 붙는 못에 다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1: 8)

그러나 그들은 근시안(近視眼)들이어서 머지않아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영원한 파멸의 끝없는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루빨리 그 넓은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그들이 살길이다. 일단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귀를 틀어막고 필사의 탈출을 기도하기 바란다. 좁은 문(예수 그리스도)과 좁고 험악한 영원한 생명(복음)의 길로 뛰어들기 바란다. 이것만이 살길이요 유일한 희망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상에서 우리는 천주교와의 일치(연합)운동은 그들과 같은 배도자들이 되는 결말에 이르게 하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들이 받게 되는 배도자들의 영원한 심판을 똑같이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WCC와 천주교의 일치(연합)운동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자살행위이며 파멸의 지름길인가를 명백히 파악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고 저 사탄의 깊은 것(기만)(계 2:24)을 잘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주교와의 연합의 배도성과 처참한 종말을 내다보고 그런 운동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복음신앙을 끝까지 사수(死守)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계 2:25-27). 혹시나 잘 몰라서 WCC를 따라서 천주교와의 연합운동에 관계를 맺고 있는 교단들과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깊은 사탄의 함정(陷穽)에서 하루속히 과감(果敢)하게 탈출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하게 기원한다.

천주교와의 연합운동에 대한 이상의 글을 마치면서 모든 기독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심으로 권고한다.

1. 천주교와의 연합운동에 유혹되어 그들과 연합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대로 복음신앙을 포기하고 천주교의 이단적인 제물(성체라고 하는)을 받으며 (우상숭배 제물 먹음), 그들의 비 성경적인 교직제도(교황제도)의 희생물로 전락된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기 바란다. 만일 모든 기독교회가 천주교와 연합하여 하나로 귀속된다면 인류구원의 문이 완전히 막히고 인류에게는 흑암과 영원한 멸망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천주교와의 연합운동을 단호하게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2.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천주교의 기독교 흡수 통합운동에 동조하지 말고 냉정히 결별하게 되기를 바란다. WCC회원 교단들은 이 문제를 심도 깊게 연구하여 정통적 성경신앙으로 돌아와서 천주교와 결별하기 바란다.

3. 무엇보다 실제로 그들의 교리상으로 형제 또는 자매 교회도 못되는데 기만하여서 형제라고 부르며 추파를 던지는 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4. WCC의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천주교의 비공식적이고 편법적인 정회원 자격부여를 철회하고, 천주교에게 유리하게 작성한 <세례, 성찬, 직제>문서도 폐기하고 신앙과 직제 위원회에서 천주교 측의 위원들을 철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무엇보다 리마문서(세례, 성찬, 직제)에 준해서 성찬예식서로 만든 <리마예식서>를 성찬식에 사용하는 과오를 결코 범하지 말기 바란다. 이는 천주교의 화체설과 희생제사의 재현과 교황제도를 인정하는 등 급속히 천주교의 우상제사와 우상종교로 전락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6. WCC는 신구교공동사업기구(JWG)를 해체하고 WCC운동에서 천주교를 배제하기 바란다.

7. 세계 루터교, 그리스도의 제자회, 감리교, 오순절 교회, 복음교회 등등은 천주교와의 합의등에 대하여 깊이 재고해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바른 결단을 취하여 그 합의를 파기(破棄)하기를 바란다.

8. 천주교를 회원교회로 영입한 각국의 NCC들은 천주교의 세계기독교 흡수 통합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천주교의 회원권을 취소하기를 바란다.

9. 모든 기독교회는 천주교와 통합하여 사탄종교적인 배도자들이 되고 그들의 미사제사를 받아먹는 반 종교개혁적인 대 과오에 빠지지 않도록 확고부동한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

10. 천주교와의 연합은 배도행위이며, 그러므로 그들과 연합하면 그들과 동일한 배도자들의 형벌을 자초하게 되리라는 점을 재삼 분명히 재확인하게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기독교단들은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로 저들과의 연합을 파기하는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하게 되기를 바란다.

11.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거짓교회인 천주교의 울무에서 벗어나 성경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말씀만을 따르며,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모두 연합하여 더욱 충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더욱 산 소망을 가지고 모든 죄악의 세력을 이기고 임박(臨迫)한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기를 중심으로 간절히 기원한다.

천주교인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권고(총체적 절망에서 구원)

필자가 본서 1, 2, 3권을 통하여 잘못된 천주교 교리들을 에누리 없이 원칙대로 기술함을 양해바라며 천주교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최후로 간곡

히 부탁드립니다.

1. 본서 1, 2, 3 세권을 편견 없이 진지하게 잘 읽어 보기 바란다.
2. 개신교 성경과 천주교 성경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읽되 요한복음 서부터 사도행전,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먼저 읽고 계속하여 많이 읽어보기 바란다.(사도 17,11-12)
3.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기 바란다.(히브 11,6)
4. 구원을 위하여 천주교회나 천주교의 성사나 자신의 선한 행위나 마리아에게 의존하는 것을 그만두기 바란다.(사도 4,12, 필리 3,7-11)
5.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바란다.(야고 1,5-8)
6. 읽은 성경에서 깨달은 바는 실천하기 바란다.(요한 7,17)
7. 천주교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기 바란다.
8.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만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다.(로마 10,8-13)
9. 하나님은 성경적이 아닌 종교에 속한 신도들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묵시 18,4-5, 2코린 6,17-18)
10. 일단 천주교의 장막 속에서 나오면 성경의 진리들이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일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교회, 그 안에서 교제가 있는 교회를 찾기 바란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거짓 가르침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11. 여러분의 천주교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여러분 자신이 천주교를 떠나서 확고하게 성경에 기반을 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은총을 간구한다.

존 밀턴의 애도 시

오! 주여, 주님의 죽음 당한 성도들의 원한을 보수하소서.

그들의 뼈가 차가운 알프스산맥 위에 흩어졌나이다.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막대기와 돌을 섬길 때, 그들은
주님의 진리를 그토록 순결하게 변함없이 지켰나이다.

주님의 책에 그들의 신음을 꼭 기록해 주소서.

저들은 주님의 양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주님의 양떼들이 피에 주린 피이드먼트(주: 서북부
이탈리아 지방)사람들에 의하여 피 흘리며 죽어가나이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도 돌에 맞아 쓰러지나이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골짜기와 하늘까지 울려 퍼집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와 재는 지금도 폭군들이 난무하는 온
이탈리아 땅에 씨가 되어 수백 배의 결실로 자랄
것입니다.

그 폭군들은 주님의 방침을 깨달은 후에 바벨론에 임할
재난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2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발더파 운동은 순수한 성경적이며 복음적
인 신앙과 전도운동이었다. 그들의 신앙과 주장은 초대교회와 같았으
며, 종교개혁자들과 거의 같았다. 천주교 당국은 처음에는 이들에게

관대하였다. 그러나 이운동이 자신들에게 점차 위협이 된다고 느낀 후로는 법으로 금지하였다. ... 결국 종교재판이 시작되면서 수년 동안 피의 살육이 감행되었다. 수천 명이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었으며 그들의 고향은 황폐한 사막이 되었다. 그 뒤로도 무려 7세기 동안이나 무자비한 박해와 살육이 계속되어서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성도들이 희생당하였다. 이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을 지닌 선민 곧 알프스의 이스라엘로 간주하였다. 그 박해는 마침내 크롬웰의 줄기찬 항의와 해 군력과 군사 행동을 통한 위협으로 종식되었다.(저자 주: 일시적으로)

당시의 박해는 올리버 크롬웰의 서기였던 존 밀턴의 14행시에 나타나 있다. 밀턴은 계시록 16장19절과 17장5절을 배경으로 이 시를 썼다.[263)

263) 서요한, 『중세교회사』, (서울 : 그리심, 2003), pp. 751-752.